정책연구 2026-12

세종시 인구변화 진단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중심으로

2026

최성은 · 김송이 · 이상림 · 이인희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26-12

세종시 인구변화 진단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중심으로

최성은·김송이·이상림·이인희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최성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비상임) 김송이 | 충청지방데이터청 주무관
(비상임) 이상림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인희 | 세종연구실 전문연구원
연구지원 안제현, 조휴연 | 세종연구실 조사원

정책연구 2026-12

세종시 인구변화 진단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중심으로

발행인 권 영 걸
발행일 2026년 10월
발행처 세종연구원
30147 세종시 한누리대로 2281
전화: 044-550-3500 팩스: 044-866-8552
홈페이지 : http://www.sri.re.kr

인 쇄 세종신진문화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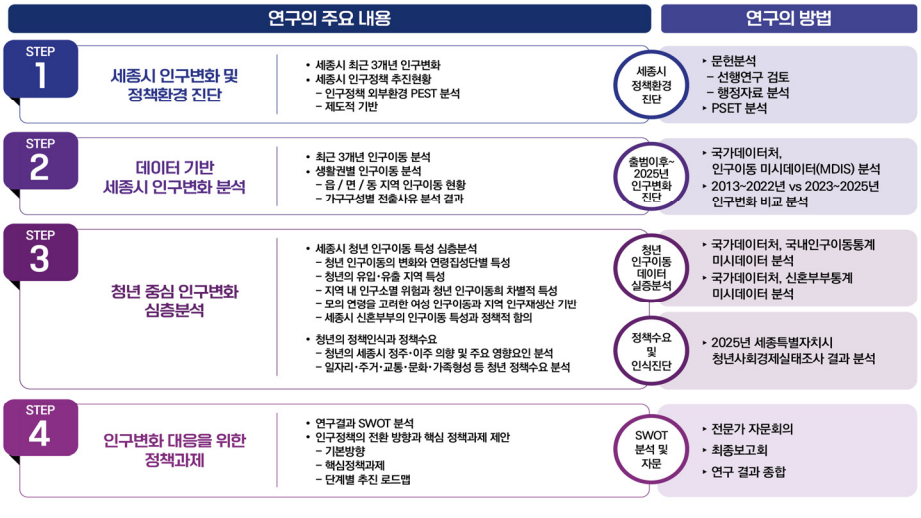
요약 및 정책 제언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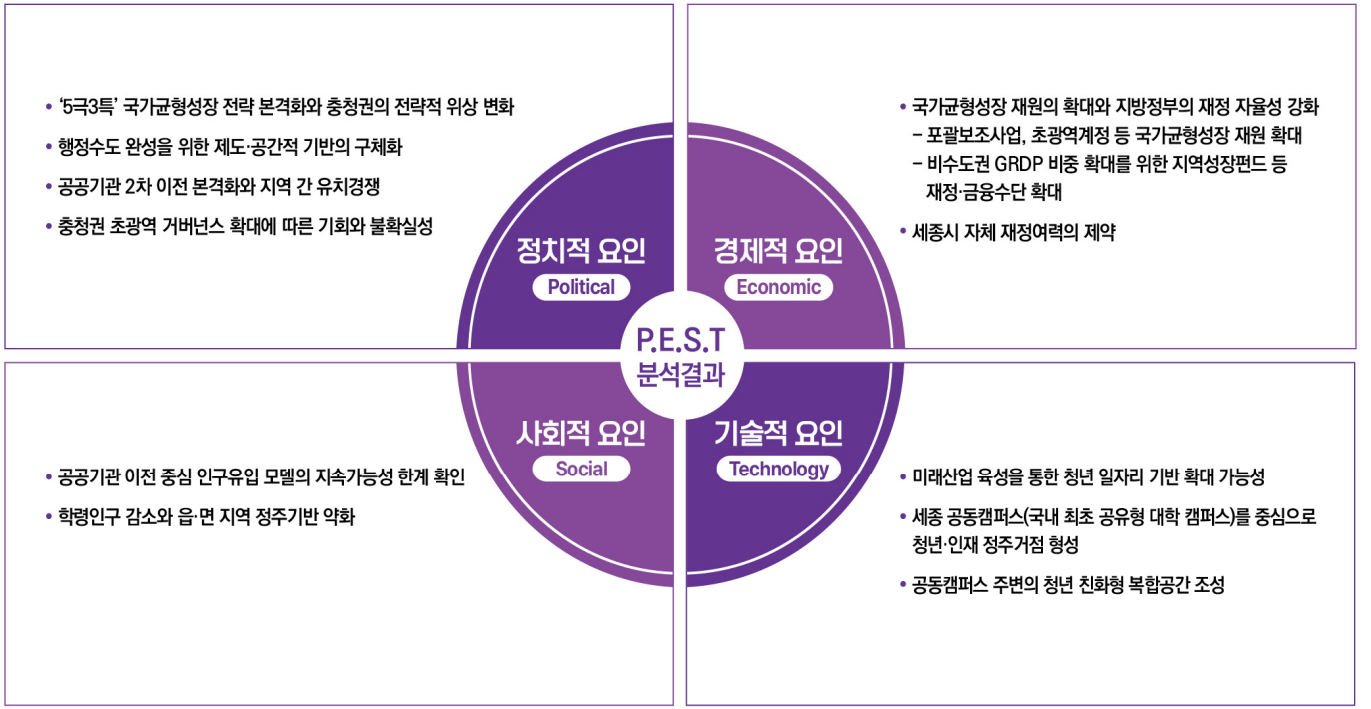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세종시 인구정책환경을 진단하고, 2023~2025년 최근 3개년의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특성을 읍·면·동 및 생활권 단위까지 정밀 분석하여 시정 5기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공표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지역별·연령별·이동사유별 특성을 파악함
-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동지역, 이동사유, 정주 의향과 정책수요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관련 수요를 검토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종시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시정 5기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함



[연구의 주요 내용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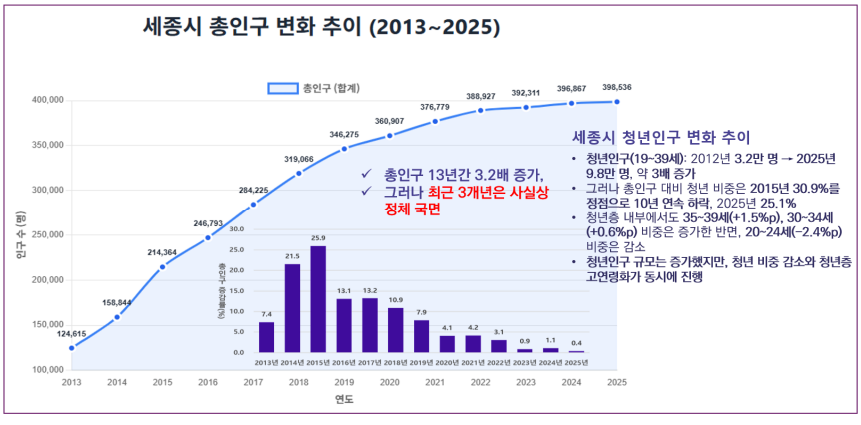
☐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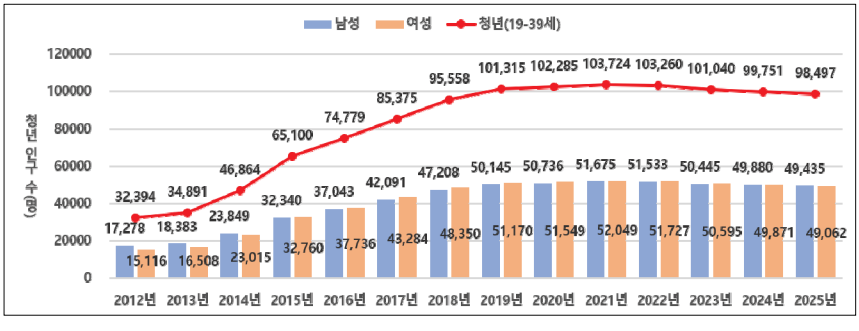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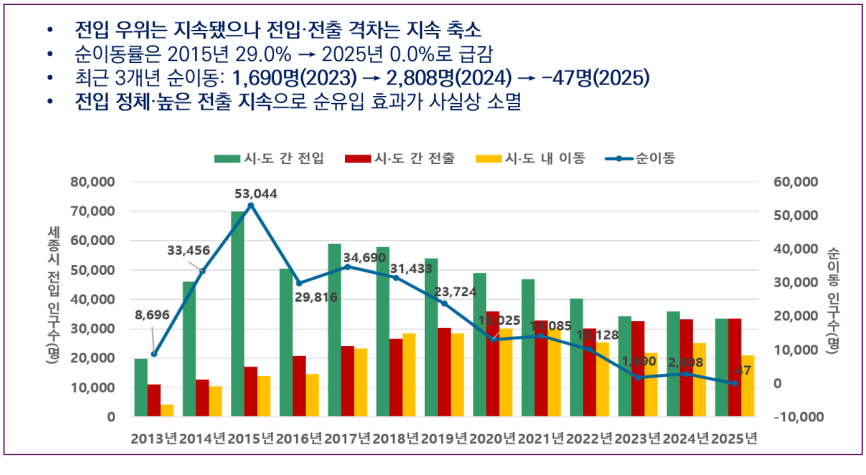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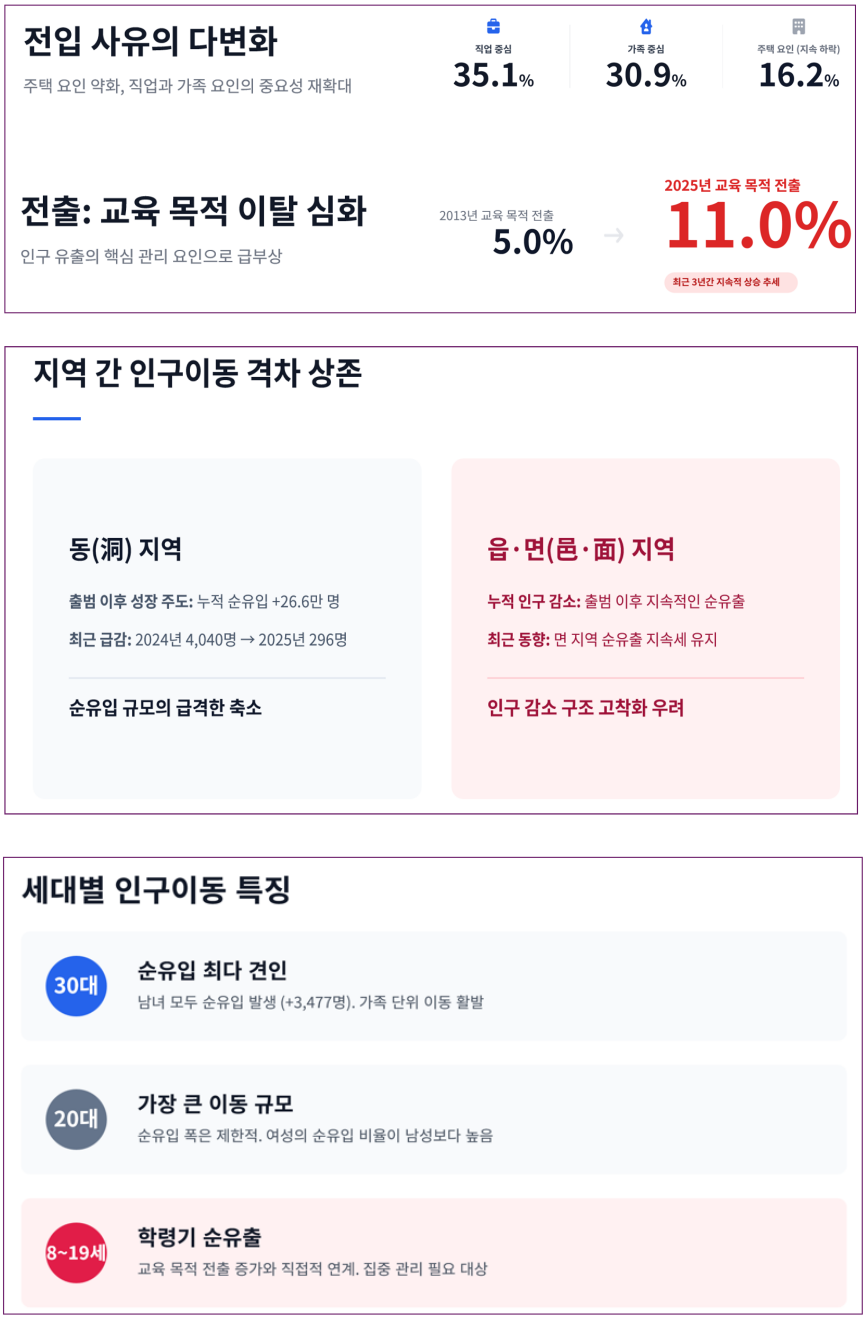
세종시 청년 인구 변화 추이(2012년~2025년)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①]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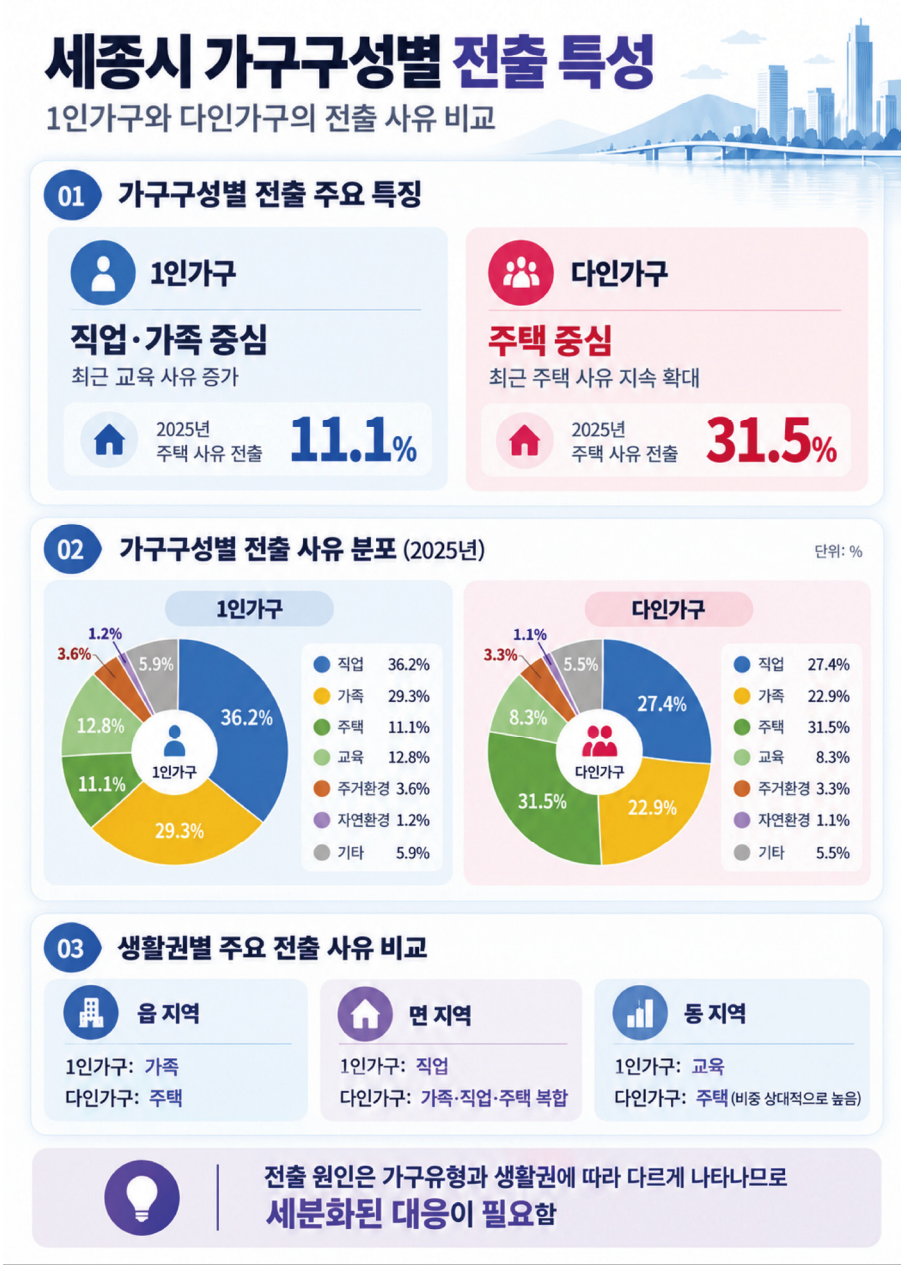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②]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③]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특성]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주요 결과



[청년 인구이동 변화와 연령집단·지역별 특성 요약]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청년 인구이동 사유 변화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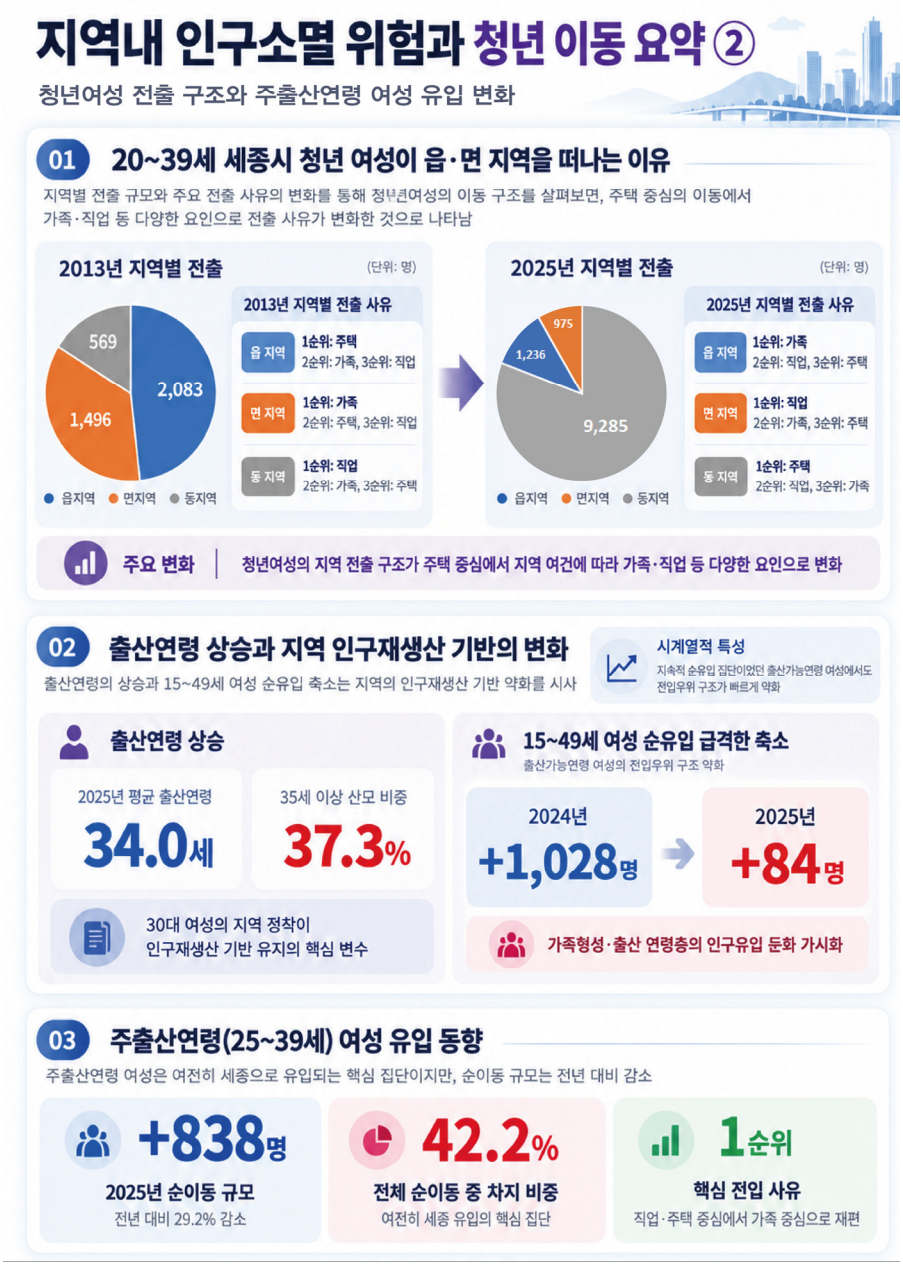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역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이동 요약 ①]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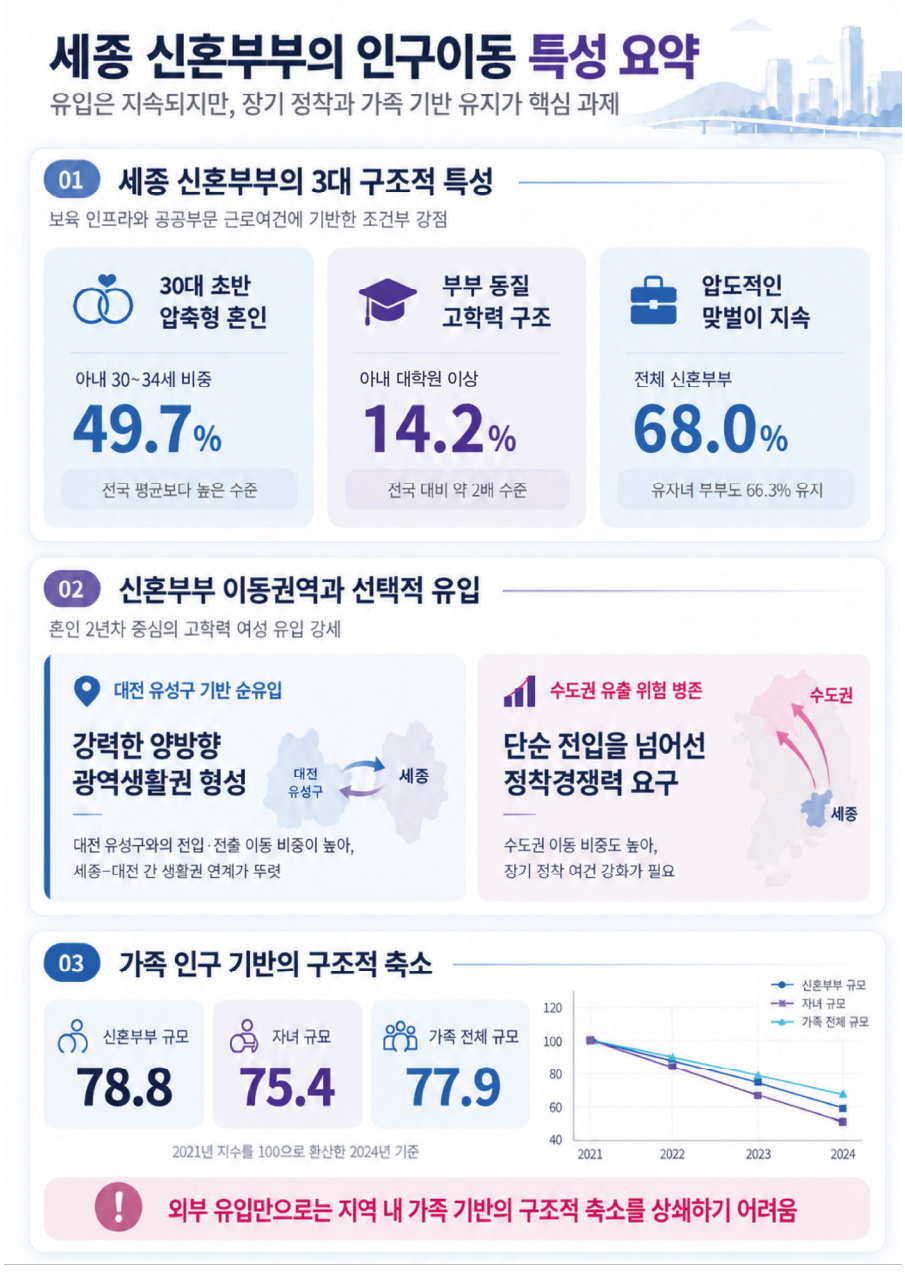
x



[지역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이동 요약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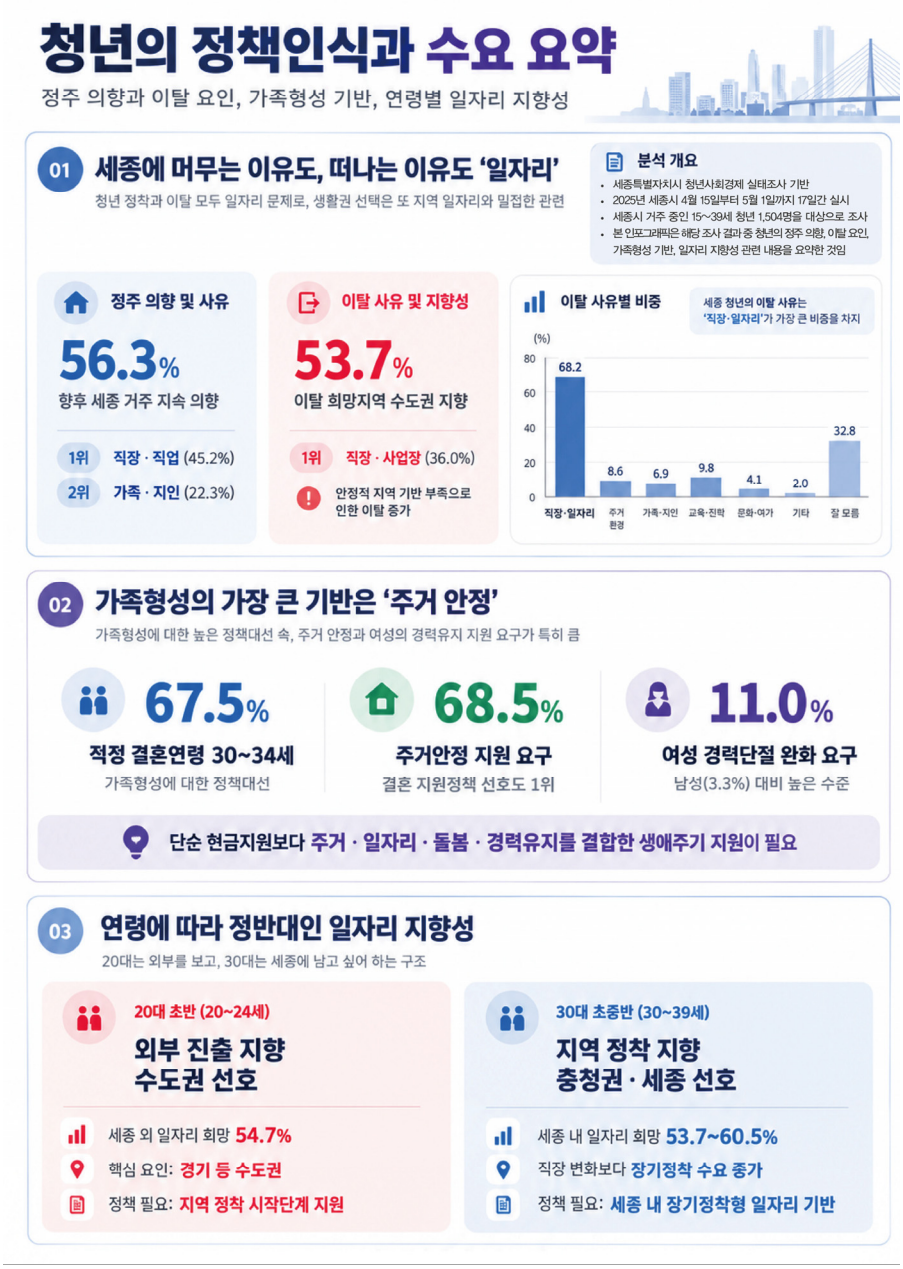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신혼부부 인구이동 특성 요약]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신혼부부통계」



[청년의 정책인식과 수요 요약]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재구성

■ SWOT 분석 결과

Cross-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외부환경 / 내부환경	외부기회 (Opportunities)	외부위협 (Threats)
	• 국가균형성장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 국가·초광역 재원 확대 • 공동캠퍼스·대학가형 복합공간 등 청년 유입거점 확대 • 시정 5기 출범 – 기존 정책체계 재설계의 정책적 기회	• 청년 수도권 집중 및 저출생 지속 • 인접 도시·전국 단위 인구·기능 유치경쟁 심화 • 외생적 인구성장 모델의 한계 • 재정 및 정책 지속가능성의 제약
내부강점 (Strength)	**지속성장(SO전략)**	**우회전략(ST전략)**

• 시정 5기의 높은 인구·청년·자족경제 정책의지
•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젊고 양호한 인구구조
• 행정수도·공공기관·공동캠퍼스 등 차별화된 도시기능
• 데이터 기반 정책역량 확보
	•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확충**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지속가능한 인구정착 기반으로 연결
	  • 공동캠퍼스와 지역대학을 청년 유입거점에서 정착거점으로 전환
	  • 국가균형성장과 충청권 초광역 정책을 새로운 인구·산업 성장기회로 활용
		• **젊은 인구구조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한 재유출 방지와 정착경쟁력 강화**
		  • 20대의 교육·직업 목적 역외유출에 선제 대응
		  • 30대의 정착을 장기적인 인구경쟁력으로 전환
		  • 일자리 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정주경쟁력 강화
		  • 전입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정착 중심의 성과관리로 전환

내부약점 (Weakness)	**역량강화(WO전략)**	**방어전략(WT전략)**

• 행복도시 개발·주택공급에 의존한 인구성장 구조
• 읍·면과 동 지역 간 인구·생활여건 격차
• 자족적 산업·민간 일자리 기반의 상대적 부족
• 청년·주거·산업·출산 등 인구관련 정책의 분절적 추진
	• **국가균형성장과 시정 5기 정책전환을 활용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
	  • 행복도시 의존형 성장에서 자생적 산업·일자리 기반 전환
	  • 분산된 인구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생애과정을 기준으로 정책 간 단절 해소
	  • 정책공급에서 정책도달·정책효과 중심으로 전환
		• **생활권별 인구위험에 대응한 공간차등형·선제적 인구관리**
		  • 읍·면·동을 서로 다른 인구정책 대상지역으로 관리
		  • 읍·면지역의 인구감소를 개발·산업·생활여건의 복합문제로 접근
		  • 동 지역은 신규 유입보다 재유출 방지에 정책 초점 전환
		  • 생활권별 인구위험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관리체계 구축

[SWOT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

■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및 로드맵 제안

[핵심 전략방향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요약]

SWOT 전략		핵심 정책과제
SO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①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③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⑥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대응
ST	젊은 인구구조 유지와 재유출 방지	② 정착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목표·성과관리체계 구축 ③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WO	성장구조·일자리·정책분절이라는 취약성 보완	①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⑤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WT	생활권별 인구감소 위험의 선제적 관리	④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 추진 ⑤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세종시 인구정책 핵심 정책과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 (2026~2027)	중기 (2028~2030)	장기 (2031~2033 이후)
①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 검토	도시교통공사 기능진단, 교통·개발 기능 분리 필요성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설립 추진(조례·출자 등) 및 읍·면 시범 개발사업 착수	개발이익의 읍·면 재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읍·면 전략개발	북부 읍·면 등 후보지 발굴 및 패키지형 개발 기본구상	일자리+주거+교통 +생활SOC 결합형 시범개발 추진	생활권별 성장거점 완성, 인구유입·정착효과 평가
	가족단위 정착패키지	우선 이전기관 대상 패키지 기본 틀 설계	이전기관 확대 적용 및 민간 전문서비스 연계	국가 중추기능 이전 전반으로 확대 운영
② 정착 중심 성과관리	전입자1·3·5년 정착률 관리	정착률 지표 정의 및 기준선(baseline) 산출	연령·가구유형·전입사유별 정착률 정례 분석·공표	정착률을 시정 핵심 인구지표로 제도화
	재전출 원인 모니터링	전출사유·전출지역 분석체계 설계	주요 위험집단 (수도권 재유출, 청년 교육·직업 전출) 상시 관리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설계 환류 정착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 (2026~2027)	중기 (2028~2030)	장기 (2031~2033 이후)
② 정착 중심 성과관리	성과지표–예산 연계	주요 사업에 '정착기여도' 항목 시범 적용	인구정책 관련 사업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	정착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 정착
③ 생애 이행형 정착정책	세종형 청년정착 패키지	기존 일자리·주거·가족· 돌봄 사업의 생애단계별 재분류	생애단계별 패키지 통합 제공	성과평가 기반 패키지 재설계
	공동캠퍼스· 지역대학 정착거점화	지역기업· 공공기관 연계 일경험·인턴십 시범	교육→일경험→ 취업→주거 경로 체계화, 후속교육 확충	집현동 대학가형 복합공간 등과 연계한 정착거점 완성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통합전달	청년청 기능 설계 (기획·조정·성과관리 중심), 전달거점 연계	청년청 등 전담조직 운영, 통합안내체계 가동	청년정책 통합전달체계 정착
④ 공간 차등형 인구정책	생활권별 목표 차별화	동·조치원읍·북부 읍·면·행복도시 인접 면지역별 목표 설정	생활권별 목표를 부서 계획·예산에 반영	생활권별 성과평가 및 목표 재설정
	읍·면 인구활력 프로젝트	시범지역 선정 및 지역자원 기반 사업 설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확산	읍·면 인구활력 회복의 구조적 기반 확보
	세종형 인구이동 조기경보체계	본 연구의 읍·면·동 분석체계를 상시 관리도구로 전환, 위험신호 기준 설정	위험 발생 시 부서 공동대응 절차 운영	예측 기능을 포함한 체계 고도화
⑤ 범부서 인구대응 체계	인구영향 검토 도입	주요 정책보고서·사업계 획에 검토항목 시범 포함	적용대상 확대 및 검토지침 마련	조례 등 제도화 여부 검토
	범부서 인구정책 조정체계	관련 부서 협의체 구성, 사업 중복·공백1차 점검	정례 점검 및 공동 인구목표 운영	시정 전반의 인구대응체계로 정착
	인구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차 인구변화 진단 정례화	진단 결과의 차년도 정책·예산 환류	공약·도시개발·산업 정책 성과의 인구변화 연계 점검 정착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 (2026~2027)	중기 (2028~2030)	장기 (2031~2033 이후)
⑥ 중앙행정기관2차 이전 대응	단계별 인구유입 시나리오	2027년 이전 대상 27개 기관(2,995명) 중심 저·중·고위 시나리오 산출 및 반기별 갱신체계 구축	청사 신축 후 이전 대상 17개 기관(6,934명)의 단계별 이전계획 반영 및 시나리오 갱신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연계한 중장기 시나리오 운영
	기관별 맞춤형 정착지원	우선 이전기관 종사자·가구 정착수요조사 및 이전 준비·초기 정착지원체계 구축	이전기관 확대에 따른 가족단위 정착지원 시행 및 기관별 수요 반영	추가 이전기관으로 지원 확대 및 정착성과 기반 지원체계 개선
	국회·대통령 소속기관 이전 종사자 정주지원 연계	특별공급·세제 특례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정주지원 협의체 구성 검토	주거·교통·교육·돌봄 지원 연계 및 종사자 사전 정착수요조사	의사당 등 실제 업무개시와 연계한 종사자·가구 정착지원 및 성과관리
	실제 인구유입·정착성과 모니터링	전입률·가족동반율·거주 유지율 등 지표 설계 및 기준선 구축	기관별 실제 전입·재전출·가족동반 정착성과 정례 분석	장기 정착성과 평가 및 인구유입 시나리오·정주정책 환류

■ 정책 제언

□ 첫째, 양적 인구성장에서 인구구조의 균형과 정주 지속성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복도시 개발, 신규 주택공급을 기반으로 빠른 인구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고 청년층의 이동성이 확대되는 등 기존 성장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인구정책은 단순한 총인구 증가보다 인구구조의 균형, 정주 지속성, 시민 삶의 질,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
-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되, 실제 인구정책의 성과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율뿐 아니라 연령구조, 계속거주의향, 정주만족도, 재전출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주택공급 역시 단순한 인구유입 수단이라기보다 도시의 자족성과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도시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이에 세종시 인구정책은 중장기적으로 ① 인구구조의 균형 유지, ② 정주 지속성과 삶의 질 제고,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핵심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둘째, 신규 인구유입과 함께 기존 주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장기정착 기반 강화

○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 유입된 청년·가족세대가 중장년기에 진입하고 자녀도 성장하면서 새로운 정주 수요와 이동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는 정책과 함께, 이미 유입된 주민이 생애주기의 변화에도 세종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함

- 청년기에는 교육·일자리·초기주거, 가족형성기에는 주거안정·돌봄·일·생활 균형, 중장년기에는 자녀교육·경력발전·주거 선택권 등 생애단계별 주요 이탈요인을 점검
- 특히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과 교육수요 변화가 가구 단위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의 협력을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구조 역시 다양한 가구형태와 생애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공급량 중심에서 거주 안정성과 주거 선택권 중심으로 접근

□ 셋째, 객관적 정주여건과 함께 지역에 대한 정주의향·관계형성까지 정책범위 확대

○ 일자리·주거·교육·교통·문화 등 객관적인 정주여건은 지역정착의 중요한 조건이나, 이러한 여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장기적인 정주의향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님

- 특히 청년층의 경우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할과 가능성을 경험하는 과정이 지역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은 '정주여건 개선 → 정착'이라는 단선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관계 형성 → 참여 경험 → 정주의향 →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고려한 설계가 요구됨

- 지역대학, 청년활동 공간, 지역 커뮤니티,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청년을 연결하여 지역에서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행정 역시 모든 사업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정책성과도 인구유입이나 사업참여 실적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 변화를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함

- 지역활동 참여, 관계망 형성, 지역사회 소속감, 계속거주의향 등 정착으로 이어지는 질적 변화를 보완적 성과지표로 활용
- 특히 청년정책은 단순한 거주기간 연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

□ 넷째, '젊은 도시' 이후의 고령화·1인가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 세종시는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이나, 향후 출범 초기 유입인구의 연령 상승과 저출생 지속에 따라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청년·신혼·출산 중심의 기존 정책과 함께 중장년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돌봄·교통·의료·생활서비스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 1인가구는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따라 형성 원인과 정책수요가 상이하므로 주거·안전·돌봄·사회적 관계망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세분화된 접근 필요
- 읍·면과 동지역의 고령화 및 가구구조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생활권별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요 별도 관리 필요

❍ 인구정책의 대상도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외국인·이주배경 인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취업·정주·가족생활·교육·사회통합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할 시기임
- 통근·통학·업무·교육 등으로 세종을 이용하는 생활인구 역시 도시서비스 수요와 지역활력의 관점에서 검토할 대상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만큼, 1인가구·외국인·이주배경인구 및 생활인구에 대한 심층분석은 후속연구에서 다뤄져야 함

□ **다섯째,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을 현황 진단에서 정책효과 검증 단계로 발전**

○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인구이동 미시자료 활용과 데이터 협업을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인구정책 진단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읍·면·동별 전입·전출, 연령·성별·이동사유를 일정 주기로 분석하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사회조사 등과 연계하여 실제 이동행태와 정주의향을 함께 분석
- 청년인구 감소와 순이동은 서로 다른 현상일 수 있으므로 연령집단의 진입·이탈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실제 지역 간 이동을 구분하여 정책대상과 개입시점을 설정할 필요
- 향후에는 일자리·교육·주거·교통 등 주요 정책요인이 실제 인구이동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주요 개발사업 및 인구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정책평가 연구를 확대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대규모 정책변화 역시 예상 유입인구 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입·가족동반·정착·재전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 **(활용)** 본 연구성과와 인구데이터를 기획·산업·도시·주택·교육·교통 등 관계부서(시의회 포함)와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과의 정책협의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시정 의사결정과 정책평가, 국가·지역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차 례

1장 서 론 ·····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과 질문 ····· 3
2. 연구의 목적 ····· 8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1. 연구의 범위 ····· 9
 1) 공간적 범위 ····· 9
 2) 시간적 범위 ····· 9
 3) 내용적 범위 ····· 9
2. 연구의 방법 ····· 12

3절 충청지방데이터청 데이터 협업 개요 ····· 13

1.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의 협업 개요 ····· 13
2. 자료정제 및 분석 과정(충청지방데이터청) ····· 16

2장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 19

1절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변화 ····· 21

1. 세종시 인구변화 ····· 21
2.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 28

2절 세종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 39

1.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 39
 1) 정치적 환경 ····· 39
 2) 경제적 환경 ····· 42
 3) 사회적 환경 ····· 43

4) 기술 및 혁신 환경 ····· 45
5) 외부환경 PEST분석의 시사점 ····· 46
2. 제도적 기반 ····· 49
1)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49
2) 시정 5기 공약과 인구정책 방향 ····· 59

3장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 63

1절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 ····· 65

1.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 65
2. 성·연령별 인구이동 분석 ····· 77

2절 생활권별 인구이동 분석 ····· 79

1. 세종시 읍 지역 인구이동 현황 ····· 79
2. 세종시 면 지역 인구이동 현황 ····· 94
3.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 110
4. 가구구성별 전출사유 분석 결과 ····· 127

3절 종합시사점 ····· 132

1.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의 종합적 특성 ····· 132
2. 생활권별 인구이동의 종합적 특성 ····· 135

4장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 137

1절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특성 심층분석 ····· 139

1. 청년 인구이동의 변화와 연령집단별 특성 ····· 139
2. 청년의 유입·유출 지역 특성 ····· 146
3.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인구이동의 차별적 특성 ····· 154
1) 세종시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의 공간적 격차 ····· 154
2) 청년인구 증가의 둔화와 감소 전환 ····· 157
3) 읍·면 지역 청년의 유입·유출 구조와 이동 사유 ····· 162
4) 읍·면 지역 청년 전출의 연령·성별 차이 ····· 170

5) 읍·면 지역 청년여성의 선택적 유출과 소멸위험 ····· 175
6) 동 지역 20대 청년의 유입·정착 구조와 최근 변화 ····· 180
4. 모(母)의 연령을 고려한 여성 인구이동과 지역 인구재생산 기반 ····· 190
1) 모(母)의 주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의 인구이동 변화 ····· 190
2) 주출산연령 여성(25~39세)의 인구이동 변화 ····· 195
5.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200
1) 세종시 신혼부부의 특성 ····· 200
2)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 ····· 206
3)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 규모와 인구증감 함의 ····· 213
4) 정책적 시사점 ····· 223
6. 청년 이동과 정착의 종합시사점 ····· 227

2절 청년의 정책인식과 정책수요 ····· 231

1. 세종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분석 개요 ····· 231
1)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 231
2) 주요 분석 결과 ····· 233

5장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265

1절 연구결과 SWOT 분석 ····· 267

1. 내부요인 ····· 267
2. 외부요인 ····· 269
3. SWOT분석 결과를 고려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 ····· 271

2절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 276

1. 기본방향 ····· 276
2. 핵심 정책과제 ····· 277
1)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 277
2) 정착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목표·성과관리체계 구축 ····· 279
3)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 280
4)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 추진 ····· 281

5)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 282
6)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는 인구유입 시나리오형 정책과제 · 283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 287

6장 결론 ····· 291

1절 연구결과 요약 ····· 293

1. 연구의 목적 ····· 293
1) 연구의 목적 ····· 293
2) 연구의 주요 내용별 순서 ····· 294
2. 주요 내용별 시사점 ····· 295
1)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 295
2)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 297
3)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 304
4) 청년의 정책 인식과 정책수요 ····· 314

2절 정책 제언 ····· 315

1.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315
1)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총괄표 ····· 316
2) ①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 316
3) ② 정착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목표·성과관리체계 구축 ····· 318
4) ③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 319
5) ④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 추진 ····· 320
6) ⑤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 321
7)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는 인구유입 시나리오형 정책과제 · 322
2. 정책 제언 ····· 331

참고문헌 ····· 335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1-2] 연구의 흐름 ····· 11
[표 1-3]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변화 분석을 위한 과정 ····· 15
[표 1-4] 선행연구와의 세부 분석 차이 ····· 15

[표 2-1] 세종시 전체 인구별·세대별 추이 ····· 21
[표 2-2] 세종시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 23
[표 2-3] 세종시 연령그룹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 ····· 24
[표 2-4]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중 변화 추이(총인구) ····· 24
[표 2-5]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중 변화 추이(남자) ····· 25
[표 2-6]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중 변화 추이(여자) ····· 25
[표 2-7]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요약) ····· 26
[표 2-8]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백분율) ····· 27
[표 2-9] 세종시 읍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 29
[표 2-10] 세종시 읍 지역 가구원 수 추이 ····· 29
[표 2-11] 세종시 면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 31
[표 2-12] 세종시 면 지역 가구원수 추이 ····· 31
[표 2-13] 세종시 동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 32
[표 2-14] 세종시 동 지역 가구원수 추이 ····· 32
[표 2-15] 세종시 성별·지역별 평균 연령 추이 ····· 35
[표 2-16] 세종시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 36
[표 2-17] 세종시 가구원수별 현황 ····· 38
[표 2-18] 전략별 세부 과제 수 ····· 49
[표 2-19] 전략별 중점과제 ····· 49
[표 2-20] 부서별 사업 개수 ····· 50
[표 2-21] 지역 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전략의 세부과제 ·· 51

[표 2-22]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전략의 세부과제 ·· 52
[표 2-23]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구축 전략의 세부과제 ····· 54
[표 2-24]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의 세부과제 ····· 55
[표 2-25] 전략별 세부과제 수, 예산 ····· 56
[표 2-26]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청년정책담당관의 과제 ····· 57
[표 2-27]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청년 관련 과제 ····· 58
[표 2-28] 공약 유형 분류기준 ····· 60
[표 2-29] 인구정책 유형별 시정 5기 공약과제 현황 ····· 60

[표 3-1]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 66
[표 3-2]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 추이 ····· 68
[표 3-3]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 추이 ····· 70
[표 3-4] 세종시의 읍·면·동 별 인구이동 현황 ····· 71
[표 3-5] 최근 3년간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누계 현황 ····· 74
[표 3-6] 세종시 연도별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2012~2025년) ····· 75
[표 3-7]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 78
[표 3-8] 세종시 읍 지역 순이동의 변화 ····· 79
[표 3-9] 최근 3년간 읍 지역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 81
[표 3-10]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 82
[표 3-11] 세종시 읍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83
[표 3-12] 세종시 읍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 83
[표 3-13] 세종시 읍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 84
[표 3-14]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86
[표 3-15]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 88
[표 3-16]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 89
[표 3-17]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 90
[표 3-18]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 92

[표 3-19]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 93
[표 3-20] 세종시 면 지역 전입/전출 현황 ····· 94
[표 3-21] 최근 3년간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분석 ····· 95
[표 3-22]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 97
[표 3-23] 세종시 면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97
[표 3-24] 최근 3년간 세종시 면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 98
[표 3-25] 세종시 면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 99
[표 3-26]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 103
[표 3-27]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지역 현황 ····· 104
[표 3-28]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성별 ····· 105
[표 3-29]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 108
[표 3-30]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 109
[표 3-31] 세종시 동 지역 전입 / 전출 현황 ····· 110
[표 3-32] 최근 3년간 동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분석 ····· 112
[표 3-33] 세종시 동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 113
[표 3-34]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114
[표 3-35] 최근 3개년 세종시 동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 115
[표 3-36] 세종시 동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 116
[표 3-37]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 118
[표 3-38]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 120
[표 3-39]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 121
[표 3-40]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 122
[표 3-41]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 124
[표 3-42]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 125

[표 4-1] 세종시 읍·면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2013년 대비 2025년) ·· 155
[표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 156
[표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 ····· 157
[표 4-4] 19~39세 청년의 전입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 163

[표 4-5] 청년의 전입 이전 거주지역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 165
[표 4-6] 19~39세 청년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 167
[표 4-7] 청년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 169
[표 4-8] 20~39세 여성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 177
[표 4-9] 20~39세 여성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 179
[표 4-10] 세종시 20대 청년 동 지역 순이동의 변화 ····· 180
[표 4-11]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전출 사유 구조 ·· 182
[표 4-12]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2023~2025년) ·· 183
[표 4-13]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 사유 변화 추이 : 20대 ····· 184
[표 4-14]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내 이동 변화 ····· 185
[표 4-15]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 현황 ····· 186
[표 4-16]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현황 ····· 187
[표 4-17]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출자의 전출지역 현황 ····· 188
[표 4-18]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입자의 성별 현황 ····· 189
[표 4-19]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출자의 성별 현황 ····· 189
[표 4-20]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율 비교(전체 신혼부부) ····· 204
[표 4-21]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율 비교(유자녀 신혼부부 한정) ····· 204
[표 4-22] 인구이동 유형별 혼인연차 구성비 ····· 207
[표 4-23]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의 주요 목적지와 출발지 구성 ····· 211
[표 4-24] 세종시 신혼부부 유입·유출 순이동 규모 ····· 215
[표 4-25] 세종시 신혼부부 자녀 유입·유출 순이동 규모 ····· 216
[표 4-26] 세종시 신혼부부 가족 유입·유출 순이동 규모 ····· 217
[표 4-27]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중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문항 ·· 232
[표 4-28]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주된 사유 ····· 234
[표 4-29] 향후 세종시 내 거주 희망 지역 ····· 235
[표 4-30] 향후 세종시 이외 거주 희망 지역 ····· 236
[표 4-31]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 ····· 238
[표 4-32] 청년 주거 관련 필요한 정책 ····· 239
[표 4-33] 청년 결혼관_결혼에 대한 인식 ····· 240

[표 4-34] 청년 결혼관_적정 결혼 연령 ····· 241
[표 4-35] 청년 결혼관_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 242
[표 4-36]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혼 지원 대책 ····· 244
[표 4-37] 임신·출산·육아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대책 ····· 246
[표 4-38] 청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 248
[표 4-39] 청년 건강을 위한 필요 정책 ····· 250
[표 4-40] 청년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 ····· 252
[표 4-41] 미취업 기간_미취업 기간 동안 주로 한 활동 ····· 254
[표 4-42]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 255
[표 4-43] 희망하는 직장(일) 유형 ····· 256
[표 4-44] 중소기업 취업 의향 ····· 257
[표 4-45]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 ····· 258
[표 4-46] 세종시 외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 ····· 259
[표 4-47] 청년 지원 사업 인지도 ····· 260
[표 4-48] 청년 희망 지원 사업 분야 ····· 261
[표 4-49] 위원회 참여 의향 및 사유 ····· 263

[표 5-1] 핵심 전략방향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요약 ····· 276
[표 5-2] 세종시 인구정책 핵심 정책과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 288

[표 6-1] 핵심 전략방향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요약 ····· 316
[표 6-2] 세종시 인구정책 핵심 정책과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 329

그림 차례

[그림 1-1] 세종시 월별 순이동률 변화추이 ····· 4

[그림 2-1] 전국 및 세종시 평균연령 변화 추이 ····· 34
[그림 2-2] 전국 및 세종시 1인 가구 변화 추이 ····· 37
[그림 2-3]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 48

[그림 3-1]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의 연도별 변화 ·· 75
[그림 3-2]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85
[그림 3-3]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87
[그림 3-4]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 91
[그림 3-5]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 91
[그림 3-6]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비율 ····· 100
[그림 3-7]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비율 ····· 102
[그림 3-8]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 106
[그림 3-9]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 107
[그림 3-10]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비율 ····· 117
[그림 3-11]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비율 ····· 119
[그림 3-12]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 123
[그림 3-13]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 123
[그림 3-14]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 128
[그림 3-15] 세종시 읍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 129
[그림 3-16] 세종시 면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 130
[그림 3-17] 세종시 동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 131

[그림 4-1] 세종시 청년인구의 순이동 변화(2012~2025년) ····· 140
[그림 4-2]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대비 청년 인구이동 비율(2012~2025년) ·· 140

[그림 4-3]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출 차이(2012~2025년) ····· 142
[그림 4-4]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입 차이(2012~2025년) ····· 143
[그림 4-5]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내 이동 차이(2012~2025년) ····· 145
[그림 4-6]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 148
[그림 4-7]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 149
[그림 4-8]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특징(수도권 vs. 그 외 지역) ··· 149
[그림 4-9] 세종시 시·도 간 전입·전출 인구 중 청년 비율:
수도권 vs. 그 외 지역(2013·2025년) ····· 150
[그림 4-10] 청년의 전입/전출 사유 연도별 변화 ····· 151
[그림 4-11]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 사유 대비 청년 인구이동 사유 비율
(2013년 vs. 2025년) ····· 153
[그림 4-12] 세종시 청년 인구 변화 추이(2012년~2025년) ····· 158
[그림 4-13]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현황(2012~2025년) ····· 160
[그림 4-14]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 비교(2012~2025년) ·· 160
[그림 4-15] 읍·면 지역 청년인구의 남녀인구 변화 특성 ····· 161
[그림 4-16]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주 사유 변화 ····· 163
[그림 4-17]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온 청년의 이전 거주지 변화 ····· 165
[그림 4-18] 읍, 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의 전출사유 비교 ·· 167
[그림 4-19]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전출 지역 변화 ····· 169
[그림 4-20] 직업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23~2025년 누적) ·· 171
[그림 4-21] 주택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23~2025년 누적) ··· 172
[그림 4-22]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23~2025년 누적) ··· 175
[그림 4-23] 9개 면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와 20~39세 여성 인구수 비교 ·· 176
[그림 4-24]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 178
[그림 4-25] 20~39세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 ····· 179
[그림 4-26] 세종시 동 지역 순이동의 변화 : 20대 ····· 181
[그림 4-27]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20대 ····· 188
[그림 4-28] 세종시 모(15~49세)의 순이동 변화 ····· 190
[그림 4-29]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대비 모(母)의 인구이동 비율 ····· 191

[그림 4-30] 15~49세 여성의 전입·전출 사유별 인구 변화 ····· 193
[그림 4-31] 세종시 전입 사유별 15~4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 193
[그림 4-32] 세종시 전출 사유별 15~4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 194
[그림 4-33] 세종시 주출산연령대 여성인구(25~39세)의 순이동 변화 ····· 195
[그림 4-34]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에서 2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2023~2025년) ····· 196
[그림 4-35] 주출산연령대 여성인구(25~39세)의 전입/전출 사유 연도별 변화 ·· 197
[그림 4-36] 세종시 전입 사유별 25~3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 198
[그림 4-37] 세종시 전출 사유별 25~3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 199
[그림 4-38] 신혼부부 아내의 연령집단별 구성비 비교(전국·세종), 2024년 ·· 201
[그림 4-39] 혼인 당시 부부 교육수준 비교(전국·세종), 2024년 ····· 202
[그림 4-40]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율 비교(전국·세종), 2024년 ····· 203
[그림 4-41] 부부간 연령차 분포 비교(전국·세종), 2024년 ····· 205
[그림 4-42] 인구이동 유형별 자녀수 구성비 비교, 2024년 ····· 208
[그림 4-43] 인구이동 유형별 아내의 교육수준 구성비 비교, 2024년 ····· 209
[그림 4-44] 인구이동 유형별 아내의 연령구간 구성비 비교, 2024년 ····· 210
[그림 4-45]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의 대전·충남 내 주요 목적지와 출발지 구성 ·· 212
[그림 4-46] 세종시 신혼부부 전입·전출·순유입 규모 추이, 2021~2024년 ·· 214
[그림 4-47] 세종시 신혼부부 자녀 전입·전출·순유입 규모 추이, 2021~2024년 ·· 216
[그림 4-48] 세종 계속거주 신혼부부·자녀·가족 규모 지수 추이(2021년=100) ·· 218
[그림 4-49] 세종시 무자녀 신혼부부 이동 규모 추이, 2021~2024년 ····· 219
[그림 4-50] 신혼부부 순유입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 2021~2024년 ··· 219
[그림 4-51] 전입·계속거주 부부의 혼인 2년차·5년차 비중 추이, 2021~2024년 ·· 220
[그림 4-52] 이동유형별 무자녀 비중 추이, 2021~2024년 ····· 221
[그림 4-53] 이동유형별 아내25~29세 비중 추이, 2021~2024년 ····· 222
[그림 4-54]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 231
[그림 4-55]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주된 사유별 비율 ·· 233
[그림 4-56] 임신·출산·육아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대책별 비율 ····· 245
[그림 4-57] 청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별 비율 ····· 247

[그림 4-58] 청년 건강을 위한 필요 정책별 비율 ····· 249
[그림 4-59] 청년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별 비율 ····· 251
[그림 4-60] 위원회 참여 의향 없는 사유별 비율 ····· 262

[그림 5-1] SWOT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 ····· 275

[그림 6-1] 연구의 주요 내용과 과정 ····· 294
[그림 6-2]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 295
[그림 6-3]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① ····· 297
[그림 6-4]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② ····· 298
[그림 6-5]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③ ····· 299
[그림 6-6]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특성 ····· 304
[그림 6-7] 청년 인구이동 변화와 연령집단·지역별 특성 요약 ····· 308
[그림 6-8] 청년 인구이동 사유 변화 요약 ····· 309
[그림 6-9] 지역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이동 요약 ① ····· 310
[그림 6-10] 지역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이동 요약 ② ····· 311
[그림 6-11] 신혼부부 인구이동 특성 요약 ① ····· 312
[그림 6-12] 신혼부부 인구이동 특성 요약 ② ····· 313
[그림 6-13] 청년의 정책인식과 수요 요약 ····· 314
[그림 6-14] SWOT분석 결과 ····· 315

서 론

1장

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 연구의 범위와 방법
3절 | 충청지방데이터청 데이터 협업 개요

1장 |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질문

□ **출범 후 10년과 상이한 최근 3년의 세종시 인구변화 진단**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계획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인구성장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세종시의 인구변화는 과거의 지속적인 성장 흐름과 구별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 하락과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자연적 증가에 기반한 인구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과거 세종시 인구증가를 주도하였던 신규 주택 공급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대규모 전입효과도 점차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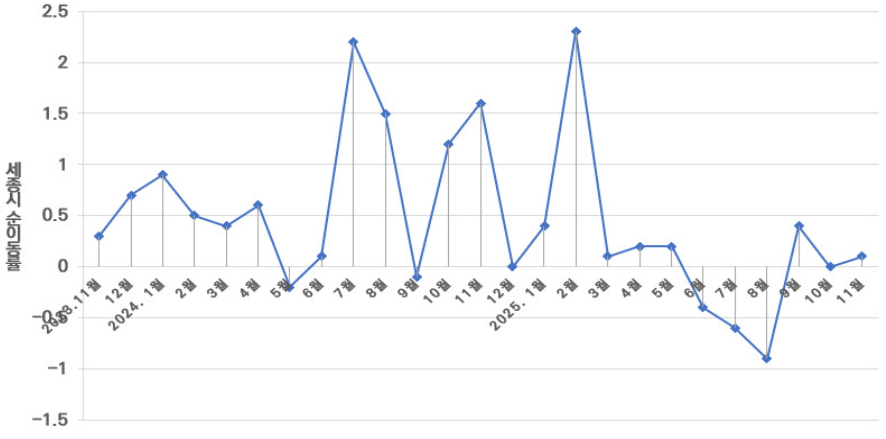
○ 특히, 수도권과의 인구이동 관계 변화는 세종시 인구변화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

○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도시 설치 목적의 실현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지표**에 해당함

- 그러나 최근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 우위가 약화되고, 일부 월별 자료에서는 수도권 전입보다 수도권 전출이 많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2025)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세종

시와 수도권 간 순이동 규모는 출범 초기의 뚜렷한 순유입에서 점차 축소되어 2023년과 2024년에는 사실상 균형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수행해 온 기능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1-1] 세종시 월별 순이동률 변화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2025.9.17.

❍ 이러한 변화는 세종시의 최근 인구감소가 출산율 저하라는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설치 목적과의 정합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존의 인구성장 전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함

- 단순한 인구 규모의 증가보다 현재 거주 인구의 정착과 핵심 연령층의 유출 방지, 지역 내 생애주기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인구증가 전제 정책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이동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인구정책도 출산지원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돌봄 및 지역 내 성장기회를 포괄하는 정주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정 5기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점검

❍ 세종시는 2026년 7월 출범한 시정 5기 비전으로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정목표(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및 25개 추진전략, 124개 공약과제를 추진하고 있음[1)]

❍ 시정 5기 세부 공약과제에는 청년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기반 강화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주·정착 중심의 실행과제가 제시된 점이 특징임

❍ 다만, 청년 관련 정주정책이 청년정책담당관, 기업지원과, 도농정책기획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정 5기의 정책 재설정이 최근 3년간 실제 관측된 인구변화 양상(수도권 순유입 우위 약화, 청년층 유출 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주 여건과 정책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단층제 행정체계 세종, 데이터 협업을 통한 세종시 인구변화의 정밀 분석 추진

❍ 시정 5기 인구 비전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인구변화를 총량자료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시도 단위 인구 증감만으로는 세종시 내부의 지역별 인구변화와 집단별 이동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동 지역과 그 외 지역인 조치원읍·면 지역은 주택, 산업, 교통 및 생활서비스 여건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단위 분석이 필요함
- 청년층을 연령과 가구형태별로 세분하고 전입지·전출지 및 이동사유를 결합하여 분석해야 인구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음

---

1)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26), 〈시정 5기 공약과제 실천계획서(안)〉, 3~10쪽

○ 그러나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 공표통계는 세종시 읍·면·동 단위의 세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일반 공표자료만으로는 세종시 내부 생활권별 전입·전출과 수도권·충청권 간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움
- 청년층과 신혼·초기 가족가구 등 핵심 집단의 이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료 수준의 정교한 추출·가공이 필요함

○ 따라서 자료처리의 정확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팀과의 연구협력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최근 인구변화가 시정 5기 '인구 80만 자족경제도시' 비전에 갖는 의미를 진단하고, 양적 인구확대와 질적 자족기반 강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최근 세종시 인구변화의 새로운 양상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최근 3개년(2023~2025년)을 중심으로 인구이동과 인구변화를 집중 분석하여 최근 나타나는 인구성장 둔화와 청년층 유출 등 구조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진단함
- 둘째,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공표통계에서 제공되지 않는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세종시 내부 생활권과 지역별 인구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함
- 셋째, 주민등록 기반 인구이동(MDIS)자료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신혼부부통계〉 및 인구 관련 시행계획 등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청년의 정책수요와 실제 인구이동 간의 관계를 분석함
- 넷째, 시정 5기의 핵심 비전인 '인구 80만 자족경제도시'를 정책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인구변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착, 자족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함
- 다섯째, 인구 규모 변화에 대한 단순한 현황 분석을 넘어 정책환경, 인구

이동, 청년 정착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천적 연구를 지향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차별성 및 유용성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최성은 외, 2019)	• 해당 연구는 세종시 출범 초기(2012~2016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미시자료(MDIS)를 활용한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 특성 분석을 수행함 • 특히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입 구조, 전입·전출 사유(직업·주택·가족), 그리고 지역 내 인구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단계별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함 • (한계)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세종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구감소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안사항 부족함 • (한계) 데이터 처리 신뢰도 낮음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최성은 외, 2023)	• 해당 연구는 2012~2022년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결혼·인구이동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P지수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세종시 인구구조 변화의 유형화를 시도함 • 특히 출산 감소 유형, 결혼 지연·회피 유형, 청년층 이동성 변화 등 세종시 인구변화가 더이상 '성장 일변도'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실증함 • (한계) 다만 연구의 초점이 인구변화의 구조적 진단과 유형 분류에 맞추어져 있어, 최근 3년간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한 파악과 단기·정책 대응 전략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정리

□ 연구의 질문

❍ 연구 질문 1. 최근 3년간 세종시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세종시 출범 이후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세와 최근 3년간의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
-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인구이동은 연령, 성별, 읍·면·동 및 전입·전출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인구이동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연구 질문 2. 세종시 인구대응 정책환경은 최근의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세종시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의 주요 사업과 정책대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인구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및 부서 간 추진체계는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 현재의 정책체계는 시정 5기 비전과 최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에 어떠한 강점과 한계를 지니는가?

❍ 연구 질문 3. 청년 및 신혼부부의 인구이동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청년의 정주 의향은 어떠한가? 또, 어떠한 지원 정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청년의 이동지역·사유는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신혼부부의 전입·전출 규모와 주요 이동지역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청년의 세종시 정주 및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청년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관련 정책수요는 어떠한가?

❍ 연구 질문 4.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인구성장과 정착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가?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세종시 인구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최근 3개년(2023~2025년) 세종시의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특성을 읍·면·동 및 생활권 단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이동 특성과 정주 의향·정책수요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5기에 필요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공표통계에서 제공되지 않는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자료를 확보·분석함
- 아울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이동지역·이동사유·정주 의향을 분석하고,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해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관련 정책수요를 도출함
- 이를 토대로 세종시 시정 5기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함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함

- 세종시 내부의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함
- 외부 지역과의 이동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충청권 및 전국 시도와의 전입·전출을 분석함
- 필요시 동 지역, 조치원읍 및 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특성을 비교함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인구변화 분석)

- 최근 인구변화 분석은 2023~2025년 최근 3개년을 중심으로 수행함
- 장기 추세 비교를 위해 세종시 출범(2012년) 이후 인구변화를 함께 검토함
- 청년 정책수요 분석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함

❍ 정책환경 분석 시점 : 2026년 기준

- 2026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정치·사회·경제·기술적 측면의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세종시 인구정책 관련 시행계획과 시정 5기 공약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3) 내용적 범위

□ 세종시 출범 이후 ~ 최근 3개년 인구변화 진단

❍ 세종시 출범 이후 장기적인 인구변화(2013~2022년)와 최근 3개년(2023~2025년) 변화를 중심으로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

-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

- 연령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
- 생활권별 인구이동 분석
  - 읍/면/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 가구 구성별 전출사유 분석

□ **세종시 인구대응 정책환경 분석**

○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 및 혁신 환경

○ 인구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검토

- 세종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시정 5기 단체장 공약과 인구정책 간 연계성 검토
- 인구대응 관련 추진체계 분석

□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 청년 인구이동 특성

- 청년 인구이동의 변화와 연령집단별 특성
- 청년의 유입·유출 지역 특성
-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인구이동의 차별적 특성
- 모의 연령을 고려한 여성 인구이동과 지역 인구재생산 기반
-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청년의 정책인식과 정책수요: 市 '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활용

- 청년의 세종시 정주·이주 의향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
-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등 청년 정책수요 분석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SWOT 분석 실시 후 전략 제시

○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제안

○ 인구정책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시

[표 1-2] 연구의 흐름

목 차	내 용
	서 론
제1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충청지방데이터청 데이터 협업 개요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제2장	•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변화 • 세종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 제도적 기반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제3장	•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 • 생활권별 인구이동 분석 - 읍 지역 인구이동 현황 - 면 지역 인구이동 현황 - 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 가구구성별 전출사유 분석 결과 • 종합시사점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제4장	•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특성 심층분석 - 청년 인구이동의 변화와 연령집단별 특성 - 청년의 유입·유출 지역 특성 -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인구이동의 차별적 특성 - 모의 연령을 고려한 여성 인구이동과 지역 인구재생산 기반 -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청년의 정책인식과 정책수요 - 청년의 세종시 정주·이주 의향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 -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등 청년 정책수요 분석
	제5장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5장	• 연구결과 SWOT 분석 •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 기본 방향 - 핵심 정책과제 - 단계별 추진 로드맵
	결 론
제6장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제2절 정책 제언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세종시 인구이동에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함
- 세종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시정 5기 공약과 주요 행정자료를 분석함
- 인구대응 관련 사업, 예산, 조직·인력 및 부서 간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세종시의 정책환경을 진단함
-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의 정주·이주 의향과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관련 정책수요를 분석함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입·청년정착 및 인구변화 대응 사례를 검토하여 세종시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통계 분석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활용하여 2023~2025년 세종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
- 연령대, 이동 사유, 이동 경로,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특정 집단 추적 분석

- 청년층(20~39세) 내 세부 집단 구분(미혼, 신혼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특성 비교 분석
- 신혼부부 가구의 전입·전출 패턴

❍ 전문가 자문

- 인구, 청년정책, 도시계획, 국가균형발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분석 결과 검증 및 정책 대안 보완

3절 충청지방데이터청 데이터 협업 개요

1.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의 협업 개요

□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변화 분석을 위한 과정**

○ [세종연구원-충청지방데이터청]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간담회

- 일시/장소: 2026.1.16.(금) 14:00~ /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월평동)
- 참석대상: 안은진 지역통계과장, 김성아 팀장, 김송이 주무관, 최성은 연구책임(세종연구원)
- 주요내용: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의, 연구 수행 일정(안) 및 분석 방향 예시 공유

○ [세종시-세종연구원] 정책과제 착수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2026.1.27.(화) 11:30~ / 세종시청 4층 인구여성가족과 회의실
- 참석대상: 명노근 인구여성가족과장, 황선희 사무관, 최유경 주무관, 최성은 연구책임(세종연구원)
- 주요내용: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연구 공동설계 방향 협의
  - 2.24. 세종시·충청지방데이터청·세종연구원 간 정책연구협약에 따른 데이터 분석 지원 항목 공유 및 제안
  - 향후 연구 진행 계획 및 일정 공유

○ [세종시-충청지방데이터청-세종연구원] 연구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일시/장소: 2026.2.24.(화) / 세종시청

제3조 (협력 내용) 각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세종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 통계 개발 및 관련 통계 개선,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자문
2. 지역통계 품질 개선, 통계 지식·정보 공유 등 지역통계 발전
3. 대전·세종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 및 교육
4. 세종연구원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수수료 면제(주문형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 보관 서비스는 제외)
5. 기타 협약기관 실무협의에 따른 합의 사항

❍ [세종연구원 - 충청지방데이터청] MDIS 1차 데이터 추출 결과 공유

- 일시/장소: 2026.5.22.(금) 16:30~19:00 / 충청지방데이터청 10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충청지방데이터청 김송이 주무관의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중심으로」(2023) 관련 내용 업데이트 결과 상호 검토
- 2026.5.12. 인구이동 데이터 1차 송부(김송이 주무관 → 최성은 연구책임)

❍ [세종연구원 - 충청지방데이터청] MDIS 2차 데이터 추출 결과 공유

- 일시: 2026.7.16. 심층분석 기획용 데이터 2차 송부(김송이 주무관 → 최성은 연구책임)

❍ [충청지방데이터청 - 신혼부부통계] 신혼부부 통계 분석 결과 제공

- 신혼부부 통계 분석 결과 제공(김송이 주무관 → (비상임) 이상림 박사, 서울대학교)

❍ [세종연구원]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

- 기간: 2026.6.~8.
- 주요내용: 충청지방데이터청 김송이 주무관의 1·2차 제공 데이터를 토대로 세종연구원 연구진의 분석 데이터 현황 보고서 작성

❍ [세종연구원 - 충청지방데이터청]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검토·수정·보완

- 기간: 2026.9.~10.
- 주요내용: 연구진의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 보고서에 대한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검토 및 수정·보완, 심층 기획 분석 공동작업을 위한 추가 분석 및 검토

❍ [세종시 - 세종연구원 - 충청지방데이터청]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 일시: 2026.10.8. 오후 2시
- 주요내용: 연구 결과 발표 및 자문의견 청취

[표 1-3]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변화 분석을 위한 과정

분석데이터 주제 선정 (1월~2월)	⇨	인구이동·신혼부부 데이터 입수 및 분석 (2월~7월)	⇨	1차, 2차 분석 결과 현황 및 심층분석 (8월~10월)	⇨	최종보고회 (10월 8일)
세종연구원 정책 기반		충청지방데이터청 주도 국가데이터처 MDIS 활용, 신혼부부통계		공동 연구진		세종시, 충청지방 데이터청, 세종연구원

[표 1-4] 선행연구와의 세부 분석 차이

① 선행연구(최성은 외, 2023) *[과제명]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② 본 과제의 차별성
□ 분석개요 • 충청지방통계청 협업 개요 • 자료정제 및 분석 과정 • 주요 순서	□ 분석개요 • 좌동 • 좌동 • 좌동
□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 세종시 인구변화 – 총인구, 주민등록인구, 읍면동별 인구, 가구원수 현황	□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변화 • 세종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PEST 분석 및 제도적 기반 검토, 신규)**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이동 현황 •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 세종시 읍/면/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신규) • 연령별·지역별 인구이동 특성 • 생활권별 인구이동 분석 – 읍/면/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 **가구 구성별 전출사유 분석 결과(신규)**
□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 • 심층 기획 분석 개요 •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별 진단 •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 세종시 청년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가? •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인구이동	□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 1절 청년 인구이동 특성 1. 청년 인구이동의 변화와 연령 집단별 특성 2. 청년의 유입·유출 지역 특성 3.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인구이동의 차별적 특성 – **동 지역 20대 청년의 유입·정착 구조와 최근 변화(신규)** 4. **모의 연령별 순이동 변화(신규)** 5.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신규)**
	• **제2절 청년의 정책인식과 정책수요(신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활용

2. 자료정제 및 분석 과정(충청지방데이터청)

□ 분석 데이터 주제 선정 및 공동연구 방향 합의(2026년 1월)

❍ 충청지방데이터청과 연구진은 대전세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인구변화를 반영한 데이터 갱신과 분석범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함

- 기존 연구의 분석자료 및 지표를 검토하고, 최근 인구이동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주제와 활용자료의 범위를 재설정함
- 이후 충청지방데이터청과 연구진 간 업무분장 회의를 통해 자료 추출·정제, 분석, 결과 검토 등 세부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작업 완료기한을 설정한 후 본격적인 분석을 착수함

□ 국가데이터처 국내이동통계 MDIS 데이터 분석(2026년 2월~7월)

❍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2025년 세종시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 실시

- ❶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자료 입수
  - 세종시의 최근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3~2025년 3개년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자료를 확보·다운로드함
- ❷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자료 변수 및 코드 체계 확인
  - 인구 관련 마스터 및 세대 관련 마스터의 레이아웃과 변수구조를 검토하고, 각 변수의 정의와 코드체계를 확인함
  - 분석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변수를 선별한 후, 자료 가공 및 분석을 위한 코드 작성 작업을 수행함

① 전입행정구역코드	⑦ 전입자1_세대주관계코드	중간…생략	㉜ 전입자9_만연령
② 전입일자	⑧ 전입자1_만연령		㉝ 전입자9_성별코드
③ 전입구분코드	⑨ 전입자1_성별코드		㉞ 전입자10_세대주관계코드
④ 전출행정구역코드	⑩ 전입자2_세대주관계코드		㉟ 전입자10_만연령
⑤ 전출구분코드	⑪ 전입자2_만연령		㊱ 전입자10_성별코드
⑥ 전입사유코드	⑫ 전입자2_성별코드		㊲ 일련번호

① 전입행정구역코드	⑦ 세대주관계코드	⑬ 이동_여자인구수
② 전입일자	⑧ 세대주만연령	
③ 전입구분코드	⑨ 세대주성별코드	
④ 전출행정구역코드	⑩ 세대관련코드	
⑤ 전출구분코드	⑪ 이동_총인구수	
⑥ 전입사유코드	⑫ 이동_남자인구수	

- ❸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자료 SAS 시스템 서버 내 탑재(6월)
  -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분석 프로그램)
  - SAS 버전: SAS Enterprise Guide 7.1
  - 통계청 내부망 SASApp 서버 내 저장공간 할당 받음
  - SASApp 서버내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 세대 MD 자료 업로드
  - SAS EG 자료분석을 위한 탐색과 정제, 분석을 실시
- ❹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자료정제(7월)
  - 분석에 필요한 연도(2023~2025), 전입지, 전출지, 연령, 이동사유 변수 추출
  - 동일 읍면동 단위 이동자 제외(국내이동통계 공표 수치)
  - 가로로 배열된 넓은 형태의 자료를 세로로 누적되는 긴 형태로 변환: 한 행에 여러 가구원의 정보가 가로로 함께 들어 있는 가구 단위 자료 ➡ 가구원 한 명 당 한행이 되도록 개인 단위의 긴 형태로 변환
  - 파생변수 만들기: 읍, 면, 동 변수, 연령대 변수, 전입지역, 전출지역 파생변수 생성
  - 연도별로 합친 후 보고서(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내 지표를 이용하여 2023~2025년 통계표 업데이트 작성: 읍, 면, 동 변수, 연령대 변수, 전입지역, 전출지역 생성

❍ ❺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정제 완료 후 각종 지표 집계

□ 국가데이터처 신혼부부통계 데이터 분석(2026년 6월~7월)[2)]

❍ ❶ SDC 신혼부부통계 자료 신청 후 자료 입수(2020년~2024년)

❍ ❷ 자료 변수 및 코드 체계 확인

- 신혼부부통계 레이아웃 확인 후 코드 작성

① 기준연도	⑦ 혼인당시남편직업 교육정도코드	중간 … 생략	㉜ 아내가구세대구성코드	..
② 부부일련번호	⑧ 남편혼인종류코드		㉝ 부부동일거처여부코드	
③ 혼인연도	⑨ 남편혼인연령		㉞ 맞벌이여부코드	
④ 혼인신고일자	⑩ 남편연령		㉟ 남편1년전행정구역코드	
⑤ 실제결혼일자	⑪ 남편국적구분코드		㊱ 아내1년전행정구역코드	
⑥ 혼인당시남편직업 분류코드	⑫ 남편국적		㊲ 남편거주지이동여부코드	

❍ ❸ 신혼부부통계 자료정제(7월)

- 분석에 필요한 연도(2020년~2024년), 혼인연차, 부부연령, 교육정도, 아내연령, 총 출산자녀수, 부부동일거처여부코드, 부부합산소득금액규모코드, 표본가중값, 거처가중값 등 관련 변수를 선별함
- 남편과 아내의 거주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세종시 신혼부부를 추출하고, 부부의 동일 거처 및 비동일 거처 여부를 구분함
  - 비동일 거처 부부는 거처가중값을 배분하여 세종시 신혼부부 수 산출함
- 남편과 아내 교육정도, 총출산자녀수, 부부합산소득, 유자녀 여성의 평균 나이, 주택소유현황 산출 등 분석지표 통계표 생성

2) 해당 자료는 선행연구(최성은 외, 2023)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규 분석영역으로서, 제4장「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신혼부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동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상임연구원 이상림 박사와 연계·협업하여 분석을 수행함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2장

1절 |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변화
2절 | 세종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2장 |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1절 세종시 최근 3개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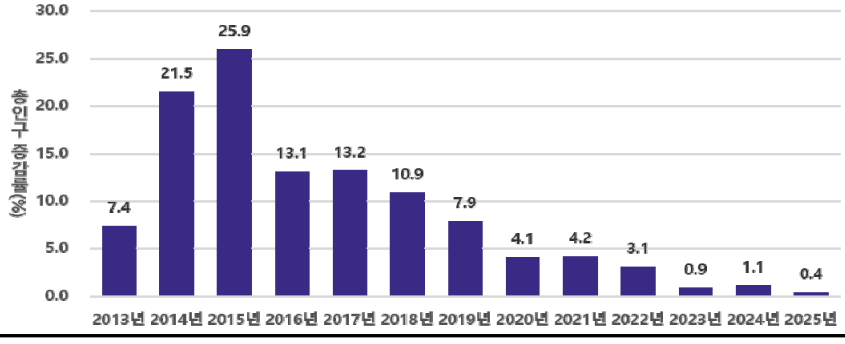
1. 세종시 인구변화

□ 총인구 변화

[표 2-1] 세종시 전체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총 인 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세 대	증감률
2013	124,615	7.4	122,153	7.4	2,462	7.8	50,045	6.9
2014	158,844	21.5	156,125	21.8	2,719	9.5	62,807	20.3
2015	214,364	25.9	210,884	26.0	3,480	21.9	81,806	23.2
2016	246,793	13.1	243,048	13.2	3,745	7.1	94,343	13.3
2017	284,225	13.2	280,100	13.2	4,125	9.2	109,490	13.8
2018	319,066	10.9	314,126	10.8	4,940	16.5	123,762	11.5
2019	346,275	7.9	340,575	7.8	5,700	13.3	135,408	8.6
2020	360,907	4.1	355,831	4.3	5,076	-12.3	144,275	6.1
2021	376,779	4.2	371,895	4.3	4,884	-3.9	153,649	6.1
2022	388,927	3.1	383,591	3.0	5,336	8.5	159,386	3.6
2023	392,311	0.9	386,525	0.8	5,786	7.8	160,835	0.9
2024	396,867	1.1	390,685	1.1	6,182	6.4	163,432	1.6
2025	398,536	0.4	391,965	0.3	6,571	6.3	165,220	1.1



자료: 통계포털(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전체 인구는 2013년 124,615명에서 2025년 398,536명으로 13년간 3.2배 증가했으나, 증가 속도는 출범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최근 3개년(2023~2025년)에는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함(행정안전부·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재구성)

- 출범 초기 5개년(2013~2017년) 평균 인구증가율은 16.2%였으나, 2023~2025년 평균 증가율은 0.8%로 축소됨
- 특히 2023년 증가율은 0.9%로 13개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4년(1.1%)에도 뚜렷한 반등 없이 정체가 이어짐
- 2025년(0.4%)까지 포함하면 정체 국면이 최근 들어 더 심화되는 추세

□ 2025년 7월 ~ 2026년 7월 최신 월간 동향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월간통계를 통해 가장 최근 시점까지 확인한 결과, 세종시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11월(392,495명)을 정점으로 이후 8개월 연속 순감소하여 2026년 7월 390,972명을 기록함(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각 월)

- 이는 연간 통계에서 관측된 '증가세 둔화'가 2025년 하반기 이후 '실제 순감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의성 있는 근거임
- 같은 기간 세대수는 오히려 536세대 증가(165,456 → 165,992세대)하여 세대당 인구가 2.37명에서 2.36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가구 분화·1인 가구화가 인구감소 국면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세종시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 세종시 주민등록인구 중 남성인구는 2012년 57,633명에서 2025년 195,107명으로, 여성인구는 55,484명에서 196,858명으로 증가함(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재구성)

- 출범 초기(2012~2015년)에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상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성비가 역전되어(남 121,505명 〈 여 121,543명) 이후 2025년까지 10년 연속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초과하는 추세가 지속됨

- 2019년 이후로는 남녀 모두 증가율이 뚜렷이 둔화되는 완만한 증가 추세로 전환됨

○ 다만 2025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는 남성 증감률(0.4%)이 여성 증감률(0.3%)을 근소하게 상회하여, 앞서 확인한 2025년 하반기 이후의 인구감소 국면 진입과 맞물려 성비 격차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함

[표 2-2] 세종시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 도	총 인 구					
	합 계		남 성		여 성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2012	113,117	-	57,633	-	55,484	-
2013	122,153	8.0	62,205	7.9	59,948	8.0
2014	156,125	27.8	78,862	26.8	77,263	28.9
2015	210,884	35.1	105,752	34.1	105,132	36.1
2016	243,048	15.3	121,505	14.9	121,543	15.6
2017	280,100	15.2	139,734	15.0	140,366	15.5
2018	314,126	12.1	156,831	12.2	157,295	12.1
2019	340,575	8.4	169,845	8.3	170,730	8.5
2020	355,831	4.5	177,568	4.5	178,263	4.4
2021	371,895	4.5	185,678	4.6	186,217	4.5
2022	383,591	3.1	191,389	3.1	192,202	3.2
2023	386,525	0.8	192,524	0.6	194,001	0.9
2024	390,685	1.1	194,413	1.0	196,272	1.2
2025	391,965	0.3	195,107	0.4	196,858	0.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연령 그룹별 비중 변화

○ 세종시 연령 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출범 당시 대비 2025년 기준으로 유소년(0~14세) 비중은 0.8%p, 생산인구(15~64세) 비중은 2.1%p 증가한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2.9%p 감소함(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재구성)

- 남성은 유소년 비중이 16.2% → 17.6%(+1.4%p)로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생산인구(71.6% → 71.1%, -0.5%p)와 고령인구(12.1% → 11.2%, -0.9%p)는 소폭 감소함
- 여성은 생산인구 비중이 65.1% → 69.9%(+4.8%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령인구 비중은 18.5% → 13.3%(-5.2%p)로 크게 감소함

- 여성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확대는 **세종시 정착 인구가 20~40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며, 이것이 실제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고용통계 검증이 필요**함
- 성별 유소년 비중 증가폭에도 차이(남 +1.4%p, 전체 +0.8%p)가 관찰되어, 세부 연령대별 분석에서 추가로 다룰 필요가 있음

[표 2-3] 세종시 연령그룹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령구분		총 인 구								
		2012년			2025년			증감률		
		총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남자	여자
유소년	0 - 4세	6,079	3,066	3,013	15,667	7,885	7,782	157.7	157.2	158.3
	5 - 9세	5,953	2,994	2,959	23,013	11,768	11,245	286.6	293.1	279.9
	10 - 14세	6,471	3,305	3,166	28,782	14,723	14,059	344.8	345.5	344.1
생산연령인구	15 - 19세	6,256	3,388	2,868	25,361	12,692	12,669	305.4	274.6	341.7
	20 - 24세	6,458	3,472	2,986	17,246	9,099	8,147	167.0	162.1	172.8
	25 - 29세	6,369	3,495	2,874	19,217	9,526	9,691	201.7	172.6	237.2
	30 - 34세	8,765	4,592	4,173	27,287	13,500	13,787	211.3	194.0	230.4
	35 - 39세	9,547	5,024	4,523	30,521	15,109	15,412	219.7	200.7	240.7
	40 - 44세	9,718	5,440	4,278	38,309	18,592	19,717	294.2	241.8	360.9
	45 - 49세	8,075	4,385	3,690	38,134	18,877	19,257	372.3	330.5	421.9
	50 - 54세	9,046	4,813	4,233	33,472	17,454	16,018	270.0	262.6	278.4
	55 - 59세	7,474	3,874	3,600	25,655	13,292	12,363	243.2	243.1	243.4
	60 - 64세	5,692	2,808	2,884	21,186	10,672	10,514	272.2	280.1	264.6
고령인구	65 - 69세	4,556	2,109	2,447	18,326	8,978	9,348	302.2	325.7	282.0
	70 - 74세	5,064	2,195	2,869	11,901	5,778	6,123	135.0	163.2	113.4
	75 - 79세	3,850	1,542	2,308	7,734	3,629	4,105	100.9	135.3	77.9
	80 - 84세	2,263	724	1,539	5,150	2,081	3,069	127.6	187.4	99.4
	85 - 89세	1,007	289	718	3,171	1,046	2,125	214.9	261.9	196.0
	90 - 94세	352	88	264	1,447	331	1,116	311.1	276.1	322.7
	95 - 99세	83	14	69	349	70	279	320.5	400	304.3
	100+	39	16	23	37	5	32	-5.1	-68.8	39.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4]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중 변화 추이(총인구)

(단위: 명, %)

연령구분	총 인 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소년	16.4	16.5	18.2	20.1	20.4	20.7	20.6	20.4	20.1	19.6	19.2	18.5	17.9	17.2
생산연령인구	68.4	68.8	69.1	69.3	69.6	69.8	70.1	70.2	70.1	70.3	70.4	70.5	70.5	70.5
고령인구	15.2	14.7	12.7	10.6	10.0	9.6	9.3	9.4	9.8	10.1	10.5	11.0	11.6	12.3

주: 유소년(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5]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중 변화 추이(남자)

(단위: 명, %)

연령 구분	총 인 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소년	16.2	16.5	18.4	20.4	20.7	21.0	21.0	20.8	20.5	20.0	19.5	18.9	18.3	17.6
생산연령인구	71.6	71.8	71.4	70.8	71.0	70.9	71.1	71.1	70.9	71.1	71.1	71.2	71.1	71.1
고령인구	12.1	11.8	10.2	8.7	8.3	8.1	7.9	8.1	8.6	8.9	9.4	9.9	10.5	11.2

주: 유소년(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6]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중 변화 추이(여자)

(단위: 명, %)

연령 구분	총 인 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소년	16.5	16.5	18.1	19.8	20.1	20.3	20.3	20.0	19.7	19.3	18.8	18.1	17.4	16.8
생산연령인구	65.1	65.7	66.8	67.7	68.2	68.6	69.1	69.3	69.2	69.5	69.6	69.8	69.9	69.9
고령인구	18.5	17.7	15.1	12.5	11.6	11.1	10.6	10.7	11.0	11.3	11.6	12.1	12.6	13.3

주: 유소년(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

○ 세종시 청년인구(19~39세 기준)는 2012년 32,394명에서 2025년 98,497명으로 증가함(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재구성)

- 청년 총인구수 대비 연령대별 비중을 산출한 결과, 2025년 기준 2012년 대비 비중이 상승한 연령대는 35~39세(+1.5%p), 30~34세(+0.6%p), 20세 미만(+0.4%p)이며, 반대로 20~24세(-2.4%p)와 25~29세(-0.2%p)는 비중이 하락함
- 이는 세종시 청년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의 평균연령이 상승하는 추세와 부합함

○ **(세종시 청년 비중 감소는 일시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추세)** 총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은 2012년 28.6%에서 2015년 30.9%로 2.3%p 상승했으나, 이후 단 한 해의 반등도 없이 10년 연속 하락하여 2025년 25.1%를 기록함

[표 2-7]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요약)

(단위: 명)

연령 구분	총 인 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세미만	1,255	695	560	1,413	763	650	1,684	929	755	2,032	1,069	963	2,305	1,217	1,088	2,702	1,394	1,308	3,146	1,567	1,579
20-24세	6,458	3,472	2,986	7,008	3,719	3,289	8,777	4,586	4,191	11,419	5,989	5,430	12,764	6,714	6,050	14,210	7,517	6,693	15,914	8,424	7,490
25-29세	6,369	3,495	2,874	6,876	3,781	3,095	8,755	4,552	4,203	11,624	5,774	5,850	13,759	6,711	7,048	16,056	7,799	8,257	18,117	8,859	9,258
30-34세	8,765	4,592	4,173	9,553	4,914	4,639	13,227	6,529	6,698	18,411	8,807	9,604	20,193	9,749	10,444	21,908	10,535	11,373	23,831	11,612	12,219
35-39세	9,547	5,024	4,523	10,041	5,206	4,835	14,421	7,253	7,168	21,614	10,701	10,913	25,758	12,652	13,106	30,499	14,846	15,653	34,550	16,746	17,804
합 계	32,394	17,278	15,116	34,891	18,383	16,508	46,864	23,849	23,015	65,100	32,340	32,760	74,779	37,043	37,736	85,375	42,091	43,284	95,558	47,208	48,350
총인구	113,117	57,633	55,484	122,153	62,205	59,948	156,125	78,862	77,263	210,884	105,752	105,132	243,048	121,505	121,543	280,100	139,734	140,366	314,126	156,831	157,295
청년비	28.6%	30.0%	27.2%	28.6%	29.6%	27.5%	30.0%	30.2%	29.8%	30.9%	30.6%	31.2%	30.8%	30.5%	31.0%	30.5%	30.1%	30.8%	30.4%	30.1%	30.7%

연령 구분	총 인 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2024			2025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세미만	3,146	1,567	1,579	3,511	1,804	1,707	3,340	1,682	1,658	3,495	1,816	1,679	3,798	1,879	1,919	3,890	1,978	1,912	3,849	1,977	1,872	4,226	2,201	2,025
20-24세	15,914	8,424	7,490	16,611	8,683	7,928	17,056	8,931	8,125	17,528	9,203	8,325	17,737	9,340	8,397	17,657	9,184	8,473	17,621	9,273	8,348	17,246	9,099	8,147
25-29세	18,117	8,859	9,258	19,729	9,674	10,055	20,397	10,119	10,278	20,982	10,525	10,457	20,642	10,365	10,277	20,153	10,015	10,138	19,459	9,606	9,853	19,217	9,526	9,691
30-34세	23,831	11,612	12,219	25,644	12,495	13,149	26,014	12,727	13,287	27,081	13,174	13,907	27,853	13,615	14,238	27,376	13,434	13,942	27,604	13,596	14,008	27,287	13,500	13,787
35-39세	34,550	16,746	17,804	35,820	17,489	18,331	35,478	17,277	18,201	34,638	16,957	17,681	33,230	16,334	16,896	31,964	15,834	16,130	31,218	15,428	15,790	30,521	15,109	15,412
합 계	95,558	47,208	48,350	101,315	50,145	51,170	102,285	50,736	51,549	103,724	51,675	52,049	103,260	51,533	51,727	101,040	50,445	50,595	99,751	49,880	49,871	98,497	49,435	49,062
총인구	314,126	156,831	157,295	340,575	169,845	170,730	355,831	177,568	178,263	371,895	185,678	186,217	383,591	191,389	192,202	386,525	192,524	194,001	390,685	194,413	196,272	391,965	195,107	196,858
청년비	30.4%	30.1%	30.7%	29.7%	29.5%	30.0%	28.7%	28.6%	28.9%	27.9%	27.8%	28.0%	26.9%	26.9%	26.9%	26.1%	26.2%	26.1%	25.5%	25.7%	25.4%	25.1%	25.3%	24.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8]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백분율)

(단위: %)

연령구분	총 인 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세미만	3.9	4.0	3.6	3.1	3.1	3.2	3.3	3.5	3.3	3.4	3.7	3.8	3.9	4.3
20-24세	19.9	20.1	18.7	17.5	17.1	16.6	16.7	16.4	16.7	16.9	17.2	17.5	17.7	17.5
25-29세	19.7	19.7	18.7	17.9	18.4	18.8	19.0	19.5	19.9	20.2	20.0	19.9	19.5	19.5
30-34세	27.1	27.4	28.2	28.3	27.0	25.7	24.9	25.3	25.4	26.1	27.0	27.1	27.7	27.7
35-39세	29.5	28.8	30.8	33.2	34.4	35.7	36.2	35.4	34.7	33.4	32.2	31.6	31.3	31.0

*2025년을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백분율이 올라간 연령대는 35-39세(1.5%), 30-34세(0.6%), 20세 미만(0.4%)임.

연령구분	총 인 구(남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세미만	4.0	4.2	3.9	3.3	3.3	3.3	3.3	3.6	3.3	3.5	3.6	3.9	4.0	4.5
20-24세	20.1	20.2	19.2	18.5	18.1	17.9	17.8	17.3	17.6	17.8	18.1	18.2	18.6	18.4
25-29세	20.2	20.6	19.1	17.9	18.1	18.5	18.8	19.3	19.9	20.4	20.1	19.9	19.3	19.3
30-34세	26.6	26.7	27.4	27.2	26.3	25.0	24.6	24.9	25.1	25.5	26.4	26.6	27.3	27.3
35-39세	29.1	28.3	30.4	33.1	34.2	35.3	35.5	34.9	34.1	32.8	31.7	31.4	30.9	30.6

*남자의 경우 중장년 청년층(30대)과 20세미만의 비율은 상승한 반면, 20대 초·중반(20~29세)의 비율은 감소함

연령구분	총 인 구(여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세미만	3.7	3.9	3.3	2.9	2.9	3.0	3.3	3.3	3.2	3.2	3.7	3.8	3.8	4.1
20-24세	19.8	19.9	18.2	16.6	16.0	15.5	15.5	15.5	15.8	16.0	16.2	16.7	16.7	16.6
25-29세	19.0	18.7	18.3	17.9	18.7	19.1	19.1	19.7	19.9	20.1	19.9	20.0	19.8	19.8
30-34세	27.6	28.1	29.1	29.3	27.7	26.3	25.3	25.7	25.8	26.7	27.5	27.6	28.1	28.1
35-39세	29.9	29.3	31.1	33.3	34.7	36.2	36.8	35.8	35.3	34.0	32.7	31.9	31.7	31.4

**여성의 경우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백분율 상승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2.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 **세종시 읍·면·동 지역별 인구수 및 세대수 변화 추이[3)]**

○ **(읍 지역 변화)** 읍 지역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13년 48,048명에서 2025년 42,843명으로 5,205명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같은 기간 18,807세대에서 20,738세대로 1,931세대 증가함

-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1인 가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로는 2016년, 2021년, 2025년에 각각 0.8%, 0.6%, 0.3%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세가 우세함

○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면 뚜렷한 대조가 나타남

- 내국인은 2013년 47,401명에서 2025년 40,796명으로 6,605명(-13.9%)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647명에서 2,047명으로 1,400명(+216.4%) 증가함
- **외국인 증가가 없었다면 읍 지역의 총인구 감소폭은 현재의 약 1.27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조치원읍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입, 농업·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혼이민자 정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됨

○ 읍 지역 내국인 인구는 2014년 이후 사실상 매년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전체 인구의 감소 전환(2025년 11월 이후)보다 훨씬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해 온 것으로 보임

○ (1인 가구) 2016년 대비 2025년 1인 가구는 7,030세대에서 10,268세대로 46.1%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1,684세대에서 794세대로 52.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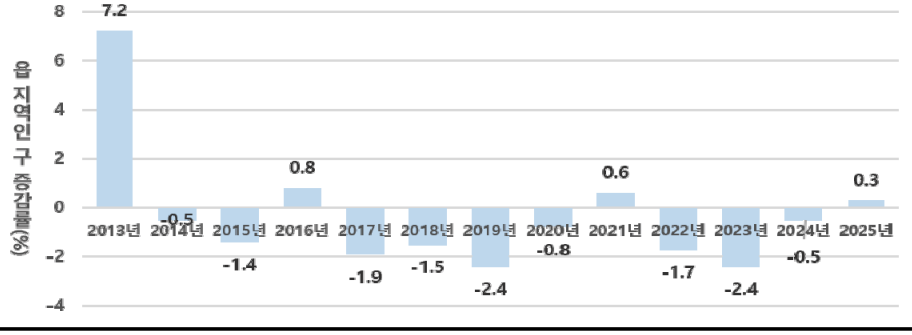
---

3) 국가데이터처 통계포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재구성

[표 2-9] 세종시 읍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읍 지역 총인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세대	증감률
2013	48,048	7.2	47,401	7.1	647	17.3	18,807	7.4
2014	47,795	-0.5	47,009	-0.8	786	17.7	18,895	0.5
2015	47,139	-1.4	46,163	-1.8	976	19.5	18,730	-0.9
2016	47,524	0.8	46,452	0.6	1,072	9	19,027	1.6
2017	46,620	-1.9	45,413	-2.3	1,207	11.2	19,111	0.4
2018	45,913	-1.5	44,443	-2.2	1,470	17.9	19,287	0.9
2019	44,821	-2.4	43,266	-2.7	1,555	5.5	19,472	1
2020	44,462	-0.8	43,100	-0.4	1,362	-14.2	20,307	4.1
2021	44,712	0.6	43,262	0.4	1,450	6.1	20,972	3.2
2022	43,966	-1.7	42,309	-2.3	1,657	12.5	20,836	-0.7
2023	42,931	-2.4	41,142	-2.8	1,789	7.4	20,432	-2.0
2024	42,723	-0.5	40,859	-0.7	1,864	4.0	20,510	0.4
2025	42,843	0.3	40,796	-0.2	2,047	9.8	20,738	1.1



자료: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10] 세종시 읍 지역 가구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16	19,027	7,030	3,807	3,222	3,284	1,684
2017	19,111	7,380	3,926	3,157	3,093	1,555
2018	19,287	7,832	4,000	3,150	2,897	1,408
2019	19,472	8,295	4,165	3,042	2,729	1,241
2020	20,307	9,184	4,499	2,982	2,581	1,061
2021	20,972	9,880	4,664	2,950	2,482	996
2022	20,836	10,052	4,649	2,817	2,366	952
2023	20,432	9,956	4,567	2,775	2,209	925
2024	20,510	10,012	4,726	2,778	2,155	839
2025	20,738	10,268	4,807	2,757	2,112	794

자료: [표2-9]와 상동

❍ **(면 지역 변화)**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수는 2013년 기준 52,336명에서 2025년 기준 43,859명을 기록하여, 8,4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외국인을 제외한 세대수는 461세대 증가)

- 면 지역은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3년부터 이미 감소 기조(-0.4%)에 있었으며, 2016년(+1.4%)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5년에는 -1.9%를 기록함
- 2016년 대비 2025년 1인 가구는 11,890세대에서 13,503세대로 13.6%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1,515세대에서 543세대로 64.2% 감소함
- 이는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 증가와 자녀 세대의 분가·출가로 인한 대가구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면, 내국인은 2013년 50,670명에서 2025년 40,886명으로 9,784명(-19.3%)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1,666명에서 2,973명으로 1,307명(+78.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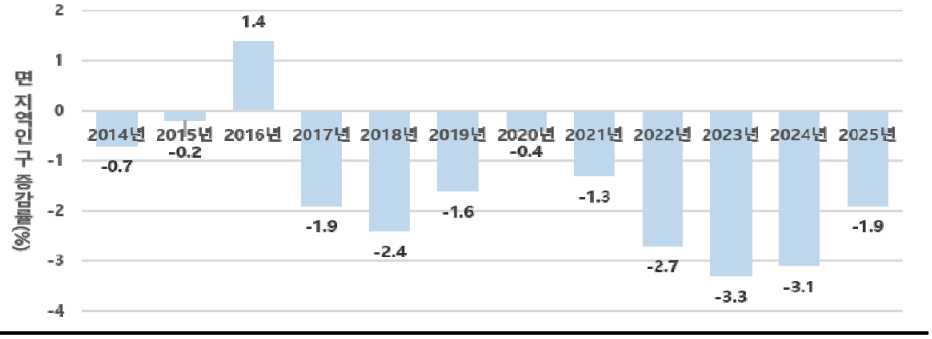
- 외국인 증가가 없었다면 면 지역 총인구 감소폭은 현재(-8,477명)보다 약 15%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됨
- 2020~2021년에는 면 지역 외국인 인구도 감소(-12.2%, -14.7%)하였는데, 같은 시기 세종시 전체 및 읍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감소가 확인되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이동 제약의 영향으로 판단됨

❍ 읍 지역과 비교하면, 면 지역의 인구감소가 시기적으로 더 이르고 강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세종시 면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면 지역 총인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세 대	증감률
2013	52,336	-0.4	50,670	-0.5	1,666	3.4	23,543	0.6
2014	51,951	-0.7	50,212	-0.9	1,739	4.2	23,635	0.4
2015	51,868	-0.2	49,928	-0.6	1,940	10.4	23,809	0.7
2016	52,616	1.4	50,587	1.3	2,029	4.4	24,782	3.9
2017	51,649	-1.9	49,520	-2.2	2,129	4.7	24,915	0.5
2018	50,461	-2.4	48,004	-3.2	2,457	13.3	24,663	-1.0
2019	49,690	-1.6	46,755	-2.7	2,935	16.3	24,576	-0.4
2020	49,506	-0.4	46,889	0.3	2,617	-12.2	25,661	4.2
2021	48,867	-1.3	46,586	-0.7	2,281	-14.7	26,173	2.0
2022	47,603	-2.7	45,250	-3.0	2,353	3.1	25,722	-1.8
2023	46,091	-3.3	43,499	-4.0	2,592	9.2	24,918	-3.2
2024	44,716	-3.1	41,887	-3.8	2,829	8.4	24,193	-3.0
2025	43,859	-1.9	40,886	-2.4	2,973	5.1	24,004	-0.8



자료: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12] 세종시 면 지역 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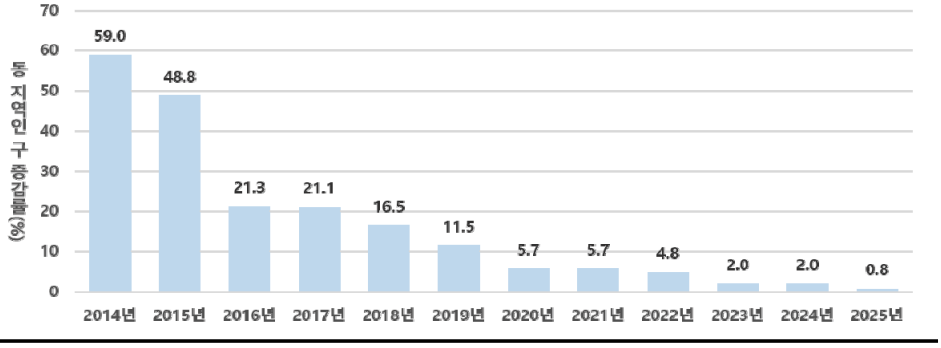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16	24,782	11,890	5,963	3,185	2,229	1,515
2017	24,915	12,321	6,039	3,149	2,040	1,366
2018	24,663	12,422	6,088	3,031	1,903	1,219
2019	24,576	12,579	6,244	2,889	1,787	1,077
2020	25,661	13,693	6,578	2,835	1,663	892
2021	25,061	13,801	6,390	2,614	1,443	813
2022	25,722	14,256	6,641	2,673	1,388	764
2023	24,918	13,871	6,489	2,558	1,321	679
2024	24,193	13,416	6,548	2,403	1,219	573
2025	24,004	13,503	6,503	2,368	1,087	543

자료: [표 2-11]과 상동

[표 2-13] 세종시 동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 도	총 인 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인 구	증감률	세 대	증감률
2013	24,231	24.6	24,082	24.6	149	14.8	7,695	24.9
2014	59,098	59.0	58,904	59.1	194	23.2	20,277	143.9
2015	115,357	48.8	114,793	48.7	564	65.6	39,267	95.2
2016	146,653	21.3	146,009	21.4	644	12.4	50,534	22.3
2017	185,956	21.1	185,167	21.1	789	18.4	65,464	22.8
2018	222,692	16.5	221,679	16.5	1,013	22.1	79,810	18
2019	251,764	11.5	250,554	11.5	1,210	16.3	91,360	12.6
2020	266,939	5.7	265,842	5.8	1,097	-10.3	98,307	7.1
2021	283,200	5.7	282,047	5.7	1,153	4.9	106,504	7.7
2022	297,358	4.8	296,032	4.7	1,326	13.0	112,828	5.6
2023	303,289	2.0	301,884	1.9	1,405	5.6	115,485	2.3
2024	309,428	2.0	307,939	2.0	1,489	5.6	118,729	2.7
2025	311,834	0.8	310,283	0.8	1,551	4.2	120,478	1.5



자료: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2-14] 세종시 동 지역 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16	50,534	11,600	8,409	11,084	14,351	5,090
2017	65,464	15,508	11,622	14,515	17,813	6,006
2018	79,810	19,445	14,933	17,736	20,977	6,719
2019	91,360	22,845	17,491	20,324	23,499	7,201
2020	98,307	25,254	19,356	21,642	24,909	7,146
2021	106,504	29,316	20,955	22,913	26,028	7,292
2022	112,828	31,472	22,728	24,354	26,857	7,417
2023	115,485	32,055	23,730	25,309	27,046	7,345
2024	118,729	33,002	25,142	26,305	27,099	7,181
2025	120,478	33,418	26,143	27,243	26,862	6,812

자료: [표 2-13]과 상동

- **(동 지역 변화)** 세종시 동 지역은 2013년 24,231명에서 2025년 311,834명으로 287,603명의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함
  - 동 지역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세대수도 112,783세대가 증가하였음
  -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43.9%, 95.2%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후 2016~2019년에도 매년 13%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2020년부터 증가율이 한 자릿수(5~6%)대로 둔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0.8%까지 낮아짐
- 동 지역은 면 지역과 달리 모든 가구원수 유형에서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가구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2016년 대비 2025년 2인 가구는 210.9%, 1인 가구는 188.1% 증가하여 소규모 가구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3인 가구(145.8%), 4인 가구(87.2%), 5인 이상 가구(33.8%) 순으로 증가폭이 작아져, 대가구일수록 증가세가 완만한 경향이 나타남
  - 내국인의 주민등록으로 인한 증가세가 대부분이며, 외국인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비율이나 수치값으로도 읍·면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적음

□ 세종시 읍·면·동 지역별 평균 연령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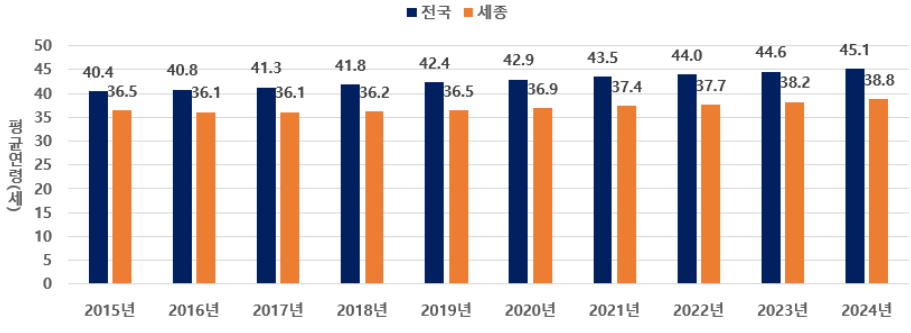
○ (전체 평균 연령) 세종시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16년과 2017년에 36.1세로 가장 낮았다가 2024년 38.8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연령은 2015년 40.4세에서 2024년 45.1세로 상승하여, 세종시와의 격차는 3.9세에서 6.3세로 더욱 확대됨

○ (지역별 남성의 평균 연령) 읍 지역은 2015년 35.6세에서 2024년 41.1세(+5.5세), 면 지역은 44.4세에서 48.2세(+3.8세), 동 지역은 31.0세에서 35.9세(+4.9세)로 높아짐

- 상승폭 기준으로는 읍 지역(+5.5세)이 가장 가파르며, 면 지역은 절대수준(48.2세)이 가장 높으나 상승폭 자체는 가장 완만함

❍ (지역별 여성의 평균 연령) 여성의 경우 평균 연령이 남성에 비하여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읍 지역은 38.0세에서 43.6세(+5.6세), 면 지역은 48.9세에서 54.0세(+5.1세), 동 지역은 31.8세에서 36.7세(+4.9세)로 높아짐

- 여성 기준으로는 읍(+5.6세)과 면(+5.1세) 모두 가파른 상승을 보여, "면 지역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이라는 서술은 남성 기준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남성은 읍이 최대) 성별 구분 없이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정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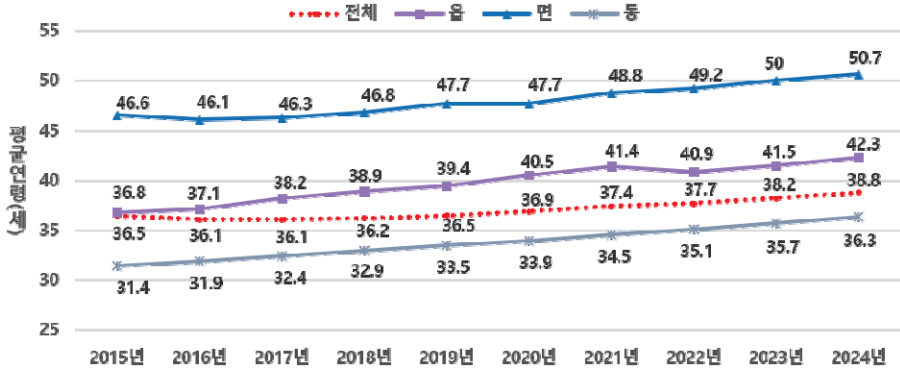
[그림 2-1] 전국 및 세종시 평균연령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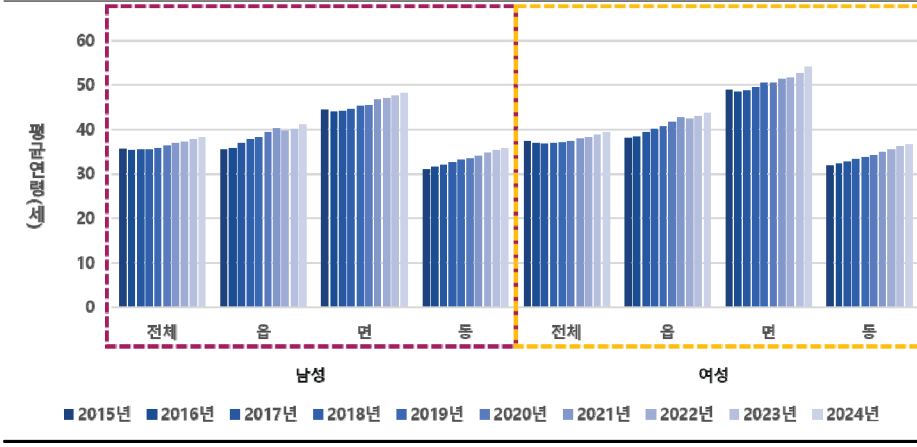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MDIS

[표 2-15] 세종시 성별·지역별 평균 연령 추이

(단위: 세)

평균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36.5	36.1	36.1	36.2	36.5	36.9	37.4	37.7	38.2	38.8
읍			36.8	37.1	38.2	38.9	39.4	40.5	41.4	40.9	41.5	42.3
면			46.6	46.1	46.3	46.8	47.7	47.7	48.8	49.2	50.0	50.7
동			31.4	31.9	32.4	32.9	33.5	33.9	34.5	35.1	35.7	36.3
남성(소계)			35.7	35.4	35.5	35.6	35.9	36.3	36.9	37.2	37.7	38.2
읍			35.6	35.9	37.0	37.7	38.3	39.4	40.3	39.6	40.1	41.1
면			44.4	44.0	44.1	44.6	45.3	45.4	46.7	47.1	47.7	48.2
동			31.0	31.5	32.0	32.6	33.1	33.5	34.1	34.8	35.3	35.9
여성(소계)			37.4	36.9	36.8	36.9	37.1	37.4	37.9	38.3	38.8	39.3
읍			38.0	38.4	39.4	40.2	40.6	41.7	42.7	42.4	43.0	43.6
면			48.9	48.5	48.8	49.4	50.6	50.6	51.4	51.7	52.7	54.0
동			31.8	32.3	32.8	33.3	33.8	34.3	34.9	35.5	36.1	36.7





주: 국가데이터처의 평균 연령 데이터는 2015년부터 제공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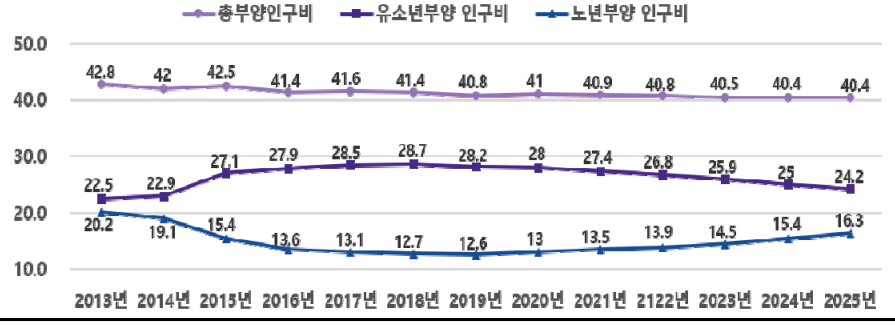
□ 세종시의 그룹별 인구 구성과 부양비 변화

○ **(3가지 그룹별 인구 구성 변화)** 세종시 인구를 유소년(14세 이하), 생산연령(15~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세종시 인구의 성장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 만큼, 모든 그룹(유소년/생산연령/노인인구)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음
- 다만 절대 규모의 증가 속도는 상이하여, 2013~2025년 유소년인구는 3.7배(18,686명 → 68,388명), 생산연령인구는 3.4배(82,986명 → 283,134명), 노인인구는 2.7배(16,791명 → 46,109명) 증가함

[표 2-16] 세종시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구 분	인 구	유소년 인구 (14세이하)	생산 연령 (15-64세)	노인 인구 (65세이상)	총부양* 인구비	유소년** 부양 인구비	노년*** 부양 인구비	노령화 **** 지수
2013	118,463	18,686	82,986	16,791	42.8	22.5	20.2	89.9
2014	132,437	21,396	93,265	17,776	42.0	22.9	19.1	83.1
2015	187,202	35,607	131,343	20,252	42.5	27.1	15.4	56.9
2016	234,410	46,224	165,721	22,465	41.4	27.9	13.6	48.6
2017	265,517	53,386	187,571	24,560	41.6	28.5	13.1	46.0
2018	302,249	61,356	213,732	27,161	41.4	28.7	12.7	44.3
2019	329,422	66,081	233,963	29,378	40.8	28.2	12.6	44.5
2020	348,302	69,271	246,980	32,051	41.0	28.0	13.0	46.3
2021	366,165	71,180	259,869	35,116	40.9	27.4	13.5	49.3
2022	382,760	72,933	271,932	37,895	40.8	26.8	13.9	52.0
2023	387,256	71,519	275,682	40,055	40.5	25.9	14.5	56.0
2024	389,166	69,353	277,154	42,659	40.4	25.0	15.4	61.5
2025	397,631	68,388	283,134	46,109	40.4	24.2	16.3	67.4



주: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노령화지수=고령인구/유소년인구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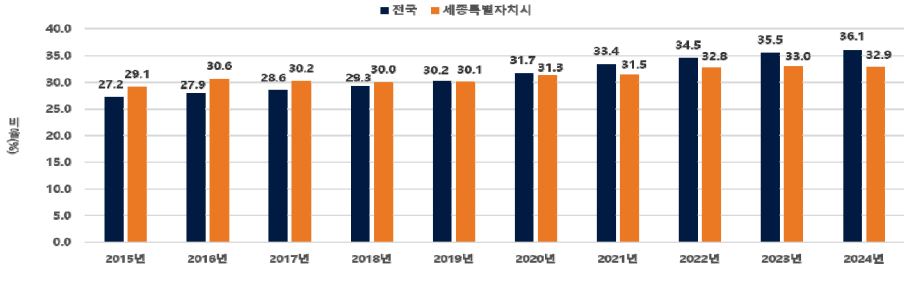
○ (부양비의 관점에서의 변화) 2013년 대비 2025년 총부양인구비는 42.8%에서 40.4%로 2.4%p 감소, 노년부양인구비는 20.2%에서 16.3%로 3.9%p 감소한 반면, 유소년부양인구비는 22.5%에서 24.2%로 1.7%p 증가하였음

- 노령화지수 역시 89.9에서 67.4로 크게 감소하였음
- 다만 노령화지수는 2013년 89.9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8년 44.3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이후 2025년까지 7년 연속 상승하여 67.4까지 회복됨
- 이러한 저점 시기(2018년)는 앞서 확인한 세종시 인구증가율 둔화 시점(2019년 이후 증가율 한 자릿수 진입) 및 청년비 하락 추세와 시계열적으로 맞물려 있어, **고령화 반등이 인구성장 동력 약화와 병행하여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함

□ 세종시 가구원수별 변화 특징

○ **세종시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왔음**

- 1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에서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 세종시 가구구조가 소규모(1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대가구(5인 이상)는 빠르게 해체되는 양상이 확인됨. 반면 2~4인 가구는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유지됨
- 전국과 비교하면, 세종시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까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신도시 초기 정착 특성), **2019년부터 전국에 근소하게 역전되었고 이후 전국의 증가세가 더 빨라지면서 2024년에는 전국 대비 약 3.2%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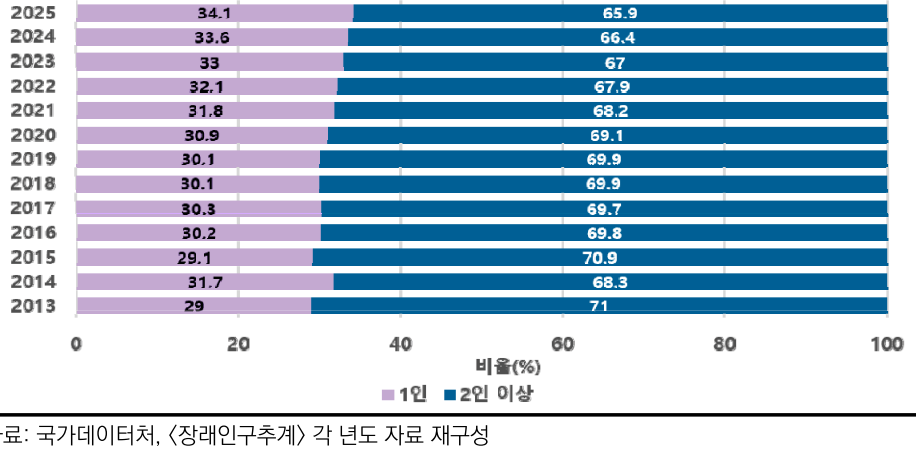
[그림 2-2] 전국 및 세종시 1인 가구 변화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MDIS

[표 2-17] 세종시 가구원수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합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원수(명)						
2013	43,736	12,696	11,244	8,366	7,397	4,033
2014	54,396	17,248	13,300	10,080	9,200	4,568
2015	72,716	21,162	17,381	14,800	14,202	5,171
2016	85,315	25,736	19,454	17,122	16,701	6,302
2017	99,639	30,193	22,678	20,184	19,588	6,996
2018	114,077	34,321	26,633	23,472	22,277	7,374
2019	126,077	37,958	30,146	26,078	24,344	7,551
2020	135,921	42,051	32,546	27,808	25,923	7,593
2021	143,407	45,590	34,904	28,961	26,655	7,297
2022	152,213	48,844	37,394	30,667	27,810	7,498
2023	155,586	51,368	38,186	31,292	27,377	7,363
2024	160,494	53,959	39,964	31,948	27,459	7,164
2025	165,375	56,454	41,723	32,608	27,588	7,002
비 율(%)						
2013	100.0	29.0	25.7	19.1	16.9	9.2
2014	100.0	31.7	24.5	18.5	16.9	8.4
2015	100.0	29.1	23.9	20.4	19.5	7.1
2016	100.0	30.2	22.8	20.1	19.6	7.4
2017	100.0	30.3	22.8	20.3	19.7	7.0
2018	100.0	30.1	23.3	20.6	19.5	6.5
2019	100.0	30.1	23.9	20.7	19.3	6.0
2020	100.0	30.9	23.9	20.5	19.1	5.6
2021	100.0	31.8	24.3	20.2	18.6	5.1
2022	100.0	32.1	24.6	20.1	18.3	4.9
2023	100.0	33.0	24.5	20.1	17.6	4.7
2024	100.0	33.6	24.9	19.9	17.1	4.5
2025	100.0	34.1	25.2	19.7	16.7	4.2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2절 세종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1.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1) 정치적 환경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본격화와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 변화[4)]**

○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다극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2025년 9월 30일 발표하고, 2026년부터 실행단계에 진입함

-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을 의미하며, 세종은 대전·충북·충남과 함께 중부권의 핵심 거점에 해당함
-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인재양성·R&D·메가특구·재정·세제·펀드지원을 결합한 범부처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5월 7일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균형성장영향평가, 초광역계정, 초광역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됨

○ 이에 따라 세종시의 인구정책 역시 독립적인 시 단위의 인구유입 정책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중부권 내 일자리·산업·교육·교통의 초광역적 연계가 세종시의 인구유입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기반, 세종의 행정·정책 기능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청년층의 취업·통근·거주지역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세종시 인구분석에서는 수도권과의 이동뿐 아니라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내부 이동과 생활권 관계를 주요 분석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4) 자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2025.9.30.;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2026.5.7.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공간적 기반의 구체화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2025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음

-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발의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5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데 이어, 위헌 논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6년 5월 7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함
- 2026년 8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5개 법안을 단일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역시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전환됨[5)]

- 2026년 1월 설계공모를 시작한 이후 2026년 7월 22일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건축설계에 착수함
- 현재 계획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2025년 말까지 제시되었던 2030년 준공계획보다 일정이 앞당겨진 것임

❍ 행정수도 기능 확충은 중앙행정·입법기능과 관련 기관·인력의 추가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세종시 인구성장의 중요한 외부 기회요인임

❍ 다만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단기적인 인구유입을 장기적인 정주인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거·교육·문화·교통 및 일자리 기반의 동반 확충이 요구됨

□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와 지역 간 유치경쟁

❍ 정부는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국토교통부는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대상으로 약 350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검토 중임

---

5)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입주 목표로 추진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산도 확보되었다고 밝힘(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2026.1.22. 언론브리핑)

-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집중'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 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세종시에 인구·기능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전국 지자체의 유치경쟁과 정부의 집적·집중 원칙을 고려할 경우 세종시로의 추가 이전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기존 국책연구기관 집적, 공동캠퍼스 및 산학연 기반 등을 활용하여 단순 기관유치보다는 국가정책·연구·교육·산업기능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충청권 초광역 거버넌스 확대에 따른 기회와 불확실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2024년 12월 3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함

- 지방자치법상 제도 도입 이후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초광역 교통망, 공동 전략산업 등 단일 시·도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함
- 2026년 8월, 충청광역연합은 2027 충청권 세계유니버시아드 개최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발전5사 통합본부 유치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힘

❍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별도의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가 이루어진 이력이 있어, 향후 충청권의 광역 거버넌스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기능을 기반으로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환경

□ 국가균형성장 재원의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6)]

❍ 5극3특 전략과 연계하여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균형성장 재정 수단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 10.6조 원으로 확대함
- 2026년 5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초광역계정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됨
- 정부는 국가균형성장 성과목표로 비수도권 GRDP 비중 50% 이상 회복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 기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수단도 확대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투자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 원, 자펀드 3조 5천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이는 세종시가 인구정책을 개별적인 출산·청년 지원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자족경제 기반, 청년일자리, 창업·산업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외부 재정 환경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

□ 세종시 자체 재정여력의 제약

❍ 반면 세종시는 국가재정 지원 확대와 별개로 자체적인 재정운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임

- 세종시 단체장은 2026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세종시가 “출범 이후 가장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고 진단함
- 같은 시점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2.3%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25%를 넘어 재정주의단체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됨

---

6)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요약)」, 2025.9.30., pp.1-2

○ 따라서 **세종시 인구정책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신규 지원사업 확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국가균형성장 재원, 초광역사업, 지역성장펀드 등 외부재원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자체재원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확대보다 실제 인구유입·정착 효과가 높은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
- 정책사업의 수뿐 아니라 인구이동과 정착에 미치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 환경

□ **공공기관 이전 중심 인구유입 모델의 지속가능성 한계 확인**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6년 6월 10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을 발간하고, 혁신도시 정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함 (민보경, 2026)

- 분석 결과 다수 혁신도시의 유입 인구는 수도권보다는 인접 시·도로부터의 근거리 이동 비중이 높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전이 본격화된 2014~2015년을 정점으로 다수 혁신도시의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세종시 역시 2015년 53,044명의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순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처음으로 47명 순유출로 전환된 것으로 제시됨
- 초기에는 '직업'이 주요 이동사유였으나, 이후 '주택·가족', 최근에는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의 중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세종시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자체를 인구 증가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함

- 공공기관 및 국가기능 이전 → 종사자 이동 → 가족 동반이주 →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지속적인 인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세종시 인구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유입 인구 확대’에서 ‘유입 이후 정착과 유지’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학령인구 감소와 읍·면지역 정주기반 약화[7)]

❍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 최근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3년 5,311명 → 2024년 4,862명 → 2025년 4,43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26학년도 입학예정자가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9개교로 나타남 (의랑초 1명, 전동초 2명, 연동초 3명, 쌍류초 4명, 소정초·장기초·조치원명동초 각 5명, 감성초·전의초 각 7명)

❍ 지역 언론이 세종시 및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10개 읍·면지역 인구는 86,702명으로 4년 전 90,509명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에서는 영유아 및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사립유치원 폐원 등 교육기반 축소 현상이 동반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세종시 전체 인구가 유지 또는 증가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행복도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상이한 인구동학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세종시 인구변화는 시 전체 총량보다 읍·면·동 단위의 전입·전출, 연령구조, 출산 및 가구구조 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단순한 인구유입 사업보다 교육·돌봄·생활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7) 세종시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2026.1.12.; 대전일보, "'젊은도시' 세종시도 읍면지역 학교 소멸 '경고등'", 2026.1.13., 종합 3면

4) 기술 및 혁신 환경

□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가능성

○ 세종시는 기존 미래전략산업으로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양자산업 등을 육성해 왔으며, 시정 5기 출범 이후에는 AI·반도체·디지털산업을 중심으로 자족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시정 5기 공약: 집현동 AI·로보틱스 R&D 강소특구 지정(공약13), Gov-Tech 규제자유특구(공약15) 등이 포함됨[8)]

○ 이는 청년 인구정책을 복지·지원정책 중심에서 산업·일자리·인재양성과 연계된 정착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경제적 기회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청년·인재 정주거점 형성[9)]

○ 세종 공동캠퍼스는 청년 및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공동캠퍼스는 2024년 9월 개교한 국내 최초의 공유형 대학 캠퍼스로,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약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함
- 전체 계획 규모는 약 60만㎡, 학생 정원 약 3,000명이며, 행정·정책, 바이오, AI·ICT 분야 대학들이 입주함
- 2026년 3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입주를 끝으로 **임대형 캠퍼스 5개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2026년 5월 기준 약 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분양형 캠퍼스에는 충남대·공주대·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2028~2030년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임

○ 단순히 대학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학생과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동캠퍼스 주변의 생활·문화·주거기능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8)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정 5기 공약과제 실천계획서(안)」, 2026.7.15.
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6.7.6.; 대전일보, "대학생 모이는 '세종 대학가' 만든다… 집현동 특화계획 시동", 2026.7.6., 6면

□ 공동캠퍼스 주변의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 7월 6일 집현동 공동캠퍼스 인근의 캠퍼스공원구역(특별계획구역 42)에 대한 특화계획 수립에 착수함

- 대상지역은 문화공원 39,121㎡, 상업·업무용지 12,768㎡, 주차장 1,617㎡ 등 총 53,507㎡ 규모임
- 대학·연구 기능과 함께 청년 주거, 문화·여가, 상업 기능을 결합한 대학가형 복합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 2027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과 세부 특화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토지 공급과 설계를 거쳐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공동캠퍼스 및 주변 대학가 조성은 대학생과 청년층의 신규 유입뿐 아니라 교육 이후 세종시 내 취업·창업·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님

- 따라서 현재 청년의 이동지역, 이동사유, 정주의향, 문화·주거·일자리 수요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집현동 청년정주공간 조성계획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5) 외부환경 PEST분석의 시사점

❍ 첫째, 세종시 내부의 공간적 인구 양극화를 고려한 읍·면·동 단위의 정밀 분석이 필요함

- 공동캠퍼스,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 미래산업 등 새로운 성장기능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와 생활기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 전체 인구의 증감만으로는 내부에서 상반되게 나타나는 인구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읍·면·동별 전입·전출과 연령·가구 특성을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구 목표의 달성 여부보다 인구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기존 행복도시 계획은 2030년 완성단계에서 동지역 50만 명, 읍·면지역

20만 명 등 총 70만 명 규모의 도시성장을 전제로 하였으나, 2025년 말 읍·면지역 인구는 86,70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시정 5기가 제시하는 인구 확대 및 자족경제도시 비전 역시 단순한 목표 인구 설정보다는 어떤 연령·가구가 유입되고, 누가 이탈하며, 유입된 인구가 왜 정착하거나 떠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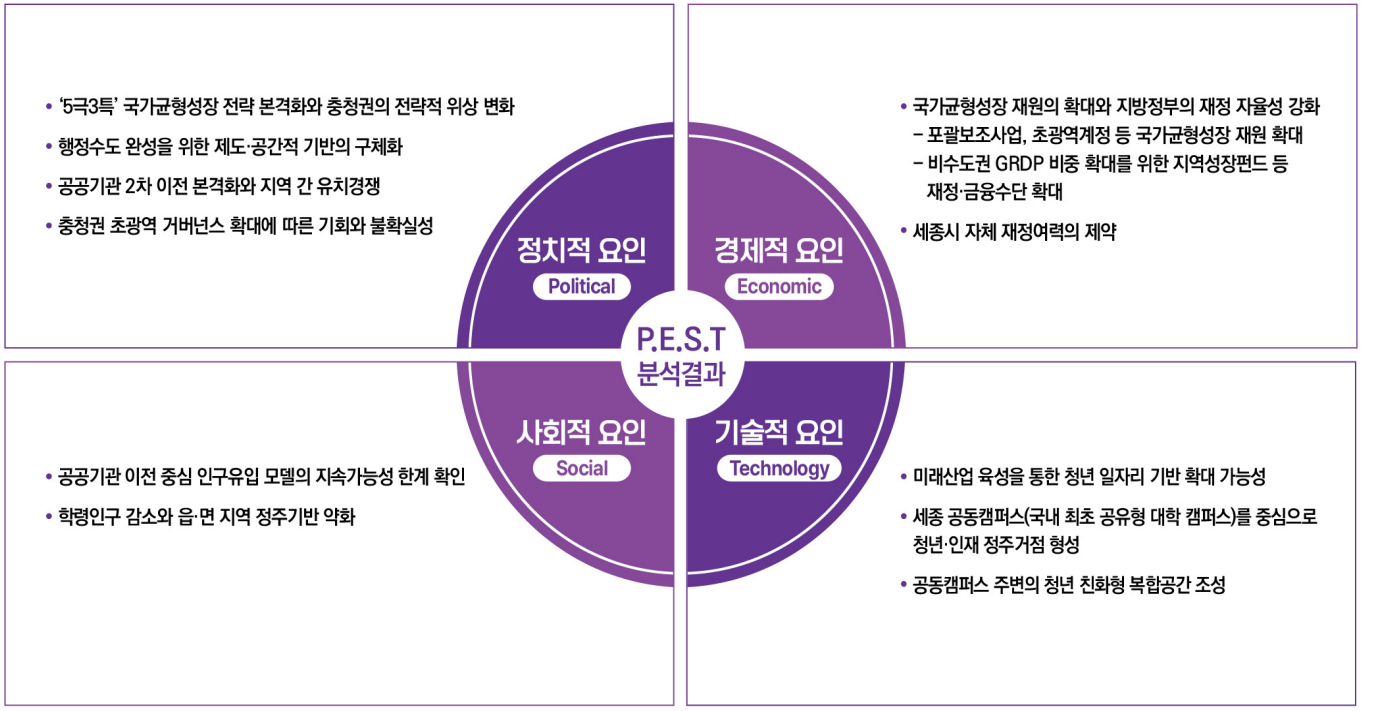
❍ 셋째,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외부 기회의 인구효과는 조건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청년을 핵심 분석집단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미래산업, 공동캠퍼스, 집현동 청년복합공간 등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서 청년 인구의 전입·전출과 정주의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대와 30대,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단계별 이동사유와 정착 조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을 획일적인 지원정책에서 세부 집단별 정착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보는 인구분석이 필요함

- 5극3특 및 충청광역연합의 본격화로 세종시의 인구이동은 행정구역 내부만이 아니라 대전·충북·충남과의 통근·취업·주거·교육 관계 속에서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에서는 수도권 순이동뿐 아니라 대전·충북·충남과 세종시 간 이동의 방향과 연령·사유별 차이를 별도의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주: 연구자 작성

2. 제도적 기반

1)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개요

❍ (추진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 (추진내용) 「제2차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6~'30)」에서 도출된 1개 비전, 3개 목표, 4개 추진전략별 과제 중심으로 사업내용, 소요예산, 성과지표 등 포함하는 시행계획 수립

- (비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중추 미래도시 세종
- (목표) 미래를 꿈꾸는 경제활동 여건 마련, 가치있는 돌봄사회 구축,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정주여건 개선
- (전략) 4개 전략, 13개 중점과제, 63개 세부과제

[표 2-18] 전략별 세부 과제 수

전략	계	지역 성장동력 기반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결혼 · 임신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보장	시민 체감형 정주환경 조성
과제수	63	15	23	8	17

[표 2-19] 전략별 중점과제

4개 전략	전략별 중점과제	세부과제 수	26년 예산 (백만원)
4개	13개	63개	89,981
① 지역성장동력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 청년성장 기반 조성	5개	26,932
	▸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4개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6개	
② 결혼 · 임신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 결혼·출산 장려 문화 조성	3개	22,245
	▸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9개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6개	
	▸ 일·가정 균형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	5개	

4개 전략	전략별 중점과제	세부과제 수	26년 예산 (백만원)
③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 보장	▸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3개	3,638
	▸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5개	
④ 시민 체감형 정주환경 조성	▸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	4개	37,166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개	
	▸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확충	5개	
	▸ 시민 맞춤형 의료 환경 조성	3개	

자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소요예산) 89,981백만원

❍ (부서별 사업) 63개 세부과제를 27개 부서가 분담하며, 인구여성가족과가 13개 과제로 가장 많고 보건소(7개)·노인장애인과(6개)가 뒤를 이음. 대다수 부서는 1개 과제만 담당함

[표 2-20] 부서별 사업 개수

해당부서	세부과제 수	해당부서	세부과제 수
청년정책담당관	3	돌봄건강과	1
자치행정과	1	노인장애인과	6
교육지원과	2	보건정책과	2
경제정책과	1	주택과	2
미래산업과	1	교통정책과	2
기업지원과	3	대중교통과	4
소상공인과	1	지능형도시과	1
산업입지과	1	환경정책과	1
농업정책과	1	산림자원과	1
문화예술과	1	보건소	7
한글문화도시과	1	농업기술센터	1
복지정책과	1	시설관리사업소	1
인구여성가족과	13	도로관리사업소	1
아동청소년과	3		
총합계		63	

자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전략별 세부과제

❍ ① 지역 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15개 과제, 26,932백만원)

- 중점과제: 청년성장 기반 조성(5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4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6개)

[표 2-21] 지역 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전략의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 요 내 용	소요 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3개	15개 사업		26,932	
청년성장 기반 조성	1)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여 청년 주거복지 향상	115	주택과
	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86	청년정책 담당관
	3)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 내실화	▸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정주를 목표로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18,215	청년정책 담당관
	4) 세종청년 장학사업 운영 활성화	▸ 세종시 학생들(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장학지원으로 학업의지 독려 및 교육평등 실현	354	교육 지원과
	5) 청년 맞춤형 온 · 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꿈키움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주체성 확립과 진로탐색 및 설계 기회	244	교육 지원과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1) 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 농업분야 행정도우미 운영,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 지원	152	농업 정책과
	2) 세종청년센터 및 청년활동 운영 활성화	▸ 취업박람회, 취창업 재기 지원, 청년 기업 매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958	청년정책 담당관
	3)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및 사업고도화 지원	323	경제 정책과
	4)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활성화	▸ 신중년(50~64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중장년 일자리 사회공헌 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607	기업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1)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 귀농·귀촌 관련 영농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비예산	농업 기술센터
	2)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업화 매출 확대	5,639	미래 산업과
	3) 마을기업 육성 지원 활성화	▸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100	기업 지원과
	4) 든든한 기업민원해결 센터 운영	▸ 기업활동 애로 사항 상담, 기업 활동 Onestop 서비스 제공, 기업전문 컨설팅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비예산	기업 지원과
	5)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세종시 연서면 일원에 미래 모빌리티·스마트시티·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 직접지원 (LH,교통공사)	산업 입지과
	6)소상공인종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세종시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원스톱 상담 창구 운영	139	소상 공인과

자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②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23개 과제, 22,245백만원)

- 중점과제: 결혼·출산 장려 문화 조성(3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9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6개), 일·가정 균형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5개)

[표 2-22]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전략의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 요 내 용	소요 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4개	23개 사업		22,245	
결혼·출산 장려 문화 조성	1)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세종형 인구교육 추진	▸ 인구문제 이해를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인구교육 추진	54	인구여성 가족과
	2) 미혼남녀 소중한 인연만들기 사업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20	인구여성 가족과
	3) 공공시설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	▸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예식 공간 제공 및 부부교육 등 지원	40	인구여성 가족과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1) 건강한 시작을 위한 신혼부부 및 초기 임산부 산전 검사	▸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혈액형, 풍진 (신혼부부 중 여성) 혈액검사 지원	10	남부통합 보건지소
	2) 소중한 생명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1,800	남부통합 보건지소
	3)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산·유산·기형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제(철분·엽산제)를 지원	103	남부통합 보건지소
	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관내 만 19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2	남부통합 보건지소
	5)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내실화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200천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11	노인 장애인과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354	남부통합 보건지소
	7)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남부통합 보건지소
	8) 출생축하금 지원	▸ 3개월 이상 계속 市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1명 당, 출산축하금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3,480	인구여성 가족과
	9) 위기임신 · 보호출산 지원 지역상담기관 운영 활성화	▸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을 연계	40	인구여성 가족과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 요 내 용	소요 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 체계 구축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 지역 돌봄 공동체 강화를 통한 마을 육아 실현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 보완	1,016	인구여성 가족과
	2)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활성화	▸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신규 설치, 장기임차,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1,155	인구여성 가족과
	3) 365일 24시간 언제나 안심 돌봄어린이집 운영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1세~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122	인구여성 가족과
	4) 안전하고 따뜻한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8,002	아동 청소년과
	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1,297	아동 청소년과
	6)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보호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2,730	아동 청소년과
일·가정 균형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아빠장려금 지급 (최대 180만원), 지역화폐 지급(여민전)	431	인구여성 가족과
	2) 100배 더 행복한 아빠랑 육아, 100인의 아빠단 운영	▸ 초보 아빠들이 육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	40	인구여성 가족과
	3) 경력단절 여성 one-stop 취업지원 내실화	▸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851	인구여성 가족과
	4) 직장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 관련 노무상담, 교육 등 서비스 지원으로 경력단절 사전 예방 및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215	인구여성 가족과
	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통비 및 학습 지원비, 명절지원금 및 월동비 등 지급	468	인구여성 가족과

자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③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구축(8개 과제, 3,638백만원)

- 중점과제: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3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5개)

[표 2-23]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구축 전략의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 요 내 용	소요 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2개	8개 사업		3,638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1) 건강한 배움의 노인대학 운영 지원	▸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하기 위해 관내 노인대학 5개소 지원	68	노인 장애인과
	2)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내실화	▸ 고령화시대 지역사회 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정보교환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문화센터 운영	670	노인 장애인과
	3) 활기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지원 일자리 추진	20	노인 장애인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1) 의료 · 요양 통합돌봄 사업 운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 등 4개 영역에 걸쳐 30개 이상의 서비스제공	541	돌봄 건강과
	2)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건강보험료 지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 등이 의료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414	복지 정책과
	3) 고령자 임대주택 운영 내실화	▸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문화·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거시설 공급	963	주택과
	4) 노인복지주택 운영 내실화	▸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밀마루복지마을 수탁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701	노인 장애인과
	5) 세종시립요양원 운영 안정화	▸ 치매노인 돌봄 강화 및 가족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시립 요양시설 운영	260	노인 장애인과

자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④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17개 과제, 37,166백만원)

- 중점과제: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4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5개),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확충(5개), 시민 맞춤형 의료환경 조성(3개)

[표 2-24]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의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 요 내 용	소요 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4개	17개 사업		37,166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	1)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사업 추진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노선체계 교통서비스를 대체한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서비스 제공	14,400	대중 교통과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이응패스)	▸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우리 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통합교통 플랫폼(이응패스)도입 및 운영	578	대중 교통과
	3) 공공자전거 어울링 운영	▸ 원하는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사용 후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반납하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울링 도입 및 대여소 추가	2,715	대중 교통과
	4)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 아동 등 고상 버스 이용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2,262	대중 교통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비	150	교통 정책과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 예방	-	교통 정책과
	3) 밝고 안전한 야간도로 이용 환경 조성	▸ 노후 도로조명시설에 대해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편의를 제공	700	도로관리 사업소
	4)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전망 구축	▸ 지능형 관제시스템, CCTV 구축 및 관제상황판 교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등 사회 안전망 서비스 제공	64	지능형 도시과
	5)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다각적 저감조치 시행	7,204	환경 정책과
생활 밀착형 문화 인프라 확충	1)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 운영	▸ 지역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	100	한글문화 도시과
	2)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시설 운영	▸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누리며 지역문화 예술 진흥,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문화복지 및 균형발전, 문화산업 기반 마련	4,659	문화 예술과
	3)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건전한 여가 선용 충족 기회 제공 등 주민편의와 문화·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2	자치 행정과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 요 내 용	소요 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생활 밀착형 문화 인프라 확충	4) 생활에 활력을 주는 도시공원 운영	▸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공원 시설개선으로 이용약자 등 공원이용 활성화	2,271	시설관리 사업소
	5) 세종시 숲길(둘레길) 조성 관리	▸ 다양한 산악 편의시설 및 숲길 증축, 노면 정비, 풀베기 등 유지관리 및 시설보완	220	산림 자원과
시민 맞춤형 의료 환경 조성	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 지역 내 소아 응급의료체계 연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889	보건 정책과
	2) 치매안심센터 운영	▸ 60세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812	보건소
	3)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 시민 보건안전 증진 도모를 위해 응급의료 기관 평가와 보조금 지급 및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140	보건 정책과

자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인구정책 시행계획 특징

❍ (전략별 세부과제 수) ②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23개), ④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17개), ① 지역성장동력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15개), ③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구축(8개) 순으로 많음

❍ (전략별 예산) ④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37,166백만원)이 전체 예산의 41.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① 지역성장동력기반 구축(26,932백만원), ② 결혼·임신·출산·양육 사회환경 조성(22,245백만원), ③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구축(3,638백만원) 순으로 이어짐

[표 2-25] 전략별 세부과제 수, 예산

전 략	세부과제 수	총예산(백만원)
① 지역성장동력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15개	26,932(30.0%)
②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23개	22,245(24.7%)
③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구축	8개	3,638(4.0%)
④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	17개	37,166(41.3%)
합 계	63개	89,981(100.0%)

□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청년정책담당관 과제

○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과제는 63개 과제 중 3건으로, 예산은 19,259백만원임. 이는 전체 예산 89,981백만원 중 21.4%를 차지함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구)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예산은 18,215백만원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 과제 예산의 대부분(94.6%)을 차지하며, 전체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세종시가 해당 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줌

[표 2-26]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청년정책담당관의 과제

전 략	세부과제	내 용	예산 (백만원)
지역성장동력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86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 내실화	▸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정주를 목표로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18,215
	세종청년센터 및 청년활동 운영 활성화	▸ 취업박람회, 취창업 재기 지원, 청년 기업 매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958
합 계			19,259

□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청년 관련 세부과제

○ '청년' 키워드 포함 과제 전체(부서 무관)

- 청년정책담당관 담당 과제와, 과제명·내용에 '청년' 키워드가 포함된 타 부서 과제를 합하면 총 8개이며, 이 8개 과제는 모두 ① 지역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전략에 집중되어 있음. 나머지 3개 전략에는 청년 관련 과제가 없음
- 8개 과제의 예산은 20,44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7%를 차지하나, 이 중 RISE 사업(18,215백만원)이 89.1%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개 과제의 합계는 2,232백만원(전체의 2.5%)에 불과함
- 청년 관련 세부과제는 교육·주거·취창업 3개 분야에 집중됨(교육: RISE 18,215백만원, 세종청년 장학사업 354백만원,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244백만원 / 주거: 쉐어하우스 115백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86백만원 / 취창업: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152백만원, 세종청년센터 958백만원,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323백만원)

[표 2-27]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청년 관련 과제

전 략	세부과제	내 용	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지역성장동력기반 구축으로 자족 역량 강화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여 청년 주거복지 향상	115	주택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86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 내실화	▸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정주를 목표로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18,215	청년정책 담당관
	세종청년 장학사업 운영 활성화	▸ 세종시 학생들(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장학지원으로 학업의지 독려 및 교육평등 실현	354	교육 지원과
	청년 맞춤형 온 · 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꿈키움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주체성 확립과 진로탐색 및 설계 기회	244	교육지 원과
	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 농업분야 행정도우미 운영,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 지원	152	농업 지원과
	세종청년센터 및 청년활동 운영 활성화	▸ 취업박람회, 취창업 재기 지원, 청년 기업 매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958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및 사업고도화 지원	323	경제 정책과
합 계			20,447	

❍ 89,981백만원의 인구정책 예산 중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조성(37,166백만원, 41.3%)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청년 관련 세부과제(8개, 20,447백만원)는 RISE 사업 한 건이 89.1%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배분 가능한 재량예산은 2,232백만원(전체의 2.5%)에 불과함

○ 이는 27개 부서가 63개 과제를 분담하는 구조에서, 예산이 소수의 대형 사업(앵커사업, 대중교통 공공형버스 14,400백만원 등)에 집중되고 나머지 다수 과제는 소액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종시 인구정책 예산 배분의 특징을 보여줌

○ 이러한 재원 배분 구조는 4장에서 청년 정주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 재정적 제약 조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2) 시정 5기 공약과 인구정책 방향

□ 시정 5기 비전 및 시정목표

○ 세종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조상호 시장이 7월 1일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시정 5기 비전으로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선포함(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정 5기 공약과제 실천계획서(안)」, 2026.7.15, 3쪽)

○ 5대 시정목표는 ①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②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③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④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⑤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로 구성됨

○ 5대 시정목표 아래 25개 추진전략과 124개 공약과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124개 과제는 '세종시민의 하루 24시간(124)'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시정5기 공약 분석 개요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정 5기를 맞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라는 비전 아래,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성숙한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의 안정적 유지, 생활인구의 전략적 유입, 자연적 증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정 5기 공약과제에 내포된 인구정책적 요소를 정주인구·생활인구·자연적 증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공약 분류 기준) 시정 5기 공약과제를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인구증감을 구성하는 두 축인 사회적 증감(전입·전출)과 자연적 증감(출생·사망)을 기준으로 공약과제를 구분함

- 이 중 사회적 증감은 다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체류인구)로 세분화하여, 공약과제를 최종적으로 정주인구·생활인구·자연적 증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표 2-28] 공약 유형 분류기준

분 류		정 의
사회적 증감	정주 인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전입·정착을 유도하거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공약
	생활 인구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세종시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거나 활동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
자연적 증감		인구이동과 무관하게 출생·사망 등 인구의 자연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

주: 연구자 제안

[표 2-29] 인구정책 유형별 시정 5기 공약과제 현황

유 형		공 약 명		주관부서
사회적 증감	정주 인구	공약 7	5-2생활권 종합병원 유치	보건정책과
		공약 26	종합국립대 및 카이스트 세종캠퍼스 유치	청년정책담당관
		공약 28	청년 정주기반 완성(주거·창업 원스톱 패키지)	청년정책담당관
		공약 29	세종청년경험크레딧제도 도입	청년정책담당관
		공약 31	세종 청년창업 엑셀러레이터 운영	경제정책과
		공약 32	한국폴리텍대학 정규캠퍼스 유치	기업지원과
		공약 33	청년 기회책임제 기반 산업맞춤형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기업지원과
		공약 82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지원확대	인구여성가족과
		공약 85	국가유공자 의료·돌봄 및 장례예우 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공약 86	신도심 남부보건소 설치	보건정책과
		공약 87	모두의 교통, 교통통합 이동체계 구축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약 90	생활교통환경 개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약 92	액티브시니어빌리지(은퇴자마을) 조성	주택과
		공약 94	연기면·장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자치행정과
		공약 96	청년농촌전환마을 조성	도농정책기획과
		공약 97	신도시 및 읍면지역 주택공급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농정책기획과
		공약 116	청년청 설립 및 청년 공론장 개설·운영	청년정책담당관
		공약 117	글로벌경험 세종청년플랫폼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유 형		공 약 명		주관부서
사회적 증감	생활 인구	공약 6	세종아레나 조성 기반 마련	한글문화도시과
		공약 8	KTX 세종중앙역, ITX, CTX 추진 등 교통중심도시 실현	교통정책과
		공약 18	세종형 문화 콘텐츠사업 기반조성	문화예술과
		공약 19	나성문화예술산업지구	한글문화도시과
		공약 20	연동예술문화단지 조성	문화유산과
		공약 21	조치원 공연예술관광지구	문화예술과
		공약 22	북부권 역사문화벨트 조성	문화유산과
		공약 23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 명품화	문화유산과
		공약 27	유소년직업체험테마파크(키자니아 유치)	투자유치단
		공약 34	시장직속 상권활성화 비상대책 위원회 설치·운영	소상공인과
		공약 36	세종 공실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소상공인과
		공약 38	여민전2.0 지역경제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소상공인과
		공약 39	골목상권 이용편의 개선	소상공인과
		공약 45	소비촉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과
		공약 48	공연예술을 통한 주말·야간관광 활성화	관광진흥과
		공약 49	세종시민문화계획	문화예술과
		공약 60	세종형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체육진흥과
		공약 100	방축천 이용 활성화	물관리정책과
		공약 101	세종 글로벌 복숭아 축제 도약 기반 마련	우리농산물유통과
		공약 110	고복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환경정책과
		공약 113	원수산 둘레길 정비 및 힐링 쉼터 조성	정원도시과
자연적 증감		공약 62	어르신 복지와 권익보호 확대	노인장애인과
		공약 68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체계 구축	인구여성가족과
		공약 71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급·간식비 인상)	인구여성가족과
		공약 72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사업 개선	우리농산물유통과
		공약 73	읍면 야간연장+휴일 어린이집 운영	인구여성가족과
		공약 74	세종형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인구여성가족과
		공약 78	우리동네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지정 운영	노인장애인과
		공약 80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과
		공약 83	출산가정 맞춤형 지원 및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보건정책과
		공약 84	세종365-24시 소아·공공의료체계 구축	보건정책과

주: 연구자 제안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정 5기 공약과제 실천계획서(안)」, 2026.7.15.,84~292쪽

□ 인구 관련 시정 5기 공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시정 5기의 정책목표 재설정은 단순한 인구 규모 증가보다 정착과 유출 방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남

- (정주인구 관련 공약)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주거·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세종시 인구정책의 핵심 타겟이 청년층 정착에 있음을 보여줌
- (생활인구 관련 공약) 문화·관광·축제 인프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대보다는 방문·체류형 활동인구 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됨
- (자연적 증감 관련 공약) 보육·돌봄·고령복지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나, 출산 자체를 직접 장려하는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어, 출산 유인보다는 양육 부담 완화와 고령화 대응에 정책 비중이 더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읍면 지역 관련 공약)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이 정주인구뿐 아니라 자연적 증감(보육·돌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 양상이 단일 정책 축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임을 시사함

❍ 다만 다음 세 가지가 향후 과제로 남음

- (재정) 청년 정주정책의 상당수가 비예산 또는 소액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목표(청년주택 1,000호, 일자리 5,000개 등)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계획 정합성)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시정 5기 공약 간 사업 중복·재원 배분의 정합성 확보가 요구됨
- (추진체계) 다수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할 청년청(공약116)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정립이 관건이며, 이는 5장 정책과제 도출 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3장

1절 |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
2절 | 생활권별 인구이동 분석
3절 | 종합시사점

3장 |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1절 최근 3개년 인구이동 분석

1.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총괄) 검토 결과**

○ 세종시는 여전히 전입이 많은 지역이지만, 점차 전입과 전출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매년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전입초과)' 현상**이 나타났으나, 순이동률은 **2015년 최고치(29%)를 경신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2025년 기준 순이동률 0.0%)
- 시·도 간 전입자 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시·도 간 전출자 수와 시·도 내 이동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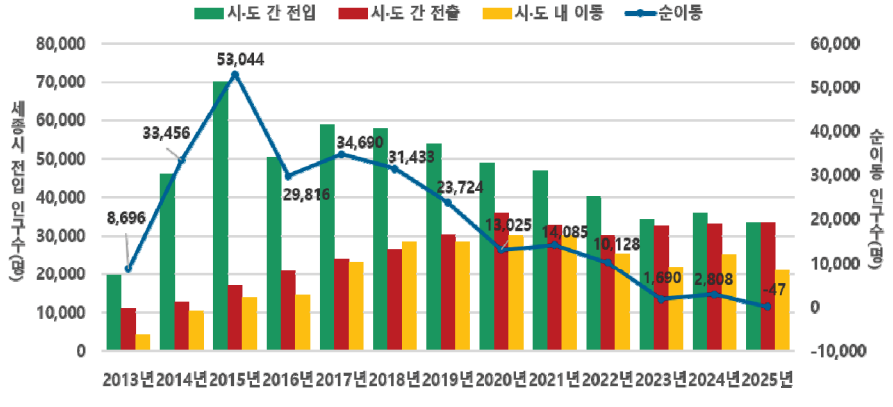
○ 최근 3개년(2023~2025년) 특징을 보면, **세종시 인구 순이동이 거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순이동 규모는 2023년 1,690명(순이동률 0.4%), 2024년 2,808명(0.7%)으로 소폭 회복되었으나, 2025년에는 -47명(0.0%)으로 사실상 순유입이 멈추고 미세한 순유출로 전환됨
- 시·도 간 전입과 전출 보면, 전입은 큰 변동 없이 정체된 반면 전출 규모는 5만 명대 후반에서 계속 높게 유지되어 순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됨
- 시·도 내 이동 규모도 2023년 21,803명에서 2025년 21,007명으로 다소 줄어, 세종시 내부 이동 자체도 둔화되는 양상

[표 3-1]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연 도	총전입	시·도 간 전입	전출	시·도 간 전출	시·도 내 이동*	순이동**	순이동률***
2013	23,805	19,700	15,109	11,004	4,105	8,696	7.4
2014	56,526	46,071	23,070	12,615	10,455	33,456	24.2
2015	83,994	70,004	30,950	16,960	13,990	53,044	29.0
2016	65,052	50,506	35,236	20,690	14,546	29,816	13.2
2017	82,073	58,828	47,383	24,138	23,245	34,690	13.3
2018	86,433	57,983	55,000	26,550	28,450	31,433	10.6
2019	82,398	54,017	58,674	30,293	28,381	23,724	7.3
2020	78,934	48,889	65,909	35,864	30,045	13,025	3.8
2021	76,912	46,875	62,827	32,790	30,037	14,085	3.9
2022	65,529	40,237	55,401	30,109	25,292	10,128	2.7
2023	56,050	34,247	54,360	32,557	21,803	1,690	0.4
2024	61,022	35,946	58,214	33,138	25,076	2,808	0.7
2025	54,355	33,348	54,402	33,395	21,007	-47	0.0
합 계	873,083	596,651	616,535	340,103	276,432	256,548	-



주: * 세종시 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와 읍에서 읍, 면에서 면, 동에서 동으로의 이동을 모두 제외한 수치(통계청 공표 기준 준용)

** 순이동의 수는 순 시·도 간 이동 수와 동일. 순이동의 수가 양의 부호를 갖는다는 것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순유입의 수로 볼 수 있음

*** 순이동률은 「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 X 100」으로 계산된,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의미

□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 추이**

○ **(2013년 vs. 2025년 비교)** 세종시 전입 사유는 출범 초기 '직업' 중심에서 '가족·교육·주거환경'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 '직업'은 2013년 46.2%에서 2025년 35.1%로 감소한 반면, '가족'은 20.7%에서 30.9%로 증가하여 전입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
- '교육'은 3.5%에서 7.5%, '주거환경'은 1.1%에서 3.9%로 증가하여 가족 생활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전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주택'은 2017년 36.0%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5년 16.2%까지 낮아지는 등 주택 요인에 의한 전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됨

○ **(2023~2025년 특징) 최근 3년은 '직업·가족' 사유의 증가와 '주택' 사유의 감소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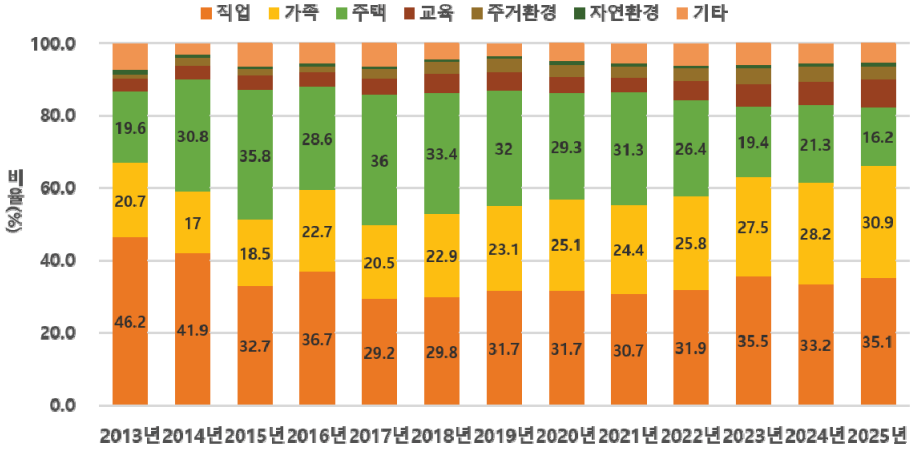
- '직업'은 2023년 31.9%에서 2025년 35.1%, '가족'은 27.5%에서 30.9%로 증가한 반면, '주택'은 2024년 21.3%에서 2025년 16.2%로 크게 감소함
- 이는 최근 세종시 전입이 주택 자체에 의한 이동보다 일자리와 가족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시계열적 특성) 장기적으로는 전입 사유의 다변화가 특징이라면, 최근에는 주택 요인의 영향이 약화되고 직업과 가족 요인의 중요성이 다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입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표 3-2]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직업	9,104	19,313	22,870	18,523	17,149	17,293	17,129	15,504	14,374	12,840	12,155	11,926	11,702
가족	4,078	7,826	12,982	11,441	12,064	13,296	12,485	12,273	11,444	10,392	9,409	10,134	10,311
주택	3,860	14,199	25,027	14,440	21,162	19,339	17,282	14,325	14,663	10,619	6,650	7,660	5,410
교육	693	1,858	2,782	1,902	2,552	3,149	2,697	2,172	1,843	2,177	2,172	2,418	2,490
주거환경	215	981	1,194	825	1,574	1,806	2,002	1,706	1,515	1,421	1,494	1,442	1,310
자연환경	303	400	468	358	472	435	405	484	393	295	298	305	271
기타	1,447	1,494	4,681	3,017	3,855	2,665	2,017	2,425	2,643	2,493	2,069	2,061	1,854
합계	19,700	46,071	70,004	50,506	58,828	57,983	54,017	48,889	46,875	40,237	34,247	35,946	33,348
비 율(%)													
직업	46.2	41.9	32.7	36.7	29.2	29.8	31.7	31.7	30.7	31.9	35.5	33.2	35.1
가족	20.7	17.0	18.5	22.7	20.5	22.9	23.1	25.1	24.4	25.8	27.5	28.2	30.9
주택	19.6	30.8	35.8	28.6	36.0	33.4	32.0	29.3	31.3	26.4	19.4	21.3	16.2
교육	3.5	4.0	4.0	3.8	4.3	5.4	5.0	4.4	3.9	5.4	6.3	6.7	7.5
주거환경	1.1	2.1	1.7	1.6	2.7	3.1	3.7	3.5	3.2	3.5	4.4	4.0	3.9
자연환경	1.5	0.9	0.7	0.7	0.8	0.8	0.7	1.0	0.8	0.7	0.9	0.8	0.8
기타	7.3	3.2	6.7	6.0	6.6	4.6	3.7	5.0	5.6	6.2	6.0	5.7	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 추이**

○ **(2013년 vs. 2025년 비교)** 세종시의 전출 사유는 '직업·가족·주택' 중심의 구조가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교육' 목적 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2025년 전출 사유는 '직업' 33.3%, '가족' 26.5%, '주택' 18.9% 순으로, 2013년(32.6%, 27.8%, 20.5%)과 비교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반면 '교육' 사유는 2013년 5.0%에서 2025년 11.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전출 사유 가운데 가장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보임
-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에 따른 전출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2023~2025년 특징)** 최근 3년간 교육 목적 전출의 증가세가 지속됨

- '교육' 사유는 2023년 8.9%에서 2024년 10.1%, 2025년 1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같은 기간 '가족'과 '주택' 등 다른 주요 사유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교육이 최근 세종시 인구유출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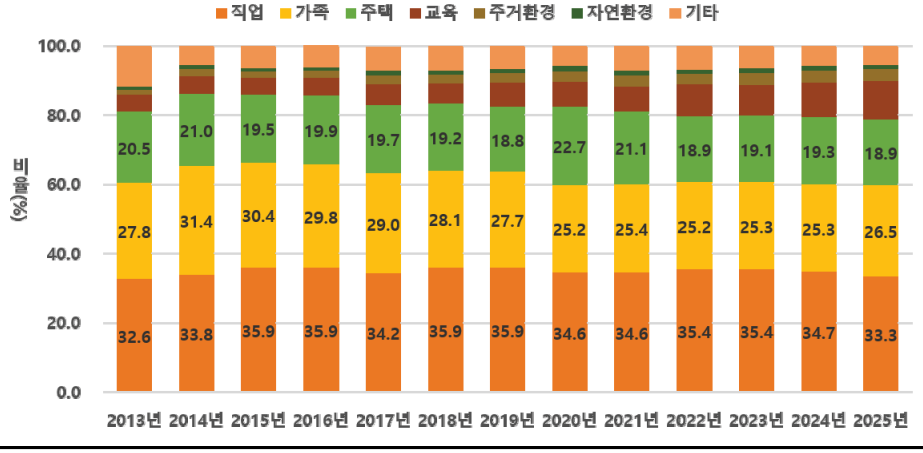
○ **(시계열적 특성) 2013~2025년 장기적으로 세종시 전출 사유는 '직업·가족·주택' 중심의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교육' 사유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남**

- '직업'은 30%대 중반, '가족'은 20%대 후반, '주택'은 20%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교육'은 2013년 5.0%에서 2025년 11.0%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에도 '교육'은 8.9% → 10.1% → 11.0%로 지속 상승한 반면 직업·가족·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나 최근 시점 모두 교육 요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세종시 전출 사유 변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임

[표 3-3]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직업	3,585	4,262	6,097	7,434	8,258	9,523	10,870	12,397	11,361	10,668	11,512	11,484	11,123
가족	3,062	3,963	5,154	6,168	7,009	7,465	8,401	9,025	8,329	7,596	8,247	8,382	8,841
주택	2,256	2,649	3,303	4,111	4,762	5,088	5,709	8,141	6,912	5,701	6,218	6,390	6,324
교육	551	616	808	1,066	1,458	1,600	2,076	2,507	2,343	2,797	2,905	3,361	3,674
주거환경	150	267	338	411	629	640	882	1,128	1,057	920	1,118	1,166	1,159
자연환경	87	142	152	197	348	325	303	535	490	375	441	402	357
기타	1,313	716	1,108	1,303	1,674	1,909	2,052	2,131	2,298	2,052	2,116	1,953	1,917
합계	11,004	12,615	16,960	20,690	24,138	26,550	30,293	35,864	32,790	30,109	32,557	33,138	33,395
비 율(%)													
직업	32.6	33.8	35.9	35.9	34.2	35.9	35.9	34.6	34.6	35.4	35.4	34.7	33.3
가족	27.8	31.4	30.4	29.8	29.0	28.1	27.7	25.2	25.4	25.2	25.3	25.3	26.5
주택	20.5	21.0	19.5	19.9	19.7	19.2	18.8	22.7	21.1	18.9	19.1	19.3	18.9
교육	5.0	4.9	4.8	5.2	6.0	6.0	6.9	7.0	7.1	9.3	8.9	10.1	11.0
주거환경	1.4	2.1	2.0	2.0	2.6	2.4	2.9	3.1	3.2	3.1	3.4	3.5	3.5
자연환경	0.8	1.1	0.9	1.0	1.4	1.2	1.0	1.5	1.5	1.2	1.4	1.2	1.1
기타	11.9	5.7	6.5	6.3	6.9	7.2	6.8	5.9	7.0	6.8	6.5	5.9	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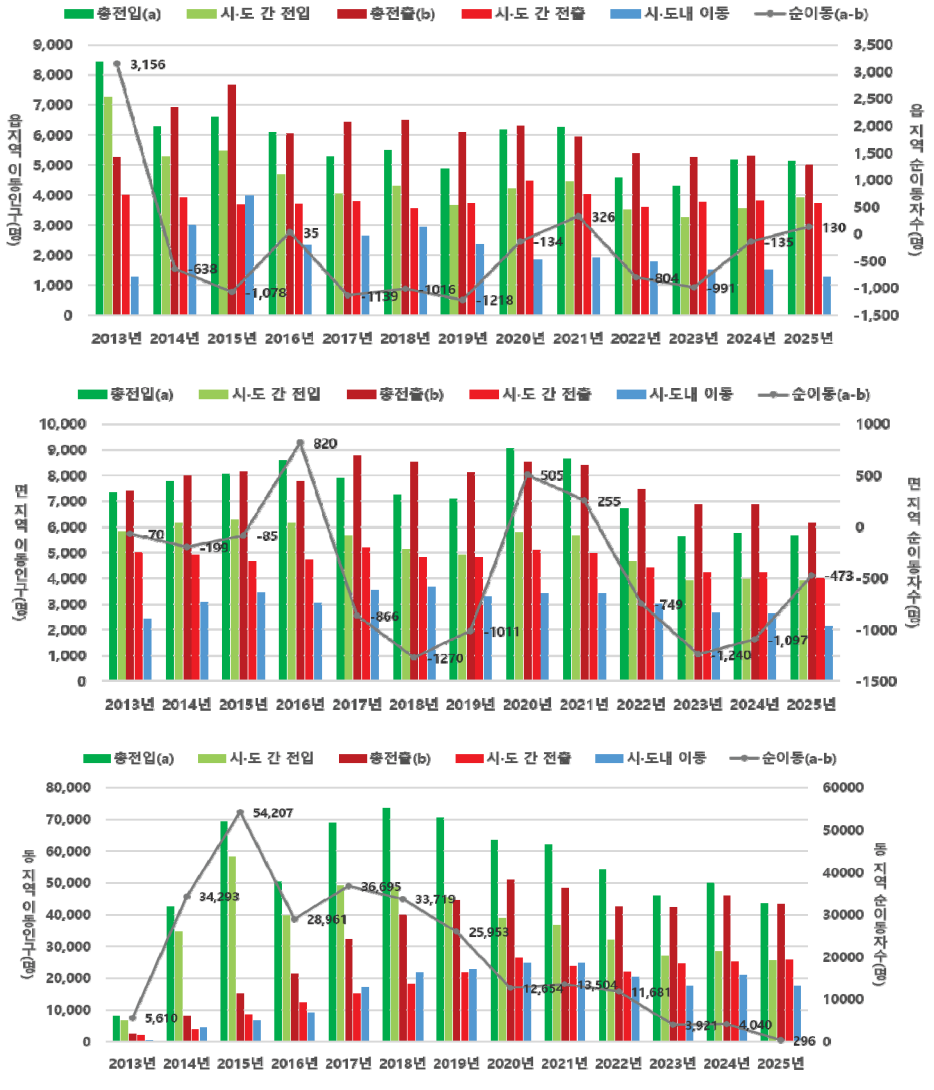
□ 세종시 읍·면·동 별 인구이동 현황

[표 3-4] 세종시의 읍·면·동 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연 도	전 입		전 출		전출기준 시·도 내 이동	순이동* (a-b)
		총전입(a)	시·도 간 전입	총전출(b)	시·도 간 전출		
읍 (A)	2013	8,435	7,270	5,279	4,012	1,267	3,156
	2014	6,286	5,281	6,924	3,924	3,000	-638
	2015	6,599	5,477	7,677	3,697	3,980	-1,078
	2016	6,089	4,683	6,054	3,710	2,344	35
	2017	5,290	4,042	6,429	3,787	2,642	-1,139
	2018	5,483	4,301	6,499	3,555	2,944	-1,016
	2019	4,876	3,670	6,094	3,727	2,367	-1,218
	2020	6,177	4,223	6,311	4,466	1,845	-134
	2021	6,260	4,442	5,934	4,017	1,917	326
	2022	4,586	3,527	5,390	3,614	1,776	-804
	2023	4,288	3,242	5,279	3,750	1,529	-991
	2024	5,175	3,553	5,310	3,801	1,509	-135
	2025	5,133	3,922	5,003	3,735	1,268	130
	소계	74,677	57,633	78,183	49,795	28,388	-3,506
면 (B)	2013	7,340	5,832	7,410	5,001	2,409	-70
	2014	7,781	6,142	7,980	4,900	3,080	-199
	2015	8,057	6,270	8,142	4,680	3,462	-85
	2016	8,602	6,153	7,782	4,727	3,055	820
	2017	7,900	5,643	8,766	5,208	3,558	-866
	2018	7,255	5,122	8,525	4,831	3,694	-1,270
	2019	7,089	4,912	8,100	4,813	3,287	-1,011
	2020	9,054	5,791	8,549	5,112	3,437	505
	2021	8,652	5,651	8,397	4,991	3,406	255
	2022	6,703	4,663	7,452	4,431	3,021	-749
	2023	5,624	3,932	6,864	4,221	2,643	-1,240
	2024	5,766	3,959	6,863	4,233	2,630	-1,097
	2025	5,667	3,950	6,140	4,009	2,131	-473
	소계	95,490	68,020	100,970	61,157	39,813	-5,480
동 (C)	2013	8,030	6,598	2,420	1,991	429	5,610
	2014	42,459	34,648	8,166	3,791	4,375	34,293
	2015	69,338	58,257	15,131	8,583	6,548	54,207
	2016	50,361	39,670	21,400	12,253	9,147	28,961
	2017	68,883	49,143	32,188	15,143	17,045	36,695
	2018	73,695	48,560	39,976	18,164	21,812	33,719
	2019	70,433	45,435	44,480	21,753	22,727	25,953
	2020	63,703	38,875	51,049	26,286	24,763	12,654
	2021	62,000	36,782	48,496	23,782	24,714	13,504
	2022	54,240	32,047	42,559	22,064	20,495	11,681
	2023	46,138	27,073	42,217	24,586	17,631	3,921
	2024	50,081	28,434	46,041	25,104	20,937	4,040
	2025	43,555	25,476	43,259	25,651	17,608	296
	소계	702,916	470,998	437,382	229,151	208,231	265,534

구분	연 도	전 입		전 출		전출기준 시·도 내 이동	순이동* (a-b)
		총전입(a)	시·도 간 전입	총전출(b)	시·도 간 전출		



❍ **(2013~2025년 누적)**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유입은 동 지역에 집중된 반면, 읍·면 지역은 장기적으로 순유출되는 상반된 인구이동 구조가 나타남

- 2013~2025년 누적 순이동은 동 지역이 +265,534명인 반면, 읍 지역은 -3,506명, 면 지역은 -5,480명으로 나타나 세종시의 인구성장이 주로 동 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특히 읍·면 지역은 연도별 등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어, 신도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격차가 확인됨

○ **(2023~2025년)** 최근에는 세종시 인구성장을 견인해 온 동 지역의 순유입 규모도 크게 축소되는 변화가 나타남

- 동 지역 순이동은 2023년 +3,921명, 2024년 +4,040명에서 2025년 +296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읍 지역도 2025년 +130명으로 소폭 순유입에 그침
- 면 지역은 2023년 -1,240명, 2024년 -1,097명에 이어 2025년에도 -473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여 최근까지 인구유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시계열적 특성)** 2013~2025년 장기적으로 세종시 인구이동은 동 지역의 대규모 순유입과 읍·면 지역의 순유출이 병존하는 공간적 양극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3년(2023~2025년)에는 기존 인구성장을 견인했던 동 지역의 순유입 규모마저 크게 축소되는 변화가 나타남

□ **최근 3년간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 전출자의 전출지역 특성**

○ 최근 세종시 인구이동은 세종 내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순이동 방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 대전에서는 순유입, 충남·충북과 서울에서는 순유출되는 구조가 확인됨

- 2023~2025년 누계 기준 세종시 내부 이동은 전체 전입의 39.6%, 전출의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인구이동의 약 40%가 세종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과의 이동도 전입 29.4%, 전출 29.2%로 나타나, 세종시 인구이동이 세종과 인접 충청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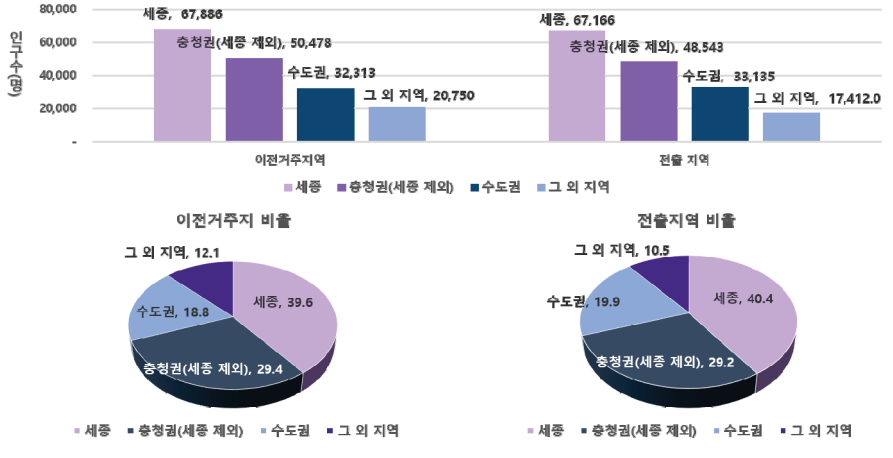
○ 수도권과의 인구이동은 충청권보다 규모가 작고, 전입보다 전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서울·경기에서의 전입은 전체의 17.3%인 반면, 서울·경기로의 전출은 18.3%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은 전입 7.8%, 전출 8.9%로 전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도권과의 인구이동 관계 및 순이동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표 3-5] 최근 3년간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누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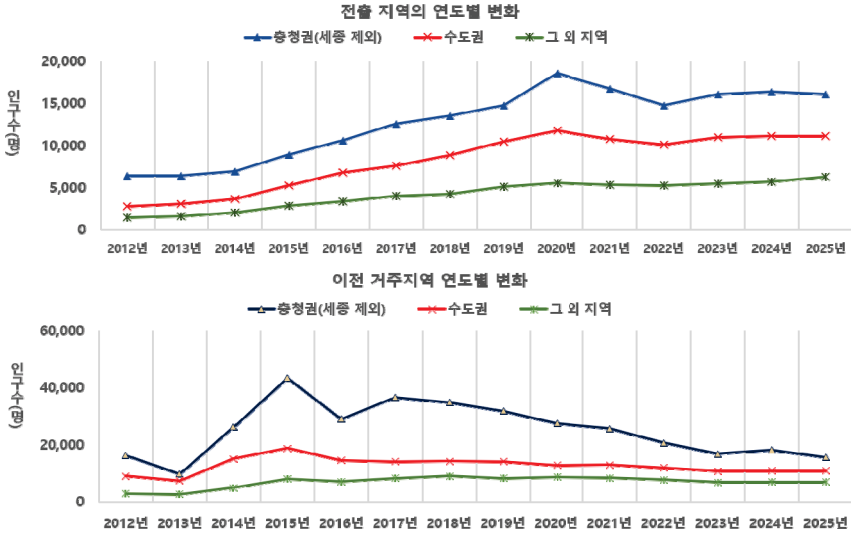
(단위: 명, %)

이전 거주지	누적합계	비율(2023~2025)	전출지역	누적합계	비율(2023~2025)
서 울	13,334	7.8	서 울	14,839	8.9
부 산	2,419	1.4	부 산	2,400	1.4
대 구	1,931	1.1	대 구	1,665	1.0
인 천	2,725	1.6	인 천	2,651	1.6
광 주	1,826	1.1	광 주	1,356	0.8
대 전	25,036	14.6	대 전	21,374	12.9
울 산	850	0.5	울 산	631	0.4
세 종	67,886	39.6	세 종	67,166	40.4
경 기	16,254	9.5	경 기	15,645	9.4
강 원	2,001	1.2	강 원	1,597	1.0
충 북	11,644	6.8	충 북	12,526	7.5
충 남	13,798	8.0	충 남	14,643	8.8
전 북	3,352	2.0	전 북	2,942	1.8
전 남	1,910	1.1	전 남	1,493	0.9
경 북	2,727	1.6	경 북	2,325	1.4
경 남	2,640	1.5	경 남	2,077	1.2
제 주	1,094	0.6	제 주	926	0.6
합 계	171,427	100.0	합 계	166,256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2~2025년)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 전출자의 전출지역 특성



[그림 3-1]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의 연도별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6] 세종시 연도별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2012~2025년)

(단위: 명)

연 도	전출자의 전출지역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세종	충청권 (세종 제외)	수도권	그 외 지역	수도권	충청권 (세종 제외)	세종	그 외 지역
2012	4,704	6,411	2,767	1,409	8,985	16,218	4,704	2,877
2013	4,105	6,430	3,009	1,565	7,417	9,721	4,105	2,562
2014	10,455	6,956	3,659	2,000	15,012	26,136	10,455	4,923
2015	13,990	8,897	5,264	2,799	18,718	43,233	13,990	8,053
2016	14,546	10,583	6,785	3,322	14,470	28,987	14,546	7,049
2017	23,245	12,567	7,582	3,989	14,084	36,564	23,245	8,180
2018	28,450	13,505	8,817	4,228	14,125	34,856	28,450	9,002
2019	28,381	14,750	10,459	5,084	14,028	31,757	28,381	8,232
2020	30,045	18,612	11,736	5,516	12,793	27,434	30,045	8,662
2021	30,037	16,730	10,715	5,345	12,890	25,628	30,037	8,357
2022	25,292	14,799	10,094	5,216	11,866	20,626	25,292	7,745
2023	21,803	16,090	10,978	5,489	10,672	16,723	21,803	6,852
2024	25,076	16,381	11,081	5,676	10,840	18,181	25,076	6,925
2025	21,007	16,072	11,076	6,247	10,801	15,574	21,007	6,973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2~2025년 전입 특성) 세종시 출범 이후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은 도시 성장기에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충청권과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감소가 두드러짐

- 충청권(세종 제외)으로부터의 전입은 2012년 16,218명에서 2015년 43,233명까지 급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5,574명으로 낮아짐
-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역시 2015년 18,71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25년 10,801명으로 나타남
- 반면 세종시 내부 이동은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확대되어 2020년 30,045명까지 증가한 후 2025년 21,007명으로 감소함

❍ (2012~2025년 전출 특성) 전출 역시 세종 내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출범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충청권으로의 전출은 2020년 18,612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25년 16,072명으로 나타남
-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2012년 2,767명에서 2020년 11,736명까지 증가한 이후에도 연간 1만 명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25년 11,076명을 기록함

❍ (시계열적 특성) 2012~2025년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출범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 반면, 최근 3년(2023~2025년)에는 세종 내부 이동과 충청권 간 이동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충청권·수도권에서 전입과 전출 규모가 근접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는 세종시 인구이동이 출범 초기의 대규모 외부 인구유입 중심에서 점차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성·연령별 인구이동 분석

□ 최근 3년간 세종시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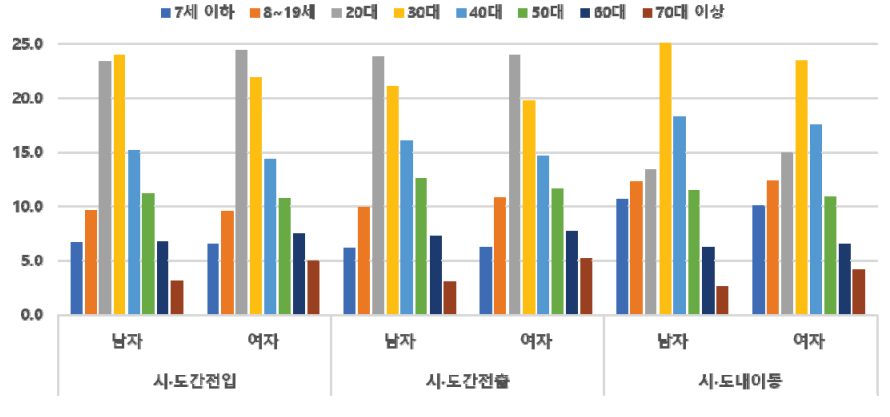
❍ 최근 3년(2023~2025년) 세종시 인구이동은 20~30대의 이동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연령대별 순이동 방향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순유입 견인 연령) 30대는 시·도 간 전입 22.9%, 전출 20.5%로 3,477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여 세종시의 인구 순유입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연령대로 나타남. 반면 20대는 전입과 전출 비중이 각각 23.9%로 이동 규모는 가장 크지만 순유입 효과는 제한적임
- (순유출 견인 연령) 40~60대는 전반적으로 전입보다 전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가 634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여 인구 순유출이 가장 두드러지는 연령대로 나타남
- 학령기(8~19세) 역시 전출 비중(10.3%)이 전입(9.6%)보다 높게 나타나며, 앞서 확인된 교육 목적 전출 증가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연령층으로 판단됨
- 성별로는 30대 남녀 모두 순유입, 20대는 여성 순유입(+860명)이 남성(+228명)보다 크게 나타남
- 한편, 시·도 내 이동에서 30대(24.2%)·40대(17.9%)와 7세 이하(10.4%)·8~19세(12.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의 지역 내 주거이동이 활발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3-7]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시·도 내 이동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7세 이하	3,527	3,324	6,851	3,106	3,030	6,136	3,540	3,489	7,029
8~19세	5,092	4,848	9,940	5,052	5,201	10,253	4,066	4,283	8,349
20대	12,336	12,416	24,752	12,108	11,556	23,664	4,466	5,199	9,665
30대	12,637	11,119	23,756	10,733	9,546	20,279	8,307	8,146	16,453
40대	8,003	7,294	15,297	8,168	7,074	15,242	6,062	6,078	12,140
50대	5,917	5,459	11,376	6,432	5,578	12,010	3,807	3,781	7,588
60대	3,563	3,810	7,373	3,691	3,728	7,419	2,068	2,272	4,340
70대이상	1,670	2,526	4,196	1,586	2,501	4,087	868	1,454	2,322
합 계	52,745	50,796	103,541	50,876	48,214	99,090	33,184	34,702	67,886
비 율(%)									
7세 이하	6.7	6.5	6.6	6.1	6.3	6.2	10.7	10.1	10.4
8~19세	9.7	9.5	9.6	9.9	10.8	10.3	12.3	12.3	12.3
20대	23.4	24.4	23.9	23.8	24.0	23.9	13.5	15.0	14.2
30대	24.0	21.9	22.9	21.1	19.8	20.5	25.0	23.5	24.2
40대	15.2	14.4	14.8	16.1	14.7	15.4	18.3	17.5	17.9
50대	11.2	10.7	11.0	12.6	11.6	12.1	11.5	10.9	11.2
60대	6.8	7.5	7.1	7.3	7.7	7.5	6.2	6.5	6.4
70대 이상	3.2	5.0	4.1	3.1	5.2	4.1	2.6	4.2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2절 생활권별 인구이동 분석

1. 세종시 읍 지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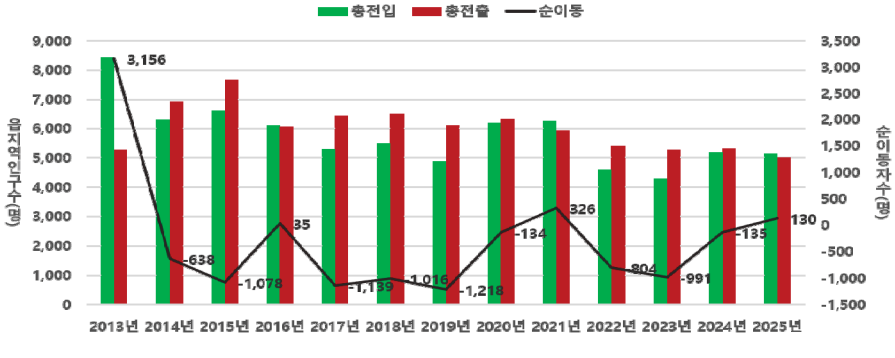
□ 세종시 읍 지역 순이동의 변화

○ (2013~2025년) 세종시 읍 지역은 출범 초기인 201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 구조가 지속되었으며, 2013~2025년 누적 순이동은 -3,506명으로 나타남

[표 3-8] 세종시 읍 지역 순이동의 변화

(단위: 명)

구 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8,435	5,279	3,156
2014	6,286	6,924	-638
2015	6,599	7,677	-1,078
2016	6,089	6,054	35
2017	5,290	6,429	-1,139
2018	5,483	6,499	-1,016
2019	4,876	6,094	-1,218
2020	6,177	6,311	-134
2021	6,260	5,934	326
2022	4,586	5,390	-804
2023	4,288	5,279	-991
2024	5,175	5,310	-135
2025	5,133	5,003	130
합 계	74,677	78,183	-3,506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순유입을 기록한 시기는 2013년(+3,156명), 2016년(+35명), 2021년(+326명), 2025년(+130명)에 그쳤으며, 출범 초기인 2013년을 제외하면 순유입 규모도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인구유출이 우세한 구조**를 보임
- 특히 2017~2019년에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804명)과 2023년(-991명)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순유출이 나타남

□ 최근 3년간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10]·순전출 사유[11]

❍ 최근 3년(2023~2025년) 읍 지역은 전체적으로 569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이동 사유별로는 순전입과 순전출을 견인하는 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됨

- (순전입 견인 요인) '교육'은 전입 2,661명, 전출 949명으로 1,712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여 읍 지역의 인구유입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순전출 견인 요인) 반면 '가족'은 -1,476명, '주택'은 -786명의 순이동을 기록하여 읍 지역의 인구유출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직업'은 전입 3,601명, 전출 3,626명으로 이동 규모는 가장 크지만 순이동은 -25명에 그쳐, 직업을 매개로 한 인구 유입과 유출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보임
- 따라서 **읍 지역은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가 뚜렷한 반면, 가족·주택 요인에 따른 인구유출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분석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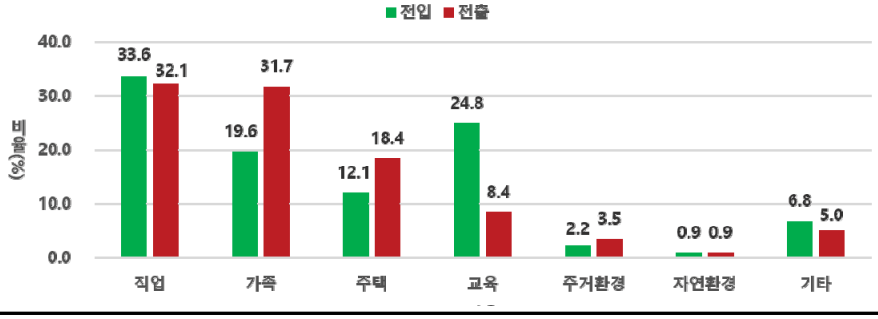
10) 순전입: 특정기간 동안 어떤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전입자) 수에서 그 지역을 떠난 사람의 수를 차감한 값

11) 순전출: 순전입과 반대로 전출자 수에서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를 차감한 값

[표 3-9] 최근 3년간 읍 지역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단위: 명, %)

구 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3,601	33.6	3,626	32.1
가족	2,099	19.6	3,575	31.7
주택	1,292	12.1	2,078	18.4
교육	2,661	24.8	949	8.4
주거환경	241	2.2	391	3.5
자연환경	99	0.9	99	0.9
기타	724	6.8	568	5.0
합계	10,717	100.0	11,286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3~2025년)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2013~2025년 읍 지역의 순전입 사유는 출범 초기 '직업·주택' 중심에서 최근 '직업·교육'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교육의 비중 확대가 가장 두드러짐

- '교육'은 2013년 4.8%에서 2025년 26.8%로 크게 증가하여 순전입의 주요 사유로 부상한 반면, '직업'은 42.9%에서 33.9%로, '주택'은 26.6%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최근 읍 지역에서는 교육이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순전출 사유는 출범 초기 '직업' 중심에서 최근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직업’은 2013년 34.8%에서 2025년 31.1%로 감소한 반면, ‘가족’은 27.4%에서 34.0%로 증가하여 2025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장기적으로 교육·가족·주거환경의 비중은 확대되고 직업·주택·기타의 비중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읍 지역의 인구유출 요인도 직업 중심에서 가족·생활여건과 관련된 요인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 **(시계열적 특성: 읍 지역 종합진단)** 장기적으로 읍 지역의 인구유입 요인은 직업·주택 중심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인구유출은 직업 중심에서 가족 요인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근 3년에도 교육은 순유입, 가족·주택은 순유출을 견인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3-10]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명)													
직업	3,117	2,428	1,995	1,962	1,514	1,298	1,345	1,530	1,721	1,232	1,132	1,139	1,330
가족	1,482	1,374	1,857	1,160	1,083	1,025	872	964	954	660	658	690	751
주택	1,931	829	920	712	548	910	755	869	741	359	384	498	410
교육	349	409	365	442	444	786	518	542	547	753	756	852	1,053
주거환경	92	69	47	63	73	69	61	68	76	57	69	79	93
자연환경	69	41	27	43	38	34	22	47	32	26	33	34	32
기타	230	131	266	301	342	179	97	203	371	440	210	261	253
합계	7,270	5,281	5,477	4,683	4,042	4,301	3,670	4,223	4,442	3,527	3,242	3,553	3,922
비 율(%)													
직업	42.9	46.0	36.4	41.9	37.5	30.2	36.6	36.2	38.7	34.9	34.9	32.1	33.9
가족	20.4	26.0	33.9	24.8	26.8	23.8	23.8	22.8	21.5	18.7	20.3	19.4	19.1
주택	26.6	15.7	16.8	15.2	13.6	21.2	20.6	20.6	16.7	10.2	11.8	14.0	10.5
교육	4.8	7.7	6.7	9.4	11.0	18.3	14.1	12.8	12.3	21.3	23.3	24.0	26.8
주거환경	1.3	1.3	0.9	1.3	1.8	1.6	1.7	1.6	1.7	1.6	2.1	2.2	2.4
자연환경	0.9	0.8	0.5	0.9	0.9	0.8	0.6	1.1	0.7	0.7	1.0	1.0	0.8
기타	3.2	2.5	4.9	6.4	8.5	4.2	2.6	4.8	8.4	12.5	6.5	7.3	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11] 세종시 읍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명)													
직업	1,398	1,392	1,397	1,347	1,335	1,317	1,340	1,456	1,437	1,339	1,263	1,200	1,163
가족	1,099	1,273	1,193	1,141	1,099	1,047	1,173	1,301	1,125	994	1,125	1,181	1,269
주택	794	769	693	715	789	701	616	1,063	792	616	730	748	600
교육	207	194	183	195	234	184	259	269	260	289	281	315	353
주거환경	38	65	45	77	81	78	108	113	119	120	124	156	111
자연환경	27	52	31	25	41	32	33	46	39	55	34	32	33
기타	449	179	155	210	208	196	198	218	245	201	193	169	206
합계	4,012	3,924	3,697	3,710	3,787	3,555	3,727	4,466	4,017	3,614	3,750	3,801	3,735
비 율(%)													
직업	34.8	35.5	37.8	36.3	35.3	37.0	36.0	32.6	35.8	37.1	33.7	31.6	31.1
가족	27.4	32.4	32.3	30.8	29.0	29.5	31.5	29.1	28.0	27.5	30.0	31.1	34.0
주택	19.8	19.6	18.7	19.3	20.8	19.7	16.5	23.8	19.7	17.0	19.5	19.7	16.1
교육	5.2	4.9	4.9	5.3	6.2	5.2	6.9	6.0	6.5	8.0	7.5	8.3	9.5
주거환경	0.9	1.7	1.2	2.1	2.1	2.2	2.9	2.5	3.0	3.3	3.3	4.1	3.0
자연환경	0.7	1.3	0.8	0.7	1.1	0.9	0.9	1.0	1.0	1.5	0.9	0.8	0.9
기타	11.2	4.6	4.2	5.7	5.5	5.5	5.3	4.9	6.1	5.6	5.1	4.4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읍 지역 시·도 내 이동 변화 추이

[표 3-12] 세종시 읍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전체 대비(%)
2013	9,134	6,150	67.3
2014	10,491	4,593	43.8
2015	15,248	4,674	30.7
2016	15,110	4,635	30.7
2017	17,488	4,561	26.1
2018	16,859	3,997	23.7
2019	19,950	3,743	18.8
2020	24,189	4,310	17.8
2021	18,724	3,518	18.8
2022	16,104	2,802	17.4
2023	21,803	2,575	11.8
2024	25,076	3,131	12.5
2025	21,007	2,479	11.8
합계/평균	231,183	51,168	22.1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전체 시·도 내 이동에서 읍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범 초기 크게 높았으나, 동 지역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읍 지역의 시·도 내 이동은 2013년 6,150명으로 세종시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2,479명, 11.8%까지 낮아짐
- 특히 읍 지역의 비중은 2015년 30.7%, 2019년 18.8%, 2023년 11.8%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세종시 내부 인구이동의 중심이 출범 초기 읍 지역에서 동 지역 중심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줌
- 최근 3년에도 읍 지역의 비중은 11.8~12.5% 수준에 머물러, 읍 지역이 세종시 전체 내부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세종시 읍 지역 시·도 간 이동 변화 추이

[표 3-13] 세종시 읍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전체 대비(%)
2013	30,704	11,282	36.7
2014	58,686	9,205	15.7
2015	86,964	9,174	10.5
2016	71,196	8,393	11.8
2017	82,966	7,829	9.4
2018	84,533	7,856	9.3
2019	84,310	7,397	8.8
2020	84,753	8,689	10.3
2021	79,665	8,459	10.6
2022	70,346	7,141	10.2
2023	66,804	6,992	10.5
2024	69,084	7,354	10.6
2025	66,743	7,657	11.5
합계/평균	936,754	107,428	12.8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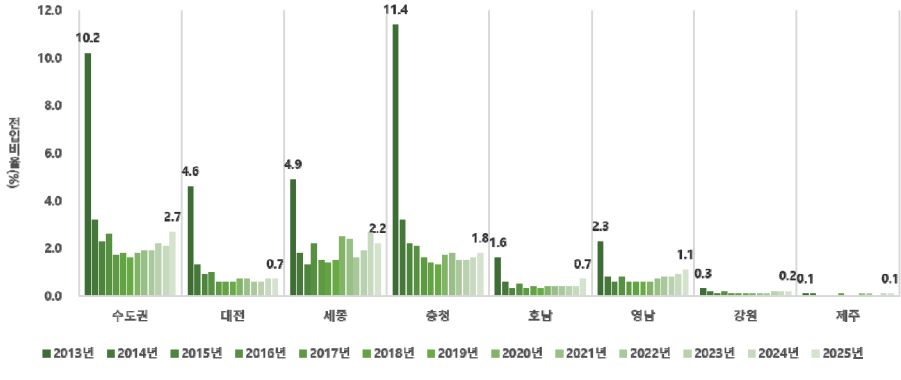
❍ (2013~2025년) 출범 이후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에서 읍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범 초기 36.7%에서 빠르게 감소한 이후 최근에는 10% 내외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읍 지역의 시·도 간 이동 비중은 2013년 36.7%에서 2015년 10.5%까지 크게 낮아진 후 대체로 9~11%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에는 10.5%(2023년) → 10.6%(2024년)→11.5%(2025년)로 소폭 상승함
- 이는 세종시 전체 광역 인구이동에서 읍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최근에는 추가적인 감소보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로 변화했음을 보여줌

□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2013~2025년) 읍 지역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규모와 세종시 전체 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남

- 13년 누적 기준 읍 지역 전입자 74,677명 중 대전·충청권이 25,197명(33.7%)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 20,252명(27.1%), 세종 내부 17,044명(22.8%)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에서 읍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는 2013년 2,419명에서 2025년 1,47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2%에서 2025년 2.7%로 크게 낮아져, **읍 지역의 수도권 인구 유입력이 출범 초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14]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23,805	8,435	2,419	1,099	1,165	2,705	391	550	83	23
2014	56,526	6,286	1,816	741	1,005	1,801	323	462	108	30
2015	83,994	6,599	1,969	733	1,122	1,881	265	498	106	25
2016	65,052	6,089	1,679	632	1,406	1,392	310	526	118	26
2017	82,073	5,290	1,397	507	1,248	1,273	252	490	105	18
2018	86,433	5,483	1,564	555	1,182	1,194	337	488	115	48
2019	82,398	4,876	1,297	459	1,206	1,079	270	465	78	22
2020	78,934	6,177	1,428	573	1,954	1,335	301	475	90	21
2021	76,912	6,260	1,433	570	1,818	1,394	330	573	103	39
2022	65,529	4,586	1,256	368	1,059	976	283	541	70	33
2023	56,050	4,288	1,256	328	1,046	865	241	437	90	25
2024	61,022	5,175	1,259	408	1,622	966	257	538	93	32
2025	54,355	5,133	1,479	385	1,211	978	367	598	84	31
합계	873,083	74,677	20,252	7,358	17,044	17,839	3,927	6,641	1,243	373
비 율(%)										
2013	100.0	35.4	10.2	4.6	4.9	11.4	1.6	2.3	0.3	0.1
2014	100.0	11.1	3.2	1.3	1.8	3.2	0.6	0.8	0.2	0.1
2015	100.0	7.9	2.3	0.9	1.3	2.2	0.3	0.6	0.1	0.0
2016	100.0	9.4	2.6	1.0	2.2	2.1	0.5	0.8	0.2	0.0
2017	100.0	6.4	1.7	0.6	1.5	1.6	0.3	0.6	0.1	0.0
2018	100.0	6.3	1.8	0.6	1.4	1.4	0.4	0.6	0.1	0.1
2019	100.0	5.9	1.6	0.6	1.5	1.3	0.3	0.6	0.1	0.0
2020	100.0	7.8	1.8	0.7	2.5	1.7	0.4	0.6	0.1	0.0
2021	100.0	8.1	1.9	0.7	2.4	1.8	0.4	0.7	0.1	0.1
2022	100.0	7.0	1.9	0.6	1.6	1.5	0.4	0.8	0.1	0.1
2023	100.0	7.7	2.2	0.6	1.9	1.5	0.4	0.8	0.2	0.0
2024	100.0	8.5	2.1	0.7	2.7	1.6	0.4	0.9	0.2	0.1
2025	100.0	9.4	2.7	0.7	2.2	1.8	0.7	1.1	0.2	0.1
합계	100.0	8.6	2.3	0.8	2.0	2.0	0.4	0.8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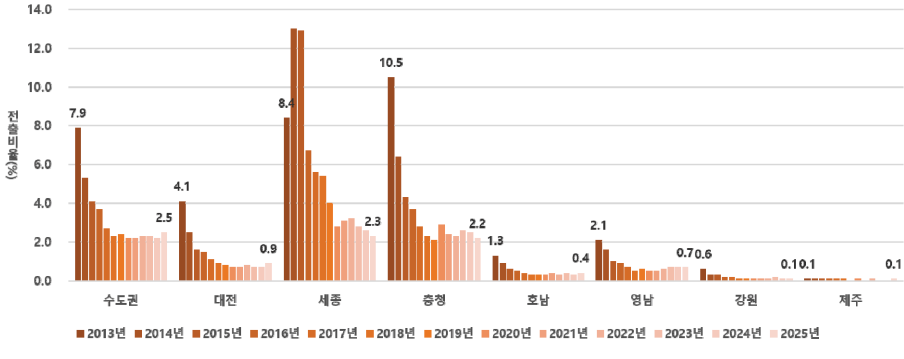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2013~2025년) 읍 지역 전출은 세종시 내부와 인접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출범 이후 세종 내부로의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13년 누적 기준 읍 지역 전출자 78,183명 중 세종 내부로의 이동이 28,388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청권 24,648명(31.5%), 수도권 16,862명(21.6%) 순으로 나타남

❍ 세종 내부로의 전출은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2014~2018년에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감소하여 2025년 1,268명으로 낮아진 반면,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최근에도 연간 1,200~1,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동 규모를 보임



[그림 3-3]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종합진단) 세종시 **읍 지역은 수도권·대전 등 외부지역과의 이동에서는 장기적으로 순유입**을 보인 반면, 세종시 **내부 이동에서는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하여, 읍 지역의 인구유출은 외부지역으로의 이탈보다 세종시 내 다른 생활권으로의 이동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15,109	5,279	1,189	625	1,267	1,590	192	316	84	16
2014	23,070	6,924	1,212	572	3,000	1,479	206	364	76	15
2015	30,950	7,677	1,254	480	3,980	1,335	174	306	103	45
2016	35,236	6,054	1,305	516	2,344	1,299	181	308	77	24
2017	47,383	6,429	1,276	516	2,642	1,341	206	312	97	39
2018	55,000	6,499	1,243	480	2,944	1,280	179	267	71	35
2019	58,674	6,094	1,404	462	2,367	1,210	201	350	75	25
2020	65,909	6,311	1,450	457	1,845	1,928	218	306	74	33
2021	62,827	5,934	1,391	463	1,917	1,526	226	322	66	23
2022	55,401	5,390	1,269	443	1,776	1,287	186	338	63	28
2023	54,360	5,279	1,236	404	1,529	1,422	226	357	82	23
2024	58,214	5,310	1,297	412	1,509	1,429	195	381	61	26
2025	54,402	5,003	1,336	472	1,268	1,220	228	379	72	28
합계	616,535	78,183	16,862	6,302	28,388	18,346	2,618	4,306	1,001	360
비 율(%)										
2013	100.0	34.9	7.9	4.1	8.4	10.5	1.3	2.1	0.6	0.1
2014	100.0	30.0	5.3	2.5	13.0	6.4	0.9	1.6	0.3	0.1
2015	100.0	24.8	4.1	1.6	12.9	4.3	0.6	1.0	0.3	0.1
2016	100.0	17.2	3.7	1.5	6.7	3.7	0.5	0.9	0.2	0.1
2017	100.0	13.6	2.7	1.1	5.6	2.8	0.4	0.7	0.2	0.1
2018	100.0	11.8	2.3	0.9	5.4	2.3	0.3	0.5	0.1	0.1
2019	100.0	10.4	2.4	0.8	4.0	2.1	0.3	0.6	0.1	0.0
2020	100.0	9.6	2.2	0.7	2.8	2.9	0.3	0.5	0.1	0.1
2021	100.0	9.4	2.2	0.7	3.1	2.4	0.4	0.5	0.1	0.0
2022	100.0	9.7	2.3	0.8	3.2	2.3	0.3	0.6	0.1	0.1
2023	100.0	9.7	2.3	0.7	2.8	2.6	0.4	0.7	0.2	0.0
2024	100.0	9.1	2.2	0.7	2.6	2.5	0.3	0.7	0.1	0.0
2025	100.0	9.2	2.5	0.9	2.3	2.2	0.4	0.7	0.1	0.1
합계	100.0	12.7	2.7	1.0	4.6	3.0	0.4	0.7	0.2	0.1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읍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성별 특성

❍ (2013~2025년) 읍 지역은 남녀 모두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누적 기준 남성은 전입 40,172명, 전출 41,240명으로 1,068명 순유출, 여성은 전입 34,505명, 전출 36,943명으로 2,438명 순유출을 기록하여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남성의 약 2.3배로 나타남

❍ 한편 읍 지역의 전입·전출 규모 자체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많았으나, 순이동 측면에서는 **여성의 인구유출이 읍 지역 전체 순유출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진단) 장기적으로 읍 지역의 순유출은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최근 3년에는 남성 -513명, 여성 -483명으로 성별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남녀 모두 유사한 수준의 순유출**을 보임

[표 3-16]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연 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23,805	8,435	4,403	18.5	4,032	16.9
2014	56,526	6,286	3,256	5.8	3,030	5.4
2015	83,994	6,599	3,455	4.1	3,144	3.7
2016	65,052	6,089	3,247	5.0	2,842	4.4
2017	82,073	5,290	2,764	3.4	2,526	3.1
2018	86,433	5,483	3,015	3.5	2,468	2.9
2019	82,398	4,876	2,640	3.2	2,236	2.7
2020	78,934	6,177	3,363	4.3	2,814	3.6
2021	76,912	6,260	3,489	4.5	2,771	3.6
2022	65,529	4,586	2,571	3.9	2,015	3.1
2023	56,050	4,288	2,363	4.2	1,925	3.4
2024	61,022	5,175	2,786	4.6	2,389	3.9
2025	54,355	5,133	2,820	5.2	2,313	4.3
합계/평균	873,083	74,677	40,172	4.6	34,505	4.0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17]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연 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15,109	5,279	2,756	18.2	2,523	16.7
2014	23,070	6,924	3,577	15.5	3,347	14.5
2015	30,950	7,677	3,885	12.6	3,792	12.3
2016	35,236	6,054	3,161	9.0	2,893	8.2
2017	47,383	6,429	3,321	7.0	3,108	6.6
2018	55,000	6,499	3,318	6.0	3,181	5.8
2019	58,674	6,094	3,220	5.5	2,874	4.9
2020	65,909	6,311	3,369	5.1	2,942	4.5
2021	62,827	5,934	3,179	5.1	2,755	4.4
2022	55,401	5,390	2,972	5.4	2,418	4.4
2023	54,360	5,279	2,893	5.3	2,386	4.4
2024	58,214	5,310	2,876	4.9	2,434	4.2
2025	54,402	5,003	2,713	5.0	2,290	4.2
합계/평균	616,535	78,183	41,240	6.7	36,943	6.0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읍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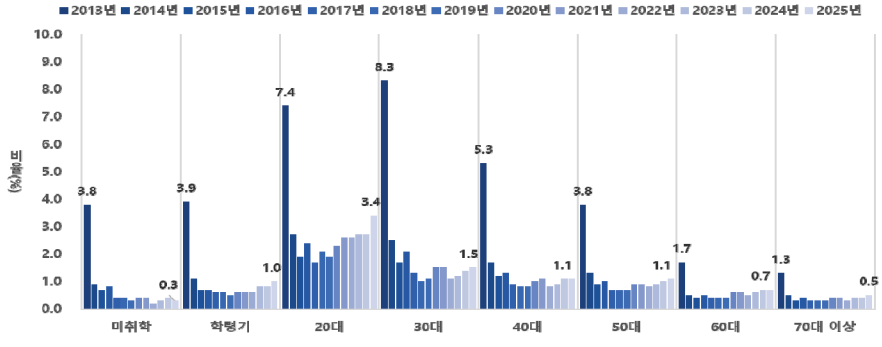
❍ (전입·전출 견인 연령) 2013~2025년 읍 지역의 전입은 20대가 21,7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4,510명, 40대 10,060명 순으로 나타남. 전출 역시 20대가 21,3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6,624명, 40대 10,740명 순으로 나타나 20~30대가 읍 지역 인구이동의 핵심 연령층으로 나타남

❍ (순이동 견인 연령) 누계 기준으로는 30대가 -2,114명으로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미취학 -1,405명, 40대 -680명, 학령기 -90명 순으로 순유출을 보임. 반면 20대는 +351명, 70대 이상 +266명, 60대 +103명, 50대 +63명으로 소폭 순유입을 기록함

❍ (최근 3년) 2023~2025년에도 읍 지역은 총 -996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30대 -777명으로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20대 -394명, 미취학 -181명, 40대 -113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학령기 인구는 +318명으로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도 소폭 순유입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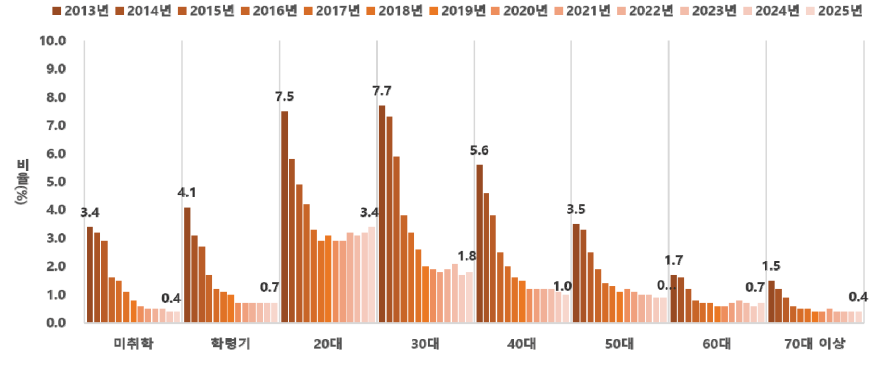
○ (시계열적 특성) 장기적으로 읍 지역은 20~30대가 인구이동을 주도하는 가운데 30대와 미취학 인구의 순유출이 인구감소를 견인해 왔음

- 최근에는 20대까지 순유출로 전환된 반면 학령기 인구의 순유입이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나, 앞서 확인된 **교육 사유의 전입 확대와 함께 읍 지역의 교육 목적 인구흡인력이 강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 3-4]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3-5]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18]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23,805	8,435	906	918	1,756	1,971	1,268	900	404	312
2014	56,526	6,286	501	617	1,522	1,427	953	715	290	261
2015	83,994	6,599	617	616	1,573	1,419	1,010	732	342	290
2016	65,052	6,089	532	484	1,569	1,380	848	683	341	252
2017	82,073	5,290	356	472	1,430	1,067	765	580	338	282
2018	86,433	5,483	323	517	1,811	899	682	642	358	251
2019	82,398	4,876	254	391	1,554	885	663	555	337	237
2020	78,934	6,177	324	472	1,830	1,222	824	710	478	317
2021	76,912	6,260	304	455	1,992	1,160	812	720	482	335
2022	65,529	4,586	160	409	1,699	751	518	522	325	202
2023	56,050	4,288	146	443	1,506	662	480	490	346	215
2024	61,022	5,175	241	515	1,642	866	654	595	416	246
2025	54,355	5,133	145	525	1,844	801	583	576	406	253
합계	873,083	74,677	4,809	6,834	21,728	14,510	10,060	8,420	4,863	3,453
비 율(%)										
2013	100.0	35.4	3.8	3.9	7.4	8.3	5.3	3.8	1.7	1.3
2014	100.0	11.1	0.9	1.1	2.7	2.5	1.7	1.3	0.5	0.5
2015	100.0	7.9	0.7	0.7	1.9	1.7	1.2	0.9	0.4	0.3
2016	100.0	9.4	0.8	0.7	2.4	2.1	1.3	1.0	0.5	0.4
2017	100.0	6.4	0.4	0.6	1.7	1.3	0.9	0.7	0.4	0.3
2018	100.0	6.3	0.4	0.6	2.1	1.0	0.8	0.7	0.4	0.3
2019	100.0	5.9	0.3	0.5	1.9	1.1	0.8	0.7	0.4	0.3
2020	100.0	7.8	0.4	0.6	2.3	1.5	1.0	0.9	0.6	0.4
2021	100.0	8.1	0.4	0.6	2.6	1.5	1.1	0.9	0.6	0.4
2022	100.0	7.0	0.2	0.6	2.6	1.1	0.8	0.8	0.5	0.3
2023	100.0	7.7	0.3	0.8	2.7	1.2	0.9	0.9	0.6	0.4
2024	100.0	8.5	0.4	0.8	2.7	1.4	1.1	1.0	0.7	0.4
2025	100.0	9.4	0.3	1.0	3.4	1.5	1.1	1.1	0.7	0.5
합계	100.0	8.6	0.6	0.8	2.5	1.7	1.2	1.0	0.6	0.4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19]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15,109	5,279	514	622	1,129	1,160	842	529	252	231
2014	23,070	6,924	739	710	1,347	1,675	1,057	752	377	267
2015	30,950	7,677	903	850	1,528	1,829	1,164	769	362	272
2016	35,236	6,054	571	590	1,490	1,341	885	654	296	227
2017	47,383	6,429	689	569	1,545	1,498	932	641	324	231
2018	55,000	6,499	611	596	1,600	1,418	903	721	382	268
2019	58,674	6,094	451	570	1,846	1,156	874	625	352	220
2020	65,909	6,311	402	464	1,912	1,237	818	796	419	263
2021	62,827	5,934	340	420	1,838	1,125	770	694	455	292
2022	55,401	5,390	281	368	1,756	1,079	665	579	419	243
2023	54,360	5,279	252	390	1,682	1,136	634	570	392	223
2024	58,214	5,310	261	414	1,839	1,013	636	548	373	226
2025	54,402	5,003	200	361	1,865	957	560	479	357	224
합계	616,535	78,183	6,214	6,924	21,377	16,624	10,740	8,357	4,760	3,187
비 율(%)										
2013	100.0	34.9	3.4	4.1	7.5	7.7	5.6	3.5	1.7	1.5
2014	100.0	30.0	3.2	3.1	5.8	7.3	4.6	3.3	1.6	1.2
2015	100.0	24.8	2.9	2.7	4.9	5.9	3.8	2.5	1.2	0.9
2016	100.0	17.2	1.6	1.7	4.2	3.8	2.5	1.9	0.8	0.6
2017	100.0	13.6	1.5	1.2	3.3	3.2	2.0	1.4	0.7	0.5
2018	100.0	11.8	1.1	1.1	2.9	2.6	1.6	1.3	0.7	0.5
2019	100.0	10.4	0.8	1.0	3.1	2.0	1.5	1.1	0.6	0.4
2020	100.0	9.6	0.6	0.7	2.9	1.9	1.2	1.2	0.6	0.4
2021	100.0	9.4	0.5	0.7	2.9	1.8	1.2	1.1	0.7	0.5
2022	100.0	9.7	0.5	0.7	3.2	1.9	1.2	1.0	0.8	0.4
2023	100.0	9.7	0.5	0.7	3.1	2.1	1.2	1.0	0.7	0.4
2024	100.0	9.1	0.4	0.7	3.2	1.7	1.1	0.9	0.6	0.4
2025	100.0	9.2	0.4	0.7	3.4	1.8	1.0	0.9	0.7	0.4
합계	100.0	12.7	1.0	1.1	3.5	2.7	1.7	1.4	0.8	0.5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2. 세종시 면 지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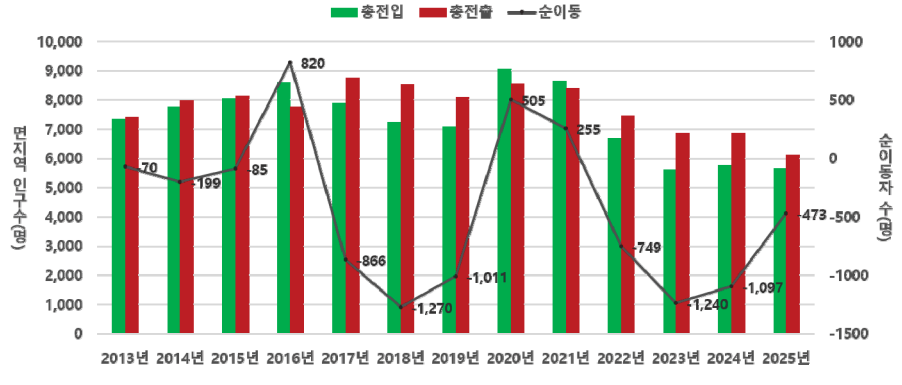
□ 세종시 면 지역의 순이동 변화

❍ (2013~2025년) 세종시 면 지역은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 구조가 지속되었으며, 13년간 총 95,490명이 전입하고 100,970명이 전출하여 누적 5,480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표 3-20] 세종시 면 지역 전입/전출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7,340	7,410	-70
2014	7,781	7,980	-199
2015	8,057	8,142	-85
2016	8,602	7,782	820
2017	7,900	8,766	-866
2018	7,255	8,525	-1,270
2019	7,089	8,100	-1,011
2020	9,054	8,549	505
2021	8,652	8,397	255
2022	6,703	7,452	-749
2023	5,624	6,864	-1,240
2024	5,766	6,863	-1,097
2025	5,667	6,140	-473
합계	95,490	100,970	-5,48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순유입은 2016년(+820명), 2020년(+505명), 2021년(+255명)에만 나타났으며, 최근 3년에도 2023년 -1,240명, 2024년 -1,097명, 2025년 -473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최근 들어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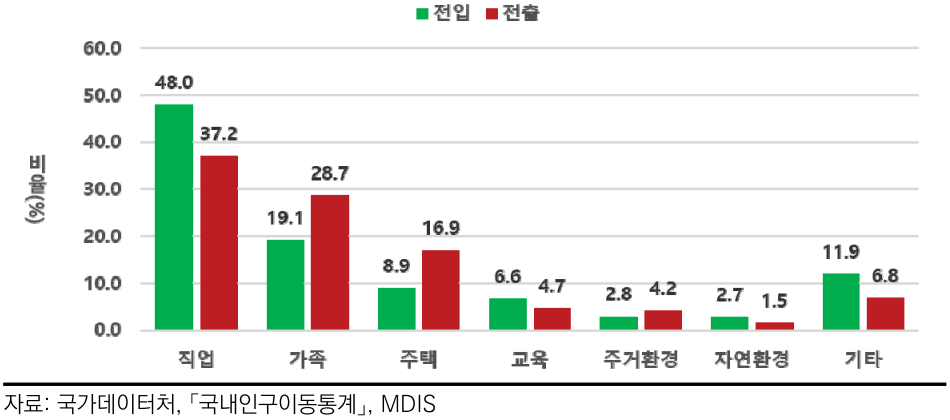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 최근 3년(2023~2025년) 면 지역은 직업이 순전입을 견인하는 반면, 가족과 주택이 순전출을 견인하는 뚜렷한 이동구조를 보임

[표 3-21] 최근 3년간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분석

(단위: 명, %)

구 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5,689	48.0	4,632	37.2
가족	2,257	19.1	3,575	28.7
주택	1,054	8.9	2,110	16.9
교육	777	6.6	590	4.7
주거환경	334	2.8	519	4.2
자연환경	318	2.7	193	1.5
기타	1,412	11.9	844	6.8
합계	11,841	100.0	12,463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순전입 견인요인) '직업'은 전입 5,689명, 전출 4,632명으로 1,057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여 면 지역의 가장 큰 순전입 견인요인으로 나타남. 이외 기타(+568명), 교육(+187명), 자연환경(+125명)도 순유입을 보임

- (순전출 견인요인) '가족'은 전입보다 전출이 1,318명 많아 가장 큰 순전출 견인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도 1,056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주거환경 역시 185명의 순유출을 보임
- 결과적으로 직업을 중심으로 한 순전입에도 불구하고 가족·주택 요인의 순유출 규모가 이를 상회하면서 최근 면 지역의 전체적인 순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2025년)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2013~2025년 면 지역의 순전입 사유는 출범 이후 '직업'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직업'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직업'은 2013년 46.1%에서 2025년 50.9%로 증가하여 순전입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가족'은 25.2%에서 17.8%, '주택'은 14.1%에서 7.8%로 감소함
- 반면 '교육'은 2013년 3.3%에서 2025년 6.8%로 증가하였으나 직업에 비해 비중이 낮아, 면 지역의 인구유입은 장기적으로 직업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순전출 사유 역시 출범 이후 '직업·가족'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직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주택의 비중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남

- '직업'은 2013년 30.4%에서 2025년 36.5%로 증가하였으며, '가족'도 29.8%에서 30.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반면 '주택'은 21.0%에서 16.2%로 감소함
- 장기적으로 직업·주거환경의 비중은 확대되고 주택의 비중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면 지역의 인구유출은 직업과 가족이 중심을 이루면서 주택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시계열적 특성: 면 지역 종합진단)** 장기적으로 면 지역은 직업 중심의 인구유입 구조가 지속·강화되는 한편, 인구유출은 직업·가족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실제 순이동에서는 직업이 순유입(+1,057명)을 견인하는 반면 가족(-1,318명)·주택(-1,056명)이 순유출을 견인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3-22]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명)													
직업	2,689	2,790	2,962	3,161	2,708	2,599	2,641	3,030	2,978	2,438	1,845	1,835	2,009
가족	1,471	1,601	1,632	1,594	1,274	1,184	1,034	1,189	1,123	929	777	778	702
주택	820	821	954	727	671	624	495	656	706	574	394	352	308
교육	193	229	181	138	178	177	145	164	182	224	207	301	269
주거환경	68	106	82	91	108	84	138	186	140	113	120	112	102
자연환경	198	197	169	131	151	163	158	218	167	121	94	117	107
기타	393	398	290	311	553	291	301	348	355	264	495	464	453
합계	5,832	6,142	6,270	6,153	5,643	5,122	4,912	5,791	5,651	4,663	3,932	3,959	3,950
비 율(%)													
직업	46.1	45.4	47.2	51.4	48.0	50.7	53.8	52.3	52.7	52.3	46.9	46.4	50.9
가족	25.2	26.1	26.0	25.9	22.6	23.1	21.1	20.5	19.9	19.9	19.8	19.7	17.8
주택	14.1	13.4	15.2	11.8	11.9	12.2	10.1	11.3	12.5	12.3	10.0	8.9	7.8
교육	3.3	3.7	2.9	2.2	3.2	3.5	3.0	2.8	3.2	4.8	5.3	7.6	6.8
주거환경	1.2	1.7	1.3	1.5	1.9	1.6	2.8	3.2	2.5	2.4	3.1	2.8	2.6
자연환경	3.4	3.2	2.7	2.1	2.7	3.2	3.2	3.8	3.0	2.6	2.4	3.0	2.7
기타	6.7	6.5	4.6	5.1	9.8	5.7	6.1	6.0	6.3	5.7	12.6	11.7	1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23] 세종시 면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명)													
직업	1,521	1,640	1,622	1,630	1,850	1,729	1,769	1,825	1,823	1,692	1,576	1,594	1,462
가족	1,489	1,580	1,447	1,537	1,558	1,424	1,416	1,360	1,395	1,206	1,196	1,170	1,209
주택	1,051	1,067	1,031	973	1,045	991	930	1,153	906	789	740	720	650
교육	216	227	187	197	244	179	218	264	208	202	185	212	193
주거환경	77	117	110	91	134	136	160	169	209	159	169	175	175
자연환경	39	54	56	38	75	76	57	66	82	49	73	60	60
기타	608	215	227	261	302	296	263	275	368	334	282	302	260
합계	5,001	4,900	4,680	4,727	5,208	4,831	4,813	5,112	4,991	4,431	4,221	4,233	4,009
비 율(%)													
직업	30.4	33.5	34.7	34.5	35.5	35.8	36.8	35.7	36.5	38.2	37.3	37.7	36.5
가족	29.8	32.2	30.9	32.5	29.9	29.5	29.4	26.6	28.0	27.2	28.3	27.6	30.2
주택	21.0	21.8	22.0	20.6	20.1	20.5	19.3	22.6	18.2	17.8	17.5	17.0	16.2
교육	4.3	4.6	4.0	4.2	4.7	3.7	4.5	5.2	4.2	4.6	4.4	5.0	4.8
주거환경	1.5	2.4	2.4	1.9	2.6	2.8	3.3	3.3	4.2	3.6	4.0	4.1	4.4
자연환경	0.8	1.1	1.2	0.8	1.4	1.6	1.2	1.3	1.6	1.1	1.7	1.4	1.5
기타	12.2	4.4	4.9	5.5	5.8	6.1	5.5	5.4	7.4	7.5	6.7	7.1	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면 지역 시·도 내 이동 변화 추이

❍ 최근 3년(2023~2025년) 세종시 면 지역의 시·도 내 이동은 전입보다 전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관내 이동에서도 면 지역의 인구가 순유출되는 구조를 보임

- 전입 기준으로 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8%, 2024년 7.2%, 2025년 8.2%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전출 기준 비중은 12.1%에서 10.5%, 10.1%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최근 3년 누적으로는 면 지역으로의 전입이 5,216명, 면 지역에서의 전출이 7,404명으로 2,188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세종시 내부 이동에서도 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입 대비 전출 격차는 2023년 951명에서 2024년 823명, 2025년 414명으로 축소되어, 면 지역의 시·도 내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그 규모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표 3-24] 최근 3년간 세종시 면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전입기준	전출기준	전입 기준 대비(%)	전출 기준 대비(%)
2023	21,803	1,692	2,643	7.8	12.1
2024	25,076	1,807	2,630	7.2	10.5
2025	21,007	1,717	2,131	8.2	10.1
합계/평균	67,886	5,216	7,404	7.7	10.9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면 지역 시·도 간 이동 변화 추이

❍ (2013~2025년)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에서 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범 초기 크게 감소한 이후 최근 10%대 초반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누계 기준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 936,754명 중 면 지역 이동은 129,177명으로 13.8%를 차지함
- 면 지역의 비중은 2013년 35.3%에서 2015년 12.6%로 빠르게 감소한 이후 대체로 11~15% 수준에서 등락하였으며, 2025년에는 11.9%로 나타남
- 특히 최근 3년간 이동 규모는 2023년 8,153명, 2024년 8,192명, 2025년 7,959명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전체 대비 비중도 12.2% → 11.9% → 11.9%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

❍ 따라서 면 지역의 **시·도 간 이동은 출범 초기 세종시 전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축소된 이후, 최근에는 추가적인 감소보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세종시 면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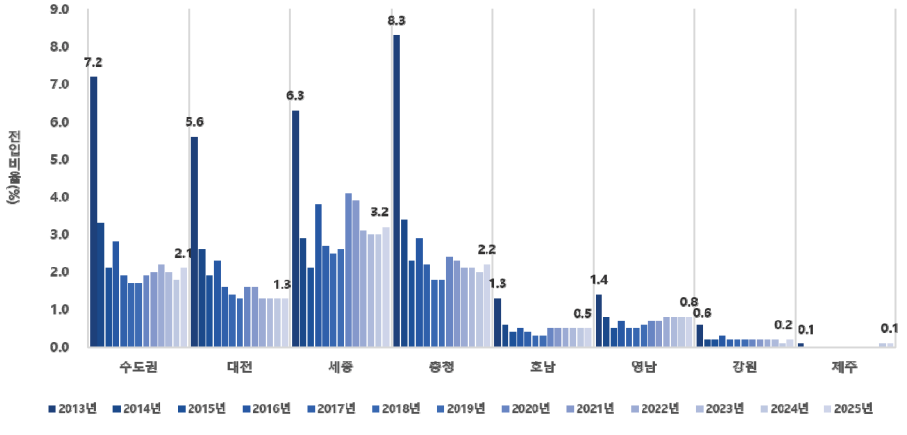
구 분	세종시 전체	면 지역	전체 대비(%)
2013	30,704	10,833	35.3
2014	58,686	11,042	18.8
2015	86,964	10,950	12.6
2016	71,196	10,880	15.3
2017	82,966	10,851	13.1
2018	84,533	9,953	11.8
2019	84,310	9,725	11.5
2020	84,753	10,903	12.9
2021	79,665	10,642	13.4
2022	70,346	9,094	12.9
2023	66,804	8,153	12.2
2024	69,084	8,192	11.9
2025	66,743	7,959	11.9
합계	936,754	129,177	13.8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2013~2025년 면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는 충청권과 세종 내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일정 규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보임

- 누계 기준 면 지역 전입자 95,490명 중 대전·충청권이 36,305명(38.0%)으로 가장 많고, 세종 내부가 27,470명(28.8%), 수도권이 19,512명(20.4%) 순으로 나타남
- 개별 지역 기준으로는 세종 내부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 1,508명에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증가하여 2020년 3,263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25년 1,717명으로 나타남
-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은 2013년 1,725명에서 2025년 1,16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충청권으로부터의 전입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출범 초기와 비교해 외부지역으로부터 면 지역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됨



[그림 3-6]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최근 3년(2023~2025년)에는 면 지역 전체 전입 규모가 5,600~5,800명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세종 내부와 충청권이 주요 인구 공급지역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지속됨

- 세종 내부 전입은 1,692명 → 1,807명 → 1,717명, 충청권(대전·충청)은 1,936명 → 2,016명 → 1,923명으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됨
- 수도권 전입도 1,138명 → 1,073명 → 1,165명으로 1천 명대 수준을 유지하여, 최근에는 특정 권역의 유입 확대보다는 기존 권역별 유입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시계열적 특성 진단)** 장기적으로 면 지역은 세종 내부와 인접 충청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입 규모 자체는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최근 3년에는 세종 내부·충청권·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규모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안정화 양상을 보임

□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지역 현황**

○ (2013~2025년) 면 지역 전출 인구는 세종 내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세종시 내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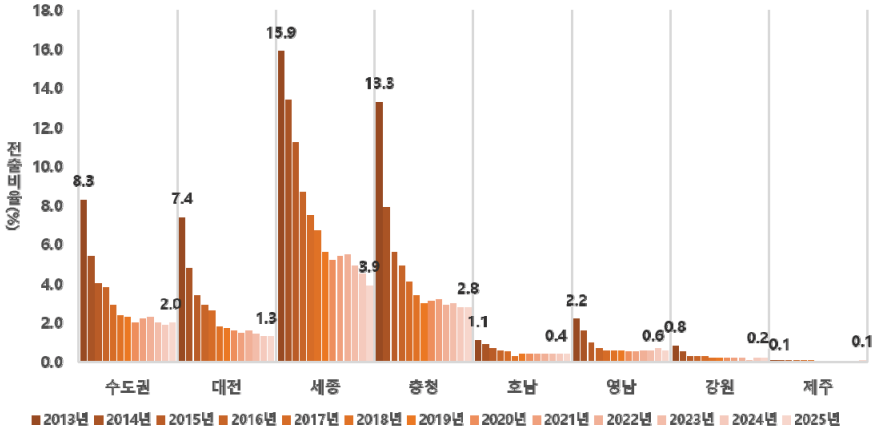
- 누계 기준 면 지역 전출자 100,970명 중 세종 내부로의 이동이 39,813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청권이 35,860명(35.5%), 수도권이 16,405명(16.2%) 순으로 나타남
- 세종 내부로의 전출은 2013년 2,409명에서 증가하여 2018년 3,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2,131명으로 낮아짐
- 반면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2013년 1,258명에서 2025년 1,065명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였고, 대전·충청권으로의 전출도 장기적으로 주요 이동지역으로서의 비중을 유지함

○ 최근 3년(2023~2025년)에는 면 지역 전체 전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내부로의 전출 감소가 두드러짐

- 면 지역 전체 전출은 6,864명 → 6,863명 → 6,1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종 내부로의 전출은 2,643명 → 2,630명 → 2,131명으로 감소함

- 반면 수도권 전출은 1,112명 → 1,123명 → 1,065명, 대전·충청권 전출은 2,433명 → 2,377명 → 2,223명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보여, 최근 면 지역 전출 감소에는 세종 내부 이동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장기적으로 면 지역의 인구유출은 세종 내부와 인접 충청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체 전출 규모와 함께 세종 내부로의 이동이 감소하면서 면 지역의 순유출 규모도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7]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전라, 광주), 영남(경상,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26]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23,805	7,340	1,725	1,323	1,508	1,983	314	333	137	17
2014	56,526	7,781	1,859	1,454	1,639	1,938	324	424	121	22
2015	83,994	8,057	1,802	1,577	1,787	1,973	342	413	140	23
2016	65,052	8,602	1,827	1,464	2,449	1,859	356	449	170	28
2017	82,073	7,900	1,563	1,327	2,257	1,791	347	433	153	29
2018	86,433	7,255	1,433	1,190	2,133	1,579	296	455	141	28
2019	82,398	7,089	1,410	1,104	2,177	1,487	277	475	125	34
2020	78,934	9,054	1,499	1,301	3,263	1,883	392	556	125	35
2021	76,912	8,652	1,552	1,194	3,001	1,772	384	567	156	26
2022	65,529	6,703	1,466	836	2,040	1,395	335	493	107	31
2023	56,050	5,624	1,138	746	1,692	1,190	298	427	107	26
2024	61,022	5,766	1,073	791	1,807	1,225	283	462	89	36
2025	54,355	5,667	1,165	710	1,717	1,213	286	445	96	35
합계	873,083	95,490	19,512	15,017	27,470	21,288	4,234	5,932	1,667	370
비 율(%)										
2013	100.0	30.8	7.2	5.6	6.3	8.3	1.3	1.4	0.6	0.1
2014	100.0	13.8	3.3	2.6	2.9	3.4	0.6	0.8	0.2	0.0
2015	100.0	9.6	2.1	1.9	2.1	2.3	0.4	0.5	0.2	0.0
2016	100.0	13.2	2.8	2.3	3.8	2.9	0.5	0.7	0.3	0.0
2017	100.0	9.6	1.9	1.6	2.7	2.2	0.4	0.5	0.2	0.0
2018	100.0	8.4	1.7	1.4	2.5	1.8	0.3	0.5	0.2	0.0
2019	100.0	8.6	1.7	1.3	2.6	1.8	0.3	0.6	0.2	0.0
2020	100.0	11.5	1.9	1.6	4.1	2.4	0.5	0.7	0.2	0.0
2021	100.0	11.2	2.0	1.6	3.9	2.3	0.5	0.7	0.2	0.0
2022	100.0	10.2	2.2	1.3	3.1	2.1	0.5	0.8	0.2	0.0
2023	100.0	10.0	2.0	1.3	3.0	2.1	0.5	0.8	0.2	0.0
2024	100.0	9.4	1.8	1.3	3.0	2.0	0.5	0.8	0.1	0.1
2025	100.0	10.4	2.1	1.3	3.2	2.2	0.5	0.8	0.2	0.1
합계	100.0	10.9	2.2	1.7	3.1	2.4	0.5	0.7	0.2	0.0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27]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지역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15,109	7,410	1,258	1,115	2,409	2,005	169	326	116	12
2014	23,070	7,980	1,256	1,114	3,080	1,830	213	361	111	15
2015	30,950	8,142	1,247	1,045	3,462	1,733	210	319	100	26
2016	35,236	7,782	1,356	1,020	3,055	1,741	221	262	91	36
2017	47,383	8,766	1,351	1,215	3,558	1,933	251	300	122	36
2018	55,000	8,525	1,315	968	3,694	1,871	192	327	130	28
2019	58,674	8,100	1,331	1,022	3,287	1,734	216	338	144	28
2020	65,909	8,549	1,351	1,050	3,437	2,025	234	304	117	31
2021	62,827	8,397	1,376	919	3,406	2,001	232	309	125	29
2022	55,401	7,452	1,264	859	3,021	1,627	243	323	88	27
2023	54,360	6,864	1,112	786	2,643	1,647	241	336	79	20
2024	58,214	6,863	1,123	773	2,630	1,604	227	388	92	26
2025	54,402	6,140	1,065	715	2,131	1,508	232	347	104	38
합계	616,535	100,970	16,405	12,601	39,813	23,259	2,881	4,240	1,419	352
비 율(%)										
2013	100.0	49.0	8.3	7.4	15.9	13.3	1.1	2.2	0.8	0.1
2014	100.0	34.6	5.4	4.8	13.4	7.9	0.9	1.6	0.5	0.1
2015	100.0	26.3	4.0	3.4	11.2	5.6	0.7	1.0	0.3	0.1
2016	100.0	22.1	3.8	2.9	8.7	4.9	0.6	0.7	0.3	0.1
2017	100.0	18.5	2.9	2.6	7.5	4.1	0.5	0.6	0.3	0.1
2018	100.0	15.5	2.4	1.8	6.7	3.4	0.3	0.6	0.2	0.1
2019	100.0	13.8	2.3	1.7	5.6	3.0	0.4	0.6	0.2	0.0
2020	100.0	13.0	2.0	1.6	5.2	3.1	0.4	0.5	0.2	0.0
2021	100.0	13.4	2.2	1.5	5.4	3.2	0.4	0.5	0.2	0.0
2022	100.0	13.5	2.3	1.6	5.5	2.9	0.4	0.6	0.2	0.0
2023	100.0	12.6	2.0	1.4	4.9	3.0	0.4	0.6	0.1	0.0
2024	100.0	11.8	1.9	1.3	4.5	2.8	0.4	0.7	0.2	0.0
2025	100.0	11.3	2.0	1.3	3.9	2.8	0.4	0.6	0.2	0.1
합계	100.0	16.4	2.7	2.0	6.5	3.8	0.5	0.7	0.2	0.1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면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성별 특성

○ 2013~2025년 면 지역은 남녀 모두 순유출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누적 순유출(-4,216명)이 남성(-1,264명)보다 약 3.3배 크게 나타나 장기적으로 여성의 유출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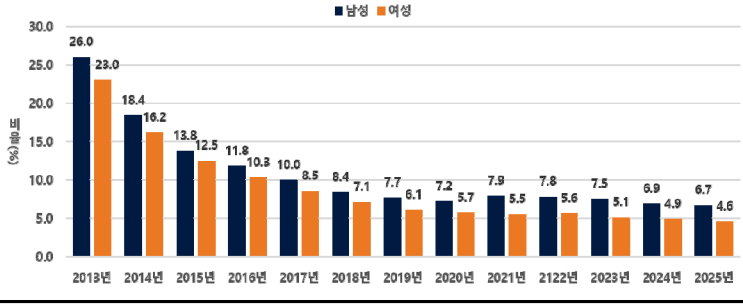
○ 최근 3년에는 남성 -1,530명, 여성 -1,280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여 장기 추세와 달리 성별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2025년에는 남성 -209명, 여성 -264명으로 남녀 모두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함

○ (시계열적 특성) 장기적으로 여성 중심의 순유출이 특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남녀 간 순유출 격차가 축소되고 전체적인 순유출 규모도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표 3-28]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성별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전체	면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15,109	7,410	3,929	26.0	3,481	23.0
2014	23,070	7,980	4,246	18.4	3,734	16.2
2015	30,950	8,142	4,274	13.8	3,868	12.5
2016	35,236	7,782	4,141	11.8	3,641	10.3
2017	47,383	8,766	4,716	10.0	4,050	8.5
2018	55,000	8,525	4,635	8.4	3,890	7.1
2019	58,674	8,100	4,527	7.7	3,573	6.1
2020	65,909	8,549	4,776	7.2	3,773	5.7
2021	62,827	8,397	4,957	7.9	3,440	5.5
2022	55,401	7,452	4,332	7.8	3,120	5.6
2023	54,360	6,864	4,075	7.5	2,789	5.1
2024	58,214	6,863	3,993	6.9	2,870	4.9
2025	54,402	6,140	3,641	6.7	2,499	4.6
합계	616,535	100,970	56,242	9.1	44,728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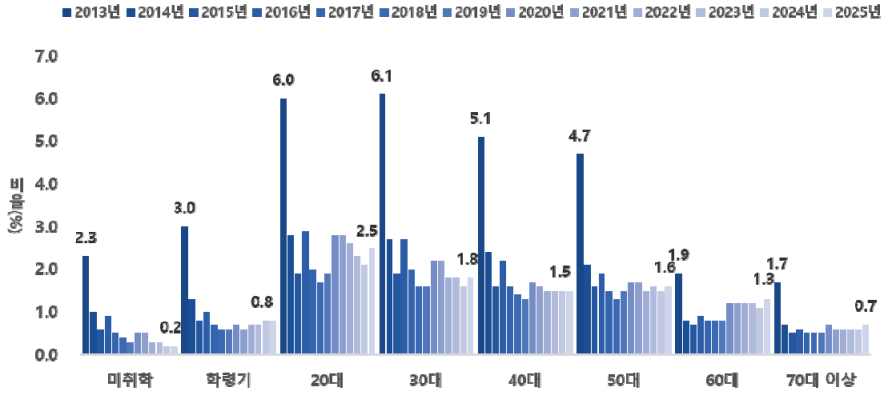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면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2013~2025년) **면 지역의 연령별 순이동은 30대와 미취학·학령기 인구가 순유출을 주도**하는 반면, **50~60대는 순유입되는 상반된 구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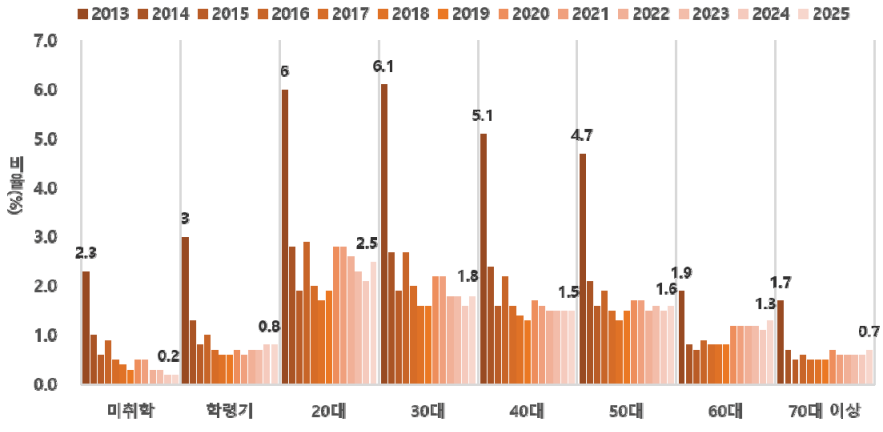
- (순유출 견인 연령) 30대가 -2,899명으로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미취학(-1,699명), 학령기(-908명), 70대 이상(-812명) 순으로 순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남. 반면 20대(-274명)와 40대(-185명)는 전입과 전출 규모가 비교적 유사함
- (순유입 견인 연령) 50대는 전입 14,848명, 전출 13,861명으로 +987명의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60대도 +310명의 순유입을 보여, 중·고령층 일부가 면 지역의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장기적으로 면 지역은 30대와 아동·학령기 인구의 순유출과 50~60대의 순유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연령 선택적 인구이동 구조**를 보이며, 특히 **30대와 미취학·학령기 인구의 동반 순유출**이 면 지역 인구 감소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



[그림 3-8]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전라, 광주), 영남(경상,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3-9]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전라, 광주), 영남(경상,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29]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23,805	7,340	557	715	1,421	1,451	1,216	1,120	447	413
2014	56,526	7,781	564	721	1,577	1,523	1,359	1,172	455	410
2015	83,994	8,057	505	712	1,604	1,572	1,374	1,325	583	382
2016	65,052	8,602	581	656	1,868	1,767	1,458	1,260	614	398
2017	82,073	7,900	448	598	1,651	1,622	1,312	1,202	661	406
2018	86,433	7,255	380	559	1,471	1,408	1,185	1,161	662	429
2019	82,398	7,089	280	509	1,581	1,292	1,101	1,252	641	433
2020	78,934	9,054	377	571	2,193	1,712	1,374	1,354	938	535
2021	76,912	8,652	372	475	2,163	1,671	1,269	1,328	916	458
2022	65,529	6,703	190	471	1,671	1,202	960	990	812	407
2023	56,050	5,624	166	383	1,313	998	833	898	673	360
2024	61,022	5,766	145	504	1,300	966	928	893	683	347
2025	54,355	5,667	122	411	1,337	1,005	810	893	707	382
합계	873,083	95,490	4,687	7,285	21,150	18,189	15,179	14,848	8,792	5,360
비 율(%)										
2013	100.0	30.8	2.3	3.0	6.0	6.1	5.1	4.7	1.9	1.7
2014	100.0	13.8	1.0	1.3	2.8	2.7	2.4	2.1	0.8	0.7
2015	100.0	9.6	0.6	0.8	1.9	1.9	1.6	1.6	0.7	0.5
2016	100.0	13.2	0.9	1.0	2.9	2.7	2.2	1.9	0.9	0.6
2017	100.0	9.6	0.5	0.7	2.0	2.0	1.6	1.5	0.8	0.5
2018	100.0	8.4	0.4	0.6	1.7	1.6	1.4	1.3	0.8	0.5
2019	100.0	8.6	0.3	0.6	1.9	1.6	1.3	1.5	0.8	0.5
2020	100.0	11.5	0.5	0.7	2.8	2.2	1.7	1.7	1.2	0.7
2021	100.0	11.2	0.5	0.6	2.8	2.2	1.6	1.7	1.2	0.6
2022	100.0	10.2	0.3	0.7	2.6	1.8	1.5	1.5	1.2	0.6
2023	100.0	10.0	0.3	0.7	2.3	1.8	1.5	1.6	1.2	0.6
2024	100.0	9.4	0.2	0.8	2.1	1.6	1.5	1.5	1.1	0.6
2025	100.0	10.4	0.2	0.8	2.5	1.8	1.5	1.6	1.3	0.7
합계	100.0	10.9	0.5	0.8	2.4	2.1	1.7	1.7	1.0	0.6

주: 해당 인구수/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30]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15,109	7,410	616	765	1,340	1,530	1,100	1,006	444	609
2014	23,070	7,980	670	804	1,477	1,680	1,363	1,064	455	467
2015	30,950	8,142	709	829	1,616	1,681	1,268	1,054	503	482
2016	35,236	7,782	607	647	1,629	1,683	1,237	1,013	538	428
2017	47,383	8,766	721	742	1,795	1,900	1,378	1,185	633	412
2018	55,000	8,525	656	657	1,726	1,893	1,302	1,180	646	465
2019	58,674	8,100	508	610	1,775	1,708	1,233	1,138	652	476
2020	65,909	8,549	477	624	1,846	1,662	1,314	1,273	814	539
2021	62,827	8,397	358	505	1,998	1,633	1,212	1,205	868	618
2022	55,401	7,452	325	498	1,760	1,531	1,064	1,052	750	472
2023	54,360	6,864	282	481	1,636	1,467	947	921	749	381
2024	58,214	6,863	286	572	1,467	1,434	1,097	876	737	394
2025	54,402	6,140	171	459	1,359	1,286	849	894	693	429
합계	616,535	100,970	6,386	8,193	21,424	21,088	15,364	13,861	8,482	6,172
비 율(%)										
2013	100.0	49.0	4.1	5.1	8.9	10.1	7.3	6.7	2.9	4.0
2014	100.0	34.6	2.9	3.5	6.4	7.3	5.9	4.6	2.0	2.0
2015	100.0	26.3	2.3	2.7	5.2	5.4	4.1	3.4	1.6	1.6
2016	100.0	22.1	1.7	1.8	4.6	4.8	3.5	2.9	1.5	1.2
2017	100.0	18.5	1.5	1.6	3.8	4.0	2.9	2.5	1.3	0.9
2018	100.0	15.5	1.2	1.2	3.1	3.4	2.4	2.1	1.2	0.8
2019	100.0	13.8	0.9	1.0	3.0	2.9	2.1	1.9	1.1	0.8
2020	100.0	13.0	0.7	0.9	2.8	2.5	2.0	1.9	1.2	0.8
2021	100.0	13.4	0.6	0.8	3.2	2.6	1.9	1.9	1.4	1.0
2022	100.0	13.5	0.6	0.9	3.2	2.8	1.9	1.9	1.4	0.9
2023	100.0	12.6	0.5	0.9	3.0	2.7	1.7	1.7	1.4	0.7
2024	100.0	11.8	0.5	1.0	2.5	2.5	1.9	1.5	1.3	0.7
2025	100.0	11.3	0.3	0.8	2.5	2.4	1.6	1.6	1.3	0.8
합계	100.0	17.8	1.1	1.4	3.8	3.7	2.7	2.4	1.5	1.1

주: 해당 인구수/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3.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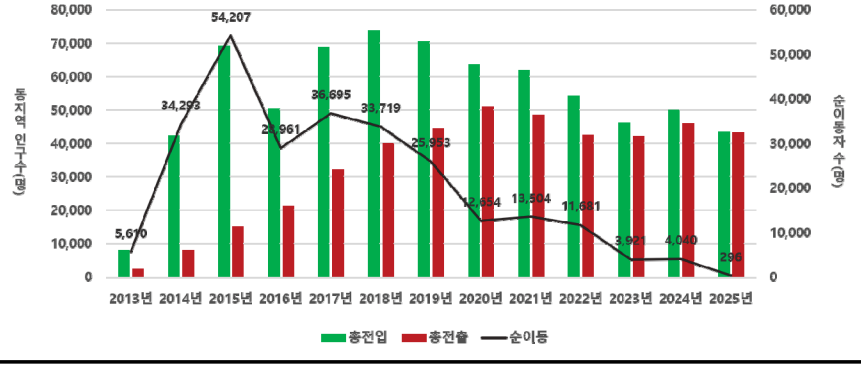
□ 세종시 동 지역 기준, 순이동의 변화

❍ 2013~2025년 동 지역은 모든 연도에서 전입이 전출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순유입 구조를 보이며, 누적 순이동은 +265,534명으로 세종시 인구성장을 주도함

[표 3-31] 세종시 동 지역 전입 / 전출 현황

(단위: 명)

연 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8,030	2,420	5,610
2014	42,459	8,166	34,293
2015	69,338	15,131	54,207
2016	50,361	21,400	28,961
2017	68,883	32,188	36,695
2018	73,695	39,976	33,719
2019	70,433	44,480	25,953
2020	63,703	51,049	12,654
2021	62,000	48,496	13,504
2022	54,240	42,559	11,681
2023	46,138	42,217	3,921
2024	50,081	46,041	4,040
2025	43,555	43,259	296
합계	702,916	437,382	265,53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특히 2014~2018년에는 연간 3만~5만 명대의 대규모 순유입이 이어졌으며, 2015년 +54,20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순유입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최근 3년에도 순유입은 지속되었으나 2023년 +3,921명, 2024년 +4,040명에서 2025년 +296명으로 급감하여, 출범 이후 동 지역이 보여온 대규모 인구유입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변화가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동 지역은 출범 이후 읍·면 지역의 순유출을 상쇄하며 세종시 전체 인구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에는 순유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기존의 **'동 지역 중심 인구성장 구조'가 약화되는 전환** 양상을 보임

□ **최근 3년간 세종시 동 지역 기준, 순전입·순전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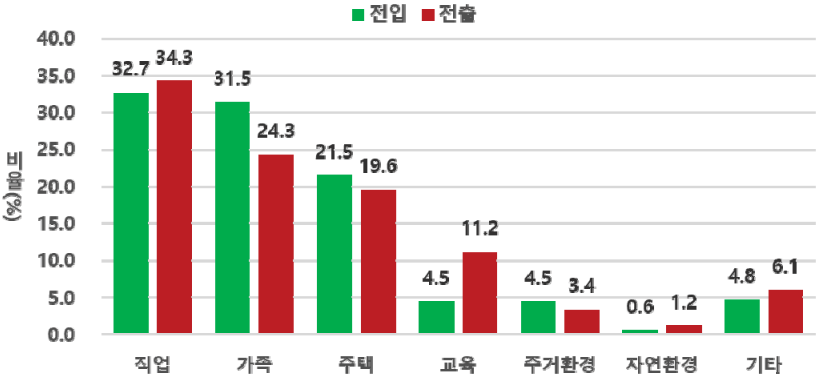
❍ 최근 3년(2023~2025년) 동 지역은 '가족·주택·주거환경'이 순전입을 견인하는 반면, '교육'이 순전출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구조를 보임

- (순전입 견인요인) '가족'은 전입 25,498명, 전출 18,320명으로 +7,178명의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주택' +2,630명, '주거환경' +1,138명, '직업' +632명 순으로 순유입을 보임
- (순전출 견인요인) '교육'은 전입 3,642명에 비해 전출이 8,401명으로 -4,759명의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기타(-726명), 자연환경(-451명)도 순유출을 보임
- 따라서 최근 동 지역은 가족 결합과 주택·주거환경을 통한 인구유입이 지속되는 반면, 교육을 사유로 한 인구유출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구조로 나타남

[표 3-32] 최근 3년간 동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분석

(단위: 명, %)

구 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26,493	32.7	25,861	34.3
가족	25,498	31.5	18,320	24.3
주택	17,374	21.5	14,744	19.6
교육	3,642	4.5	8,401	11.2
주거환경	3,671	4.5	2,533	3.4
자연환경	457	0.6	908	1.2
기타	3,848	4.8	4,574	6.1
합계	80,983	100.0	75,341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3~2025년) 세종시 동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2013~2025년) 동 지역의 순전입 사유는 출범 초기 '직업' 중심에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택' 중심으로 변화한 이후, 최근에는 '직업·가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

- '주택' 사유 전입은 2015년 23,153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4,692명까지 축소된 반면, '가족'은 2014년 이후 주요 전입 사유로 자리 잡아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함. '직업' 역시 2015년 정점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도 8,363명으로 주요 전입 사유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동 지역의 인구유입은 출범 초기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유입 효과가 약화되고, 최근에는 직업·가족을 중심으로 한 유입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세종시 동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명)													
직업	3,298	14,095	17,913	13,400	12,927	13,396	13,143	10,944	9,675	9,170	9,178	8,952	8,363
가족	1,125	4,851	9,493	8,687	9,707	11,087	10,579	10,120	9,367	8,803	7,974	8,666	8,858
주택	1,109	12,549	23,153	13,001	19,943	17,805	16,032	12,800	13,216	9,686	5,872	6,810	4,692
교육	151	1,220	2,236	1,322	1,930	2,186	2,034	1,466	1,114	1,200	1,209	1,265	1,168
주거환경	55	806	1,065	671	1,393	1,653	1,803	1,452	1,299	1,251	1,305	1,251	1,115
자연환경	36	162	272	184	283	238	225	219	194	148	171	154	132
기타	824	965	4,125	2,405	2,960	2,195	1,619	1,874	1,917	1,789	1,364	1,336	1,148
합계	6,598	34,648	58,257	39,670	49,143	48,560	45,435	38,875	36,782	32,047	27,073	28,434	25,476
비율(%)													
직업	50.0	40.7	30.7	33.8	26.3	27.6	28.9	28.2	26.3	28.6	33.9	31.5	32.8
가족	17.1	14.0	16.3	21.9	19.8	22.8	23.3	26.0	25.5	27.5	29.5	30.5	34.8
주택	16.8	36.2	39.7	32.8	40.6	36.7	35.3	32.9	35.9	30.2	21.7	24.0	18.4
교육	2.3	3.5	3.8	3.3	3.9	4.5	4.5	3.8	3.0	3.7	4.5	4.4	4.6
주거환경	0.8	2.3	1.8	1.7	2.8	3.4	4.0	3.7	3.5	3.9	4.8	4.4	4.4
자연환경	0.5	0.5	0.5	0.5	0.6	0.5	0.5	0.6	0.5	0.5	0.6	0.5	0.5
기타	12.5	2.8	7.1	6.1	6.0	4.5	3.6	4.8	5.2	5.6	5.0	4.7	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3~2025년) 순전출 사유는 장기적으로 직업·가족·주택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사유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 '교육' 사유 전출은 2013년 128명에서 2025년 3,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직업·가족·주택은 신도시 성장과 함께 증가한 이후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3년에는 가족(+7,178명)과 주택(+2,630명)이 순유입을 견인하는 반면, 교육(-4,759명)이 가장 큰 순유출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 목적의 인구 유출이 동 지역의 순유입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음. 동 지역의 순전출 사유 순위는 큰 변화가 없으며, '교육' 사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2013년에는 '직업(33.5%)', '가족(23.8%)', '주택(20.6%)' 순이었음
- 2025년에는 '직업(33.1%)', '가족(24.8%)', '주택(19.8%)'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교육' 사유가 2013년에는 6.4%에서 2025년 12.2%로 출범 초기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표 3-34]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명)													
직업	666	1,230	3,078	4,457	5,073	6,477	7,761	9,116	8,101	7,637	8,673	8,690	8,498
가족	474	1,110	2,514	3,490	4,352	4,994	5,812	6,364	5,809	5,396	5,926	6,031	6,363
주택	411	813	1,579	2,423	2,928	3,396	4,163	5,925	5,214	4,296	4,748	4,922	5,074
교육	128	195	438	674	980	1,237	1,599	1,974	1,875	2,306	2,439	2,834	3,128
주거환경	35	85	183	243	414	426	614	846	729	641	825	835	873
자연환경	21	36	65	134	232	217	213	423	369	271	334	310	264
기타	256	322	726	832	1,164	1,417	1,591	1,638	1,685	1,517	1,641	1,482	1,451
합계	1,991	3,791	8,583	12,253	15,143	18,164	21,753	26,286	23,782	22,064	24,586	25,104	25,651
비율(%)													
직업	33.5	32.4	35.9	36.4	33.5	35.7	35.7	34.7	34.1	34.6	35.3	34.6	33.1
가족	23.8	29.3	29.3	28.5	28.7	27.5	26.7	24.2	24.4	24.5	24.1	24.0	24.8
주택	20.6	21.4	18.4	19.8	19.3	18.7	19.1	22.5	21.9	19.5	19.3	19.6	19.8
교육	6.4	5.1	5.1	5.5	6.5	6.8	7.4	7.5	7.9	10.5	9.9	11.3	12.2
주거환경	1.8	2.2	2.1	2.0	2.7	2.3	2.8	3.2	3.1	2.9	3.4	3.3	3.4
자연환경	1.1	0.9	0.8	1.1	1.5	1.2	1.0	1.6	1.6	1.2	1.4	1.2	1.0
기타	12.9	8.5	8.5	6.8	7.7	7.8	7.3	6.2	7.1	6.9	6.7	5.9	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시계열적 특성: 동 지역 종합진단)** 장기적으로 동 지역은 신도시 조성 초기의 **주택 중심 대규모 유입에서 최근 직업·가족 중심의 유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 목적의 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임. 최근에는 **가족·주택이 순유입을 견인하고 교육이 순유출을 견인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 세종시 동 지역 시·도 내 이동 변화 추이

○ 최근 3년(2023~2025년) 세종시 시·도 내 이동의 대부분은 동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동 지역으로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관내 순유입 구조가 지속됨

- 동 지역의 전입 비중은 2023년 87.4%에서 2025년 86.1%로 소폭 감소한 반면, 전출 비중은 80.9%에서 83.8%로 증가하여 전입과 전출 비중의 격차가 점차 축소됨
- 실제 순이동도 2023년 +1,434명, 2024년 +710명, 2025년 +471명으로 3년 연속 순유입을 유지하였으나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시계열적 특성) 최근 동 지역은 세종시 내부 이동에서 여전히 인구를 흡수하는 중심지역이나, 관내 순유입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동 지역으로의 내부 인구집중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표 3-35] 최근 3개년 세종시 동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세종시 전체	전입기준	전출기준	전입 기준 대비(%)	전출 기준 대비(%)
2023	21,803	19,065	17,631	87.4	80.9
2024	25,076	21,647	20,937	86.3	83.5
2025	21,007	18,079	17,608	86.1	83.8
합계/평균	67,886	58,791	56,176	86.6	82.8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시·도 간 이동 변화 추이

○ (2013~2025년) 동 지역은 세종시 시·도 간 이동의 중심지역으로 빠르게 부상한 이후, 전체 이동의 7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구조를 보임

- 동 지역이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8.0%에서 2014년 65.5%, 2015년 76.9%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체로 7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함
- 최근 3년에도 동 지역의 시·도 간 이동은 51,659명 → 53,538명 →

51,127명으로 5만 명대를 유지하였으며, 전체 대비 비중도 77.3% → 77.5% → 76.6%로 큰 변화 없이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출범 초기 세종시의 시·도 간 이동은 읍·면 지역에도 상당 부분 분산되어 있었으나, 신도시 성장과 함께 동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체 시·도 간 이동의 약 4분의 3 이상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남

[표 3-36] 세종시 동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전체 대비(%)
2013	30,704	8,589	28.0
2014	58,686	38,439	65.5
2015	86,964	66,840	76.9
2016	71,196	51,923	72.9
2017	82,966	64,286	77.5
2018	84,533	66,724	78.9
2019	84,310	67,188	79.7
2020	84,753	65,161	76.9
2021	79,665	60,564	76.0
2022	70,346	54,111	76.9
2023	66,804	51,659	77.3
2024	69,084	53,538	77.5
2025	66,743	51,127	76.6
합계/평균	936,754	700,149	74.7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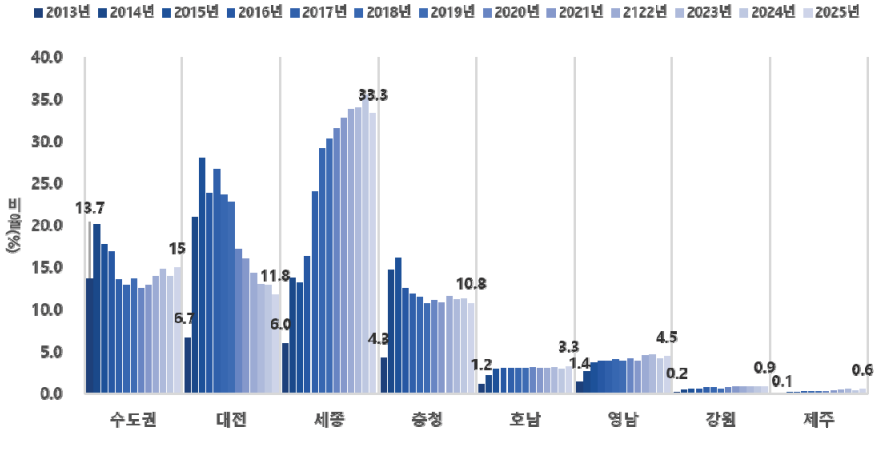
□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2013~2025년 동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는 세종 내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 수도권, 충청 순으로 나타남

- 누계 기준 동 지역 전입자 702,916명 중 세종 내부가 231,918명(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170,441명(24.2%), 수도권 127,952명(18.2%), 충청 103,477명(14.7%) 순**으로 나타나, 세종 내부와 인접 대전을 중심으로 한 유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시계열적으로는 출범 초기 대전 등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세종 내부 이동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동 지역 전입의 주된 원천이 외부지역 중심에서 세종 내부 중심으로 변화함
- 최근 3년(2023~2025년)에는 **세종 내부 58,791명(42.1%), 수도권 24,943명(17.8%), 대전 21,668명(15.5%), 충청 19,005명(13.6%) 순으로 나타나, 장기 누계와 비교하여 세종 내부 이동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대전의 상대적 비중은 낮아진 것**이 특징임

○ (시계열적 특성) 동 지역의 전입 원천은 출범 이후 세종 내부와 대전 중심에서 최근 세종 내부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세종 내부가 가장 큰 유입 원천**으로 자리 잡고 **수도권이 대전을 앞서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그림 3-10]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전라, 광주), 영남(경상,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37]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23,805	8,030	3,273	1,590	1,432	1,021	293	335	52	34
2014	56,526	42,459	11,337	11,898	7,811	8,304	1,255	1,511	261	82
2015	83,994	69,338	14,947	23,478	11,081	13,591	2,440	3,142	519	140
2016	65,052	50,361	10,964	15,479	10,691	8,161	1,982	2,506	422	156
2017	82,073	68,883	11,124	21,873	19,740	9,793	2,446	3,160	539	208
2018	86,433	73,695	11,128	20,435	25,135	9,903	2,709	3,514	614	257
2019	82,398	70,433	11,321	18,751	24,998	8,877	2,506	3,229	485	266
2020	78,934	63,703	9,866	13,551	24,828	8,791	2,513	3,347	555	252
2021	76,912	62,000	9,905	12,280	25,218	8,418	2,280	3,026	578	295
2022	65,529	54,240	9,144	9,438	22,193	7,613	1,996	3,023	528	305
2023	56,050	46,138	8,278	7,341	19,065	6,253	1,774	2,640	459	328
2024	61,022	50,081	8,508	7,914	21,647	6,877	1,789	2,576	503	267
2025	54,355	43,555	8,157	6,413	18,079	5,875	1,793	2,444	480	314
합계	873,083	702,916	127,952	170,441	231,918	103,477	25,776	34,453	5,995	2,904
비 율(%)										
2013	100.0	33.7	13.7	6.7	6.0	4.3	1.2	1.4	0.2	0.1
2014	100.0	75.1	20.1	21.0	13.8	14.7	2.2	2.7	0.5	0.1
2015	100.0	82.6	17.8	28.0	13.2	16.2	2.9	3.7	0.6	0.2
2016	100.0	77.4	16.9	23.8	16.4	12.5	3.0	3.9	0.6	0.2
2017	100.0	83.9	13.6	26.7	24.1	11.9	3.0	3.9	0.7	0.3
2018	100.0	85.3	12.9	23.6	29.1	11.5	3.1	4.1	0.7	0.3
2019	100.0	85.5	13.7	22.8	30.3	10.8	3.0	3.9	0.6	0.3
2020	100.0	80.7	12.5	17.2	31.5	11.1	3.2	4.2	0.7	0.3
2021	100.0	80.6	12.9	16.0	32.8	10.9	3.0	3.9	0.8	0.4
2022	100.0	82.8	14.0	14.4	33.9	11.6	3.0	4.6	0.8	0.5
2023	100.0	82.3	14.8	13.1	34.0	11.2	3.2	4.7	0.8	0.6
2024	100.0	82.1	13.9	13.0	35.5	11.3	2.9	4.2	0.8	0.4
2025	100.0	80.1	15.0	11.8	33.3	10.8	3.3	4.5	0.9	0.6
합계	100.0	80.5	14.6	19.5	26.6	11.9	3.0	3.9	0.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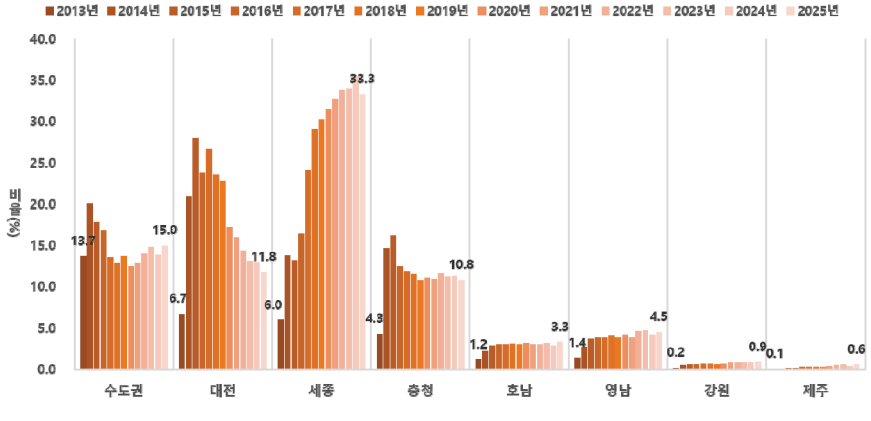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지역 현황

○ 2013~2025년 누계 기준 동 지역 전출자의 전출지역은 세종 내부 208,231명(47.6%)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77,988명(17.8%), 대전 57,777명(13.2%), 충청 54,087명(12.4%)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2023~2025년)에도 세종 내부 59,176명(45.1%)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25,966명(19.8%), 충청 18,339명(14.0%), 대전 17,812명(13.6%) 순으로 나타나, 세종 내부로의 이동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장기 누계와 비교하면 최근 3년에는 세종 내부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 반면, **수도권과 충청으로의 전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충청이 대전을 앞서는 변화**가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동 지역의 전출은 장기적으로 세종 내부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세종 내부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고 **수도권·충청 등 외부지역으로의 전출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동지역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11]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38]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15,109	2,420	562	610	429	485	124	159	38	13
2014	23,070	8,166	1,191	1,058	4,375	903	272	302	32	33
2015	30,950	15,131	2,763	2,159	6,548	2,145	514	821	113	68
2016	35,236	21,400	4,124	3,070	9,147	2,937	784	992	242	104
2017	47,383	32,188	4,955	4,140	17,045	3,422	945	1,230	263	188
2018	55,000	39,976	6,259	4,917	21,812	3,989	1,076	1,464	248	211
2019	58,674	44,480	7,724	5,548	22,727	4,774	1,286	1,833	362	226
2020	65,909	51,049	8,935	6,747	24,763	6,405	1,544	1,993	425	237
2021	62,827	48,496	7,948	5,994	24,714	5,827	1,441	1,865	442	265
2022	55,401	42,559	7,561	5,722	20,495	4,861	1,445	1,842	398	235
2023	54,360	42,217	8,630	5,852	17,631	5,979	1,484	1,994	370	277
2024	58,214	46,041	8,661	5,946	20,937	6,217	1,443	2,224	337	276
2025	54,402	43,259	8,675	6,014	17,608	6,143	1,515	2,692	400	212
합계	616,535	437,382	77,988	57,777	208,231	54,087	13,873	19,411	3,670	2,345
비 율(%)										
2013	100.0	16.0	3.7	4.0	2.8	3.2	0.8	1.1	0.3	0.1
2014	100.0	35.4	5.2	4.6	19.0	3.9	1.2	1.3	0.1	0.1
2015	100.0	48.9	8.9	7.0	21.2	6.9	1.7	2.7	0.4	0.2
2016	100.0	60.7	11.7	8.7	26.0	8.3	2.2	2.8	0.7	0.3
2017	100.0	67.9	10.5	8.7	36.0	7.2	2.0	2.6	0.6	0.4
2018	100.0	72.7	11.4	8.9	39.7	7.3	2.0	2.7	0.5	0.4
2019	100.0	75.8	13.2	9.5	38.7	8.1	2.2	3.1	0.6	0.4
2020	100.0	77.5	13.6	10.2	37.6	9.7	2.3	3.0	0.6	0.4
2021	100.0	77.2	12.7	9.5	39.3	9.3	2.3	3.0	0.7	0.4
2022	100.0	76.8	13.6	10.3	37.0	8.8	2.6	3.3	0.7	0.4
2023	100.0	77.7	15.9	10.8	32.4	11.0	2.7	3.7	0.7	0.5
2024	100.0	79.1	14.9	10.2	36.0	10.7	2.5	3.8	0.6	0.5
2025	100.0	79.5	15.9	11.1	32.4	11.3	2.8	4.9	0.7	0.4
합계	100.0	70.9	12.6	9.4	33.8	8.8	2.3	3.1	0.6	0.4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동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성별 특성

❍ 2013~2025년 동 지역은 남녀 모두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을 보였으며, 여성의 순유입 규모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 누계 기준 남성은 전입 341,240명, 전출 212,263명으로 +128,977명, 여성은 전입 361,676명, 전출 225,119명으로 +136,557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7,580명 많은 순유입을 보임
- 최근 3년(2023~2025년)에도 여성의 순유입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가 지속됨. 남성은 전입 67,781명, 전출 63,869명으로 +3,912명, 여성은 전입 71,993명, 전출 67,648명으로 +4,345명의 순유입을 기록함
- 다만 최근에는 전입과 전출 간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남녀 모두 동 지역으로의 순유입 강도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표 3-39]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23,805	8,030	3,933	16.5	4,097	17.2
2014	56,526	42,459	20,778	36.8	21,681	38.4
2015	83,994	69,338	33,613	40.0	35,725	42.5
2016	65,052	50,361	24,241	37.3	26,120	40.2
2017	82,073	68,883	33,478	40.8	35,405	43.1
2018	86,433	73,695	35,792	41.4	37,903	43.9
2019	82,398	70,433	34,346	41.7	36,087	43.8
2020	78,934	63,703	30,802	39.0	32,901	41.7
2021	76,912	62,000	30,152	39.2	31,848	41.4
2022	65,529	54,240	26,324	40.2	27,916	42.6
2023	56,050	46,138	22,368	39.9	23,770	42.4
2024	61,022	50,081	24,357	39.9	25,724	42.2
2025	54,355	43,555	21,056	38.7	22,499	41.4
합계/평균	873,083	702,916	341,240	39.1	361,676	41.4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40]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15,109	2,420	1,190	7.9	1,230	8.1
2014	23,070	8,166	3,987	17.3	4,179	18.1
2015	30,950	15,131	7,317	23.6	7,814	25.2
2016	35,236	21,400	10,350	29.4	11,050	31.4
2017	47,383	32,188	15,617	33.0	16,571	35.0
2018	55,000	39,976	19,211	34.9	20,765	37.8
2019	58,674	44,480	21,674	36.9	22,806	38.9
2020	65,909	51,049	24,711	37.5	26,338	40.0
2021	62,827	48,496	23,634	37.6	24,862	39.6
2022	55,401	42,559	20,703	37.4	21,856	39.5
2023	54,360	42,217	20,524	37.8	21,693	39.9
2024	58,214	46,041	22,441	38.5	23,600	40.5
2025	54,402	43,259	20,904	38.4	22,355	41.1
합계/평균	616,535	437,382	212,263	34.4	225,119	36.5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시계열적 특성) 동 지역은 출범 이후 남녀 모두 지속적인 순유입을 통해 세종시 인구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큰 순유입을 보이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됨

- 다만 최근에는 남녀 모두 순유입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성별과 관계없이 동 지역의 인구흡인력이 약화되고 있는 변화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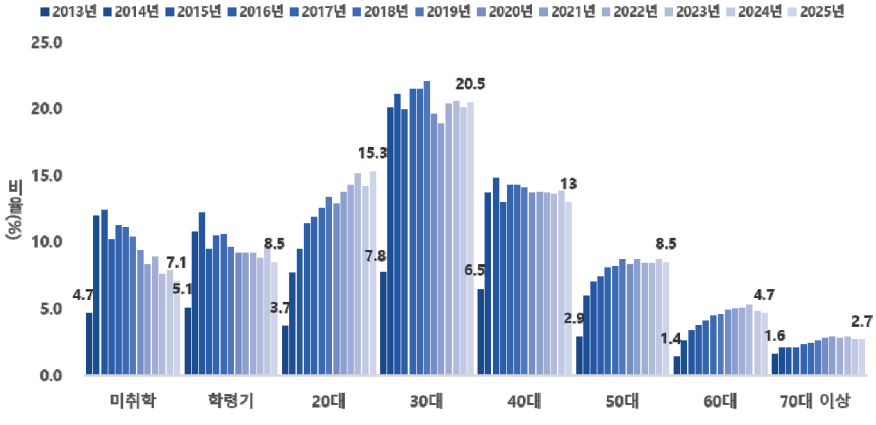
□ 동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전입·전출 견인 연령) 2013~2025년 동 지역은 전입과 전출 모두 30대의 이동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입은 30대(176,665명), 40대(119,370명), 20대(107,952명) 순, 전출은 30대(103,394명), 40대(75,397명), 20대(73,173명)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동 지역 인구이동의 핵심 연령층으로 나타남

❍ (순유입 견인 연령) 모든 연령대에서 전입이 전출을 상회하였으며, 누적 순이동은 30대 +73,271명으로 가장 많고, 미취학 +37,120명,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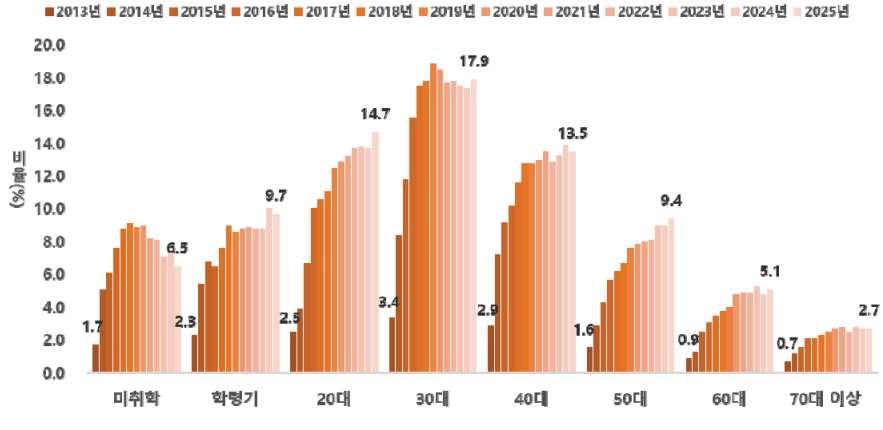
+34,779명, 학령기 +33,559명 순으로 나타남. 특히 30대와 미취학·학령기 인구의 높은 순유입은 30대 중심의 가족단위 인구유입이 동 지역 인구 성장을 견인해 왔음을 보여줌

○ (최근 3년) 이러한 순유입 구조는 최근 들어 크게 약화됨. 2023~2025년에도 30대가 +5,472명으로 순유입을 가장 크게 견인하였으며, 20대 +1,994명, 미취학 +1,202명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령기 인구는 -417명으로 순유출로 전환됨**



[그림 3-12]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3-13]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41]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23,805	8,030	1,116	1,214	878	1,866	1,549	694	341	372
2014	56,526	42,459	6,798	6,121	4,370	11,339	7,762	3,414	1,494	1,161
2015	83,994	69,338	10,412	10,243	7,975	17,728	12,435	5,919	2,873	1,753
2016	65,052	50,361	6,628	6,177	7,388	13,041	8,451	4,808	2,484	1,384
2017	82,073	68,883	9,286	8,586	9,727	17,665	11,714	6,627	3,352	1,926
2018	86,433	73,695	9,554	9,177	10,915	18,621	12,359	7,095	3,926	2,048
2019	82,398	70,433	8,530	7,927	11,051	18,179	11,603	7,203	3,783	2,157
2020	78,934	63,703	7,397	7,224	10,205	15,446	10,813	6,540	3,841	2,237
2021	76,912	62,000	6,387	7,095	10,630	14,513	10,589	6,710	3,882	2,194
2022	65,529	54,240	5,816	6,060	9,338	13,356	8,946	5,516	3,343	1,865
2023	56,050	46,138	4,238	4,911	8,513	11,531	7,614	4,729	2,991	1,611
2024	61,022	50,081	4,839	5,959	8,653	12,245	8,480	5,291	2,951	1,663
2025	54,355	43,555	3,838	4,638	8,309	11,135	7,055	4,599	2,540	1,441
합계	873,083	702,916	84,839	85,332	107,952	176,665	119,370	69,145	37,801	21,812
비 율(%)										
2013	100.0	33.7	4.7	5.1	3.7	7.8	6.5	2.9	1.4	1.6
2014	100.0	75.1	12.0	10.8	7.7	20.1	13.7	6.0	2.6	2.1
2015	100.0	82.6	12.4	12.2	9.5	21.1	14.8	7.0	3.4	2.1
2016	100.0	77.4	10.2	9.5	11.4	20.0	13.0	7.4	3.8	2.1
2017	100.0	83.9	11.3	10.5	11.9	21.5	14.3	8.1	4.1	2.3
2018	100.0	85.3	11.1	10.6	12.6	21.5	14.3	8.2	4.5	2.4
2019	100.0	85.5	10.4	9.6	13.4	22.1	14.1	8.7	4.6	2.6
2020	100.0	80.7	9.4	9.2	12.9	19.6	13.7	8.3	4.9	2.8
2021	100.0	80.6	8.3	9.2	13.8	18.9	13.8	8.7	5.0	2.9
2022	100.0	82.8	8.9	9.2	14.3	20.4	13.7	8.4	5.1	2.8
2023	100.0	82.3	7.6	8.8	15.2	20.6	13.6	8.4	5.3	2.9
2024	100.0	82.1	7.9	9.8	14.2	20.1	13.9	8.7	4.8	2.7
2025	100.0	80.1	7.1	8.5	15.3	20.5	13.0	8.5	4.7	2.7
합계	100.0	80.5	9.7	9.8	12.4	20.2	13.7	7.9	4.3	2.5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3-42]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15,109	2,420	250	352	375	518	437	236	139	113
2014	23,070	8,166	1,183	1,253	900	1,932	1,657	666	297	278
2015	30,950	15,131	1,894	2,092	2,071	3,666	2,836	1,321	763	488
2016	35,236	21,400	2,663	2,275	3,547	5,508	3,601	1,999	1,079	728
2017	47,383	32,188	4,174	3,617	5,000	8,314	5,474	2,929	1,668	1,012
2018	55,000	39,976	5,028	4,948	6,093	9,814	7,033	3,706	2,100	1,254
2019	58,674	44,480	5,222	5,038	7,309	11,084	7,536	4,450	2,367	1,474
2020	65,909	51,049	5,916	5,775	8,499	12,167	8,565	5,190	3,163	1,774
2021	62,827	48,496	5,168	5,608	8,316	11,114	8,459	5,024	3,059	1,748
2022	55,401	42,559	4,508	4,890	7,582	9,838	7,140	4,505	2,687	1,409
2023	54,360	42,217	3,874	4,777	7,512	9,535	7,204	4,905	2,893	1,517
2024	58,214	46,041	4,324	5,858	7,997	10,157	8,096	5,267	2,799	1,543
2025	54,402	43,259	3,515	5,290	7,972	9,747	7,359	5,138	2,766	1,472
합계	616,535	437,382	47,719	51,773	73,173	103,394	75,397	45,336	25,780	14,810
비 율(%)										
2013	100.0	16.0	1.7	2.3	2.5	3.4	2.9	1.6	0.9	0.7
2014	100.0	35.4	5.1	5.4	3.9	8.4	7.2	2.9	1.3	1.2
2015	100.0	48.9	6.1	6.8	6.7	11.8	9.2	4.3	2.5	1.6
2016	100.0	60.7	7.6	6.5	10.1	15.6	10.2	5.7	3.1	2.1
2017	100.0	67.9	8.8	7.6	10.6	17.5	11.6	6.2	3.5	2.1
2018	100.0	72.7	9.1	9.0	11.1	17.8	12.8	6.7	3.8	2.3
2019	100.0	75.8	8.9	8.6	12.5	18.9	12.8	7.6	4.0	2.5
2020	100.0	77.5	9.0	8.8	12.9	18.5	13.0	7.9	4.8	2.7
2021	100.0	77.2	8.2	8.9	13.2	17.7	13.5	8.0	4.9	2.8
2022	100.0	76.8	8.1	8.8	13.7	17.8	12.9	8.1	4.9	2.5
2023	100.0	77.7	7.1	8.8	13.8	17.5	13.3	9.0	5.3	2.8
2024	100.0	79.1	7.4	10.1	13.7	17.4	13.9	9.0	4.8	2.7
2025	100.0	79.5	6.5	9.7	14.7	17.9	13.5	9.4	5.1	2.7
합계	100.0	70.9	7.7	8.4	11.9	16.8	12.2	7.4	4.2	2.4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시계열적 특성) 장기적으로 **동 지역은 30대를 중심으로 자녀세대가 함께 유입되는 가족단위 이동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학령기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남

- 이는 앞서 확인된 교육 사유의 순전출 확대와 함께 동 지역의 가족단위 인구흡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변화로 판단됨

4. 가구구성별 전출사유 분석 결과

□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분석 개요

❍ 세종시 전출 인구의 이동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구성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전출 사유를 비교·분석함

❍ 최근 3년(2023~2025년)을 기준으로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 주요 전출 사유의 구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구성에 따라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함

❍ 이를 통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전출 결정요인이 상이한지, 최근 들어 각 가구유형의 전출 사유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가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유출 대응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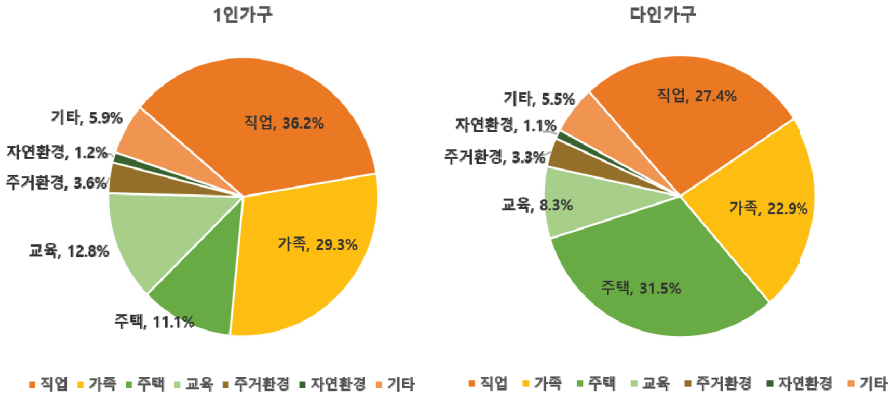
□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비교

❍ 최근 3년(2023~2025년) 세종시 전출 사유는 가구구성에 따라 상이한 변화가 나타나며, 1인가구는 '직업·가족' 중심, 다인가구는 '주택·직업' 중심의 전출 구조가 지속됨

- (1인가구) 직업이 2023년 38.0% → 2024년 37.4% → 2025년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한 반면, 교육은 10.2% → 11.4% → 1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가족은 28% 내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택은 12% 내외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다인가구) 주택이 28.9% → 29.8% → 3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가장 높은 전출 사유로 나타난 반면, 직업은 30.4% → 29.3% → 27.4%로 감소함. 가족은 22~2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교육은 7.1% → 8.2% → 8.3%로 소폭 증가함

❍ (시계열적 특성) 최근 3년간 1인가구는 직업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는 가운데 교육 사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인가구는 직업 사유가 감소하고 주택 사유가 확대되는 상반된 변화가 나타남

- 특히 2025년 주택 사유는 1인가구 11.1%, 다인가구 31.5%로 20.4%p의 큰 격차를 보여, **주거 요인이 다인가구의 전출을 특징**짓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3-14]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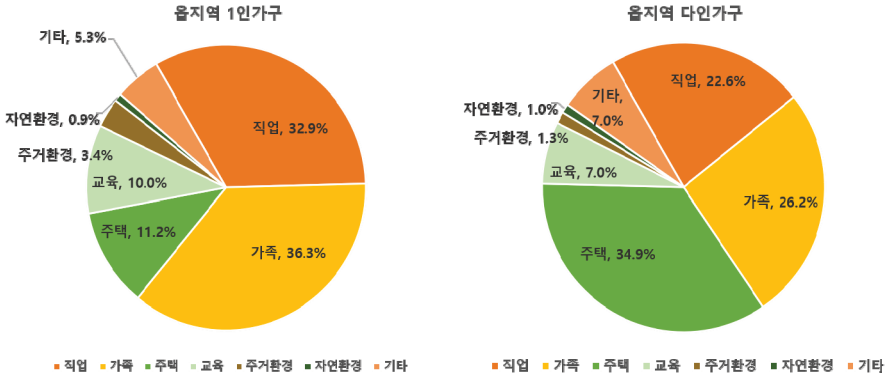
□ 세종시 읍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비교

❍ 2025년 읍 지역 전출 사유는 가구구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1인가구는 가족(36.3%), 직업(32.9%), 주택(11.2%), 교육(10.0%) 순인 반면, 다인가구는 주택(34.9%), 가족(26.2%), 직업(22.6%), 교육·기타(각 7.0%) 순으로 나타남

- (1인가구) 가족과 직업이 전체 전출 사유의 69.2%를 차지하며, 특히 가족 사유가 36.3%로 직업(32.9%)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세종시 전체 1인가구에서 직업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읍 지역 1인가구는 가족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다인가구) 주택이 34.9%로 가장 높아 1인가구(11.2%)보다 23.7%p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읍 지역 다인가구의 전출에는 주택 관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변화) 2023~2025년 1인가구는 가족 비중이 32.4% → 33.3% → 36.3%로 증가한 반면 직업은 37.1% → 34.6% → 32.9%로 감소하여, 직업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전출 사유의 우선순위가 변화함. 다인가구는 주택이 36.9% → 36.8% → 34.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함

○ (종합) **읍 지역에서는 최근 1인가구의 전출이 '직업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는 반면, **다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주택 중심'의 전출구조**를 보이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임



[그림 3-15] 세종시 읍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면 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비교

○ 2025년 기준 면 지역 전출 사유는 1인가구의 경우 직업(38.3%) 〉 가족(30.7%) 〉 주택(13.2%) 〉 기타(6.6%) 순으로 나타난 반면, 다인가구는 가족(29.1%) 〉 직업(28.5%) 〉 주택(26.5%) 〉 기타(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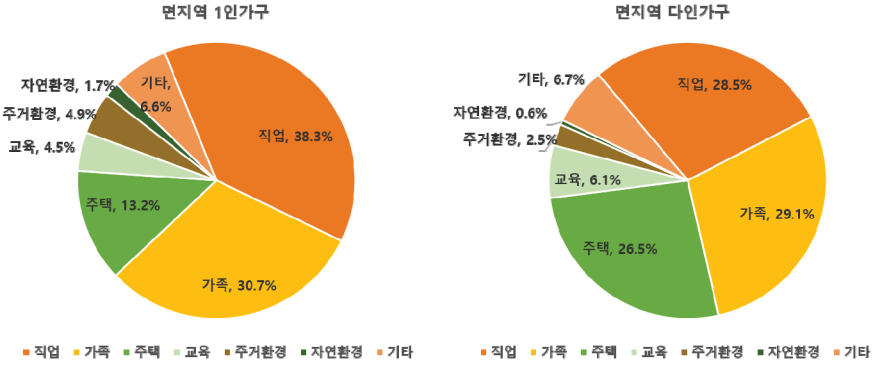
- (1인가구) '직업'과 '가족'이 각각 38.3%, 30.7%로 전체 전출 사유의 69.0%를 차지하여, 면 지역 1인가구의 전출은 직업·가족 요인에 집중된 구조를 보임
- (다인가구) 직업(28.5%), 가족(29.1%), 주택(26.5%)이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사유에 집중되기보다 직업·가족·주택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출구조를 보임. 특히 주택 사유는 1인가구(13.2%)의 약 2배 수준으로, 다인가구에서 주택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최근 3년 변화) 1인가구는 직업 중심의 전출 구조가 지속된 반면, 다인가구는 주택 비중이 감소하고 가족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출 요인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2023~2025년 1인가구는 직업이 39.2% → 40.6% →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가족은 29.9% → 28.2% → 30.7%로 30% 내외를 유지함
- 다인가구는 주택 비중이 27.4% → 26.9% → 26.5%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가족은 25.7% → 28.3% → 29.1%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가장 높은 전출 사유로 나타남

❍ (읍 지역과의 비교) 읍·면 모두 다인가구에서 주택 사유의 비중이 높으나, 읍 지역은 '주택 중심', 면 지역은 '가족·직업·주택의 복합적 전출 구조'라는 차이가 나타남

- 읍 지역 다인가구는 주택(34.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면 지역 다인가구는 가족(29.1%), 직업(28.5%), 주택(26.5%)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16] 세종시 면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비교

❍ 2025년 기준 동 지역 전출 사유는 1인가구의 경우 직업(36.4%) 〉 가족(27.6%) 〉 교육(15.0%) 〉 주택(10.6%) 순으로 나타난 반면, 다인가구는 주택(31.7%) 〉 직업(27.6%) 〉 가족(22.1%) 〉 교육(8.6%) 순으로 나타남

❍ (가구구성별 특징) 1인가구는 직업·가족 중심, 다인가구는 주택 중심의 전출

구조가 뚜렷하며, 특히 1인가구에서는 교육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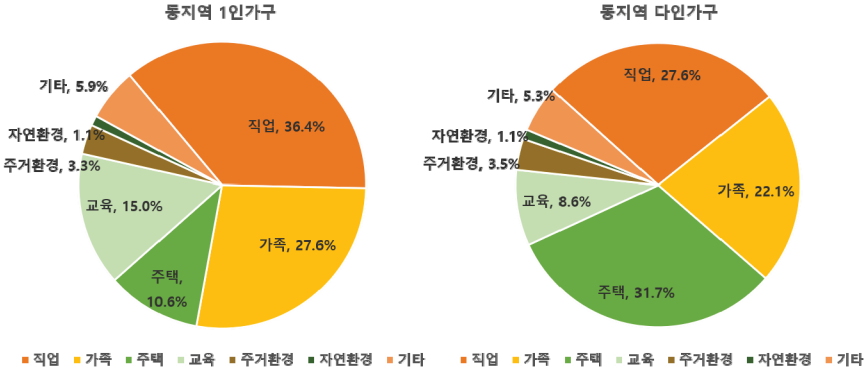
- 1인가구는 직업(36.4%)과 가족(27.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15.0%)도 다인가구(8.6%)보다 6.4%p 높게 나타남
- 다인가구는 주택(31.7%)이 가장 높은 전출 사유로, 1인가구(10.6%)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을 보임

❍ (최근 3년 변화) 1인가구는 직업 중심의 전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다인가구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전출 사유로 나타남

- 1인가구의 직업 비중은 37.8% → 37.3% → 36.4%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육은 12.1% → 13.5% → 15.0%로 지속 증가함
- 다인가구의 주택 비중은 28.3% → 29.5% → 31.7%로 지속 증가하여, 다인가구의 전출에서 주택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읍·면 지역과의 비교) 동 지역은 읍·면과 마찬가지로 다인가구에서 주택 사유가 1인가구보다 높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나, 1인가구의 교육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특성이 나타남

- 2025년 1인가구의 교육 사유는 동 지역 15.0%, 읍 지역 10.0%, 면 지역 4.5%로, 동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동 지역 1인가구의 전출에는 직업뿐 아니라 교육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17] 세종시 동지역 가구구성별 전출 사유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3절 종합시사점

1.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의 종합적 특성

□ 대규모 인구유입 중심의 성장에서 유입과 유출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

❍ 세종시는 출범 이후 신도시 개발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을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입과 전출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순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세종시 전체 인구증가를 견인해 온 동 지역의 순이동이 2023년 +3,921명, 2024년 +4,040명에서 2025년 +296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기존의 대규모 인구유입에 기반한 성장구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외부 인구의 추가적인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왜 세종을 떠나는지를 파악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30대가 여전히 인구증가를 견인하지만, 핵심 유입 연령층의 정착 여부가 중요

❍ 최근 3년간 연령별 인구이동에서는 30대가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하며 세종시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연령층으로 나타남

- 30대는 시·도 간 전입 22.9%, 전출 20.5%로 전입 비중이 전출보다 높았으며, 최근 3년 누적 순이동도 +3,477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40대와 50대는 전출이 전입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50대는 최근 3년 -634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 따라서 세종시 인구정책은 단순한 연령별 인구 규모보다 어떤 연령층이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어떤 연령층에서 유출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0대의 유입 이후 장기적인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

□ **직업 중심의 인구이동 구조에서 가족·교육 등 생애주기 요인의 중요성이 확대**

○ 직업은 여전히 세종시 전입·전출의 가장 중요한 사유이나,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가족·교육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이동요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전출 사유 중 교육 비중은 2013년 5.0%에서 2025년 11.0%로 증가하여, 교육이 세종시 인구유출에서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
- 가족 역시 최근 전입·전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인구이동이 취업이나 주택 등 단일 요인보다 가족형성·자녀교육·주거선택 등이 결합된 생애주기적 의사결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일자리나 주택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일자리–주거–교육–가족생활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정주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0대+자녀' 중심 가족단위 유입구조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성장의 중요한 특징은 30대 부모세대와 미취학·학령기 자녀가 함께 유입되는 가족단위 이동이었음

- 특히 동 지역에서 2013~2025년 누적 순이동은 30대 +73,271명, 미취학 +37,120명, 학령기 +33,559명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유입이 신도시 인구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최근 3년에는 전 연령대의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동 지역 학령기 인구가 -417명으로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동시에 교육을 사유로 한 전출도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남

○ 이는 세종시의 기존 인구성장 기반이었던 젊은 가족의 유입과 정착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 학령기 자녀가구의 이동과 교육 사유 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가구구성에 따라 전출 사유가 달라지는 만큼 가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유출 대응 필요**

○ 가구구성별 분석 결과,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전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남

- 2025년 세종시 전체 기준 1인가구는 직업(36.2%)과 가족(29.3%)이 주요 전출 사유인 반면, 다인가구는 주택(31.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동 지역 1인가구에서는 교육 사유가 15.0%로 읍 지역 10.0%, 면 지역 4.5%보다 높아 동일한 1인가구라도 거주 생활권에 따라 이동요인이 다르게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인구유출 대응은 연령뿐 아니라 가구구성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여 전출 위험집단과 전출요인을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2. 생활권별 인구이동의 종합적 특성

□ **읍·면·동의 인구이동 방향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생활권별 대응 필요**

○ 2013~2025년 누적 순이동은 동 지역 +265,534명, 읍 지역 -3,506명, 면 지역 -5,480명으로 나타나, **세종시 전체의 인구성장이 사실상 동 지역의 순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순유출이 지속됨**

○ 이는 세종시 전체의 인구증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인구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 지역의 성장과 읍·면 지역의 인구유출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생활권별 인구정책이 필요함

□ **(동 지역) 인구유입 중심 생활권에서 '정착 유지와 전출 관리'가 중요한 생활권으로 변화**

○ 동 지역은 출범 이후 세종시 인구성장을 사실상 주도해 왔으며,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미취학·학령기 자녀가 함께 유입되는 가족단위 인구유입 구조가 두드러짐

- 그러나 동 지역 순이동은 2025년 +296명까지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학령기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기존의 높은 순유입 구조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
- 가구구성별로도 1인가구에서는 교육, 다인가구에서는 주택이 중요한 전출 사유로 나타나 가구 특성에 따른 전출요인의 차이가 확인됨

○ 따라서 동 지역은 추가적인 인구유입 자체보다 30대와 자녀가구의 장기 정착, 교육 관련 전출 관리, 다인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등 기존 유입인구의 정착 유지에 정책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읍 지역) 교육을 통한 유입 가능성과 가족·주택에 의한 유출이 공존하는 생활권**

○ 읍 지역은 2013~2025년 누적 -3,506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순전입 사유에서 교육 비중이 2013년 4.8%에서 2025년 26.8%로 크게 증가하여 다른 생활권과 차별적인 변화가 나타남

- 반면 순전출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인가구에서는 주택(34.9%)이 가장 큰 전출 사유로 나타나 주거여건이 인구유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읍 지역은 단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육이라는 새로운 인구유입 요인을 지역의 정주기능과 연결하는 동시에, 가족·주택 요인에 따른 유출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면 지역) 장기적인 순유출과 성별·연령별 선택적 유출에 대응한 정주기반 강화 필요**

- 면 지역은 2013~2025년 누적 -5,480명으로 읍 지역보다 순유출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연도에서 전출이 전입을 상회하는 구조적인 인구유출 생활권의 특성이 나타남
- 특히 장기 누계에서 여성 순유출(-4,216명)이 남성(-1,264명)보다 크게 나타나, 단순한 전체 인구감소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선택적 인구유출이 확인됨
- 가구구성별로는 1인가구의 전출이 직업·가족에 집중된 반면, 다인가구는 가족·직업·주택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생활·고용·주거여건이 복합적으로 인구유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면 지역은 특정 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인구유입보다 일자리와 주거,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정주기반 전반을 개선하고 여성·청년 등 주요 유출 집단의 이동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중요함

□ **'세종시 평균'이 아닌 생활권·연령·가구를 결합한 인구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제3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동 지역은 '유입 이후 정착', 읍 지역은 '교육을 활용한 유입과 가족·주택 유출 관리', 면 지역은 '구조적 순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기반 강화'가 각각 핵심적인 과제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세종시 인구정책은 전체 인구의 증감이나 합계출산율과 같은 총량지표 중심에서 나아가, **'어느 생활권에서-어떤 연령·가구가-어떠한 이유로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데이터 기반의 생활권별 인구정책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4장

1절 |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특성 심층분석
2절 | 청년의 정책인식과 정책수요

SEJONG RESEARCH INSTITUTE

4장 |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1절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특성 심층분석

1. 청년 인구이동의 변화와 연령집단별 특성

□ **세종시 청년 인구의 순이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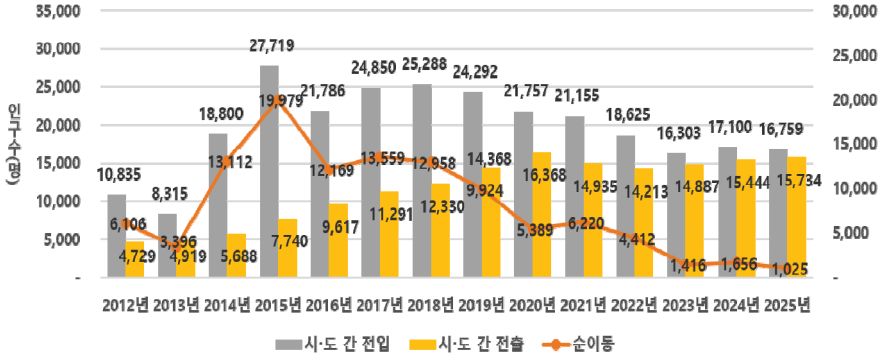
○ (장기적 순유입 유지) 세종시 출범 이후 2012~2025년 청년 인구는 매년 전입이 전출을 상회하는 순유입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나, 순유입 규모는 2015년을 정점으로 크게 축소됨

- 청년 순이동은 2012년 +6,106명에서 2015년 +19,979명까지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로 전환됨

○ (최근 순유입의 급격한 약화) 특히 2020년 이후 청년 순유입 감소가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전입과 전출 규모가 거의 유사해져 청년 인구의 순유입 효과가 사실상 크게 약화됨

- 순이동은 2020년 +5,389명, 2021년 +6,220명에서 2022년 +4,412명, 2023년 +1,416명, 2024년 +1,656명, 2025년 +1,025명으로 축소됨

○ (시계열적 특성)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은 출범 초기의 '대규모 순유입'에서 최근 '전입·전출 균형에 가까운 소규모 순유입'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향후 **청년정책에서 신규 청년 유입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의 전출요인과 지역 정착조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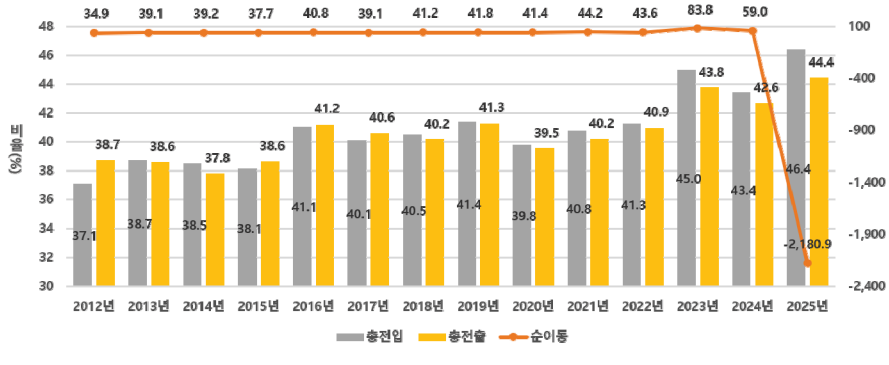
[그림 4-1] 세종시 청년인구의 순이동 변화(2012~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 (총괄) 세종시 청년층은 전체 전입·전출의 약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가장 이동성이 높은 핵심 인구집단이며, 최근 세종시 전체 순유입이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도 높은 이동성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는 청년 전체의 이동 규모뿐 아니라 19~29세와 30~39세의 전입·전출 및 정착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대비 청년 인구이동 비율(2012~2025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2~2025년) 세종시 시·도 간 인구이동에서 청년(19~39세)은 전입과 전출 모두 약 40%를 차지하여, 세종시 인구이동을 주도하는 핵심 연령층으로 나타남

-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전입자 중 청년 비중은 평균 40.9%, 전출자 중 청년 비중은 평균 40.6%로, 전입과 전출 모두에서 청년이 10명 중 약 4명을 차지함
- 전체 순이동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을 제외한 2012~2024년 평균 45.1%로 나타나, 세종시의 순인구이동에서 청년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최근에는 청년의 전입·전출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어, 전체 순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이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청년의 전입 비중: 2023년 45.0% → 2024년 43.4% → 2025년 46.4%, 전출 비중은 43.8% → 42.6% → 44.4%
- 이는 최근 세종시의 순유입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유입과 유출 자체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유의할 점)** 2025년 순이동 비율(-2,180.9%)은 세종시 전체 순이동이 -47명으로 매우 작아 발생한 통계적 왜곡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순이동 자체는 2025년 +1,025명이지만 세종시 전체 순이동이 -47명으로 나타나, 이를 분모로 계산한 구성비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됨
- 따라서 순이동 비중은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청년의 실제 순이동 규모와 전입·전출 비중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청년 2개 집단(19~29세, 30~39세)의 시·도 간 전출 비교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전출은 2018년 이후 19~29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30~39세는 감소하면서 청년 유출의 중심이 30대에서 20대로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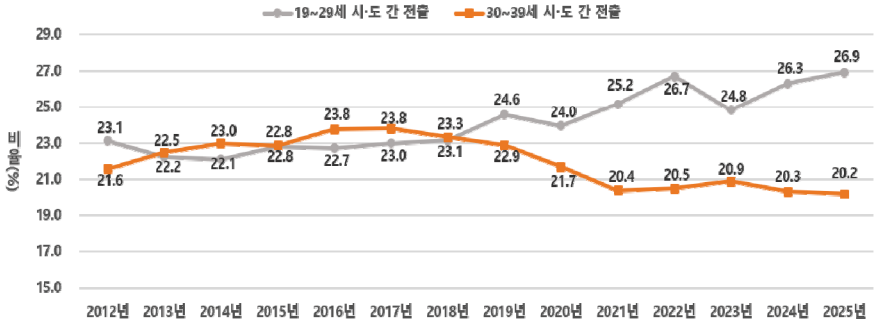
- 19~29세 전출 비율은 2012년 23.1%에서 2018년 23.1%까지 대체로 22~23%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24.6%로 상승한 이후 2022년

26.7%, 2024년 26.3%, 2025년 26.9%로 높아짐

- 반면 30~39세는 2012년 21.6%에서 2016~2017년 23.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1년 20.4%, 2025년 20.2%로 낮아짐

❍ 특히, **두 연령집단의 전출 비중 격차가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015년에는 19~29세와 30~39세가 각각 22.8%로 동일하였으나, 2025년에는 19~29세 26.9%, 30~39세 20.2%로 6.7%p의 격차가 발생함
- 이는 최근 세종시 청년의 전출 문제가 청년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취업·직업이동 등 생애이행이 집중되는 19~29세의 유출 문제로 점차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3]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출 차이(2012~2025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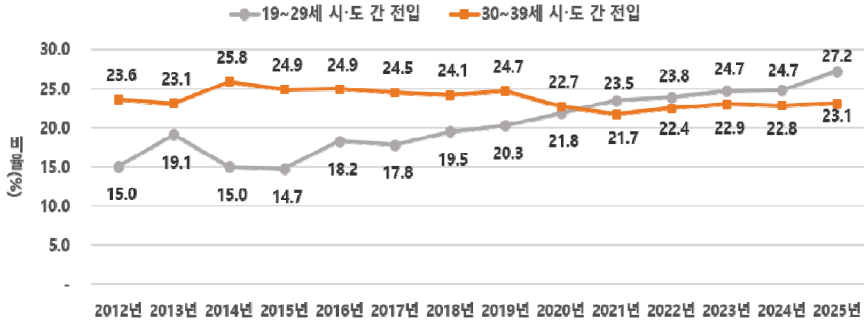
□ 청년 2개 집단(19~29세, 30~39세)의 시·도 간 전입 비교

❍ 청년층의 시·도 간 전입 구조는 장기적으로 19~29세의 비중이 확대되고, 30~39세의 비중은 정체·감소하면서 전입의 중심이 30대에서 20대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19~29세는 출범 초기인 2013년 19.1%에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23~2024년 24.7%, 2025년 27.2%까지 높아짐
- 반면 30~39세는 2013년 23.1%에서 2014년 25.8%까지 상승한 이후 2019년 24.7%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1년 이후에는 21~23%대에서 정체되고 2025년 23.1%를 기록함

○ 특히 2021년을 전후하여 19~29세의 전입 비중이 30~39세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2013년에는 30~39세(23.1%)가 19~29세(19.1%)보다 4.0%p 높았으나, 2025년에는 19~29세(27.2%)가 30~39세(23.1%)보다 4.1%p 높아져 관계가 역전됨



[그림 4-4]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입 차이(2012~2025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전입·전출을 종합한 청년 연령집단별 이동 특성

○ 전입과 전출을 종합하면, 19~29세는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쪽 모두 확대된 반면, 30~39세는 2019년 이후 전입·전출 비중이 함께 낮아져 두 연령집단의 이동 양상이 뚜렷하게 분화됨

- 19~29세는 전입 비중이 2013년 19.1% → 2025년 27.2%, 전출 비중도 22.5% → 26.9%로 높아져, **최근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확대**됨
- 30~39세는 전입 비중이 2013년 23.1% → 2025년 23.1%, 전출 비중은 22.1% → 20.2%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전입·전출 모두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
- 따라서 최근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의 핵심 변화는 '20대 이동성의 확대'와 '30대 이동 활력의 약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다만 19~29세는 전입과 전출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정착 증가로 해석하기보다는, 세종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 자체가

활발해진 '고이동성' 집단으로 볼 필요가 있음

- 반면, 30~39세는 전입뿐만 아니라 전출 비중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 신규 유입 감소와 기존 인구의 상대적 정착이라는 두 가능성을 순이동 규모와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적 특성) 출범 초기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30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20대의 전입·전출 비중이 모두 30대를 상회하면서 청년 이동의 중심축이 20대로 전환되고 있음

- 이는 **향후 청년정책에서도 19~29세의 '유입 이후 정착'과 30~39세의 '유입 회복 및 장기정착'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줌

□ 청년 2개 집단(19~29세, 30~39세)의 시·도 내 이동 비교

❍ 시·도 내 이동은 전 기간에 걸쳐 30~39세 청년층의 비중이 19~29세보다 높게 나타나, 세종시 내부의 거주지 이동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지속됨

- 전체 시·도 내 이동 인구 중 19~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2025년 평균 13.8%, 30~39세는 평균 22.7%로, 30대가 20대보다 약 8.9%p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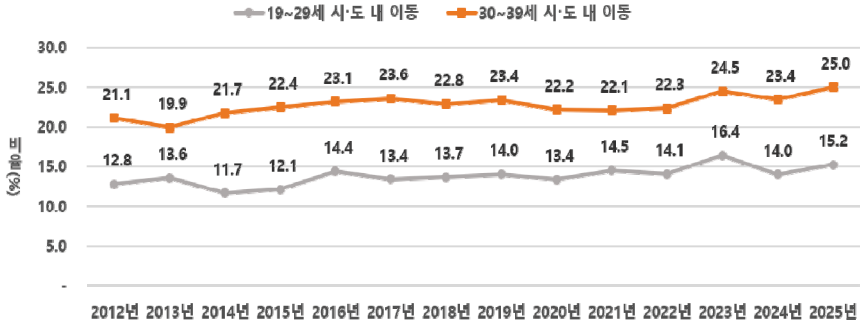
❍ 최근에도 이러한 연령별 격차는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30대의 시·도 내 이동 비중이 다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19~29세는 2023년 16.4% → 2024년 14.0% → 2025년 15.2%로 14~16% 수준에서 등락함
- 30~39세는 같은 기간 24.5% → 23.4% → 25.0%로 나타나, 2025년에는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시·도 간 이동과의 비교) 앞서 시·도 간 이동에서는 최근 19~29세의 전입·전출 비중이 30~39세를 상회하면서 20대가 청년 이동의 중심으로 부상한 반면, 세종시 내부 이동에서는 일관되게 30~39세의 비중이 높다는 차이가 나타남

❍ (시계열적 특성) 세종시 청년의 이동은 연령에 따라 공간적 범위가 상이하며,

19~29세는 '세종 ↔ 타 지역' 간 광역적 이동, 30~39세는 '세종 내' 거주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이중적 구조가 확인됨



[그림 4-5]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내 이동 차이(2012~2025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2. 청년의 유입·유출 지역 특성

□ **"청년은 어디에서 세종으로 유입되는가? 청년은 세종에서 어디로 유출되는가?"**

○ 세종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은 출범 초기 대전·충청권으로부터의 강한 유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충청권으로부터의 유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그 외 지역과의 이동 중요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그림 4-6]~[그림 4-9])

-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세종시 청년의 가장 중요한 유입·유출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전입은 2015년 9,78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5년 3,746명까지 낮아진 반면, 대전으로의 전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3,264명으로 전입 규모에 근접함
- 충남·충북 역시 최근 전입과 전출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아,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충청권으로부터 발생하던 청년 순유입 효과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청권 이외 지역은 최근 세종시 청년의 가장 큰 외부 유입권이자 유출권**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중 수도권과의 이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충청권 이외 시·도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청년은 최근에도 연간 9천 명 내외를 유지하는 반면, 그 외 지역으로의 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8,763명에 이르는 등 전입과 전출 규모가 점차 근접하고 있음
-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핵심 이동지역으로, 2025년 전입은 경기 2,596명, 서울 2,513명, 인천 495명이며, 전출은 서울 2,936명, 경기 2,532명, 인천 454명으로 나타남
- 특히 2025년에는 서울로의 전출(2,936명)이 서울로부터의 전입(2,513명)을 상회하는 반면, 경기는 전입과 전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서울과의 관계에서 청년 유출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져, 지역 간 이동의 청년 집중도가 강화되고 있음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전입 인구 중 청년 비율은 서울 41.6% →

55.3%, 인천 39.5% → 52.3%, 경기 36.5% → 48.9%, 그 외 시도 38.7% → 45.0%로 모두 증가함

- 전출에서도 서울 56.0% → 58.6%, 인천 43.6% → 51.0%, 경기 45.1% → 48.9%, 그 외 시도 37.1% → 42.1%로 모든 권역에서 청년 비중이 상승함
- 특히 서울과의 이동은 2025년 기준 전입자의 55.3%, 전출자의 58.6%가 청년으로 나타나, 세종-서울 간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보다 청년층에 더욱 집중된 구조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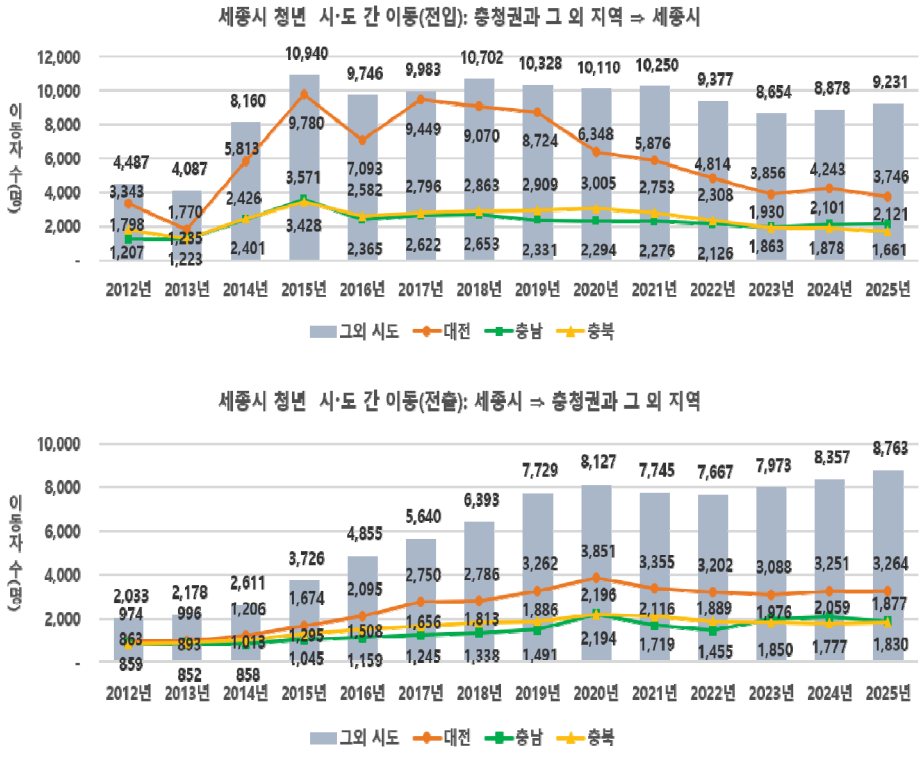
❍ 한편 세종 내부 이동은 도시 성장기에 크게 확대된 이후 최근 감소하여, 청년 이동의 공간적 구조도 변화하고 있음

- 세종 내부 청년 이동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전후 약 1.9만 명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9천 명 내외 수준으로 낮아짐
- 출범 이후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신도시 주택공급 등에 따라 세종 내부에서 재배치되던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를 지나, 최근에는 내부 재배치와 외부 순유입 모두 약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함

□ (종합) '충청권 유입형'에서 '광역적 양방향 이동형'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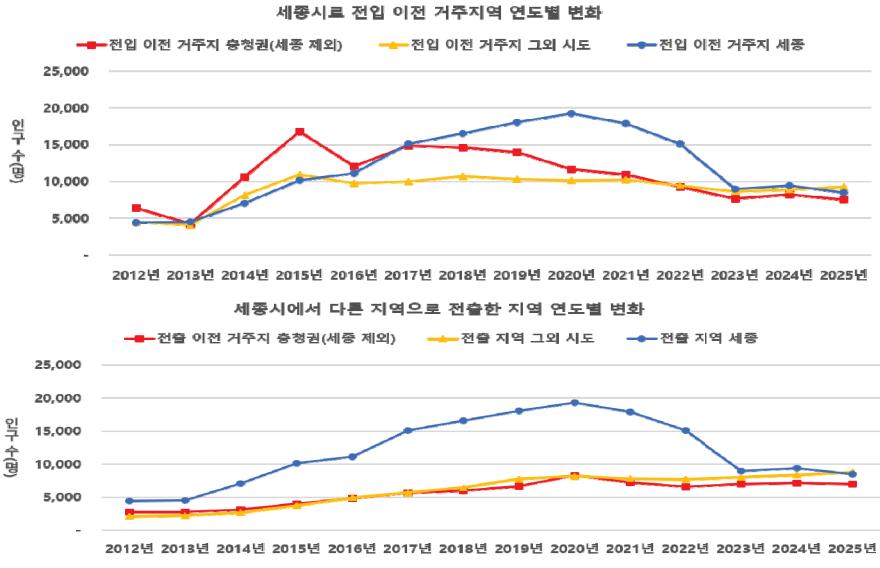
❍ (시계열적 특성) [그림 4-6]~[그림 4-9]를 종합하면, 세종시 청년 이동은 출범 초기 **'대전·충청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 → 세종 내부의 활발한 재이동'**이 인구성장을 견인하던 구조에서, 최근에는 **'충청권 유입 감소 → 수도권·그 외 지역과의 양방향 이동 확대 → 세종 내부 이동 감소'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지역과의 이동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년 전출이 전입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최근 세종시 청년인구 문제는 단순히 '청년을 얼마나 새롭게 유입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이미 유입·정착한 청년이 생애과정에서 왜 다시 서울·수도권 등 외부지역으로 이동하는가를 규명하고 정착요인을 강화하는 문제로 정책적 초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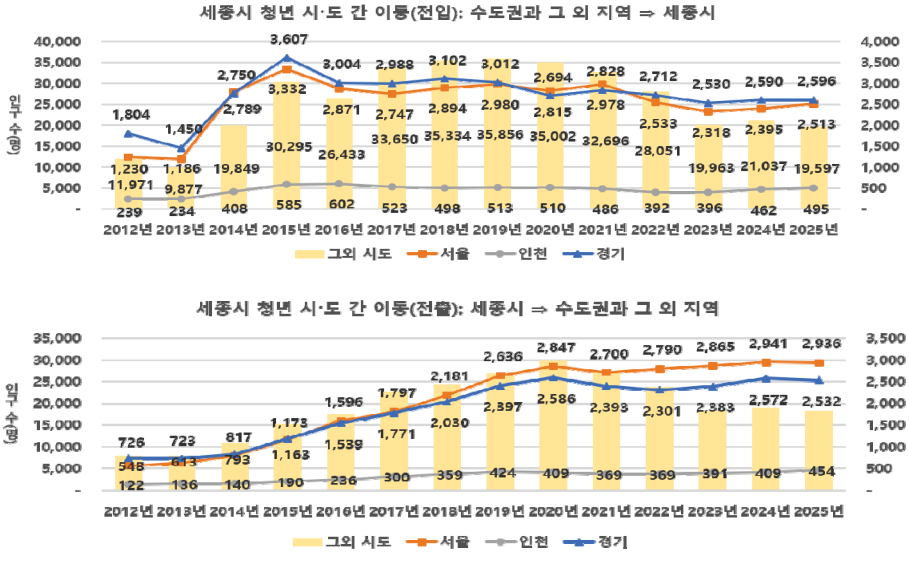
[그림 4-6]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대전, 충남, 충북 vs. 그 외 지역)

주: 세종시 내 이동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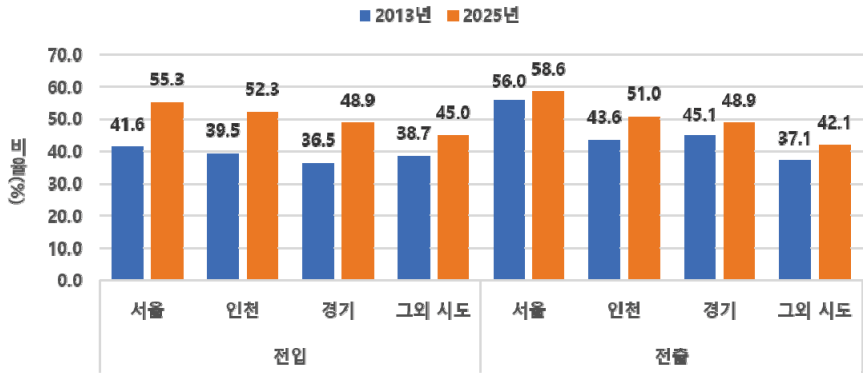
[그림 4-7]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충청권* vs. 세종시 내 vs. 그 외 지역)

주*: 충청권-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의 합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4-8]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특징(수도권 vs. 그 외 지역)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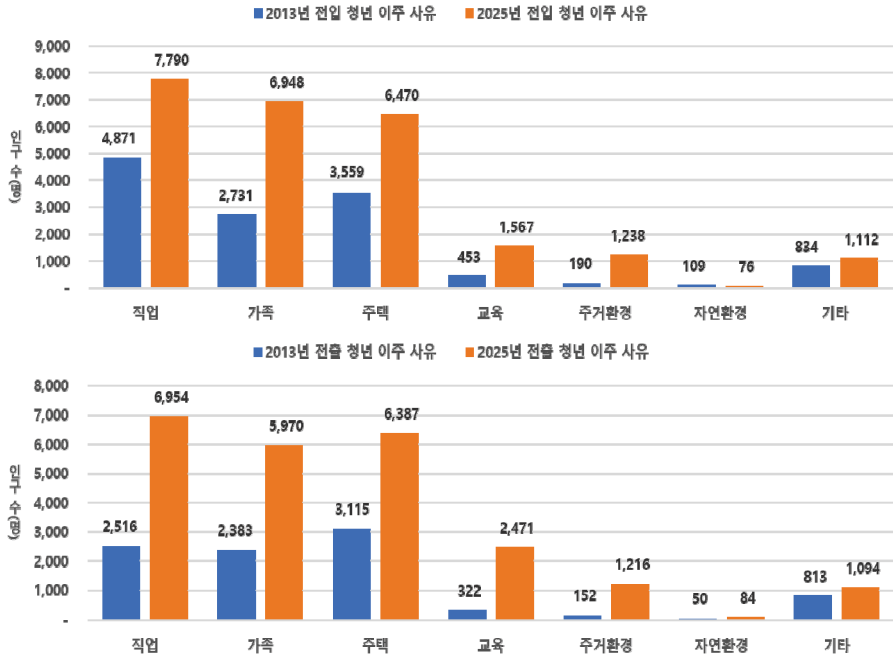
[그림 4-9] 세종시 시·도 간 전입·전출 인구 중 청년 비율: 수도권 vs. 그 외 지역(2013·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청년의 전입·전출 사유와 변화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청년의 전입·전출 규모가 대부분의 사유에서 증가한 가운데, 직업·가족·주택이 여전히 청년 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과 주거환경에 따른 이동도 크게 확대됨

- (전입) 직업은 4,871명 → 7,790명, 가족은 2,731명 → 6,948명, 주택은 3,559명 → 6,470명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도 직업 〉 가족 〉 주택 순으로 청년 전입을 견인함
  - 특히 가족은 약 2.5배, 교육은 453명 → 1,567명으로 약 3.5배, 주거환경은 190명 → 1,238명으로 약 6.5배 증가하여, 출범 초기보다 청년 전입 사유가 생활·정주 요인으로 다변화된 특징을 보임
- (전출) 전출 역시 직업 2,516명 → 6,954명, 주택 3,115명 → 6,387명, 가족 2,383명 → 5,97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직업 〉 주택 〉 가족 〉 교육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 사유 전출은 322명에서 2,471명으로 약 7.7배 증가하여 다른 주요 사유보다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도 152명 → 1,216명으로 약 8배 증가함



[그림 4-10] 청년의 전입/전출 사유 연도별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13년과 2025년 이동사유 변화(전입·전출을 함께 본 변화)

❍ 청년 유입에서는 직업·가족 요인이 여전히 우세한 반면, 청년 유출에서는 교육 요인의 확대가 가장 주목되는 장기적 변화로 나타남

- 2013년에는 직업 +2,355명, 가족 +348명, 주택 +444명, 교육 +131명으로 주요 사유 모두 전입 초과를 보였음
- 2025년에는 직업 +836명, 가족 +978명, 주택 +83명으로 순유입을 유지하였으나, 교육은 -904명으로 순유출로 전환됨

❍ 특히 주택은 전입과 전출 규모가 각각 6,470명과 6,387명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어, 과거에 비해 주택을 통한 청년 순유입 효과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 전체 전출사유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 세종시 전체 전출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이동사유에서 2013년보다 2025년 높아졌으며, 특히 **'교육' 사유에서 청년 집중도가 가장 크게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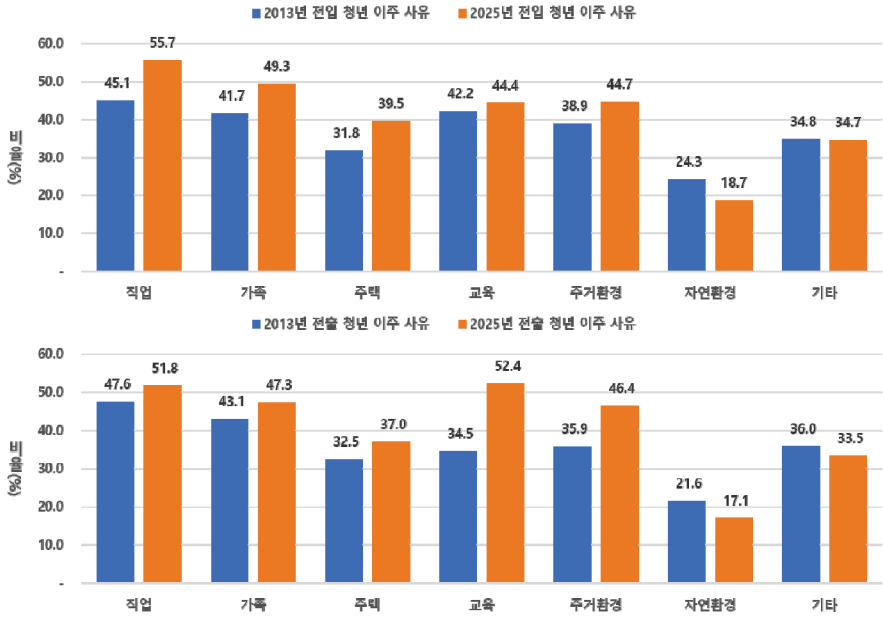
- 2013년 전출사유별 청년 비중은 직업(47.6%) 〉 가족(43.1%) 〉 기타(36.0%) 〉 주거환경(35.9%) 〉 교육(34.5%) 등의 순으로, 직업과 가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5년에는 교육(52.4%) 〉 직업(51.8%) 〉 가족(47.3%) 〉 주거환경(46.4%) 〉 주택(37.0%) 순으로 변화하여, 교육 사유 전체 전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변화) 특히 교육 사유의 청년 비중은 34.5%에서 52.4%로 17.9%p 상승하여 모든 전출사유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주거환경도 35.9%에서 46.4%로 10.5%p 상승함

- 직업은 47.6% → 51.8%(+4.2%p), 가족은 43.1% → 47.3%(+4.2%p), 주택은 32.5% → 37.0%(+4.5%p)로 증가하여, 주요 이동사유 전반에서 청년의 비중이 확대됨
- 반면 자연환경은 21.6% → 17.1%(-4.5%p), 기타는 36.0% → 33.5%(-2.5%p)로 청년 비중이 감소함

❍ 출범 초기 세종시 청년의 전출이 주로 직업·가족과 관련된 이동이었다면, **최근에는 교육 목적 이동의 청년 집중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교육'이 청년 유출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함

- 앞선 분석에서 청년의 교육 사유 전출 인원도 2013년 322명에서 2025년 2,471명으로 약 7.7배 증가하였고, 2025년 교육 사유 순이동 역시 -904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 따라서 '교육 목적 전출 규모의 증가'와 '교육 전출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교육에 따른 청년 유출은 최근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의 주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음



[그림 4-11]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 사유 대비 청년 인구이동 사유 비율 (2013년 vs. 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3.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인구이동의 차별적 특성

1) 세종시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의 공간적 격차

□ 세종시 지역 내 소멸위험도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간의 관계

❍ 세종시 전체 인구는 증가해 왔으나, 지역 내부에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인구소멸 위험의 공간적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소멸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므로, 청년층, 특히 청년여성의 유출입은 지역의 소멸위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됨

<개편 전후 소멸위험지수 개괄>

[기존]

단계	지수 값	
1. 소멸위험 낮음	1.5 이상	
2.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3. 주의단계	0.5~1.0 미만	
4. 소멸위험 진입	0.2~0.5 미만	
5. 고위험지역	0.2 미만	

[개편]

단계	지수 값	
0. 양호	100 이상	
1. 보통	60~100 미만	
2. 관리	40~60 미만	
3. 경계	20~40 미만	
4. 위험	10~20 미만	
5. 심각	10 미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2025),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한 결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생활권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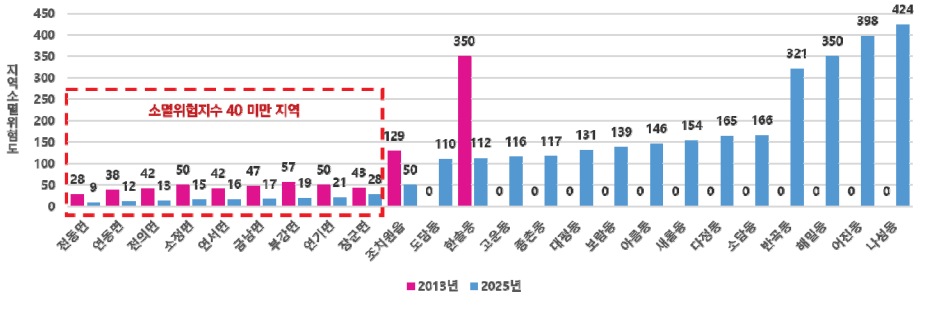
- 2013년에는 조치원읍이 129로 '양호' 단계였으나 2025년에는 49로 '관리' 단계까지 하락하였으며, 읍·면 10개 지역 전체가 소멸위험 범주에 포함됨
- 반면 동 지역 12개 지역은 모두 '양호' 수준을 유지하여, 도시지역(동)과 농촌지역(읍·면) 간 소멸위험의 공간적 양극화가 확인됨
- 2025년 기준 '위험·심각' 단계 지역은 전체 면적의 70.1%를 차지하여, 인구소멸 위험이 세종시의 넓은 읍·면 지역에 공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

○ 따라서 세종시의 인구문제는 도시 전체의 인구 증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인구가 어느 지역으로 유입되고 어느 지역에서 유출되는지를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는 세종시 인구감소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2025년까지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변화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표 4-1] 세종시 읍·면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2013년 대비 2025년)

구 분	2013년	2025년	소멸위험지수 변화
전동면	28	8	△20
연동면	38	11	△27
전의면	42	12	△30
소정면	50	15	△35
연서면	42	16	△26
금남면	47	16	△31
부강면	57	19	△38
연기면	50	21	△29
장군면	43	27	△16
조치원읍	129	49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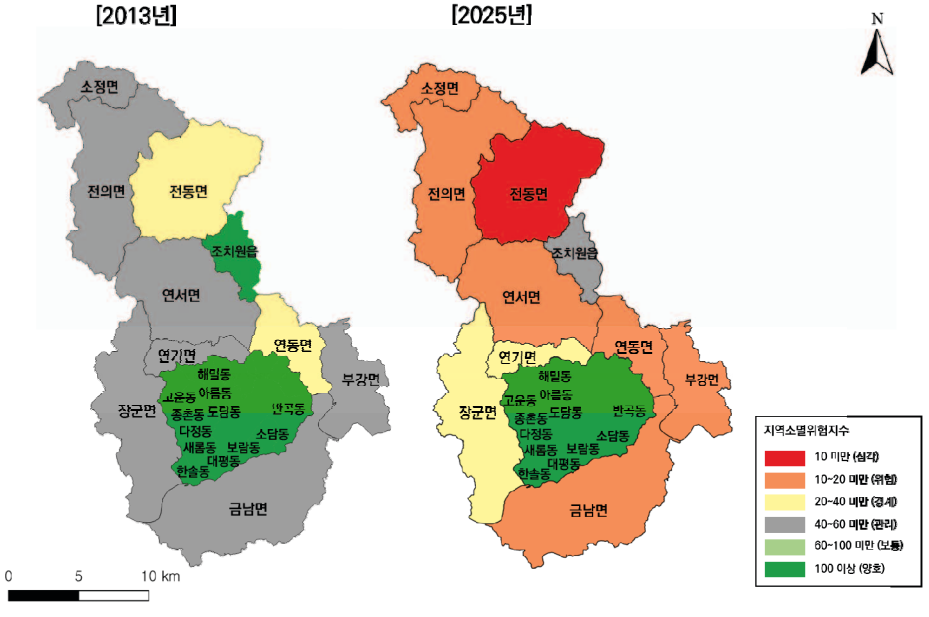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2025년부터 산출값에 100을 곱하고 구간 명을 개편하였으나, 본 보고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개편 방식으로 통일함

[표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단위: 곳, 202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2013년	양호	보통	관리	경계	위험	심각	합계
세종특별자치시	13	0	7	2	0	0	22
읍·면 지역	1	0	7	2	0	0	10
동 지역	12	0	0	0	0	0	12
2025년	**양호**	**보통**	**관리**	**경계**	**위험**	**심각**	**합계**
세종특별자치시	12	0	1	2	6	1	22
읍·면 지역	0	0	1	2	6	1	10
동 지역	12	0	0	0	0	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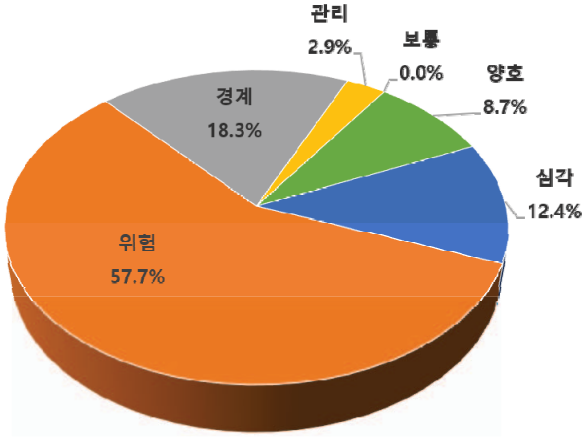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2025년부터 산출값에 100을 곱하고 구간 명을 개편하였으나, 본 보고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개편 방식으로 통일함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표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

단계명	면적(km^2)	비율(%)
심각	57.7	12.4
위험	268.2	57.7
경계	85.1	18.3
관리	13.5	2.9
보통	0	0.0
양호	40.5	8.7
세종시 전체 면적	46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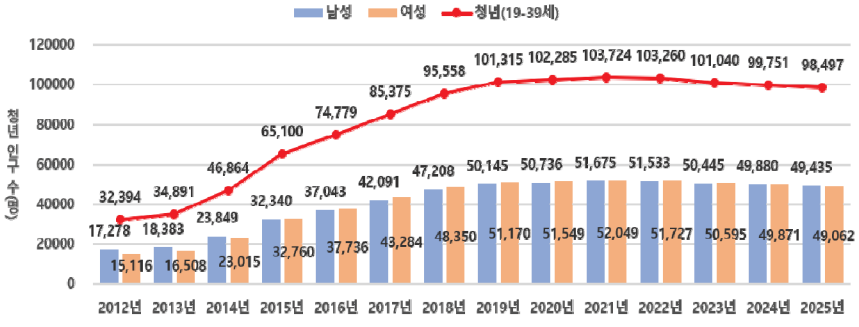
2) 청년인구 증가의 둔화와 감소 전환

□ 세종시 청년(19~39세) 인구변화 추이

○ 세종시 청년인구는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청년인구 성장의 변곡점이 나타남

- 청년인구는 2012년 32,394명에서 2021년 103,724명으로 증가하여 출범 초기 세종시의 인구성장을 견인함
- 그러나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98,49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특히 최근 청년인구 감소는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증가세 둔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어, 향후 청년의 신규 유입뿐 아니라 기존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림 4-12] 세종시 청년 인구 변화 추이(2012년~2025년)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 세종시 청년인구의 성별 변화

○ 세종시 청년인구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출범 초기에는 남성이 많았으나 이후 여성 우위로 전환되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남성이 소폭 많은 구조로 변화함

- 2012~2014년에는 남성 청년인구가 여성보다 많았으나, 2015~2023년에는 여성 청년인구가 남성을 상회하였으며, 2024년 이후 다시 남성 청년인구가 여성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남녀 청년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남성 청년인구 증감률은 2023년 -2.11% → 2024년 -1.12% → 2025년 -0.89%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반면 여성은 -2.19% → -1.43% → -1.62%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 모두 남성보다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최근 청년인구 감소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이후 **청년인구의 성별 구성이 다시 남성 우위로 전환된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인구이동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변화

❍ 출범 초기와 달리, 청년 전입 속도가 둔화되고 전출이 증가하면서 순이동이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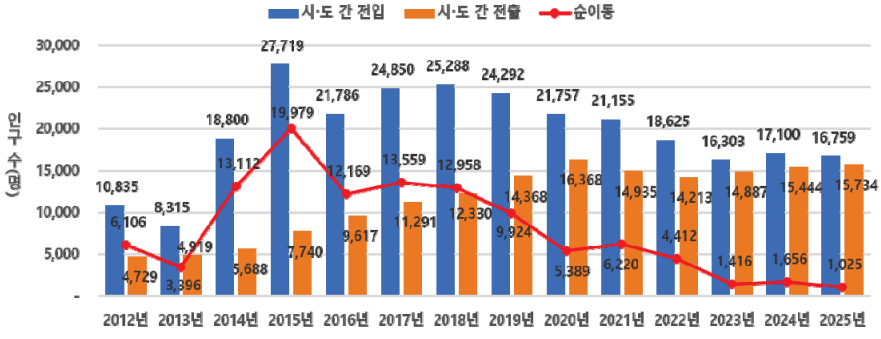
- (전입) 시·도 간 청년 전입은 2012년 10,835명에서 증가하여 2015년 27,71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6,759명으로 나타남
- (전출) 청년 전출은 2012년 4,729명에서 장기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15,734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전입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확대됨
- (순이동) 이에 따라 청년 순이동은 2015년 +19,979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1,416명, 2024년 +1,656명, 2025년 +1,025명으로 축소됨

❍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 비교의 시사점

- 청년 순유입 규모의 축소와 청년 주민등록인구의 감소 전환이 동시에 나타나, 최근 세종시 청년인구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세종시 청년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32,394명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103,724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5년 98,497명으로 낮아짐
- 청년 순이동 역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1천 명 수준까지 축소되어, 출범 초기 청년인구 증가를 견인했던 외부 순유입 효과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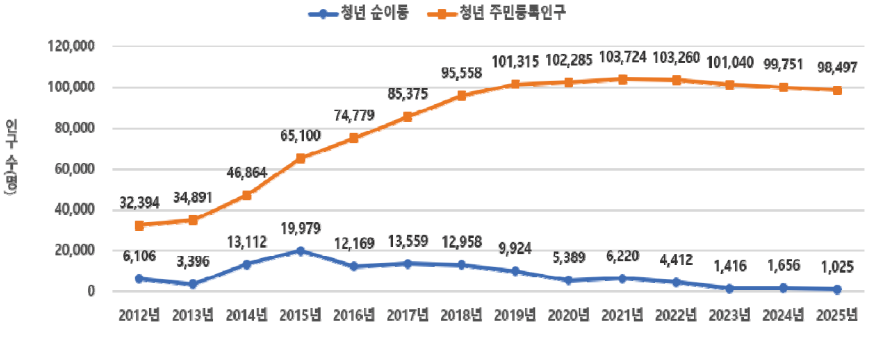
❍ (시사점) 청년인구 변화는 자연증감과 연령 진입·이탈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으므로 순이동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순유입 축소가 청년 주민등록인구 감소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신호임

- 특히 청년층은 향후 혼인·출산 및 지역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청년 순유입 약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역의 인구 재생산과 활력 유지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그림 4-13]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현황(2012~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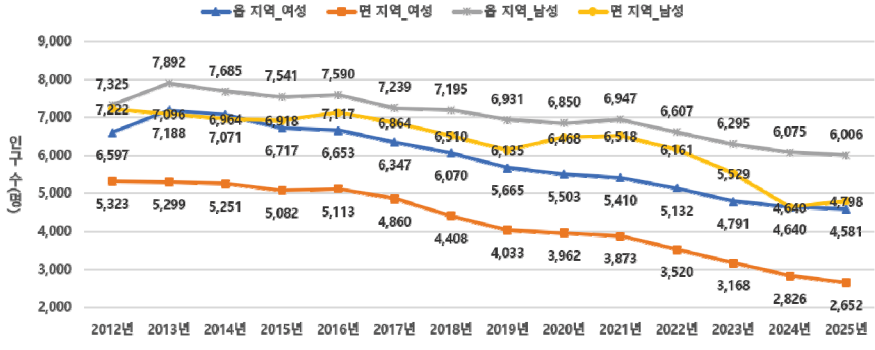
[그림 4-14]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 비교(2012~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 읍·면 지역 청년인구의 성별 변화

❍ 읍·면 지역 모두 청년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면 지역 청년 여성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져 지역소멸 위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2~2025년 누적 감소율은 면 지역 여성 -50.2% 〉 면 지역 남성 -33.6% 〉 읍 지역 여성 -30.6% 〉 읍 지역 남성 -18.0% 순으로, 면 지역 청년여성은 13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읍 지역 역시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나, 면 지역은 감소 폭이 더 크고 여성의 감소가 남성보다 현저하게 빠른 성별 격차가 나타남



[그림 4-15] 읍·면 지역 청년인구의 남녀인구 변화 특성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특히, **면 지역 청년여성의 지속적인 감소는 소멸위험지수 악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소멸위험지수가 20~39세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토대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청년여성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멸위험지수를 직접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 따라서 앞서 확인된 읍·면 지역의 소멸위험도 상승은 고령화와 함께 청년 여성 인구 기반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면 지역 남성은 연도별 등락이 나타나는 반면, 청년여성 감소는 보다 구조적인 현상인지 추가적인 인구이동 분석이 필요함

- 면 지역 남성은 2020~2021년 일시 증가한 후 2022~2024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3.4%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나타남
- 이에 따라 다음 분석에서는 면 지역 청년여성의 감소가 자연적인 연령구조 변화인지, 실제 전출 초과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어떠한 사유로 이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읍·면 지역 청년의 유입·유출 구조와 이동 사유

□ 읍·면 지역 청년의 전입사유 변화

❍ (전입사유 구조 변화)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 청년의 전입은 여전히 '직업'이 가장 큰 사유이나, 과거 중요하게 작용했던 주택 사유의 비중은 약화되고 교육 사유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남

- 2013년에는 직업 3,486명 〉 주택 2,894명 〉 가족 2,180명 〉 기타 494명 〉 교육 391명 순으로, 직업·주택·가족이 청년 전입을 주도함
- 2025년에는 직업 2,172명 〉 교육 1,098명 〉 가족 975명 〉 주택 530명 〉 기타 301명 순으로 변화하여, 교육이 5순위에서 2순위로 상승한 반면 주택은 2순위에서 4순위로 하락함

❍ (전입 규모의 전반적 감소) 2013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는 교육을 제외한 주요 사유에서 전입 규모가 감소하여, 읍·면 지역의 전반적인 청년 유입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택 사유 전입은 2,894명에서 53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족 역시 2,180명에서 975명, 직업은 3,486명에서 2,172명으로 감소함
- 반면, 교육 사유 전입은 391명에서 1,098명으로 약 2.8배 증가하여 다른 전입사유와 상반된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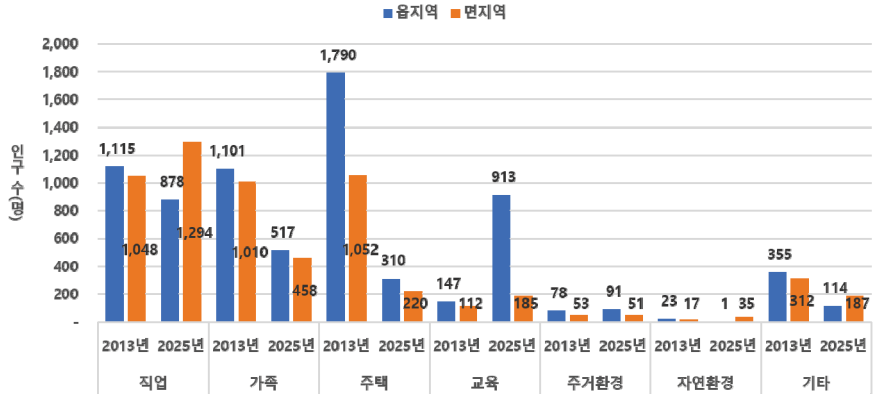
❍ (교육 목적 유입의 부상) 교육이 청년 전입사유 5순위에서 2순위로 상승한 것은 최근 읍·면 지역의 청년 유입에서 대학 등 교육기관을 매개로 한 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세종시 소재 대학이 읍·면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이 읍·면 지역으로 청년을 유입시키는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교육 목적의 유입이 졸업 이후 지역 내 취업·거주로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4-4] 19~39세 청년의 전입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구 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5년(읍 + 면 지역)
1순위	직업: 3,486명	직업: 2,172명
2순위	주택: 2,894명	교육: 1,098명
3순위	가족: 2,180명	가족: 975명
4순위	기타: 494명	주택: 530명
5순위	교육: 391명	기타: 301명
6순위	주거환경: 156명	주거환경: 142명
7순위	자연환경: 98명	자연환경: 36명



[그림 4-16]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주 사유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읍·면 간 차이) 세부적으로는 동일한 읍·면 지역에서도 전입사유의 변화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 청년 유입 요인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음

- 직업 사유는 읍 지역에서는 감소한 반면 면 지역에서는 증가하였고, 주거환경은 읍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면 지역에서는 감소함
- 자연환경 역시 읍 지역에서는 감소하고 면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등 상반된 변화를 보여, 읍·면을 하나의 비도시지역으로 보기보다 각 지역의 일자리·주거·생활환경 특성을 구분하여 청년 이동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읍·면 지역 전입 청년의 이전 거주지역 변화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은 대부분의 이전 거주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의 유입만 증가하여 청년 유입권역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2013년에는 세종 3,799명 〉 대전 1,133명 〉 충북 1,123명 〉 충남 952명 〉 그 외 지역 946명 〉 경기 930명 〉 서울 644명 〉 인천 172명 순으로, 세종 내부와 인접 충청권에서의 유입이 중심을 이룸
- 2025년에는 그 외 지역 1,200명 〉 세종 1,008명 〉 경기 808명 〉 충남 544명 〉 대전 528명 〉 서울 520명 〉 충북 478명 〉 인천 168명 순으로 변화하여, 세종 내부·충청권 중심의 유입구조가 약화되고 유입지역이 보다 광역화되는 특징이 나타남

❍ 특히 세종 내부와 충청권으로부터의 청년 유입 감소가 두드러짐

- 세종 내부 이동은 3,799명에서 1,008명으로 73.5%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충북도 -57.4%, 대전 -53.4%, 충남 -42.9% 감소함
- 수도권에서도 경기 -13.1%, 서울 -19.3%, 인천 -2.3%로 감소하였으나, 충청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 반면 '그 외 지역'은 946명에서 1,200명으로 26.9% 증가하여 2013년 5위에서 2025년 1위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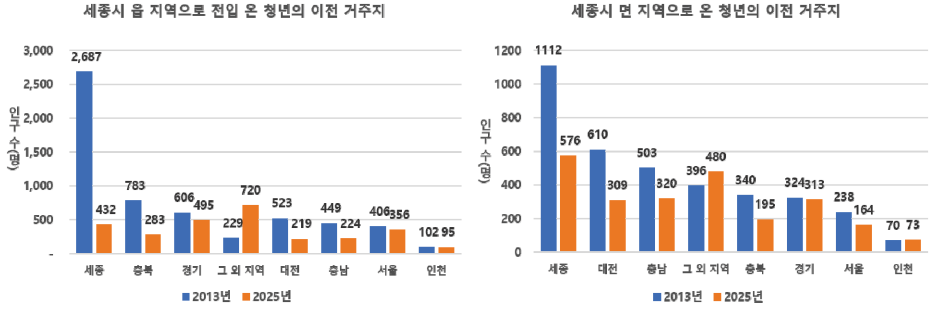
❍ (읍·면 지역 간 차이) 세부적으로는 읍 지역에서 기존 유입권역의 축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아 차별적인 변화가 나타남

- 세종 내부 전입은 읍 -83.9%, 면 -48.2%, 충북은 읍 -63.9%, 면 -42.7%, 대전은 읍 -58.1%, 면 -49.3%, 충남은 읍 -50.1%, 면 -36.4%로 모두 읍 지역의 감소폭이 더 큼
- 반면 '그 외 지역'은 읍 +214.4%, 면 +21.2%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읍 지역에서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 수도권 중 인천은 읍 지역에서 -6.9% 감소한 반면 면 지역에서는 +4.3% 증가하는 등 일부 차이도 확인됨

○ (시계열적 특성) 출범 초기 읍·면 지역의 청년 유입은 세종 내부와 대전·충북·충남 등 인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그 외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어 청년 유입권역이 보다 분산·광역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4-5] 청년의 전입 이전 거주지역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구 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5년(읍 + 면 지역)
1순위	세종: 3,799명	그 외 지역: 1,200명
2순위	대전: 1,133명	세종: 1,008명
3순위	충북: 1,123명	경기: 808명
4순위	충남: 952명	충남: 544명
5순위	그 외 지역: 946명	대전: 528명
6순위	경기: 930명	서울: 520명
7순위	서울: 644명	충북: 478명
8순위	인천: 172명	인천: 168명



[그림 4-17]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온 청년의 이전 거주지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읍·면 지역 청년의 전출 사유 변화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 청년의 전출은 출범 초기 '주택' 중심에서 최근 '직업·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교육·주거환경 사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됨

- 2013년에는 주택 2,842명 〉 직업 2,163명 〉 가족 2,111명 〉 기타 667명 〉 교육 259명 순으로, 주택 사유가 가장 큰 전출요인이었음
- 2025년에는 직업 1,870명 〉 가족 1,785명 〉 주택 977명 〉 교육 425명 〉 주거환경 309명 순으로 변화하여, 주택은 1순위에서 3순위로 하락한 반면 직업과 가족이 주요 전출사유로 부상함

❍ (주택 사유의 약화) 주택 사유 전출은 읍·면 모두 크게 감소하여, 출범 초기와 비교해 청년 전출에서 주택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됨

- 주택 사유 전출은 읍 지역에서 -73.3%, 면 지역에서 -52.6% 감소하여 주요 사유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는 출범 초기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읍·면 청년의 주거이동 효과가 최근에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교육·주거환경 사유의 부상) 반면 교육과 주거환경은 읍·면 모두 증가하여 최근 청년 전출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 교육 사유 전출은 읍 +93.2%, 면 +25.9% 증가하였으며, 주거환경은 읍 +47.4%, 면 +266.0% 증가함
- 특히 면 지역의 주거환경 사유 증가는 절대 규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생활환경 관련 요인이 과거보다 청년 전출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볼 수 있음

❍ (읍·면 간 차이) 직업과 가족 사유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에는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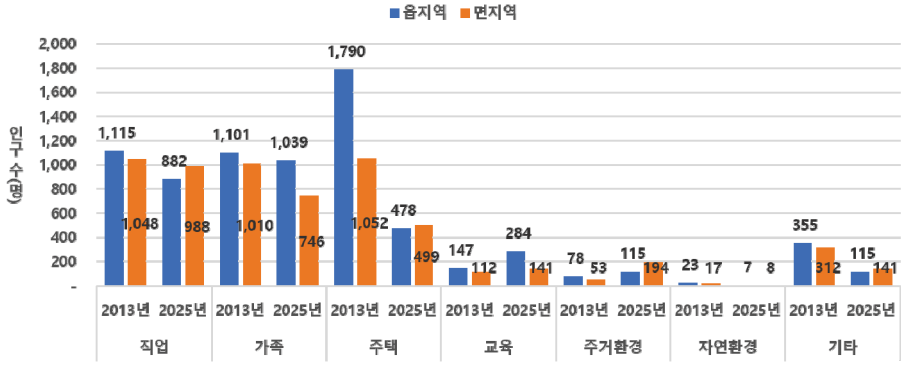
- 직업은 읍 -20.9%, 면 -5.7%로 면 지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가족은 읍 -5.6%, 면 -26.1%로 읍 지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자연환경과 기타 사유는 읍·면 모두 감소하여 전출요인으로서의 비중이 축소됨

○ (시계열적 특성) 읍·면 지역 청년 전출은 '주택 중심'에서 '직업·가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교육과 주거환경 사유가 새롭게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앞선 전입 분석에서 교육 사유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결과와 함께 보면, **교육이 읍·면 청년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설명하는 중요한 이동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4-6] 19~39세 청년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구 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5년(읍 + 면 지역)
1순위	주택: 2,842명	직업: 1,870명
2순위	직업 2,163명	가족: 1,785명
3순위	가족: 2,111명	주택: 977명
4순위	기타: 667명	**교육: 425명**
5순위	**교육: 259명**	주거환경: 309명
6순위	주거환경: 131명	기타: 256명
7순위	자연환경: 40명	자연환경: 15명



[그림 4-18] 읍, 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의 전출사유 비교 (2013년 vs. 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읍·면 지역 전출 청년의 주요 전출지역 변화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 청년의 전출은 세종 내부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감소한 반면, '그 외 지역'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고 일부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확대되는 등 전출지역이 보다 광역화되는 변화가 나타남

- 2013년에는 세종 4,084명 〉 충북 791명 〉 대전 775명 〉 충남 763명 〉 경기 595명 〉 그 외 지역 591명 〉 서울 492명 〉 인천 122명 순으로, 세종 내부와 인접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상위권을 차지함
- 2025년에는 세종 1,780명 〉 그 외 지역 1,198명 〉 충남 682명 〉 대전 670명 〉 충북 544명 〉 경기 520명 〉 서울 442명 〉 인천 118명 순으로 변화하여, 세종 내부 이동은 여전히 가장 많지만 '그 외 지역'이 6순위에서 2순위로 크게 상승함

❍ (세종 내부 및 충청권 이동의 약화) 출범 초기 읍·면 청년 전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세종 내부와 인접 충청권으로의 이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 특히 세종 내부 전출은 4,084명에서 1,780명으로 56.4% 감소하여, 읍·면 청년의 지역 내 이동이 크게 축소됨
- 충청권에서도 충북은 791명 → 544명(-31.2%), 대전은 775명 → 670명(-13.5%), 충남은 763명 → 682명(-10.6%)으로 모두 감소함

❍ (전출지역의 광역화) 반면 '그 외 지역'으로의 전출은 591명에서 1,198명으로 102.7% 증가하여, 2013년 6순위에서 2025년 2순위로 상승함

- 앞서 전입에서도 '그 외 지역'이 946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하여 5순위에서 1순위로 상승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최근 읍·면 청년의 이동은 과거보다 세종·충청권에 집중된 근거리 이동에서 전국 단위의 광역적 이동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임

❍ (읍·면 지역 간 차이) 수도권 전출에서는 읍과 면 지역 간 서로 다른 변화가 나타남

- 읍 지역은 2013년 대비 2025년 서울 +58.2%, 인천 +53.9%, 경기 +58.0%로 수도권 전출이 모두 증가함
- 반면 면 지역은 서울만 +1.8%로 소폭 증가하고, 인천 -15.7%, 경기

-10.3%로 감소하여 수도권 전출 증가가 읍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됨

- 대전 역시 읍 지역에서는 -1.3%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면 지역에서는 -29.3% 감소하는 등 읍·면별 전출권역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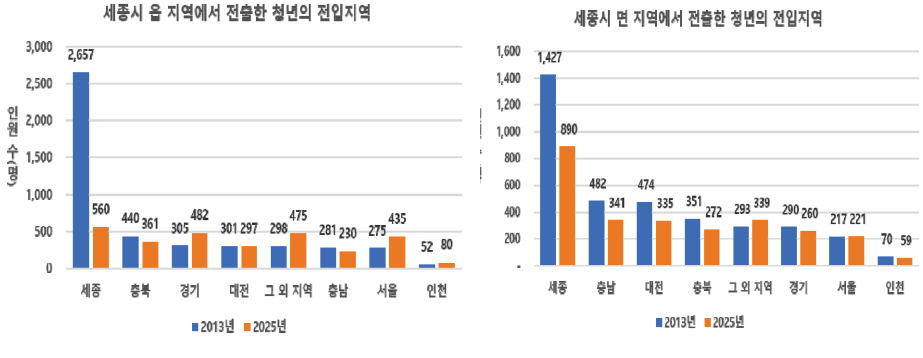
○ (시계열적 특성) 읍·면 지역 청년의 이동은 출범 초기 '세종 내부·충청권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다시 세종 내부·충청권으로 이동하는 지역생활권형 구조'가 강했으나, 2025년에는 전입과 전출 모두 '그 외 지역'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동권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함

- 특히 읍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전출 증가가 뚜렷하여, 청년 유출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표 4-7] 청년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구 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5년(읍 + 면 지역)
1순위	세종 4,084명	세종 1,780명
2순위	충북 791명	그 외 지역 1,198명
3순위	대전 775명	충남 682명
4순위	충남 763명	대전 670명
5순위	경기 595명	충북 544명
6순위	그 외 지역 591명	경기 520명
7순위	서울 492명	서울 442명
8순위	인천 122명	인천 118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4-19]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전출 지역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4) 읍·면 지역 청년 전출의 연령·성별 차이

□ 읍·면 지역에서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의 연령별·성별 특성

❍ (종합) 2023~2025년 읍·면 지역에서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은 여성보다 남성, 30대보다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20대 남성'이 직업 목적 이동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집단으로 나타남

-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전출 규모가 가장 크고, 3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순으로 나타나 직업을 이유로 한 이동에서 뚜렷한 연령·성별 차이가 확인됨

❍ (연령별 차이) 직업 사유 전출은 남녀 모두 30대보다 20대에서 활발하게 나타남

- 세종 내부 이동의 경우 20대 남성 857명 〉 30대 남성 436명, 20대 여성 240명 〉 30대 여성 115명으로, 남녀 모두 20대의 이동 규모가 30대보다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취업·이직 등 노동시장 진입과 초기 경력형성 과정에 있는 20대에서 직업에 따른 거주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별 차이)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대와 30대를 합산하면 직업 사유 전출 청년은 남성 5,621명, 여성 1,709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약 3.3배에 달함
- 특히 이러한 차이는 세종 내부 이동뿐 아니라 경기·대전 등 주요 전출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 청년의 직업 목적 이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확인됨

❍ (주요 이동지역) 직업 사유 청년 전출은 세종 내부 이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남성은 경기·대전, 여성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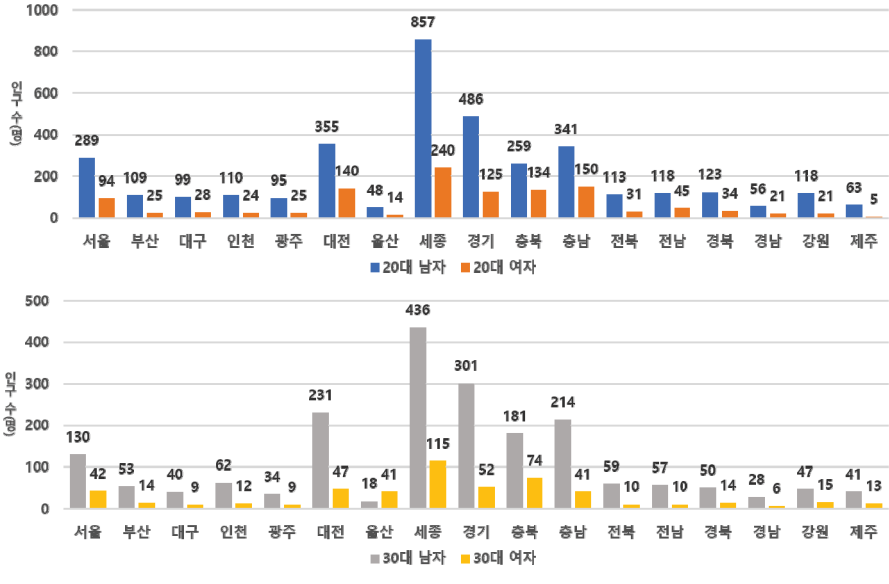
- 20대 남성은 세종 857명, 경기 486명, 대전 355명 순이며, 30대 남성 역시 세종 436명, 경기 301명, 대전 231명 순으로 나타나 두 연령집단의 주요 이동지역이 동일함

- 반면 20대 여성은 세종 240명, 충남 150명, 대전 140명, 30대 여성은 세종 115명, 충북 74명, 경기 52명 순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충청권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임

❍ (시사점) 읍·면 지역의 직업 사유 청년 전출은 단순한 '청년 유출'이라기보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구조를 보임

- 특히 20대 남성의 직업 목적 이동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읍·면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20대와 성별에 따른 이동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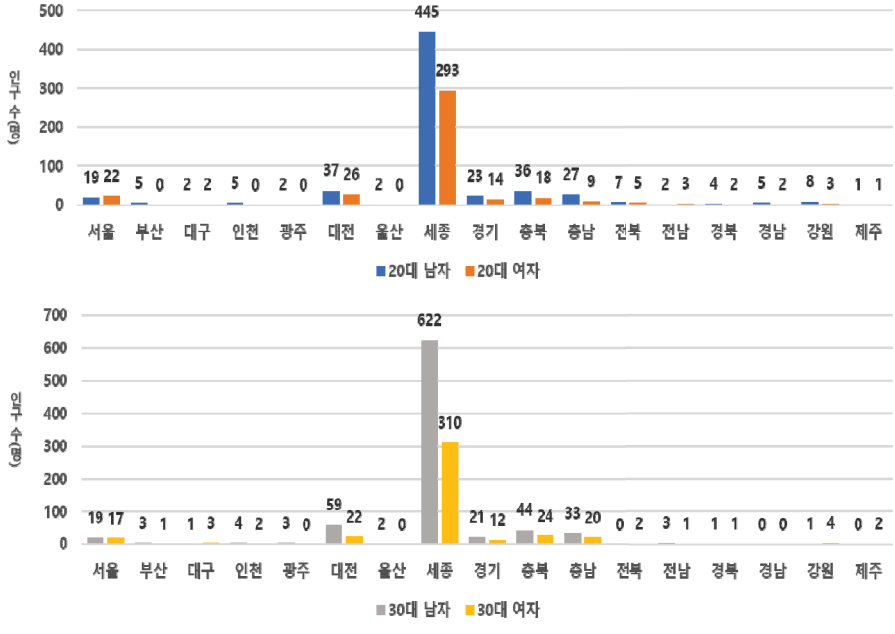
- 또한, **가장 많은 목적지가 세종이라는 점은 직업 사유 이동의 상당 부분이 반드시 세종시 외부로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동 지역 등 세종 내부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20] 직업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23~2025년 누적)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읍, 면 지역에서 '주택'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의 연령별·성별 특성(누적)



[그림 4-21] 주택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23~2025년 누적)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종합) 2023~2025년 읍·면 지역에서 주택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은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많았으며, 직업 사유 전출이 20대 중심이었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주택 사유 전출은 20대 1,030명, 30대 1,237명으로 30대가 더 많았으며, 세종 내부 이동에서도 30대 남성 622명, 30대 여성 310명으로 각각 20대 남성 445명, 여성 293명보다 많았음

❍ (연령별 차이) 주택을 이유로 한 이동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 가족형성·주거이동이 집중되는 연령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업 사유 전출이 20대에서 두드러졌던 것과 달리, 주택 사유는 30대의 이동 규모가 더 커 이동사유에 따라 청년 내부에서도 연령별 이동 패턴이 차별화됨

○ (성별 차이) 남성의 주택 사유 전출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직업 사유에 비해서는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음

- 20대와 30대를 합산하면 남성은 1,446명, 여성은 82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많았음
- 이는 직업 사유에서 남성이 여성의 약 3.3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택 관련 이동은 직업 이동보다 성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보임

○ (주요 이동지역) 주택 사유 전출은 모든 연령·성별 집단에서 '세종 내부'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아, 읍·면 청년의 주택 이동이 주로 세종시 밖으로의 유출보다 시 내부의 주거이동으로 이루어짐

- 20대 남성은 세종 445명, 대전 37명, 충북 36명 순이며, 20대 여성은 세종 293명, 대전 26명, 서울 22명 순으로 나타남
- 30대 남성은 세종 622명, 대전 59명, 충북 44명, 30대 여성은 세종 310명, 충북 24명, 대전 22명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읍·면 지역의 주택 사유 청년 전출은 '30대 중심·세종 내부 이동 중심'이라는 특징이 뚜렷함

- 읍·면 청년이 주택을 이유로 이동하더라도 상당수는 세종시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 내부 다른 생활권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읍·면의 청년인구 감소가 세종시 전체의 청년 유출뿐 아니라 도시 내부의 생활권 간 재배치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읍·면 지역에서 '교육'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의 연령별·성별 특성

○ (종합) 2023~2025년 읍·면 지역에서 교육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은 30대보다 20대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주택 사유보다 연령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교육 사유 전출은 20대 2,434명, 30대 85명으로, 20대가 30대보다 약 28.6배 많아 교육 목적 이동이 사실상 20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령별 차이) 교육 사유 전출은 20대에서 압도적으로 활발하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 20대 남성은 경기 315명, 서울 261명, 세종 142명, 20대 여성은 경기 200명, 서울 150명, 세종 133명 순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경기·서울 등 수도권이 주요 전출지역으로 확인됨
- 반면 30대는 세종 내부 이동이 남성 12명, 여성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규모 자체가 매우 작아, 교육을 이유로 한 이동은 20대 생애단계에 집중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성별 차이) 교육 사유 전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직업·주택 사유에 비해 성별 격차는 가장 작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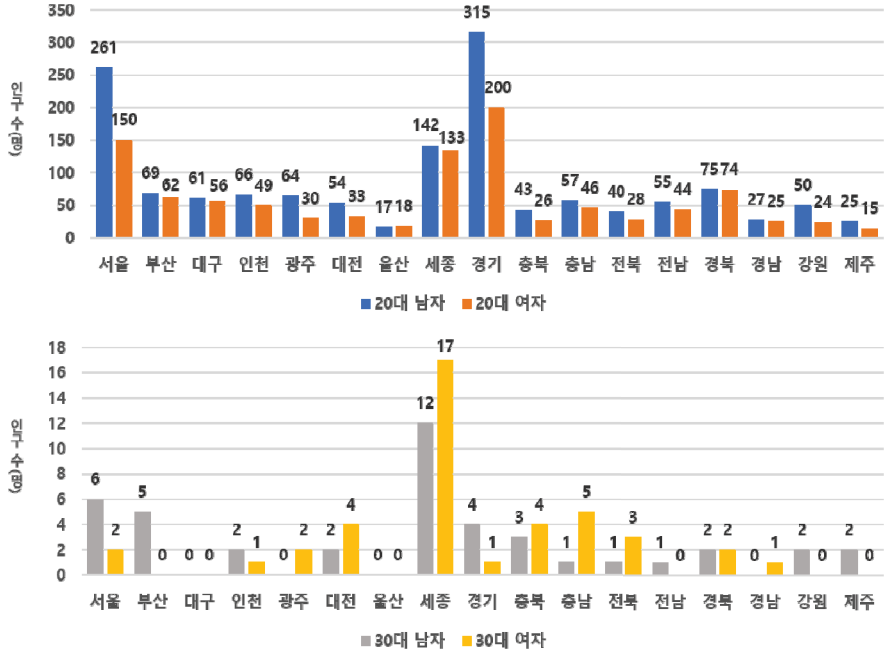
- 전체 교육 사유 전출은 남성 1,462명, 여성 1,057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약 1.38배 수준임
- 이는 직업 사유의 약 3.3배, 주택 사유의 약 1.76배보다 낮아, 교육 목적 이동은 다른 주요 전출사유보다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보임

❍ (주요 이동지역) 교육 사유 전출은 직업·주택 사유와 달리 세종 내부보다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직업·주택 사유에서는 모든 연령·성별 집단에서 세종 내부 이동이 가장 많았으나, 교육 사유에서는 20대 남녀 모두 경기와 서울이 세종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이는 읍·면 지역 청년의 교육 목적 이동이 단순한 세종 내부 재배치보다는 시·도 경계를 넘어선 광역 이동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줌

❍ (시사점) 읍·면 청년의 교육 사유 전출은 '20대 중심·수도권 지향·낮은 성별 격차'라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앞서 교육이 읍·면 지역 청년의 전입사유에서도 크게 증가한 점과 함께 보면, 읍·면 지역은 교육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는 동시에 20대를 중심으로 다시 외부지역으로 유출하는 양면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교육 목적 전출이 경기·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향후에는 지역 대학 재학·졸업 이후의 진학·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22]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23~2025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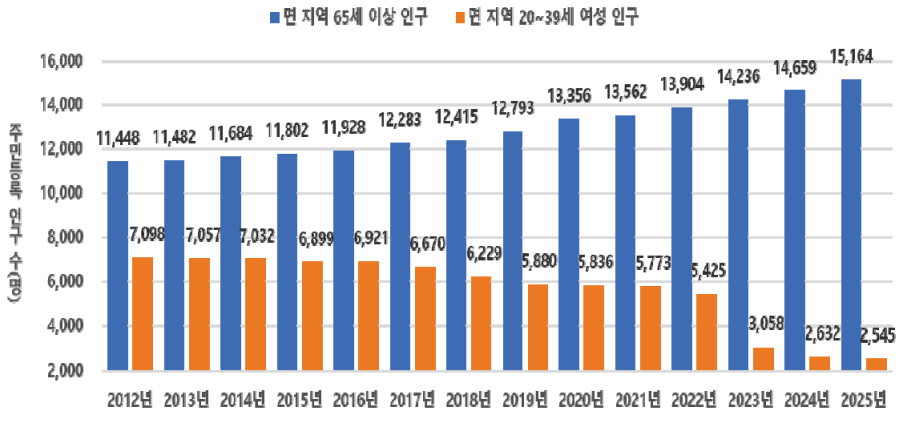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5) 읍·면 지역 청년여성의 선택적 유출과 소멸위험

□ 소멸위험지수 주요 지표로서의 20~39세 청년여성 인구 현황

❍ 세종시 9개 면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면 지역 인구 감소 패턴의 특징) 대부분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20~39세 청년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특징을 보임(2012년 대비 2025년, 청년여성 인구 -64.14%, 65세 이상 인구 +32.46%). 특히 2022년(5,425명)에서 2023년(3,058명) 사이 43.6%에 달하는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여, 면 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4-23] 9개 면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와 20~39세 여성 인구수 비교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 (종합)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 20~39세 여성의 전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출 사유는 '주택 중심'에서 '가족·직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교육·주거환경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특히 2013년 가장 큰 전출 사유였던 주택의 비중이 크게 약화된 반면, 2025년에는 가족이 가장 큰 전출 사유로 부상하여 청년여성의 전출을 유발하는 요인이 변화하고 있음

❍ (주택) 주택 사유 전출은 2013년 1,247명으로 1위였으나 2025년 360명으로 71.1% 감소하면서 3위로 하락함

- 출범 초기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 등으로의 주거 이동이 청년여성 전출에 크게 작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주택 자체가 청년여성 전출을 주도하는 정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직업) 가족과 직업은 전출 인구수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2025년 각각 1·2위 전출 사유로 나타남

- 가족은 997명 → 737명으로 감소했음에도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으며, 직업 역시 837명 → 688명으로 감소했으나 3위에서 2위로 상승함

- 이에 따라 최근 읍·면 지역 청년여성의 전출은 과거의 주택 중심 이동보다 가족관계 변화와 취업·직장 등 생애과정과 경제활동에 연계된 이동의 상대적 영향이 커진 구조로 볼 수 있음

❍ (교육·주거환경) 전체 전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과 주거환경 사유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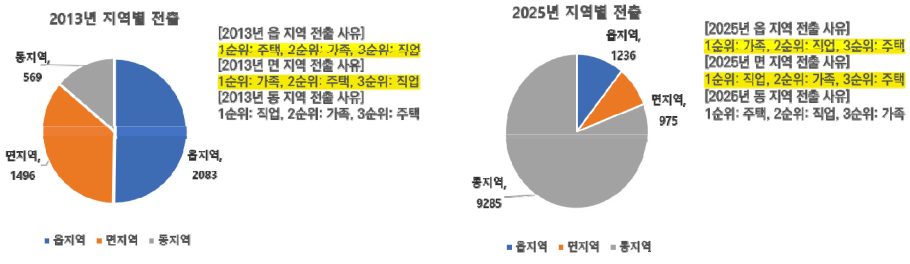
- 교육은 118명 → 168명(+42.4%)으로 증가하여 5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으며, 주거환경은 63명→136명(+115.9%)으로 증가하여 6위에서 5위로 상승함
- 특히 주거환경은 전체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읍·면 지역 청년여성의 정착에서 주택의 확보 여부뿐 아니라 생활편의·서비스 접근성 등 정주환경의 질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시사점) 읍·면 지역의 소멸위험과 연계하면, 청년여성의 정착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가족·일자리·교육·정주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서 확인한 면 지역 20~39세 여성의 장기적 감소와 함께 고려하면, 청년여성이 '왜 떠나는가'를 직업이나 주택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형성·일자리·교육 및 생활환경의 복합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표 4-8] 20~39세 여성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구 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5년(읍 + 면 지역)
1순위	주택: 1,247명	가족: 737명
2순위	가족: 997명	직업: 688명
3순위	직업: 837명	주택: 360명
4순위	기타: 302명	교육: 168명
5순위	교육: 118명	주거환경: 136명
6순위	주거환경: 63명	기타: 116명
7순위	자연환경: 15명	자연환경: 6명



[그림 4-24]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20~39세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 청년여성의 전출은 세종시 내부 이동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순위가 상승하여 전출지역이 보다 광역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3년에는 세종 1,810명 〉 충북 380명 〉 대전 336명 〉 충남 328명 〉 경기 241명 〉 그 외 지역 224명 〉 서울 220명 〉 인천 40명 순으로, 세종 내부와 충청권이 주요 전출지역이었음
- 2025년에는 세종 590명 〉 경기 282명 〉 서울 280명 〉 그 외 지역 279명 〉 대전 273명 〉 충북 242명 〉 충남 216명 〉 인천 49명 순으로 변화함

○ **(세종 내부이동 감소)** 세종시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1순위이나, 1,810명에서 590명으로 약 67.4% 감소하여 출범 초기와 비교해 내부 이동 규모가 크게 축소됨

○ **(수도권 순위 상승)** 경기 지역은 241명에서 282명으로 증가하며 5위에서 2위, 서울은 220명에서 280명으로 증가하며 7위에서 3위로 상승하여, 최근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으로 수도권의 중요성이 확대됨

○ **(충청권 순위 하락)** 충북은 380명 → 242명으로 2위에서 6위, 충남은 328명 → 216명으로 4위에서 7위, 대전은 336명 → 273명으로 3위에서 5위로 하락하여, 출범 초기 청년여성 전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인접 충청권의 비중은 약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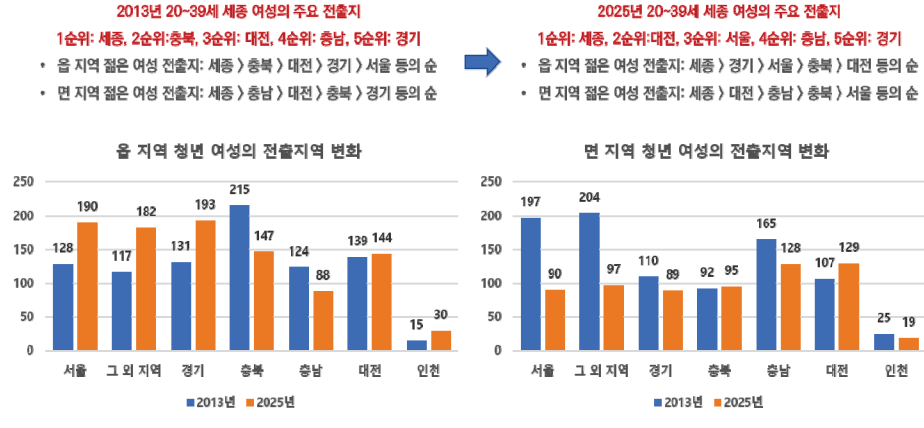
○ **(그 외 지역 확대)** 그 외 지역은 224명에서 279명으로 증가하며 6위에서

4위로 상승하여, 청년여성의 전출지역이 특정 인접권역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변화도 확인됨

○ **(시계열적 특성)** 출범 초기 읍·면 지역 청년여성의 전출은 세종 내부와 충청권 중심의 근거리 이동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세종 내부 및 충청권 이동이 감소하고 경기·서울 등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전출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4-9] 20~39세 여성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5년)

구 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5년(읍 + 면 지역)
1순위	세종(1,810명)	세종 (590명)
2순위	충북(380명)	경기 (282명)
3순위	대전(336명)	**서울 (280명)**
4순위	충남(328명)	그 외 지역 (279명)
5순위	**경기(241명)**	대전 (273명)
6순위	그 외 지역 (224명)	**충북 (242명)**
7순위	**서울(220명)**	충남 (216명)
8순위	인천(40명)	인천 (49명)



[그림 4-25] 20~39세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자료 재구성

6) 동 지역 20대 청년의 유입·정착 구조와 최근 변화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 인구이동 현황

❍ 최근 3년(2023~2025년) 동 지역 20대 청년은 매년 전입이 전출을 상회하는 순유입을 유지하였으나, 순유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순이동은 2023년 +1,001명 → 2024년 +656명 → 2025년 +337명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누적 순이동은 +1,994명으로 나타남
- 전입 규모는 2023년 8,513명, 2024년 8,653명, 2025년 8,309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출은 7,512명 → 7,997명 → 7,972명으로 전입 규모에 근접함

❍ (시계열적 특성) 동 지역은 여전히 20대 청년을 순유입하는 핵심 생활권이지만, 최근에는 전입 증가보다 전출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순유입 효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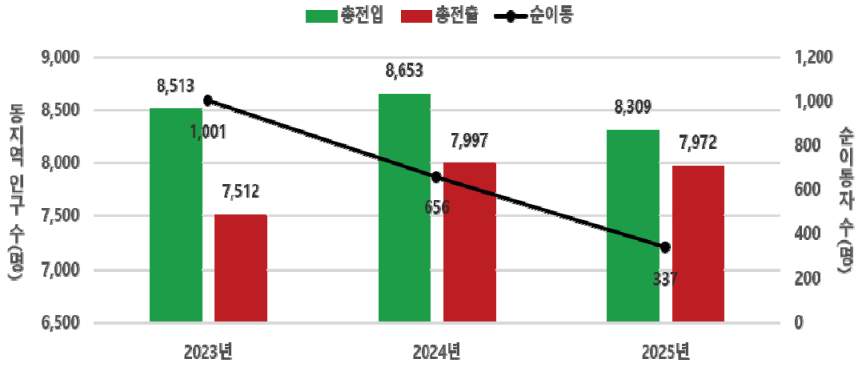
- 따라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인구이동은 '유입 여부' 자체보다 유입된 청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착하는가가 중요해지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0] 세종시 20대 청년 동 지역 순이동의 변화

(단위: 명)

구 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23	8,513	7,512	1,001
2024	8,653	7,997	656
2025	8,309	7,972	337
합계	25,475	23,481	1,99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4-26] 세종시 동 지역 순이동의 변화 : 20대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전출 사유 구조

○ (순전입자의 전입 사유 특징) **"20대는 동 지역에 무엇 때문에 들어오고 무엇 때문에 나가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세종시 동 지역 순전입자의 최근 3년간 전입 사유를 누적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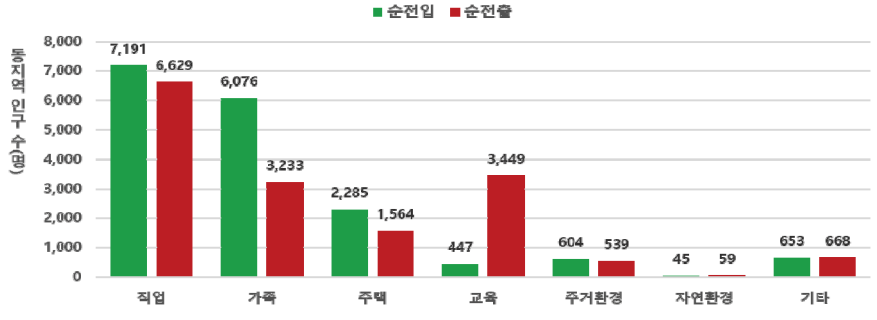
- 전입 사유는 '직업(41.6%)', '가족(35.1%)', '주택(13.2%)' 순이었음
- '자연환경(0.3%)'은 전체 사유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쳐, 순전입 유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순전출자의 전출 사유 특징)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자의 최근 3년간 전출 사유를 누적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출 사유는 '직업(41.1%)', '교육(21.4%)', '가족(20.0%)' 순이었음
- **전입 시에는 낮았던 '교육' 사유가 전출 시에는 21.4%로 크게 높아져, 동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가 이후 '교육'을 이유로 다시 유출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4-11]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전출 사유 구조

구 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7,191	41.6	6,629	41.1
가족	6,076	35.1	3,233	20.0
주택	2,285	13.2	1,564	9.7
교육	447	2.6	3,449	21.4
주거환경	604	3.5	539	3.3
자연환경	45	0.3	59	0.4
기타	653	3.8	668	4.1
합계*	17,301	100.0	16,141	100.0



주: 이동사유는 시·도 간 이동을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세종시 내 읍·면·동 간 이동은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2023~2025년)

❍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은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족' 사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택' 사유는 감소하여 전입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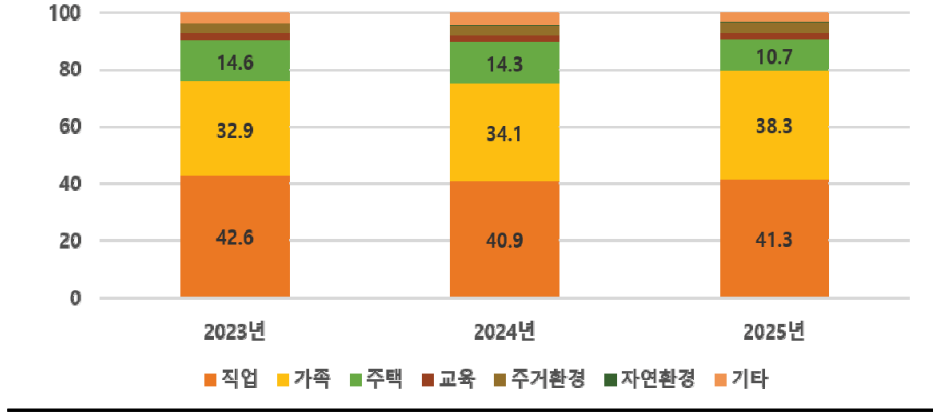
- (직업) 42.6%→40.9%→41.3%로 40% 초반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가장 중요한 전입 사유로 나타남
- (가족) 32.9%→34.1%→38.3%로 지속 증가하여, 직업과의 격차가 9.7%p에서 3.0%p로 축소됨
- (주택) 14.6%→14.3%→10.7%로 감소하여 전입요인으로서의 비중이 약화됨

○ **(종합) 동 지역 20대의 외부 유입은 여전히 직업이 핵심적인 견인요인이지만, 최근에는 가족 사유에 의한 전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직업 중심의 유입 구조가 직업·가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반면, 주택을 이유로 한 전입은 감소하여, 20대의 동 지역 유입을 설명하는 요인이 최근 3년 사이에도 변화하고 있음

[표 4-12]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2023~2025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2,389	42.6	2,411	40.9	2,391	41.3
가족	1,848	32.9	2,009	34.1	2,219	38.3
주택	820	14.6	843	14.3	622	10.7
교육	143	2.5	151	2.6	153	2.6
주거환경	188	3.3	215	3.6	201	3.5
자연환경	14	0.2	20	0.3	11	0.2
기타	212	3.8	247	4.2	194	3.4
합계	5,614	100.0	5,896	100.0	5,791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2023~2025년)

○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출은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교육'과 '가족' 사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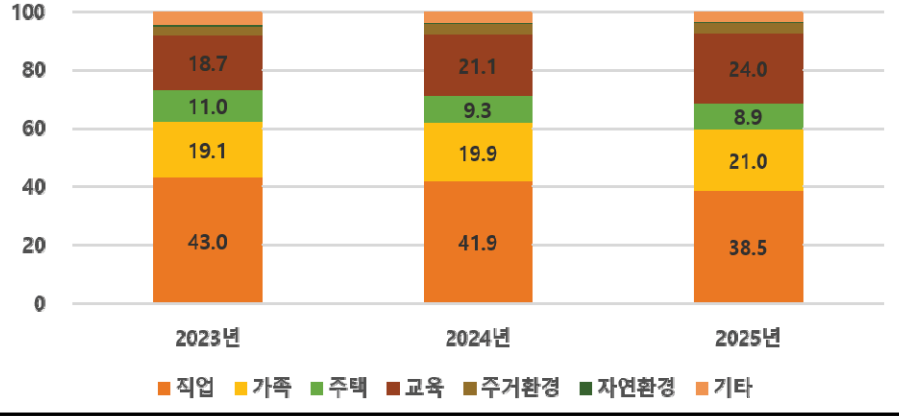
- (직업) 43.0%→41.9%→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지속 감소함
- (교육) 18.7%→21.1%→24.0%로 지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두 번째로 높은 전출 사유로 나타남
- (가족) 19.1%→19.9%→21.0%로 완만하게 증가함
- (주택) 11.0%→9.3%→8.9%로 지속 감소함

❍ (종합) 동 지역 20대 청년의 전출은 여전히 직업이 가장 큰 요인이나, 최근 직업의 영향은 약화되고 교육 목적의 전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 특히 직업과 교육 간 격차는 2023년 24.3%p에서 2025년 14.5%p로 축소되어, 교육이 동 지역 20대 청년의 주요 유출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표 4-13]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 사유 변화 추이 : 20대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2161	43.0	2,301	41.9	2,167	38.5
가족	958	19.1	1,094	19.9	1,181	21.0
주택	553	11.0	510	9.3	501	8.9
교육	939	18.7	1158	21.1	1352	24.0
주거환경	151	3.0	191	3.5	197	3.5
자연환경	22	0.4	23	0.4	14	0.2
기타	237	4.7	220	4.0	211	3.8
합계	5,021	100.0	5,497	100.0	5,623	1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내 이동 변화

○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내 이동 규모와 세종시 전체 20대 시·도 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동 지역 20대의 시·도 내 이동은 2023년 2,899명 → 2024년 2,757명 → 2025년 2,518명으로 지속 감소함
- 세종시 전체 20대 시·도 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 → 11.0% → 12.0%로, 2024년 감소 후 2025년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3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최근 3년 평균 동 지역 20대의 시·도 내 이동 비중은 12.0%로 나타나, **동 지역 20대의 이동에서 세종시 내부 거주지 이동이 차지하는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 확인됨

[표 4-14]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내 이동 변화

(단위: 명, %)

구 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전체 대비(%)
2023년	21,803	2,899	13.3
2024년	25,076	2,757	11.0
2025년	21,007	2,518	12.0
합계/평균	67,886	8,174	12.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 현황

○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의 시·도 간 전입 규모는 5천 명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세종시 전체 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소폭 상승함

- 동 지역 20대의 시·도 간 전입은 2023년 5,614명 → 2024년 5,896명 → 2025년 5,791명으로 나타남
- 세종시 전체 20대 시·도 간 전입에서 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6.4% → 2024년 16.4% → 2025년 17.4%로, 최근 3년 평균 16.7% 수준임

[표 4-15] 세종시 동 지역 20대 청년의 시·도 간 전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전체 대비(%)
2023년	34,247	5,614	16.4
2024년	35,946	5,896	16.4
2025년	33,348	5,791	17.4
합계/평균	103,541	17,301	16.7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현황**

❍ 최근 3년간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가운데 동 지역으로 전입한 20대의 이전 거주지는 세종 내부가 가장 많았으며, 외부지역 중에서는 수도권과 대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대비 동 지역 20대 전입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14.9%이며, 이전 거주지별로는 세종 내부 4.8% 〉 수도권 3.4% 〉 대전 2.5% 〉 충청권 2.2% 순으로 나타남
- 세종 내부 이동은 2023년 2,899명(5.2%) → 2024년 2,757명(4.5%) → 2025년 2,518명(4.6%)으로 감소하여, 동 지역 20대 전입에서 관내 이동의 비중이 출발 시점보다 낮아짐
- 반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은 2023년 1,799명(3.2%) → 2024년 1,963명(3.2%) → 2025년 2,006명(3.7%)으로 증가하여, 최근 동 지역 20대 유입에서 수도권과의 연계가 다소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대전은 2.5~2.6%, 충청권은 2.1~2.2%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함

[표 4-16]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23년	56,050	8,513	1,799	1,448	2,899	1,232	392	613	84	46
2024년	61,022	8,653	1,963	1,557	2,757	1,266	434	547	89	40
2025년	54,355	8,309	2,006	1,364	2,518	1,210	479	590	93	49
합계	171,427	25,475	5,768	4,369	8,174	3,708	1,305	1,750	266	135
비율(%)										
2023년	100.0	15.2	3.2	2.6	5.2	2.2	0.7	1.1	0.1	0.1
2024년	100.0	14.2	3.2	2.6	4.5	2.1	0.7	0.9	0.1	0.1
2025년	100.0	15.3	3.7	2.5	4.6	2.2	0.9	1.1	0.2	0.1
합계	100.0	14.9	3.4	2.5	4.8	2.2	0.8	1.0	0.2	0.1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출자의 전출지역 현황

❍ 최근 3년간 세종시 전체 전출인구 가운데 동 지역 20대의 전출지역은 세종 내부가 가장 많았으며, 외부지역 중에서는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종시 전체 전출인구 대비 동 지역 20대 전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14.1%로 나타남
- 전출지역별로는 세종 내부 4.4% 〉 수도권 4.1% 〉 대전·충청권 각각 2.0% 순으로 나타남
- 세종 내부 이동은 2023년 2,491명(4.6%) → 2024년 2,500명(4.3%) → 2025년 2,349명(4.3%)으로 최근 다소 감소함
- 반면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2023년 2,209명(4.1%) → 2024년 2,314명(4.0%) → 2025년 2,388명(4.4%)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세종 내부 이동(4.3%)보다 수도권 전출 비중(4.4%)이 소폭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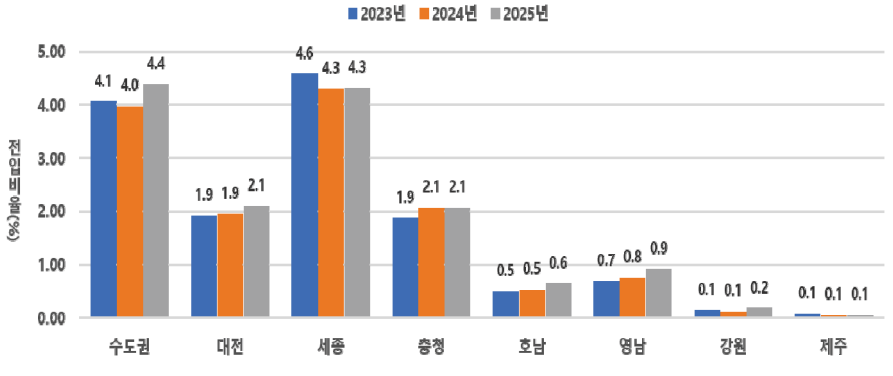
❍ **“동 지역은 세종 내부의 20대 청년을 흡수하는 중심지이지만, 수도권과의 관계에서는 청년 순유출이 나타나는 이중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4-17]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출자의 전출지역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23년	54,360	7,512	2,209	1,040	2,491	1,018	266	376	74	38
2024년	58,214	7,997	2,314	1,135	2,500	1,204	303	438	69	34
2025년	54,402	7,972	2,388	1,138	2,349	1,120	351	499	96	31
합계	166,976	23,481	6,911	3,313	7,340	3,342	920	1,313	239	103
비율(%)										
2023년	100.0	13.8	4.1	1.9	4.6	1.9	0.5	0.7	0.1	0.1
2024년	100.0	13.7	4.0	1.9	4.3	2.1	0.5	0.8	0.1	0.1
2025년	100.0	14.7	4.4	2.1	4.3	2.1	0.6	0.9	0.2	0.1
합계	100.0	14.1	4.1	2.0	4.4	2.0	0.6	0.8	0.1	0.1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4-27]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20대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입·전출자의 성별 특성

❍ 최근 3년간 동 지역 20대의 전입과 전출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동 지역 청년 인구이동에서 여성의 이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전입은 최근 3년 평균 남성 6.7%, 여성 8.2%로 나타났으며, 여성 비중은 2023년 7.1% → 2025년 7.9%로 상승함
- 전출 역시 평균 남성 6.6%, 여성 7.5%로 여성이 높았으며, 여성 비중은 2023년 7.2% → 2025년 7.9%로 상승함

[표 4-18]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입자의 성별 현황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23년	56,050	8,513	3,794	5.8	4,719	7.1
2024년	61,022	8,653	3,928	6.3	4,725	7.5
2025년	54,355	8,309	3,696	6.4	4,613	7.9
합계/평균	171,427	25,475	11,418	6.7	14,057	8.2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표 4-19] 세종시 동 지역 20대 전출자의 성별 현황

(단위: 명, %)

연 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23년	54,360	7,512	3,590	6.6	3,922	7.2
2024년	58,214	7,997	3,684	6.3	4,313	7.4
2025년	54,402	7,972	3,669	6.7	4,303	7.9
합계/평균	166,976	23,481	10,943	6.6	12,538	7.5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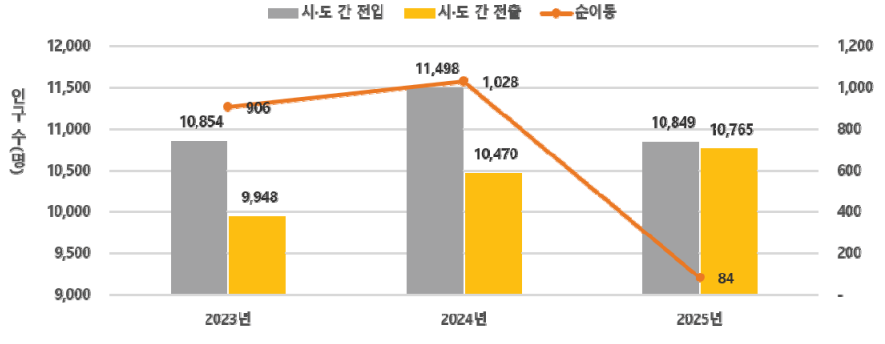
4. 모(母)[12]의 연령을 고려한 여성 인구이동과 지역 인구재생산 기반

1) 모(母)의 주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의 인구이동 변화

□ 15~49세 여성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 변화

❍ 최근 3년간 출산 가능 연령 여성은 지속적인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전출 증가와 전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순유입 규모가 크게 축소됨

- 시·도 간 전입은 2023년 10,854명 → 2024년 11,498명 → 2025년 10,849명으로, 2024년 증가 후 감소함
- 시·도 간 전출은 2023년 9,948명 → 2025년 10,7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순이동은 2023년 906명 → 2024년 1,028명 → 2025년 84명으로 급감하여,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순유입 규모를 기록함



[그림 4-28] 세종시 모(15~49세)의 순이동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12) 본 연구에서 15~49세 및 25~39세 여성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것은 여성 개인의 출산 가능성이나 출산 의향을 전제하거나, 여성을 지역의 출산·인구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님. 이는 국가데이터처 출생통계의 모(母) 연령별 출생자료와 지역 인구이동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통계적 분석 범주임. 특히 여성의 인구이동은 교육, 취업, 주거, 가족관계 등 다양한 생애과정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해당 연령대 여성인구의 증감을 출산 규모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음. 본 분석의 목적은 여성 개인의 재생산 선택을 평가하거나 출산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정주 여건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의 삶의 선택과 재생산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정책환경을 모색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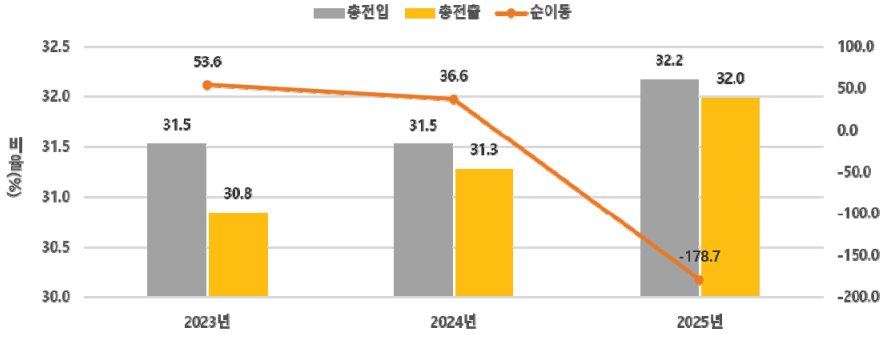
□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에서 15~4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 최근 3년간 세종시 시·도 간 전입·전출 인구에서 15~49세 여성은 각각 30% 초반 수준을 차지하여, 세종시 인구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시·도 간 전입 인구 중 15~49세 여성 비율은 평균 31.7%, 전출 인구 중 비율은 평균 31.4%로 나타남
- 전체 순이동에서 15~4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2024년 평균 45.1%로 나타남

○ 다만 2025년에는 세종시 전체 순이동이 -47명으로 분모가 매우 작아 순이동 비율이 통계적으로 크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는 평균 산정에서 제외함

○ (시사점) 15~49세 여성은 세종시 전체 전입·전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최근 순이동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 여성의 이동 변화가 세종시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그림 4-29]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대비 모(母)의 인구이동 비율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모(15~4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15~49세 여성의 전입·전출 사유 변화**

○ 최근 3년간 15~49세 여성의 전입은 '주택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교육 사유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입 사유는 2023년 주택 〉 직업 〉 가족, 2024년 주택 〉 가족 〉 직업, 2025년 가족 〉 주택 〉 직업 순으로 변화함
- 가족은 4,512명→4,809명→4,959명, 교육은 1,135명→1,261명→1,347명으로 지속 증가함
- 반면, 주택은 2024년 6,301명까지 증가한 후 2025년 4,84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직업·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도 전반적으로 감소함

○ 전출 역시 주택이 가장 중요한 사유이나, 가족과 교육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함

- 전출 사유는 2023~2024년 주택 〉 직업 〉 가족, 2025년에는 주택 〉 가족 〉 직업 순으로 변화함
- 가족은 3,926명→4,205명→4,323명, 교육은 1,498명→1,725명→1,971명으로 지속 증가함
- **특히, 교육 사유 전출은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져, 해당 연령대 여성의 이동에서 교육 요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종합) 최근 15~49세 여성의 인구이동은 주택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는 가운데 가족과 교육 요인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교육은 전입과 전출 모두 증가하였으나 전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 향후 해당 연령대 여성의 정착과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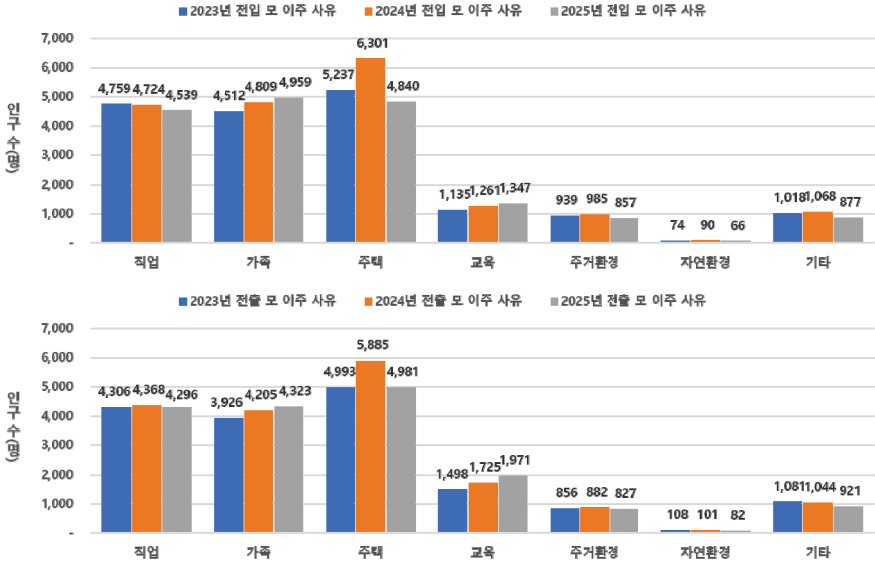
□ **세종시 전입 사유별 15~49세 여성의 비중**

○ 세종시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15~4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과 '가족' 사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교육 사유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23년에는 교육(35.4%) 〉 가족(34.0%) 〉 직업(33.0%) 순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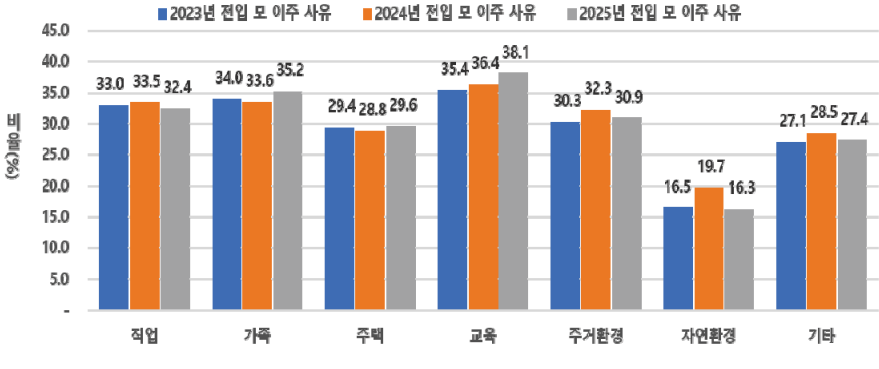
으며, 2025년에도 교육(38.1%) 〉 가족(35.2%) 〉 직업(32.4%) 순으로 동일함

- 교육은 2023년 35.4%에서 2025년 38.1%로 2.7%p 상승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가족도 34.0%에서 35.2%로 1.2%p 상승함
- 반면 직업은 33.0%에서 32.4%로 0.6%p 감소하여, 해당 연령대 여성의 전입에서 교육·가족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그림 4-30] 15~49세 여성의 전입·전출 사유별 인구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그림 4-31] 세종시 전입 사유별 15~4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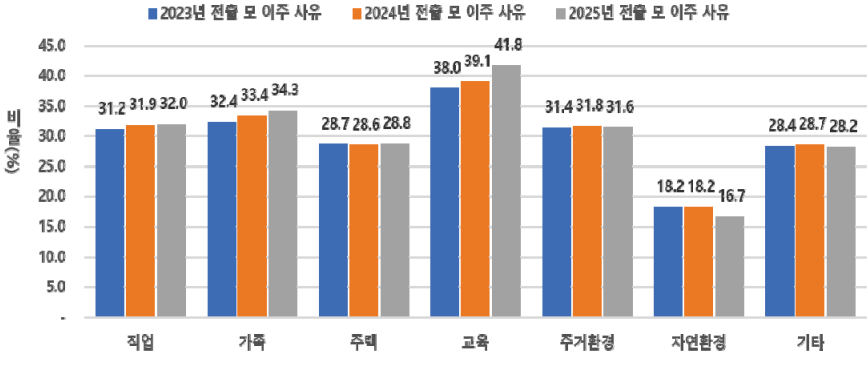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 세종시 전출 사유별 15~49세 여성의 비중

❍ 세종시 전체 전출인구 가운데 15~4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 사유에서 가장 높았으며, 최근 3년간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23년에는 교육(38.0%) 〉 가족(32.4%) 〉 주거환경(31.4%)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교육(41.8%) 〉 가족(34.3%) 〉 직업(32.0%) 순으로 나타남
- 교육은 2023년 38.0% → 2024년 39.1% → 2025년 41.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3년간 3.8%p 증가함
- 가족 역시 32.4% → 33.4% → 34.3%로 1.9%p 상승한 반면, 자연환경은 18.2%에서 16.7%로 감소함

❍ 특히 교육 사유로 세종시를 떠나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15~49세 여성이라는 점에서, 교육 관련 이동과 해당 연령대 여성의 유출 간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2] 세종시 전출 사유별 15~4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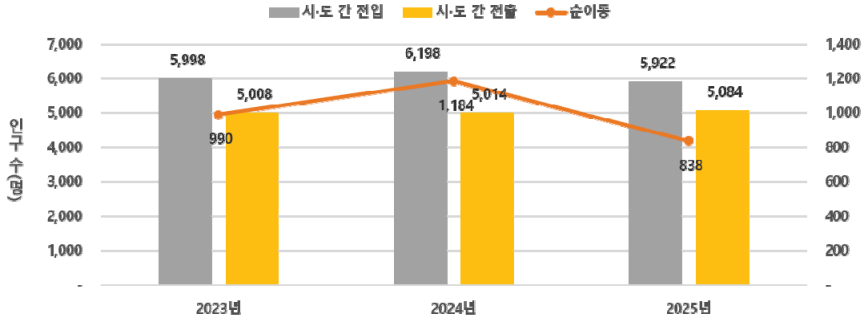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2) 주출산연령 여성(25~39세)의 인구이동 변화

□ 주출산연령 여성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 변화

○ (주출산연령 여성의 순이동 변화) 최근 3년간 세종시 25~39세 여성은 매년 순유입(전입>전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순유입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됨

- 시·도 간 전입은 2023년 5,998명에서 2024년 6,198명으로 증가한 후, 2025년 5,922명으로 감소함
- 시·도 간 전출은 2023년 5,008명에서 2025년 5,084명으로 큰 변동 없이 5천 명 수준을 유지함
- 이에 따라 순이동은 2023년 990명 → 2024년 1,184명 → 2025년 838명으로, 3년 연속 순유입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46명(-29.2%) 감소함
- 주출산연령 여성은 여전히 세종시의 '순유입 집단'이지만, 최근에는 전출 증가보다는 **전입 감소에 의해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3] 세종시 주출산연령대 여성인구(25~39세)의 순이동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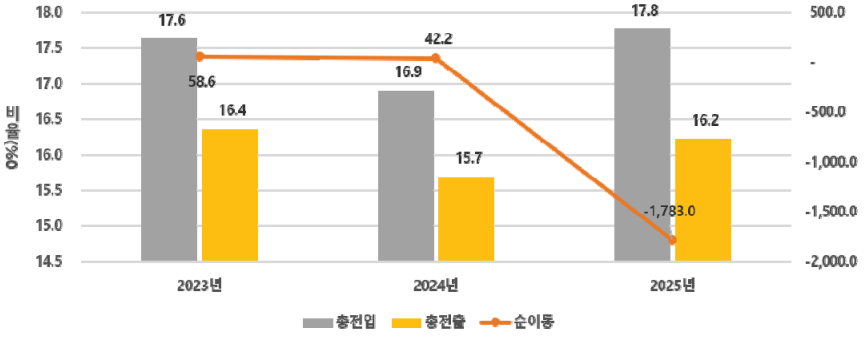
□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에서 주출산연령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3년간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인구이동에서 2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입의 경우 평균 17.4%, 전출은 평균 16.1%로, 전입 비중이 전출 비중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전체 시·도 간 전입인구 대비 25~39세 여성 비중은 2023년 17.6% → 2024년 16.9% → 2025년 17.8%로 17% 내외 수준을 유지함
- 전체 시·도 간 전출인구 대비 비중은 2023년 16.4% → 2024년 15.7% → 2025년 16.2%로, 전입 비중보다 매년 낮게 나타남

❍ (전체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25~39세 여성은 2023년 세종시 전체 순이동의 58.6%, 2024년에는 42.2%를 차지하여, 세종시의 순유입을 구성하는 주요 인구집단으로 나타남

❍ 따라서 25~39세 여성은 최근 세종시 전체의 인구 순유입을 견인해 온 핵심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5년 해당 집단의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의 향후 인구재생산 기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4]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에서 2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2023~2025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의 25~39세 여성 인구) ÷ (해당 지표의 세종시 전체 인구)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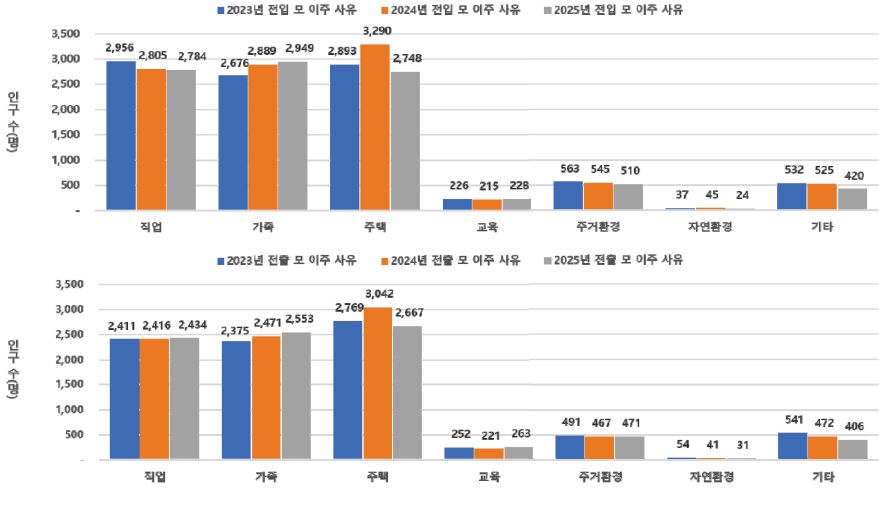
□ 주출산연령대 여성(25~39세)의 전입·전출 사유 변화

○ 최근 3년간 25~39세 여성의 전입은 '직업·주택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변화한 반면, 전출은 '주택 중심'의 구조가 지속됨

- (전입) 가족 사유는 2023년 2,676명에서 2025년 2,949명으로 지속 증가하여 3순위에서 1순위로 상승한 반면, 직업과 주택은 감소함
- (전출) 주택이 2023~2025년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은 2023년 3순위에서 2024~2025년 2순위로 상승함

○ (최근 3년 변화) 전입에서는 가족(+10.2%)과 교육(+0.9%)만 2023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직업·주택·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는 감소함

- 특히 가족 사유의 증가가 두드러져, 최근 25~39세 여성의 세종시 유입에서 가족 관련 이동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출에서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 여성의 정착과 이동에서 가족과 주거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5] 주출산연령대 여성인구(25~39세)의 전입/전출 사유 연도별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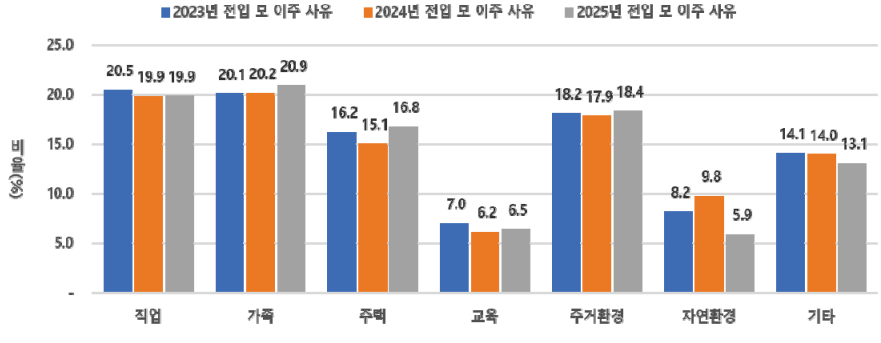
□ 전입 사유별 25~39세 여성의 비중 변화

❍ 2023년 세종시 전체 전입인구 중 2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직업(20.5%) 〉 가족(20.1%) 〉 주거환경(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5년에는 가족(20.9%) 〉 직업(19.9%) 〉 주거환경(18.4%) 순으로 나타나, 가족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가족(+0.8%p), 주택(+0.6%p), 주거환경(+0.2%p)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직업(-0.6%p), 교육(-0.5%p), 자연환경(-2.3%p), 기타(-1.0%p)는 감소함

❍ 특히 가족 사유 전입에서 2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앞서 확인한 가족 사유 전입인구 자체의 증가와 함께 해당 연령대 여성 유입에서 가족 요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6] 세종시 전입 사유별 25~3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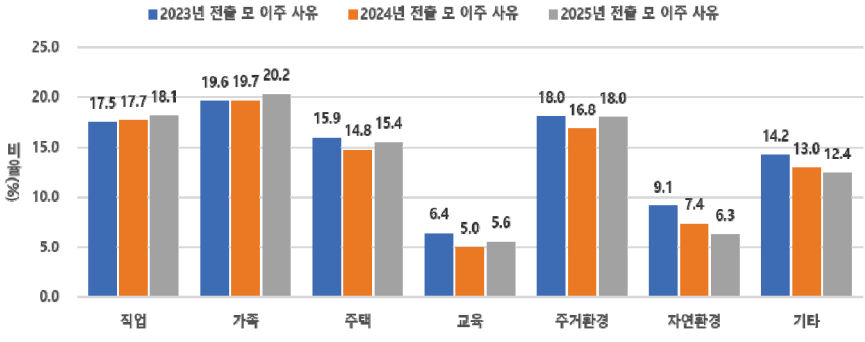
□ 전출 사유별 25~39세 여성의 비중 변화

❍ 2023년 세종시 전체 전출인구 중 2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족(19.6%) 〉 주거환경(18.0%) 〉 직업(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5년에는 가족(20.2%) 〉 직업(18.1%) 〉 주거환경(18.0%) 순으로 나타나, 가족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가족(+0.6%p)과 직업(+0.6%p)은 소폭 증가한 반면, 주택(-0.5%p), 교육(-0.8%p), 자연환경(-2.8%p), 기타(-1.8%p)는 감소하였으며, 주거환경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특히 **'가족' 사유는 전출에서도 25~39세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더욱 확대되어, 앞서 전입 분석과 함께 볼 때 해당 연령대 여성의 이동에서 가족 요인이 중요한 이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7] 세종시 전출 사유별 25~39세 여성 비중 변화(2023~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5.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1) 세종시 신혼부부의 특성

(1) 신혼부부 특성 분석 개요

□ 배경 및 목적

○ 신혼부부는 혼인 이후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시기의 인구집단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에서 상당 부분의 출산이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 지역 출산 수준 및 인구구조 예측의 핵심 관찰대상임

○ 신혼부부의 연령구조,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여형태 등의 특성은 출산 관련 의사결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가 됨

- 세종특별자치시는 젊고 고학력인 인구가 계획적으로 유입되어 온 도시로, 전국 평균과 구별되는 신혼부부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큼

○ 이에 2024년 신혼부부통계를 활용하여 혼인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령·연차구성·교육수준·맞벌이 여부 등의 특성을 전국 특성과 비교하고, 각 특성의 출산 수준에 대한 함의를 해석함

□ 분석방법

○ 국가데이터처 신혼부부통계(혼인기간 5년 이하, 초혼·재혼 포함) 자료를 활용, 전국 808,416쌍·세종시 8,731쌍(부부 동일거처 가중치 적용, 소수점 포함)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세종시 사례가 전국의 약 1.1%에 불과하여, 세부 수치의 미세한 차이보다 두 집단 간 격차의 방향성에 주목하여 해석함

(2) 세종시 신혼부부 특성 분석결과

□ 신혼부부의 연령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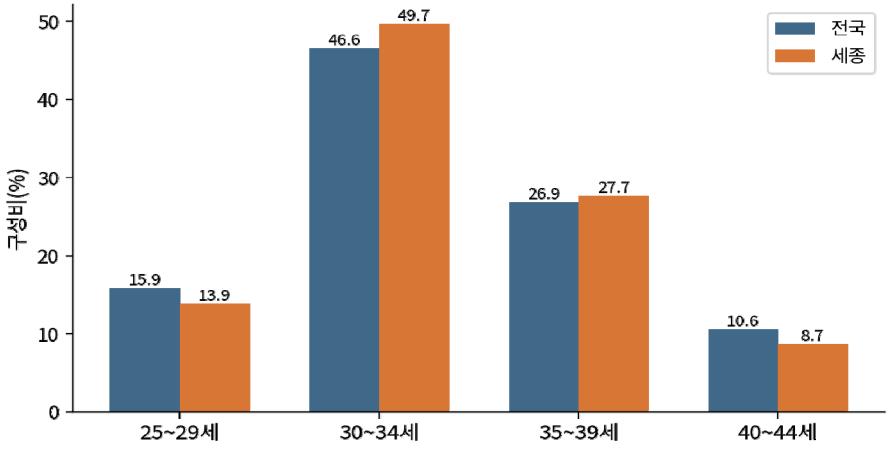
○ 세종시 혼인이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직과 인근 지역의 중산층 부부 인구의 전입 특성과 맞물려, 취업·정주 기반 마련 이후 혼인이

이루어지는 최근 청년들의 경향이 세종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30대 초반 집중은 출산 가능 연령대 내 이른 혼인이라는 점에서 출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25~29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청년층 조기 정착·혼인의 상대적 지연을 의미하기도 함

- 더불어 둘째아 등 추가출산이 이뤄지기 힘들어지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세종시 연령구조는 '전국보다 늦지 않되 이르지도 않은' 압축된 혼인시점 분포로 요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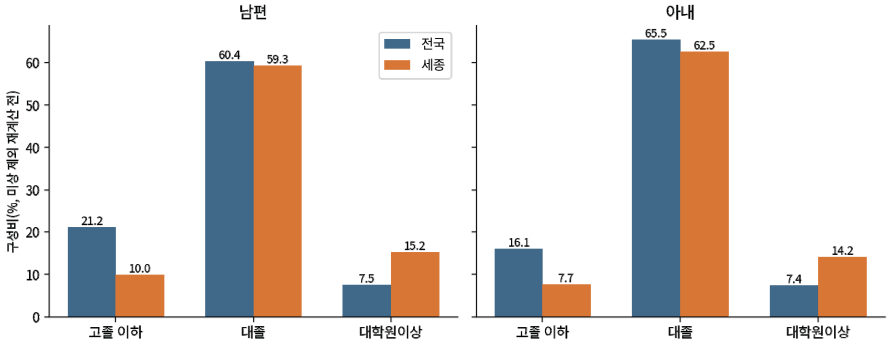
[그림 4-38] 신혼부부 아내의 연령집단별 구성비 비교(전국·세종), 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신혼부부의 교육수준

❍ 세종시의 신혼부부들은 전국 수준에 비해 부부 모두 고학력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이러한 고학력 경향은 고졸 이하 저학력이 낮다는 것과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이 높다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남편: 전국 대졸 60.4%·대학원이상 7.5%, 세종 대졸 59.3%·대학원이상 15.2%(전국의 약 2배), 고졸이하 세종 9.5%(전국 절반이하)
- 아내: 전국 대학원이상 7.4% → 세종 14.2%(전국의 2배 수준), 고졸이하 전국 16.1% → 세종 7.7%(전국의 절반 이하)



[그림 4-39] 혼인 당시 부부 교육수준 비교(전국·세종), 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세종시의 뚜렷한 고학력화는 중앙행정·공공·연구기관 종사자 및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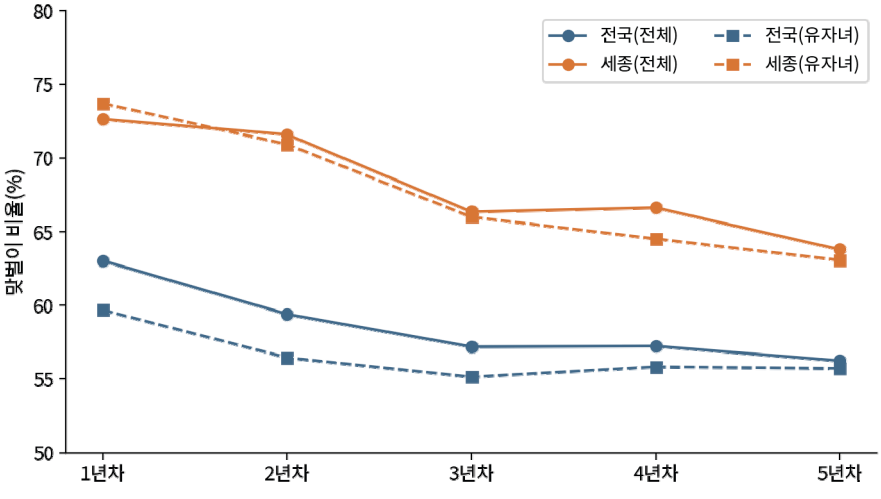
- 고학력은 초혼·초산 지연 및 양육 기회비용 상승을 통한 출산 억제요인이자, 동시에 안정적 소득·고용을 통한 출산 이행 촉진요인이라는 상반된 경로를 지님

❍ 세종시의 고학력 특성은 출산에 대해 방향이 고정된 요인이 아니라, 맞벌이 지속성과 결합하여 실제 효과가 결정되는 조건부 요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맞벌이 특성: 전체 부부 및 유자녀 부부

❍ 전국 맞벌이 비율은 1년차 63.0%에서 5년차 56.2%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자녀출산을 계기로 한 아내의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함을 시사함

❍ 세종 맞벌이 비율은 1년차 72.6%에서 5년차 63.8%로 유사하게 감소하지만, 전 연차에서 전국보다 8~13%p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4-40]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율 비교(전국·세종), 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유자녀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세종의 더 높은 비율을 가짐

- 전국 56.2%, 세종 66.3%(격차 10.2%p)로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됨

❍ 유자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특히 낮은 혼인연차에서 전체 맞벌이 수준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데, 세종은 그 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전국의 급격한 맞벌이 하락은 전통적 성별분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함을 시사하며, 양육부담이 한 배우자에 집중되어 추가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세종시의 높은 맞벌이 지속률은 계획도시형 보육 인프라, 공공부문 중심의 안정적 근로여건, 직주근접에 따른 통근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맞벌이 지속은 가구소득의 안정성을 높여 추가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세종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지속해 온 배경 중 하나로 이해됨

[표 4-20]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율 비교(전체 신혼부부)

연 차	전 국	세 종	차 이
1년차	63.03	72.64	+9.61
2년차	59.40	71.60	+12.20
3년차	57.19	66.35	+9.16
4년차	57.23	66.63	+9.40
5년차	56.24	63.79	+7.55
전체	58.72	68.02	+9.3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표 4-21]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율 비교(유자녀 신혼부부 한정)

연 차	전 국	세 종	차 이
1년차	59.68	73.72	+14.04
2년차	56.45	70.93	+14.48
3년차	55.14	66.00	+10.86
4년차	55.83	64.52	+8.69
5년차	55.72	63.07	+7.35
전체	56.15	66.30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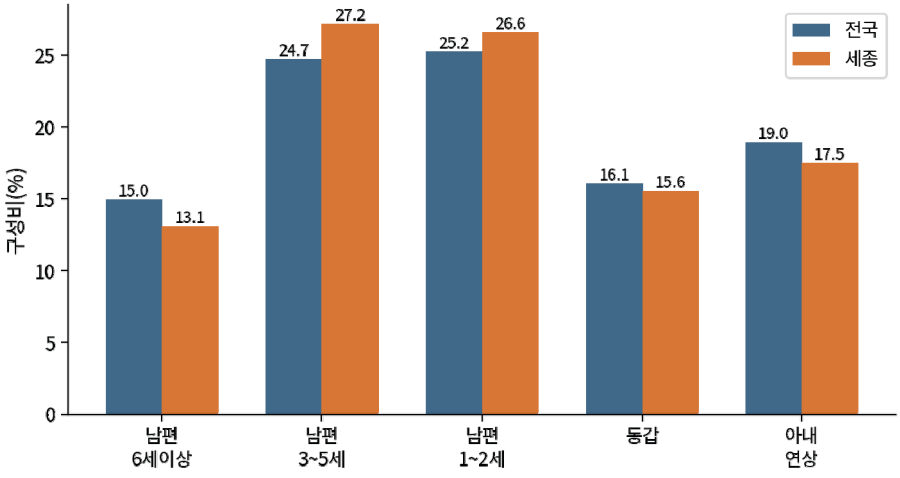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참고로 혼인기간 5년 이하 부부 중 유자녀 비중은 전국 53.0%, 세종 59.0%로 세종이 높음. 이는 세종의 높은 출산율 경향을 보이는 것과 함께, 혼인 이후 첫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이 전국에 비해 늦지 않거나 다소 빠를 가능성을 시사함

□ 부부간 연령차 구성

○ 전반적으로 세종시는 부부 간의 연령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을 보임

- 전국: 남편 1~2세연상 25.2% 최다, 남편 3~5세 연상24.7%, 동갑 16.1%, 아내 연상 18.9%, 남편 6세이상 연상 15.0%
- 세종: 남편 3~5세 연상 27.2%(+2.4%p), 남편 1~2세 연상26.6%(+1.4%p) 비중이 높은 반면, 남편 10세 이상 연상은 전국 4.8%→세종 2.9%로 크게 낮음



[그림 4-41] 부부간 연령차 분포 비교(전국·세종), 2024년

주: '아내 연상'은 아내가1~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를 모두 합산한 값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세종시 부부의 좁은 연령차 분포는 배우자 간 교육수준·직업지위가 유사한 동질혼(homogamy) 경향이 전국보다 강함을 시사함

○ 동질혼 경향은 부부 쌍방의 고학력화와 맥락을 같이하며, 부부간 의사결정 권력의 균형성 및 양육부담 협상의 균형적 관계 형성 가능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특성

(1) 연구의 배경과 방법론

□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출산수준은 신혼부부 규모뿐 아니라 그 인구가 형성된 경로(전입·정착 여부)에도 영향을 받음

❍ 세종시와 같은 계획도시는 신혼부부 인구의 상당 부분이 외부전입 인구로 구성되어, 이동 전후 특성 변화의 파악이 지역 인구정책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

❍ 계속거주·전입·전출 부부는 서로 다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녀 향후 지역의 출산 및 정주 전망에 상이한 함의를 가짐

❍ 이에 2024년 신혼부부통계를 활용, 혼인기간 2~5년 신혼부부를 현재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를 비교하여 인구이동 유형(세종 계속거주·전입·전출)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자료 및 분석방법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를 활용, 혼인기간 2~5년이면서 2024년 기준 부부의 거처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함(부인 연령 25~44세, 거처 가중치 미적용)

❍ 인구이동은 아내의 거주지 변경 기준으로 정의함: '세종 계속거주'(2023·2024년 모두 세종 거주), '세종 전입'(2023년 세종 외 거주 → 2024년 세종 거주), '세종 전출'(2023년 세종 거주 → 2024년 타지역 거주)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함

❍ 분석대상 전체 6,879쌍 중 세종 계속거주 5,648쌍(82.1%), 세종 전입 757쌍(11.0%), 세종 전출 474쌍(6.9%)으로 나타남

(2) 분석결과

□ 인구이동 유형 구성 및 혼인연차 분포

○ 세종 전입(757쌍, 11.0%)이 세종 전출(474쌍, 6.9%)보다 많아 세종시가 순유입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

[표 4-22] 인구이동 유형별 혼인연차 구성비

(단위: %)

연 차	세종 계속거주	세종 전입	세종 전출
2년차	21.67	29.19	23.84
3년차	24.03	22.99	21.73
4년차	25.48	23.51	26.58
5년차	28.82	24.31	27.85
전체	100.00	100.00	100.00
사례수(쌍)	5,648	757	474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세종 계속거주 부부는 혼인연차 증가에 따라 비중이 확대됨(2년차 21.7% → 5년차 28.8%). 이는 정착이 누적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세종 전입 부부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임. 2년차 29.2%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연차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져 5년차 24.3%로 감소함. 혼인을 전후한 이주가 활발함을 시사함

○ 세종 전입이 혼인초기에 집중된다는 결과는, 세종시의 신규 유입인구가 주로 '결혼과 함께 이주하는' 젊은 부부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뒷받침함

□ 인구이동 유형별 자녀수 특성

○ 신혼부부의 인구이동 유형에 따라 자녀 유무의 특성에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세종시에 새롭게 전입한 경우 무자녀의 비율은 높았지만, 1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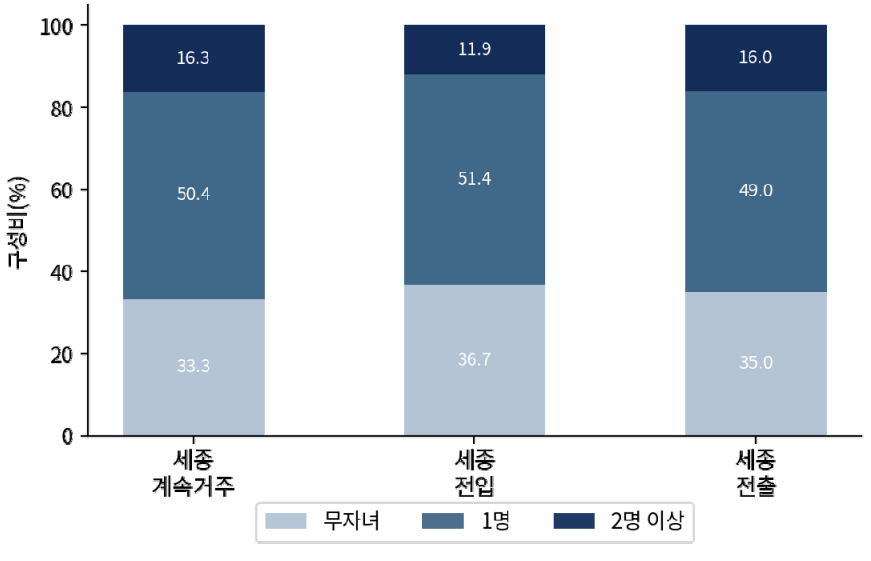
- 첫 출산 이후 세종시 전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 세종 계속거주(무자녀 33.3%·1자녀 50.4%·2자녀 이상 16.3%)와 세종

전출(무자녀 35.0%·1자녀 49.0%·2자녀 이상 16.0%)은 유사한 분포를 보임

- 세종 전입은 무자녀 36.7%·1자녀 51.4%로 다소 높은 반면, 2자녀 이상 비중은 11.9%로 다른 두 집단보다 4%p 이상 낮게 나타남

❍ 전입 부부의 낮은 다자녀 비중은 정착 초기단계로 추가출산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세종시 출산여건의 열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무자녀·1자녀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향후 정주여건에 따라 추가출산으로 이어질 잠재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입 부부 대상 보육·양육 지원 강화 시 추가적인 출산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4-42] 인구이동 유형별 자녀수 구성비 비교,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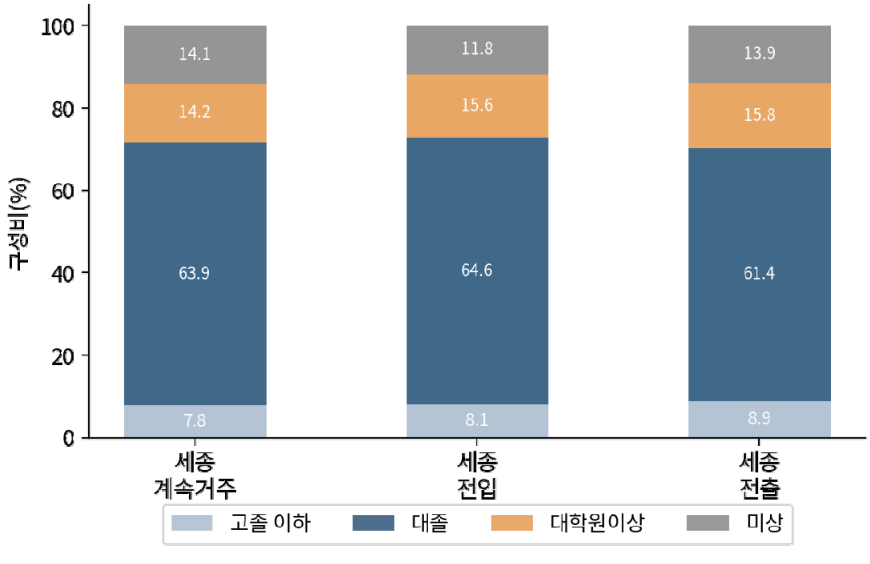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인구이동 유형별 아내의 교육수준

❍ 세 집단 사이 학력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전입해 온 집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 전입 부부 아내의 대졸 이상(대졸+대학원 이상) 비율은 80.2%(대졸 64.6%, 대학원 이상 15.6%)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음. 계속거주 78.1%, 전출 77.2%보다 높은 수준임
- 고졸 이하 비중은 계속거주가 7.8%로 가장 낮고, 전입 8.1%, 전출 8.9% 순으로 나타남

❍ 세종 전입 부부 아내의 높은 학력수준은 세종시로의 인구유입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고학력 여성인력을 선별적으로 흡수하는 '선별적 이주(migration selectivity)' 양상임을 보여줌



[그림 4-43] 인구이동 유형별 아내의 교육수준 구성비 비교, 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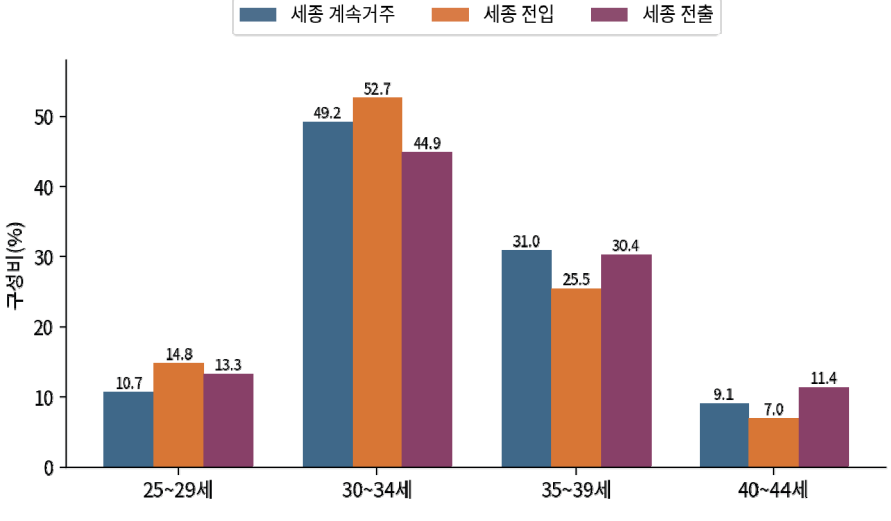
❍ 중앙행정·공공·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서비스업의 고학력 여성 노동수요가 혼인 전후 이주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학력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으로 양육의 기회비용을 높게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입 부부의 안정적 정착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실현 여부가 향후 출산이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인구이동 유형별 아내의 연령

❍ 세종시에 전입하는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가장 낮고, 반면 세종시를 떠난 신혼부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세종 전입 부부는 25~29세 14.8%, 30~34세 52.7%로 가장 젊은 연령구조를 보임(30대 초반 이하 합산 67.5%)
- 세종 전출 부부는 35~39세 30.4%, 40~44세 11.4%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임. 계속거주는 두 집단의 중간적 분포를 나타냄



[그림 4-44] 인구이동 유형별 아내의 연령구간 구성비 비교, 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전입 부부의 젊은 연령구조는 세종시가 젊은 신혼부부들을 흡수하는 유입지로 기능함을 보여주며, 지역의 장기적 인구 재생산 잠재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됨

○ 전출 부부의 높은 연령대는 자녀 취학, 배우자 직장이동 등의 사유로 인한 재이동이 30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을 시사하며, 자녀양육기 중반 이후 정주 지속성이 이완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세종시 전입·전출의 지역 구조**

○ 신혼부부의 이동에서 전체적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높아 283건의 순이동이 나타났으며, 신혼부부의 세종시 유입의 가장 큰 출발지는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규모는 대전보다는 작았지만, 유출규모는 수도권이 가장 높았음
- 전입·전출 중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보면 대전으로부터의 전입 비중(31.7%)이 대전으로의 전출 비중(24.5%)보다 7.2%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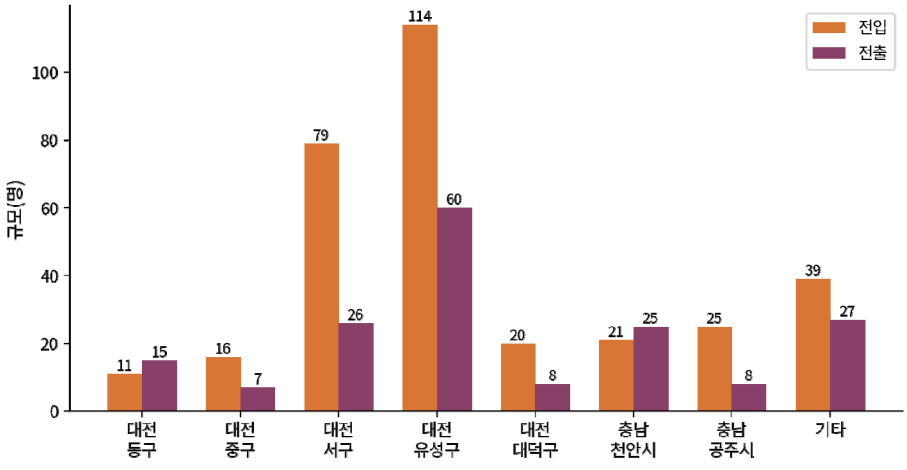
○ 이는 세종시와 대전이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기능하며, 인접 대전지역의 고학력 신혼부부 인구가 세종시에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4-23]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의 주요 목적지와 출발지 구성

(단위: %, 건)

지 역	전입 비율	전출 비율	순이동(건)
수도권	28.53	31.65	66
대전	31.70	24.47	124
충북	11.36	16.67	7
충남	11.23	12.66	25
기타	17.17	14.56	61
전체	100.00	100.00	283
사례수(쌍)	757	474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그림 4-45]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의 대전·충남 내 주요 목적지와 출발지 구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세종시 신혼부부의 이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전·충남 지역**의 세부 지역 분석 결과, 지역들의 구성을 보면 인접지역들 간 인구이동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입과 유출 모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인접지역들 간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

- 세종 전입 신혼부부 중 대전·충남 출신의 35.1%가 유성구 출신으로 나타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세종 전출 신혼부부의 대전·충남 이동에서도 유성구 비중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세종시 - 대전 유성구 간 양방향으로 활발한 인구교류가 확인됨

❍ 한편 인접해 있지만, 인구규모가 작은 공주시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유입이 유출을 압도하였으며, 이는 공주 지역에 많은 인구 부담을 줄 것으로 여겨짐

- 천안시도 세종시와의 신혼부부 교환에서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 규모와 인구증감 함의

(1) 연구의 배경과 방법론

□ 배경 및 목적

○ 지역 인구증감은 자연증가(출생-사망)와 사회적 증가(전입-전출)로 결정되며, 신혼부부의 증감은 지역 내 혼인의 변화와 인구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함

○ 신혼부부의 전입은 사회적 인구증가에 직접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출산을 통한 자연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역인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중적 의미를 지님

○ 앞서 분석들이 세종시 신혼부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동유형별 특성을 규명하였다면, 본 절은 이러한 특성이 실제 얼마나 큰 규모의 인구이동으로 나타나는지를 2021~2024년 시계열로 파악하고, 아울러 주요 이동특성 지표의 4개년 변화 추이를 함께 분석함

○ 무자녀 신혼부부는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순이동 규모를 별도 파악하는 것이 세종시의 미래 인구증감 파악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자료 및 분석방법

○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를 활용, 세종시 계속거주·전입·전출 규모를 연도별로 집계함. 순유입은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으로 정의함. 앞서 분석 상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2024년 현재 부부의 거처가 동일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자녀수는 3명 이상인 경우 3명으로 상한 처리(top-coding)하였으며, 가족규모는 신혼부부 2인과 자녀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되 그 외 가구원은 포함하지 않음. 무자녀 신혼부부는 2024년 기준 자녀수 0명인 신혼부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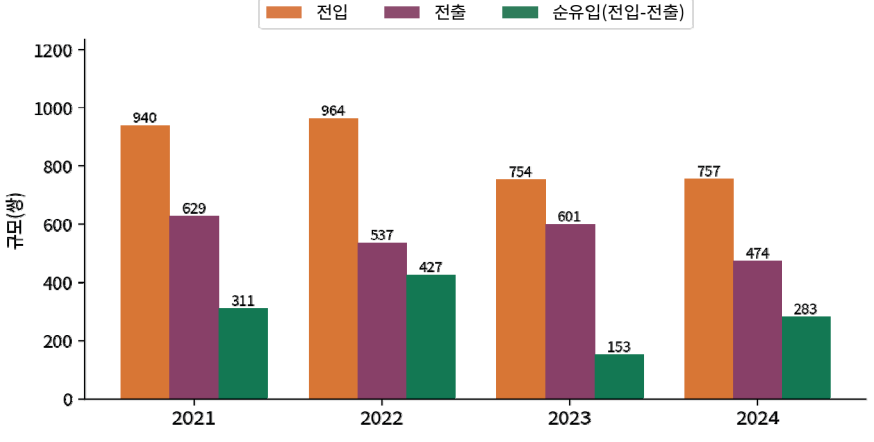
○ 전반적 수치의 해석에서 세종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절대수치보다 증감의 방향성과 상대적 비율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하고자 함

(2) 순이동 규모 분석결과

□ 신혼부부(쌍) 순이동 규모

❍ 세종시로의 신혼부부 순유입이 매년 양(+)임에도 유입규모는 분석기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출 규모 역시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입(940→964→754→757쌍), 전출(629→537→601→474쌍)
- 순유입(311→427→153→283쌍)
- 전 기간 양(+)의 순유입을 유지하면서도 뚜렷한 변동성을 동반함. 전체적으로는 이동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46] 세종시 신혼부부 전입·전출·순유입 규모 추이,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혼인기간 5년이라는 정의로 신규진입(1년차) 규모보다 통계상 제외되는 규모(5년차 초과)가 더 커, 세종시 계속거주 신혼부부의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 이에 순유입의 정체·감소세가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신혼부부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4-24] 세종시 신혼부부 유입·유출 순이동 규모

(단위: 쌍)

유 형	2021	2022	2023	2024
세종 계속거주	7,167	6,827	6,171	5,648
세종 전입	940	964	754	757
세종 전출	629	537	601	474
세종 순유입	311	427	153	283

주: 순유입=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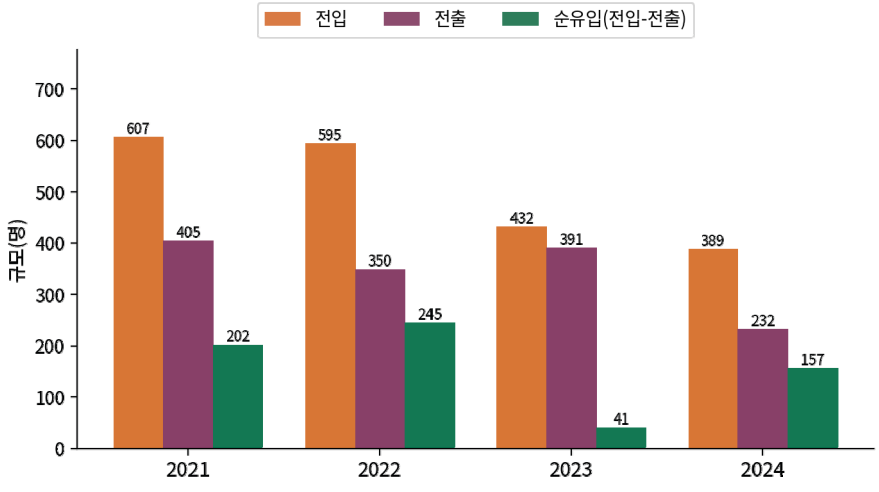
○ 이는 이 자료가 2024년까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세종시 및 인근 지역의 혼인건수 자체의 둔화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세종시에 신규주택 공급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입되는 신혼부부의 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출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녀(명) 순이동 규모

○ 신혼부부의 이동에는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자녀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신혼부부의 이동에서 이들의 자녀들의 **전입·전출·순유입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입과 유출 그리고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신혼부부 이동에서 무자녀나 한자녀인 경우가 많아 자녀의 이동 규모는 부부의 이동 규모보다 작음



[그림 4-47] 세종시 신혼부부 자녀 전입·전출·순유입 규모 추이, 2021~2024년

○ 이러한 자녀 순유입의 감소 추세는 전체적 신혼부부 순유입 감소와 궤를 같이함. 신혼부부 이동의 위축이 자녀인구 이동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널임을 확인시켜 줌

[표 4-25] 세종시 신혼부부 자녀 유입·유출 순이동 규모

(단위: 명)

유 형	2021	2022	2023	2024
세종 계속거주	4,994	4,757	4,186	3,766
세종 전입	607	595	432	389
세종 전출	405	350	391	232
세종 순유입	202	245	41	157

주1: 순유입= 전입 – 전출.
주2: 자녀 수 3명 이상은 3명으로 정의하여 분석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가족 전체(부부+자녀) 순이동 규모: 실질적 인구 기여 정도

❍ 다음으로 신혼부부의 이동에서 부부와 자녀의 수를 더하여 신혼부부의 인구 이동이 지역의 인구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음

❍ 가족단위 순유입은 824→1,099→347→723명으로, 2021~2024년 4개년 누적 2,993명에 달함. 신혼부부의 순이동이 4년간 세종시 인구에 실질적으로 약 3천 명 규모의 순증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됨

[표 4-26] 세종시 신혼부부 가족 유입·유출 순이동 규모

(단위: 명)

유 형	2021	2022	2023	2024
세종 계속거주	19,328	18,411	16,528	15,062
세종 전입	2,487	2,523	1,940	1,903
세종 전출	1,663	1,424	1,593	1,180
세종 순유입	824	1,099	347	723

주1: 순유입= 전입 - 전출
주2: 자녀 수 3명 이상은 3명으로 정의하여 분석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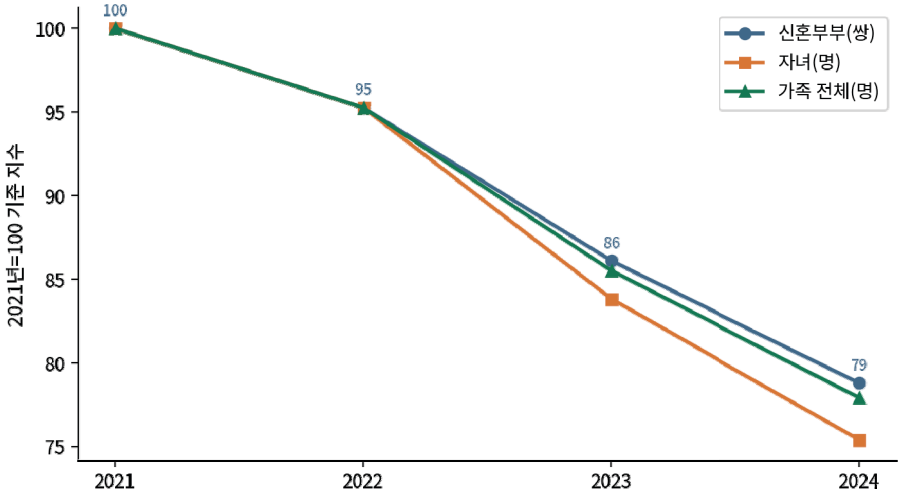
❍ 다음으로 세종 계속거주 신혼부부·자녀·가족 규모를 2021년=100 지수화 시, 2024년 각각 78.8%·75.4%·77.9% 수준으로 축소됨. 순유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모집단 자체의 구조적 축소가 확인됨

❍ 이러한 축소는 세종시에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 전국적 혼인건수 감소 추세가 세종시에도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혼부부 기간을 지나는 규모보다 새롭게 진입하는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

- 그러나 최근 혼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새로운 동향이 어떻게 세종시 신혼부부 이동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됨

❍ 또한 세종시 신축 아파트 공급의 감소가 신혼부부 유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신혼부부 규모의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순유입을 통한 인구 보충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축소를 상쇄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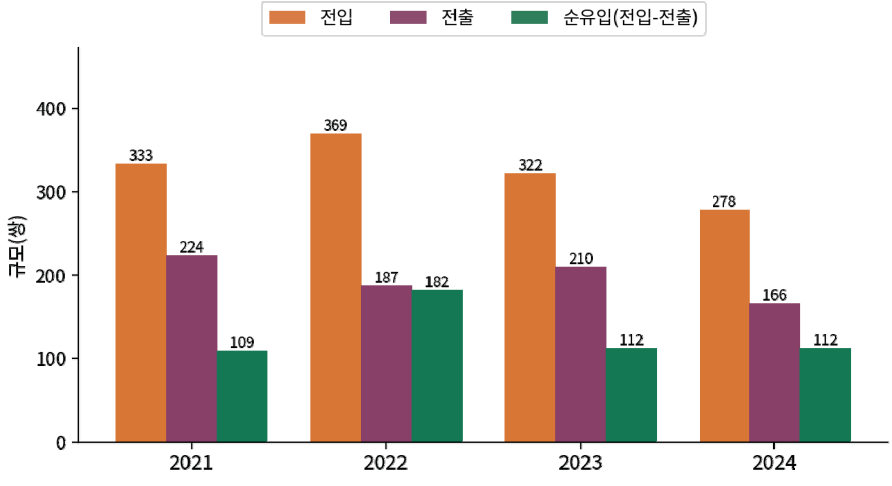
[그림 4-48] 세종 계속거주 신혼부부·자녀·가족 규모 지수 추이(2021년=100)

주: 세종 계속거주 규모를 2021년=100으로 하여 지수화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무자녀 신혼부부(쌍) 순이동 규모: 잠재적 출산 영향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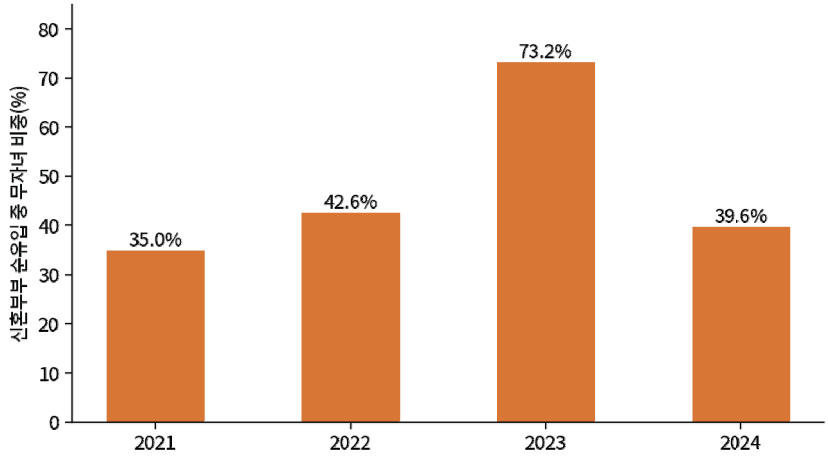
❍ 한편 무자녀 신혼부부의 이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무자녀 신혼부부는 현재는 세종시의 자연증가(출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나, 향후 출산을 통해 세종시의 자연증가에도 추가로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 인구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무자녀 부부 순유입은 109 → 182 → 112 → 112쌍(4개년 누적 515쌍)으로, 전체 신혼부부·자녀의 순유입에 비해 등락의 폭이 작고 매년 100쌍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그림 4-49] 세종시 무자녀 신혼부부 이동 규모 추이,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그림 4-50] 신혼부부 순유입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 전체 신혼부부 순유입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0% → 42.6% → 73.2% → 39.6%로 나타나, 매년 1/3 이상을 무자녀 부부가 차지함
- ❍ 특히 2023년에는 전체 순유입(153쌍)의 3/4에 육박하는 112쌍이 무자녀 부부로, 유입 규모의 위축 속에서도 세종시가 흡수한 인구의 '규모에 대한 영향'(향후 출산 가능성)은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세종 계속거주 부부 중 무자녀 비중도 30.3%→33.3%로 완만히 상승함. 정착 부부 내에서도 첫 자녀 출산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3) 인구이동 특성의 4개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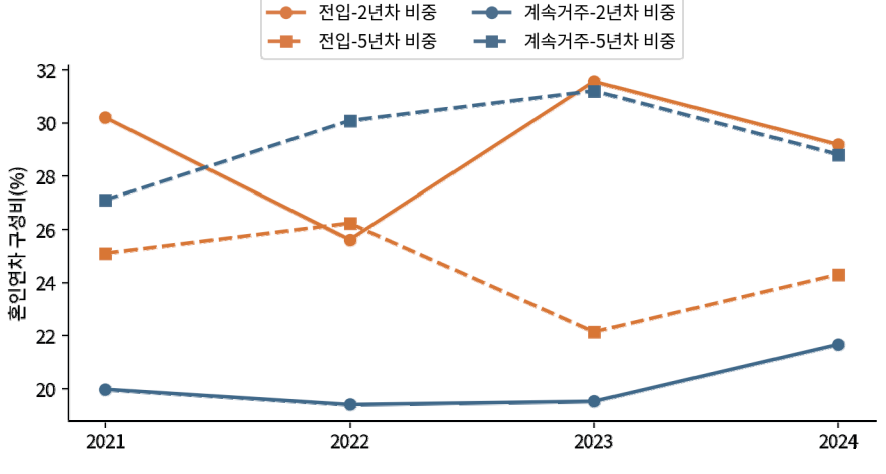
□ 혼인연차 구조: 전입 부부 혼인초기 집중의 반복적 구조패턴

❍ 신혼부부 인구이동 유형의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세종시 신혼부부를 구성하는 이들의 구성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전입 부부의 2년차 비중(30.2% → 25.6% → 31.6%→29.2%)이 4개년 모두 5년차 비중(25.1% → 26.2% → 22.2% → 24.3%)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세종시 전입이 혼인 초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2024년에 국한된 일시적 특성이 아니라, 4개년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적 패턴임을 뒷받침함

❍ 계속거주 부부는 5년차 비중이 2년차 비중을 지속 상회하며, 그 격차가 2021년 7.1%p → 2023년 11.7%p까지 벌어졌다가 2024년 7.2%p로 다소 좁혀짐



[그림 4-51] 전입·계속거주 부부의 혼인 2년차·5년차 비중 추이,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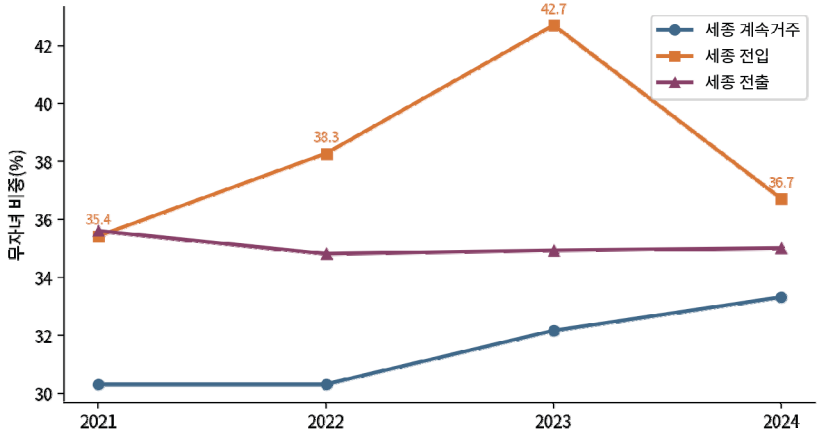
□ 무자녀 비중의 변화: 계속거주 신혼부부의 출산지연 심화

❍ 계속거주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2021~2022년 30.3%로 정체되어 있다가 2023년 32.2%, 2024년 33.3%로 최근 2개년 간 뚜렷하게 상승함

- 세종시 정착 신혼부부 내 첫 자녀 출산 시점의 지연 심화를 시사함

❍ 전입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2021년 35.4%에서 2023년 42.7%까지 상승했다가 2024년 36.7%로 낮아지는 급격한 등락을 보였으며, 전출 부부는 34.8~35.6% 범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출산의 연기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4-52] 이동유형별 무자녀 비중 추이, 2021~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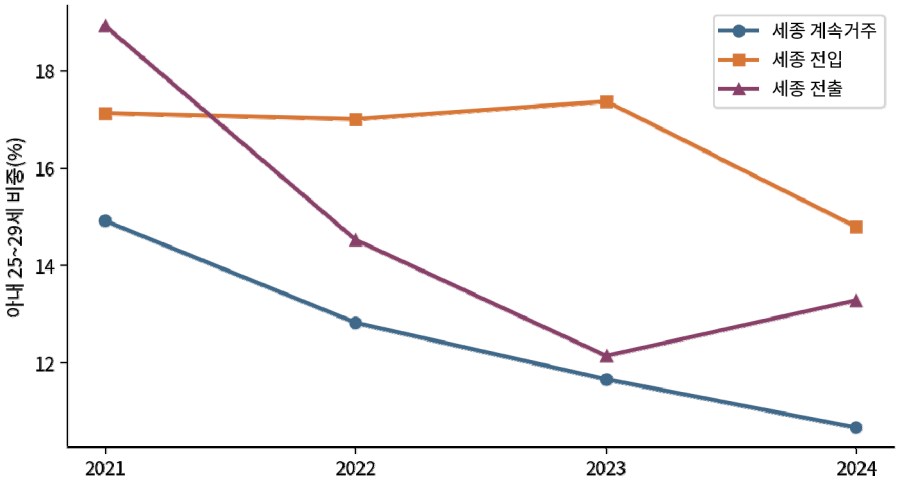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 아내의 연령 구조 변화: 정착 부부의 뚜렷한 고령화

❍ 계속거주 부부의 25~29세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4년 10.7%로 4개년 연속 하락하여 가장 뚜렷하고 일관된 추세를 보임

❍ 전출 부부의 25~29세 비중도 2021년 18.9%에서 2023년 12.2%까지 급격히 하락한 후 2024년 13.3%로 소폭 반등함

❍ 전입 부부는 2021~2023년 17.0~17.4%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 14.8%로 처음 뚜렷한 하락을 보여, 신규 유입 인구층에서도 최근 고령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4-53] 이동유형별 아내25~29세 비중 추이,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4) 정책적 시사점

(1) 세종시 신혼부부 특성의 종합

□ **세종시 신혼부부 프로필**

○ 세종시 신혼부부는 '30대 초반 집중혼인 - 고학력 - 맞벌이 지속 - 동질혼'으로 요약되는 일관된 인구·사회경제적 프로필을 형성함. 개별지표의 전국 대비 차이를 넘어 계획도시 세종시가 형성해 온 구조적 인구재생산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강점으로 작용할 요인) 유자녀 부부의 높은 맞벌이 지속률(전국 대비 +10.2%p)은 출산 - 경력단절 - 추가출산 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계획도시형 보육 인프라와 공공부문 근로여건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됨

- 좁은 부부간 연령차(동질혼 경향)는 부부 공동양육 및 균형적 의사결정의 사회적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함

○ (유보적 해석 요인) 고학력화·30대 초반 집중형 혼인 패턴은 전국적 만혼·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소자녀 규범이 강화될 위험을 내포함

○ 세종시의 높은 맞벌이 지속률은 보육 인프라·공공부문 고용구조라는 특정 조건에 의존하는 '조건부 강점'으로, 인구구성이 다변화되거나 보육공급이 지체될 경우 빠르게 약화될 수 있음

(2) 세종 전입 신혼부부 특성의 종합

□ **전입 부부 특성**

○ 세종시로 새롭게 전입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초기 집중유입 - 젊은 연령 - 고학력 - 낮은 다자녀 비중 - 대전 유성구·수도권 중심 유출입 경로'로 요약되는 뚜렷한 프로필을 지님

□ **강점: 선별적 청년·고학력 유입**

○ 계속거주·전출 부부보다 젊고 고학력인 전입 부부의 특성은 세종시가 양적·질적으로 유리한 인구유입 구조를 지님을 보여줌

○ 혼인 2년차 집중유입은 세종시가 혼인을 계기로 한 정주지 결정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 대전 유성구 중심의 광역생활권 순환은 인근지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여줌

□ **유의점: 정착초기 낮은 다자녀 비중과 수도권 회귀 경향**

○ 전입 부부의 낮은 2자녀 이상 비중은 정착초기 단계의 특성이지만, 적절한 정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 출산 이전 재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예: 수도권 유출)

○ 높은 전입·전출의 교환 속에서 전출 부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유출은 세종시가 일부 고학력 인구에게 일시적 거주지로 인식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년·고학력 인구가 자녀 출산 이전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함

(3) 세종시 인구증감 측면 함의의 종합

□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서의 순유입**

○ 2021~2024년 전 기간 양(+)의 순유입이 유지되고, 가족단위 기준 4개년 누적 약 2,993명의 순증 효과가 발생함. 신혼부부 이동이 세종시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경로임을 뒷받침함

□ **순유입만으로 상쇄되지 않는 구조적 축소**

○ 계속거주 규모(신혼부부·자녀·가족)의 4년 연속 감소 폭이 순유입 규모를 상회함. 팬데믹 기간 전국적 혼인건수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세종시에도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세종시의 인구정책은 전입 촉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 내 혼인 자체를 촉진하는 정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무자녀 신혼부부: 인구증감의 잠재적 선행지표**

○ 매년 100쌍 이상 안정적으로 순유입되는 무자녀 부부(전체 순유입의 35~73%)는 현재는 사회적 증가에만 기여하나, 향후 출산을 통해 자연증가로 전환될 잠재력을 지닌 세종시 인구증감의 '선행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패턴과 최근 심화되는 변화의 병존**

○ 전입 부부의 혼인초기 집중, 이동유형별 구성비(계속거주 약 82%) 등은 4개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확인됨

○ 계속거주 부부의 무자녀 비중 상승과 아내 연령의 고령화는 세종시 정착 신혼부부 내 출산지연이 최근 2개년(2023~2024년) 사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판단됨

(4) 종합: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 정착지원 강화

- 세종시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혼인 2~3년차 부부를 대상으로 정착 지원(주거, 보육시설 우선배정 등)을 강화하여 안정적 정주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육 인프라의 지속 확충

-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를 인구유입 속도에 맞추어 지속 확충함으로써, 맞벌이 - 양육 병행 여건의 향후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정착 지원

- 25~29세 청년층의 혼인 비중이 전국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주거·고용 정착 지원을 통해 혼인 및 출산의 조기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 지원의 민간부문 확산

- 고학력·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세종시 강점이 인구구성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협력 정책의 검토

-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한 광역생활권 내 인구순환을 고려하여, 대전 - 세종 간 통근·정주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 협력정책(광역교통, 공동 보육 인프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출 사유의 심층조사

- 세종 전출 부부 중 수도권 회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주목하여, 전출 사유(직장, 자녀교육, 주거비용 등)를 파악하는 심층조사를 통해 정주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단 추적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유자녀 부부의 맞벌이 지속이 실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무자녀 순유입 부부의 실제 출산이행 비율과 소요기간을 추적하는 종단(패널)조사가 필요함
- 세종시 혼인신고 통계와 연계하여, 계속거주 규모 감소가 순유입 둔화가 아닌 혼인건수 자체의 구조적 감소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하는 심층 분석이 필요함
- 순유입 규모의 단기적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유입 인구의 질적 구성(연령, 학력, 자녀계획 단계)을 함께 살펴보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청년 이동과 정착의 종합시사점

□ **청년인구 정책의 중심을 '유입 확대'에서 '정착과 유출 관리'로 전환할 필요**

○ 세종시 청년은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이동이 2022년 +4,412명에서 2025년 +1,025명으로 축소되는 등 출범 초기의 대규모 유입 효과가 크게 약화됨

-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과를 단순 전입 규모보다 정착률·잔존율·재전출 규모 등 지속적 정착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9~29세는 시·도 간 광역 이동, 30~39세는 세종시 내부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 연령대별 이동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됨

- 따라서 20대에는 대학·취업 등 생애이행 단계의 지역정착 지원, 30대에는 주거·가족생활을 고려한 정착 및 주거순환 지원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청년 유출의 핵심 변화로 부상한 '교육 이동'에 대한 별도의 대응 필요**

○ 최근 세종시 청년 전출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교육 목적 이동의 빠른 증가임

- 청년의 교육 사유 전출은 2013년 322명에서 2025년 2,471명으로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육 사유 전출자 중 청년 비중도 같은 기간 34.5%에서 52.4%로 확대됨

- 최근 3년에도 교육 사유 청년 순이동은 지속적인 순유출을 보여, 교육이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

- 특히 읍·면에서는 교육을 통한 청년 유입이 확대되는 동시에 20대를 중심으로 교육 사유 전출도 크게 나타나고, 동 지역 20대에서도 교육이 주요 전출요인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이 청년을 유입시키는 요인이자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 목적 이동을 단순히 대학 진학 문제로 보기보다 대학·대학원 진학, 직업교육, 자격취득, 재교육 등 청년의 생애이행 과정 전반에서 세종이 어느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대학 재학·졸업 이후 지역 기업·공공기관과의 취업연계, 대학원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청년 재교육·전직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교육을 위해 유입된 청년이 이후 지역의 일자리와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이동권역의 광역화에 대응하여 '충청권 중심' 청년정책의 공간범위를 확대할 필요**

❍ 세종시 청년의 유입·유출권역은 출범 초기 세종 내부와 대전·충청권 중심에서 최근 수도권과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읍·면 지역에서는 전입·전출 모두 세종 내부와 충청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그 외 지역'의 순위가 상승하여 청년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화됨
- 세종시 전체 청년 이동에서도 대전으로부터의 유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충청권 이외 지역과의 양방향 이동 중요성이 높아짐
- 특히 2025년 서울과의 청년 이동은 전입 2,513명보다 전출 2,936명이 많아, 서울과의 관계에서는 청년 순유출이 나타나는 구조가 확인됨

❍ 이에 따라 세종시 청년정책은 대전·충청권과의 인구교류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 단위에서 세종을 선택하는 청년의 특성과 세종을 떠나는 청년의 이동경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도권 전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주거·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이동요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청년 유출의 목적지별 원인에 기반한 정착정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읍·면 지역은 '청년유출'과 '지역소멸 위험'을 결합한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접근할 필요**

❍ 세종시 전체 인구는 성장해 왔으나, 읍·면 10개 지역은 모두 소멸위험 범주에 포함되고 위험·심각 지역이 전체 면적의 70.1%를 차지하는 등 동 지역과의 공간적 격차가 뚜렷함

❍ 이에 따라 청년정책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상이한 인구이동 구조를 반영한 생활권별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읍·면 청년 전입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역 대학·교육기관을 청년 유입거점으로 활용하되, 교육–현장실습·인턴–지역 취업–주거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착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출은 20대 남성의 직업 이동, 30대의 주택 이동, 20대의 교육·수도권 이동 등으로 차별화되어 있어, 읍·면 청년정책도 생애단계와 이동 사유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읍·면 청년여성의 감소를 지역소멸 위험 관리의 핵심지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읍·면, 특히 면 지역에서는 청년여성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두드러져 지역소멸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남

○ 읍·면 청년여성 정착정책은 '일자리 부족'이나 '주택 부족'의 단일 원인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자리–주거–가족생활–교육–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정주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읍·면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이 세종 내부·충청권 중심에서 경기·서울 등 수도권 및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근거리 생활권의 문제를 넘어 광역적 선택경쟁에서 읍·면 지역의 정주 매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동 지역은 '청년 유입지역'에서 '유입 이후 정착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필요

○ 동 지역 20대는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유입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동 지역 역시 더 이상 안정적인 청년 유입지역으로만 볼 수 없음

○ 동 지역 20대의 이동사유에서는 직업·가족이 주요 전입요인인 반면 교육은 가장 두드러진 순유출 요인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전입에서 가족 사유 비중이 확대되고, 전출에서는 교육 사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생활단계에 따라 유입요인과 유출요인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지역에서도 지역 내 대학·대학원·직업교육·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여 20대의 교육·경력개발 수요를 지역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연령집단의 순유입 약화는 향후 세종시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 선행 신호로 관리할 필요**

❍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어 향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이를 곧바로 출산율 변화의 원인이나 직접적인 선행지표로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혼인·출생 및 가족단위 인구구조와 밀접한 연령층의 유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구학적 신호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의 '순유입'보다 지역 내 가족형성과 정착의 지속성을 관리할 필요**

❍ 세종시 신혼부부는 30대 초반, 고학력, 맞벌이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여 세종시의 청년·가족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유자녀 신혼부부의 맞벌이 지속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세종시의 강점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돌봄·근로시간·직장문화 등 일·생활 균형을 뒷받침하는 정책기반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순유입은 유지되고 있으나, 계속거주 신혼부부와 자녀·가족 규모 자체는 감소하고 있어 외부 신혼부부 유입만으로 지역의 가족 인구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나타남

❍ 특히 무자녀 신혼부부의 순유입이 일정 규모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단순한 '출산 잠재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향후 가족계획과 관계없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절 청년의 정책인식과 정책수요

1. 세종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분석 개요

1)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세종시 청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삶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 조사 항목은 주거와 교통, 가족,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삶의 질, 노동, 희망 일자리, 경제, 청년지원정책 등으로 구성됨
- 2025년 조사는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17일간 실시되었으며, 세종시 거주 만 15~39세 청년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청년 인구이동의 양상을 청년 당사자의 인식과 연계하여 살펴보기 위해, 정주의향과 생활여건, 향후 이주 가능성 및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청년이 세종시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와 떠나려는 이유,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건을 파악하고, 실제 인구이동 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청년 유입·정착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4-54]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27]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중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문항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주거와 교통	9	귀하는 향후 3년 후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십니까?
	9-1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2	향후 세종시 내 거주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9-3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4	세종시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귀하가 향후 거주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10	귀하가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족	13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 결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3-3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귀하는 결혼 지원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귀하는 임신·출산·육아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20	귀하는 청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23	귀하는 청년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와 여가	29	귀하는 청년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	52-1	미취업 기간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희망 일자리	55	희망하는 일자리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55-1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일)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56	귀하는 향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57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57-1	세종특별자치시 외에서 어느 지역을 희망하십니까?
청년지원정책	62	귀하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64	세종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지원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기타	65	귀하는 세종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65-1	참여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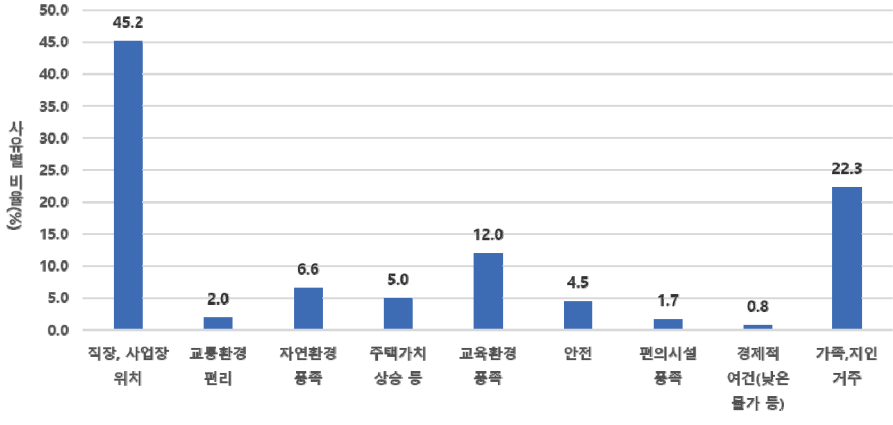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주요 분석 결과

□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주된 사유

○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주된 사유는 '직장·사업장 위치'(45.2%) 〉 '가족·지인 거주'(22.3%) 〉 '교육환경 만족'(12.0%) 순으로 나타나, 직장이 청년의 가장 중요한 정주 요인으로 나타남

- '직장·사업장 위치'는 30~34세에서 63.0%로 가장 높아,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의 정착이 지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 '가족·지인 거주'는 15~19세(48.5%), 20~24세(46.5%)에서 높아, 저연령 청년층의 정주에는 가족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교육환경 풍족'은 15~19세에서 20.2%로 가장 높았으며, 35~39세에서도 15.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20~24세(8.2%)와 25~29세(2.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30~34세(8.6%)부터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청소년층에서는 본인의 교육환경이, 30대 후반에서는 자녀교육 여건이 정주 판단과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4-55]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주된 사유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28]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주된 사유

(단위: %)

구 분	거주할 계획 있음 비율	계	향후 3년 후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직장, 사업장 위치	교통환경 편리	자연환경 풍족	주택가치 상승 등	교육환경 풍족	안전	편의시설 풍족	경제적 여건 (낮은물가 등)	가족,지인 거주
청년(15~39세)	56.3	100.0	45.2	2.0	6.6	5.0	12.0	4.5	1.7	0.8	22.3
권역별											
조치원읍	46.2	100.0	41.8	4.5	0.6	0.0	10.3	0.6	2.0	4.0	36.2
면지역	38.8	100.0	55.2	3.1	4.2	1.9	2.3	0.8	0.8	2.8	28.8
동지역	59.1	100.0	44.9	1.7	7.3	5.7	12.7	5.1	1.7	0.4	20.6
성별											
남자	54.6	100.0	46.8	3.1	5.2	4.9	10.4	2.7	1.2	1.0	24.7
여자	57.9	100.0	43.7	1.0	7.9	5.1	13.3	6.1	2.1	0.6	20.1
연령											
15~19세	47.9	100.0	5.5	2.2	7.7	3.8	20.2	8.4	3.2	0.5	48.5
20~24세	44.4	100.0	19.7	6.0	10.0	3.1	8.2	6.4	0.0	0.0	46.5
25~29세	46.6	100.0	54.9	1.5	6.4	1.4	2.9	5.0	4.5	0.4	22.8
30~34세	61.2	100.0	63.0	1.9	5.9	6.2	8.6	2.0	0.0	1.7	10.7
35~39세	71.3	100.0	57.1	0.7	5.4	6.9	15.3	3.5	1.6	0.7	8.8
- 19~34세	51.9	100.0	49.7	2.7	6.7	4.8	7.6	4.6	1.1	0.9	21.8
- 19~39세	58.4	100.0	52.6	1.9	6.2	5.8	11.2	4.1	1.3	0.7	16.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정주 의사: 세종시 내 향후 거주 희망

○ 향후 세종시 내 거주 희망지역은 동 지역이 90.1%로 압도적으로 높고, 조치원읍 7.6%, 면 지역 2.4%로 나타나 청년의 정주 선호가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면 지역 거주 청년의 면 지역 계속 거주 희망은 47.4%, 동 지역 거주 희망은 38.7%로 나타나, 면 지역 거주 청년의 동 지역 이동 수요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줌
- 특히 이는 앞서 확인한 읍·면 청년인구 감소와 함께 고려할 때, 청년인구의 동 지역 집중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함

[표 4-29] 향후 세종시 내 거주 희망 지역

(단위: %)

구 분	거주할 계획 있음 비율	계	향후 세종시 내 거주 희망 지역		
			조치원읍	면지역	동지역
청년(15~39세)	56.3	100.0	7.6	2.4	90.1
권역별					
조치원읍	46.2	100.0	79.2	0.0	20.8
면지역	38.8	100.0	14.0	47.4	38.7
동지역	59.1	100.0	0.2	0.0	99.8
성별					
남자	54.6	100.0	9.0	2.8	88.2
여자	57.9	100.0	6.3	2.0	91.7
연령					
15~19세	47.9	100.0	9.8	2.3	87.9
20~24세	44.4	100.0	8.3	1.5	90.1
25~29세	46.6	100.0	14.5	3.3	82.2
30~34세	61.2	100.0	5.2	2.0	92.8
35~39세	71.3	100.0	5.1	2.6	92.3
- 19~34세	51.9	100.0	8.2	2.1	89.7
- 19~39세	58.4	100.0	6.5	2.3	91.1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정주 의사: 세종시 외 지역 향후 거주 희망

○ 세종시 외 지역 거주 희망자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선호가 53.7%로 가장 높아, 세종시를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19세 88.6%, 20~24세 75.9%로 저연령층의 수도권 선호가 매우 높으며, 25~29세는 43.5%, 30~34세는 2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도권 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반면 30~34세는 대전 선호가 42.4%로 수도권 26.2%보다 높고, 35~39세도 대전 32.2%, 수도권 37.7%로 격차가 크지 않아, 30대에서는 수도권보다 대전 등 인접권역 선호가 상대적으로 확대됨
- 생활권별로는 조치원읍 거주 청년의 수도권 선호가 65.3%로 가장 높고, 동 지역 52.2%, 면 지역 43.0% 순으로 나타나, 조치원읍 청년의 수도권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이 확인됨
- 한편 면 지역은 수도권 43.0% 외에도 충남 천안·아산 14.5%, 충북 청주 12.5%, 충남 기타 9.4% 등 인접 충청권 선호가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남

[표 4-30] 향후 세종시 이외 거주 희망 지역

(단위: %)

구 분	거주할 계획 없음 비율	계	향후 세종시 이외 거주 희망 지역						
			대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청주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이외)	충남 (천안/아산 이외)	기타
청년(15~39세)	8.1	100.0	21.9	53.7	9.1	3.2	0.0	5.7	6.4
권역별									
조치원읍	15.5	100.0	12.6	65.3	14.2	2.6	0.0	0.0	5.3
면지역	13.0	100.0	8.9	43.0	12.5	14.5	0.0	9.4	11.7
동지역	6.7	100.0	26.8	52.2	7.1	1.4	0.0	6.7	5.8
성별									
남자	8.9	100.0	21.5	53.4	7.3	5.4	0.0	8.1	4.4
여자	7.3	100.0	22.4	54.2	11.3	0.6	0.0	2.9	8.6
연령									
15~19세	5.8	100.0	7.9	88.6	0.0	3.5	0.0	0.0	0.0
20~24세	13.6	100.0	10.5	75.9	6.6	0.0	0.0	1.6	5.2
25~29세	13.0	100.0	19.1	43.5	8.1	0.0	0.0	9.9	19.3
30~34세	6.8	100.0	42.4	26.2	19.0	8.7	0.0	3.6	0.0
35~39세	4.8	100.0	32.2	37.7	11.1	6.3	0.0	12.7	0.0
- 19~34세	10.0	100.0	22.2	51.5	10.1	2.3	0.0	4.9	8.9
- 19~39세	8.3	100.0	23.4	50.4	9.3	3.3	0.0	6.5	7.1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시사점) 세종시 외 지역 거주 희망은 연령과 생활권에 따라 뚜렷하게 차별화되며, 저연령층과 조치원읍 청년은 수도권 지향성이 강한 반면, 30대와 면 지역 청년은 대전·충청권 등 인접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 따라서 청년 유출 대응도 '수도권 지향형'과 '인접생활권 이동형'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정주 의사: 거주할 계획이 없는 이유

○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는 '직장·사업장 위치'(36.0%) 〉 '희망일자리·일자리 부족'(12.6%) 〉 '주택가치 하락 등'(11.0%) 〉 '편의시설 부족'(10.3%)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와 직장 입지가 청년의 세종시 이탈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직장·사업장 위치'는 25~29세에서 56.8%로 가장 높아,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기에 **직장 입지가 정주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남
- '희망일자리·일자리 부족'은 20~24세에서 31.4%로 가장 높아, 초기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지가 정주의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줌
- '교통환경 불편'은 여성 15.5%, 남성 0.6%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여성 청년의 정주여건에서 교통환경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 향후 3년 후에도 세종시에 거주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

(단위: %)

구 분	거주할 계획 없음 비율	계	향후 3년 후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직장, 사업장 위치	교통환경 불편	자연환경 부족	주택가치 하락 등	교육환경 부족	불안전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여건 (높은물가 등)	가족,지인 부재	희망일자리 여건,일자리 부족
청년(15~39세)	8.1	100.0	36.0	7.5	1.3	11.0	6.1	0.0	10.3	7.0	8.3	12.6
권역별												
조치원읍	15.5	100.0	35.1	5.9	0.0	11.4	3.0	0.0	11.0	0.0	18.2	15.4
면지역	13.0	100.0	38.1	0.0	0.0	14.6	0.0	0.0	12.4	6.4	20.8	7.7
동지역	6.7	100.0	35.8	9.3	2.0	10.2	8.1	0.0	9.7	9.1	3.1	12.7
성별												
남자	8.9	100.0	43.8	0.6	2.5	9.7	7.1	0.0	10.0	7.3	5.5	13.4
여자	7.3	100.0	26.8	15.5	0.0	12.4	4.9	0.0	10.7	6.6	11.4	11.7
연령												
15~19세	5.8	100.0	20.8	20.3	0.0	0.0	37.2	0.0	0.0	10.1	0.0	11.6
20~24세	13.6	100.0	33.3	9.0	0.0	0.0	0.0	0.0	10.3	0.0	16.1	31.4
25~29세	13.0	100.0	56.8	5.2	4.9	0.0	0.0	0.0	13.6	11.6	6.4	1.4
30~34세	6.8	100.0	26.2	2.2	0.0	34.6	3.0	0.0	20.2	7.5	1.5	4.8
35~39세	4.8	100.0	28.4	6.4	0.0	23.8	6.4	0.0	0.0	6.3	14.4	14.3
- 19~34세	10.0	100.0	39.8	5.6	1.7	10.0	0.6	0.0	14.0	6.3	9.3	12.7
- 19~39세	8.3	100.0	36.9	5.9	1.3	11.8	1.9	0.0	11.2	6.2	11.2	13.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주거 관련 필요한 정책

❍ 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32.3%) 〉 전세자금 대출(22.0%) 〉 주거비(월세) 지원(19.5%) 〉 청년주택 공급모델 다양화(16.6%) 순으로 나타남

[표 4-32] 청년 주거 관련 필요한 정책

(단위: %)

구 분	계	주거 관련 필요한 정책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주거비 (월세) 지원	청년주택 공급모델 다양화	주거 상담 등 정보 제공	주거 관련 (임대차 계약 등) 교육	기타
청년(15~39세)	100.0	32.3	22.0	19.5	16.6	4.2	4.4	1.0
권역별								
조치원읍	100.0	32.5	18.4	29.6	12.9	3.1	3.4	0.0
면지역	100.0	37.3	13.5	27.9	14.3	3.0	3.9	0.0
동지역	100.0	31.8	23.2	17.4	17.3	4.5	4.6	1.2
성별								
남자	100.0	34.7	18.6	20.2	16.0	4.8	4.7	1.0
여자	100.0	30.0	25.2	18.7	17.2	3.7	4.2	0.9
연령								
15~19세	100.0	38.5	7.1	29.9	14.9	4.1	5.6	0.0
20~24세	100.0	38.3	11.4	25.1	17.5	3.0	4.7	0.0
25~29세	100.0	35.0	15.8	20.2	18.9	3.9	5.5	0.7
30~34세	100.0	28.6	31.4	16.2	15.2	3.5	3.6	1.6
35~39세	100.0	25.6	35.2	10.6	17.5	5.9	3.4	1.8
- 19~34세	100.0	34.4	20.6	20.0	16.5	3.5	4.3	0.8
- 19~39세	100.0	31.6	25.2	17.0	16.8	4.2	4.0	1.2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면 지역(37.3%), 15~19세(38.5%), 20~24세(3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저연령층과 읍·면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수요가 크게 나타남
- 전세자금 대출은 30~34세(31.4%), 35~39세(35.2%)에서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지원형 주거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주거비(월세) 지원은 조치원읍(29.6%)과 면 지역(27.9%)에서 동 지역(17.4%)보다 높아, 읍·면 지역 청년의 월세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결혼관: 결혼에 대한 인식

❍ 청년층의 결혼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성별·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과 저연령층에서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였으나,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도 28.7%로 나타나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인식도 적지 않음
- 성별로는 남성의 '해야 한다' 응답이 70.8%로 여성(59.8%)보다 11.0%p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32.8%로 남성(24.3%)보다 높아 성별 인식 차이가 확인됨
- 연령별로는 20~24세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35~39세에서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3] 청년 결혼관_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계	결혼에 대한 인식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청년(15~39세)	100.0	65.1	6.2	28.7
권역별				
조치원읍	100.0	58.7	10.3	31.0
면지역	100.0	66.0	12.1	21.8
동지역	100.0	65.8	5.1	29.0
성별				
남자	100.0	70.8	4.9	24.3
여자	100.0	59.8	7.4	32.8
연령				
15~19세	100.0	61.7	6.4	31.9
20~24세	100.0	58.1	7.5	34.4
25~29세	100.0	66.5	7.9	25.5
30~34세	100.0	67.2	5.9	26.9
35~39세	100.0	69.0	4.3	26.6
- 19~34세	100.0	65.0	6.8	28.2
- 19~39세	100.0	66.3	5.9	27.8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결혼관: 적정 결혼 연령

○ 적정 결혼 연령으로는 '만 30~34세'가 67.5%로 가장 높고, '만 25~29세'가 21.9%로 나타나, 청년의 대부분이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적정 결혼 연령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녀 모두 '만 30~34세'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68.5%, 남성은 66.6%로 나타남. 다만 '만 35~39세'를 적정 연령으로 보는 비율은 남성(10.9%)이 여성(6.2%)보다 높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늦은 결혼도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권역별로는 면 지역에서 '만 35~39세' 응답이 13.8%로 조치원읍(7.5%), 동 지역(8.3%)보다 높아, 면 지역 청년이 상대적으로 늦은 연령대의 결혼을 적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4-34] 청년 결혼관_적정 결혼 연령

(단위: %)

구 분	결혼해야 한다 비율	계	적정 결혼 연령				
			만25세 미만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만40세 이상
청년(15~39세)	65.1	100.0	1.2	21.9	67.5	8.6	0.7
권역별							
조치원읍	58.7	100.0	0.5	20.0	71.6	7.5	0.4
면지역	66.0	100.0	0.9	22.3	59.8	13.8	3.1
동지역	65.8	100.0	1.3	22.1	67.7	8.3	0.6
성별							
남자	70.8	100.0	1.3	20.2	66.6	10.9	1.1
여자	59.8	100.0	1.0	23.9	68.5	6.2	0.4
연령							
15~19세	61.7	100.0	1.5	34.8	60.1	3.6	0.0
20~24세	58.1	100.0	0.0	19.8	73.0	6.9	0.3
25~29세	66.5	100.0	1.2	16.3	71.9	8.4	2.2
30~34세	67.2	100.0	1.8	18.3	67.5	11.6	0.8
35~39세	69.0	100.0	1.0	20.5	67.3	10.6	0.5
- 19~34세	65.0	100.0	1.4	18.6	70.0	8.9	1.0
- 19~39세	66.3	100.0	1.3	19.5	68.8	9.6	0.8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시사점)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층의 적정 결혼 연령 인식이 3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혼인·가족형성 지원정책에서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주거·일자리·경제적 기반 형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결혼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사유

❍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사유에 대한 질문에 '자유로운 삶 포기 어려움'이 37.0%로 가장 높아 **결혼으로 인한 개인 자유 제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35] 청년 결혼관_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단위: %)

구 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비율	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결혼 비용	출산·양육 자녀교육 문제	불안정한 직장	자유로운 삶 포기 어려움	새로운 가족관계 간 적응 문제	기타
청년(15~39세)	6.2	100.0	24.6	26.2	7.5	37.0	1.8	2.9
권역별								
조치원읍	10.3	100.0	27.1	27.2	3.3	37.4	0.0	4.9
면지역	12.1	100.0	24.3	29.4	0.0	40.3	2.3	3.6
동지역	5.1	100.0	24.0	25.3	10.1	36.2	2.2	2.3
성별								
남자	4.9	100.0	31.1	32.5	5.7	29.2	0.0	1.5
여자	7.4	100.0	20.5	22.2	8.6	41.9	3.0	3.8
연령								
15~19세	6.4	100.0	15.5	28.8	0.0	48.6	7.1	0.0
20~24세	7.5	100.0	25.2	3.0	29.2	41.1	0.0	1.5
25~29세	7.9	100.0	24.3	21.6	11.2	37.7	0.0	5.2
30~34세	5.9	100.0	33.2	24.9	0.0	34.9	0.0	7.0
35~39세	4.3	100.0	24.2	52.4	0.0	21.6	1.8	0.0
- 19~34세	6.8	100.0	26.5	16.9	11.3	40.4	0.0	4.8
- 19~39세	5.9	100.0	26.8	25.3	8.3	35.4	0.5	3.7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성별로는 남성은 '결혼비용(31.1%)'과 '출산·양육·자녀교육 문제(32.5%)'를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자유로운 삶 포기 어려움(41.9%)'이 압도적으로 높아**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원인이 성별로 뚜렷하게 다름
- 연령별로는 35~39세에서 '출산·양육·자녀교육 문제(52.4%)'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양육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연령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혼 지원 대책

❍ 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결혼 지원 대책은 '주거안정 강화(주택 특별공급, 대출 지원, 청약 개선 등)'가 68.5%로 압도적으로 높아,** 결혼 지원 정책에서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은 15.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치원읍(20.6%)과 15~19세(19.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식 비용 지원'은 7.1%로 나타났으며, 20~24세(8.4%), 25~29세(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전반적으로 청년의 결혼 지원 수요는 인식 개선이나 만남 기회 제공보다 주거안정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가족형성 지원정책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임을 시사함

- 이는 앞서 청년 주거정책 수요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 흐름으로, 청년의 정착과 결혼·가족형성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영역으로 주거정책의 중요성이 확인됨

[표 4-36]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혼 지원 대책

(단위: %)

구 분	계	결혼 지원 대책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만남의 기회 제공(미혼 남·여 만남의 장 등)	혼인 증여세 공제 확대	결혼식 비용 지원	결혼식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 확대(예식장 등)	주거안정강화 (주택 특별 공급, 대출 지원, 청약 개선 등)	기타
청년(15~39세)	100	15	4.6	3.1	7.1	1.5	68.5	0.2
권역별								
조치원읍	100	20.6	3.1	0.5	13.7	0.3	61.5	0.3
면지역	100	14	11.3	1.5	8.4	4.2	60.7	0
동지역	100	14.4	4.2	3.6	6.1	1.4	70.1	0.2
성별								
남자	100	16	5.6	3.4	6.8	1	67	0.2
여자	100	14.1	3.7	2.9	7.3	1.9	69.9	0.3
연령								
15~19세	100	19.9	1.6	2.7	9.9	1	65.1	0
20~24세	100	9.6	3	2.8	8.4	2	74.2	0
25~29세	100	13.4	6.6	0.7	8.8	1.2	68.7	0.7
30~34세	100	14.9	5.6	6.6	4.5	2.6	65.7	0.1
35~39세	100	15.3	5.8	2.2	5.4	0.6	70.4	0.3
- 19~34세	100	13.1	5	3.9	6.7	2	69	0.2
- 19~39세	100	14	5.3	3.2	6.3	1.5	69.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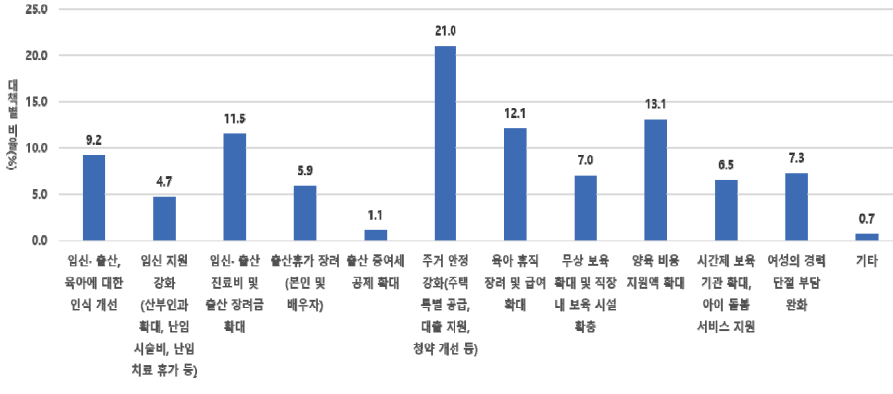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임신·출산·육아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대책

❍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대책으로는 주거안정 강화(21.0%) 〉 양육비용 지원 확대(13.1%) 〉 육아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12.1%) 〉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장려금 확대(11.5%) 순으로 나타남

- 주거안정 강화는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특히 15~19세(25.1%), 20~24세(24.3%)에서 높게 나타남
- 양육비용 지원 확대는 20~24세(15.8%), 35~39세(1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는 여성 11.0%, 남성 3.3%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여성 청년이 경력 유지와 돌봄 병행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시사점) **청년의 임신·출산·육아 정책수요는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되지 않고 주거·양육비·육아휴직·경력유지 등 생활기반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단일 지원보다 생애과정에 맞춘 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그림 4-56] 임신·출산·육아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대책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37] 임신·출산·육아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대책

(단위: %)

구 분	계	임신·출산·육아 대책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임신 지원강화 (산부인과 확대, 난임 시술비, 난임 치료 휴가 등)	임신·출산진료비 및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휴가 장려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증여세 공제 확대	주거 안정강화 (주택특별공급,대출 지원,청약 개선 등)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무상 보육 확대 및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양육 비용지원 액 확대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여성의 경력 단절부담 완화	기타
청년(15~39세)	100.0	9.2	4.7	11.5	5.9	1.1	21.0	12.1	7.0	13.1	6.5	7.3	0.7
권역별													
조치원읍	100.0	12.9	4.1	13.5	8.0	1.9	22.4	8.6	6.8	11.6	4.8	5.0	0.3
면지역	100.0	8.7	6.4	12.3	7.1	2.4	19.2	9.7	6.6	14.2	8.1	5.3	0.2
동지역	100.0	8.8	4.6	11.1	5.6	0.9	20.9	12.7	7.0	13.2	6.6	7.7	0.8
성별													
남자	100.0	11.2	3.8	12.3	6.9	1.7	24.3	11.1	6.7	13.2	5.1	3.3	0.4
여자	100.0	7.3	5.5	10.7	5.1	0.6	17.8	13.0	7.2	12.9	7.8	11.0	1.0
연령													
15~19세	100.0	12.7	3.7	11.2	6.7	1.9	25.1	8.8	8.9	11.9	4.0	5.1	0.2
20~24세	100.0	7.8	3.0	12.7	7.8	1.2	24.3	10.0	5.6	15.8	3.5	8.2	0.0
25~29세	100.0	8.6	4.5	12.2	6.6	1.3	21.2	12.1	4.9	11.9	7.3	8.6	0.7
30~34세	100.0	9.2	4.7	12.7	5.1	1.2	17.1	15.1	8.0	10.8	7.4	7.5	1.2
35~39세	100.0	7.5	6.5	9.4	4.6	0.3	19.1	13.0	6.7	15.2	8.9	7.5	1.1
- 19~34세	100.0	9.1	4.3	12.1	6.3	1.3	20.1	13.0	6.5	12.3	6.1	8.2	0.7
- 19~39세	100.0	8.5	5.0	11.1	5.8	1.0	19.8	13.1	6.6	13.3	7.0	7.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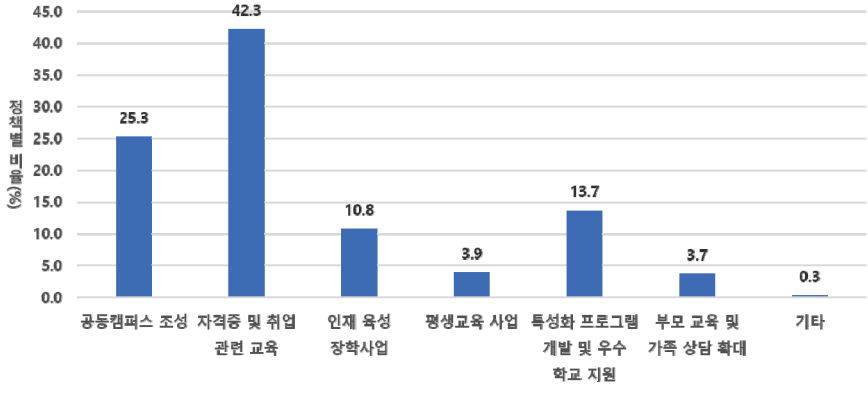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 청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자격증 및 취업 관련 교육'(42.3%) 〉 '공동캠퍼스 조성'(25.3%)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학교 지원'(13.7%) 순으로 나타나, 취업·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음

- '자격증 및 취업 관련 교육'은 면 지역(56.5%), 20~24세(50.1%), 25~29세(53.6%)에서 높아, 취업 준비·초기 노동시장 진입 연령층과 면 지역 청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공동캠퍼스 조성'은 동 지역(27.1%), 30~34세(3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학교 지원'은 여성(15.4%)이 남성(11.8%)보다 높고, 35~39세에서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청년의 교육정책 수요는 단순한 교육기회 확대보다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실용적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과 생활권에 따라 공동캠퍼스·특성화 교육 등 수요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7] 청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38] 청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단위: %)

구 분	계	청년 교육 정책 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자격증 및 취업 관련 교육	인재 육성 장학사업	평생교육 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학교 지원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 확대	기타
청년(15~39세)	100.0	25.3	42.3	10.8	3.9	13.7	3.7	0.3
권역별								
조치원읍	100.0	19.9	49.8	10.5	4.3	11.6	3.5	0.4
면지역	100.0	11.8	56.5	13.8	4.1	9.7	4.1	0.0
동지역	100.0	27.1	40.1	10.6	3.8	14.3	3.7	0.3
성별								
남자	100.0	27.5	43.5	10.1	3.3	11.8	3.4	0.3
여자	100.0	23.2	41.2	11.4	4.4	15.4	4.0	0.3
연령								
15~19세	100.0	29.9	41.8	10.3	0.7	14.5	2.0	0.9
20~24세	100.0	17.0	50.1	12.9	7.2	10.0	2.5	0.3
25~29세	100.0	20.0	53.6	8.6	5.2	7.3	5.4	0.0
30~34세	100.0	30.7	36.3	10.0	4.8	13.9	4.3	0.0
35~39세	100.0	24.9	36.5	12.1	2.9	18.9	4.3	0.3
- 19~34세	100.0	25.5	44.1	10.5	5.1	10.7	4.0	0.1
- 19~39세	100.0	25.2	41.4	11.2	4.3	13.6	4.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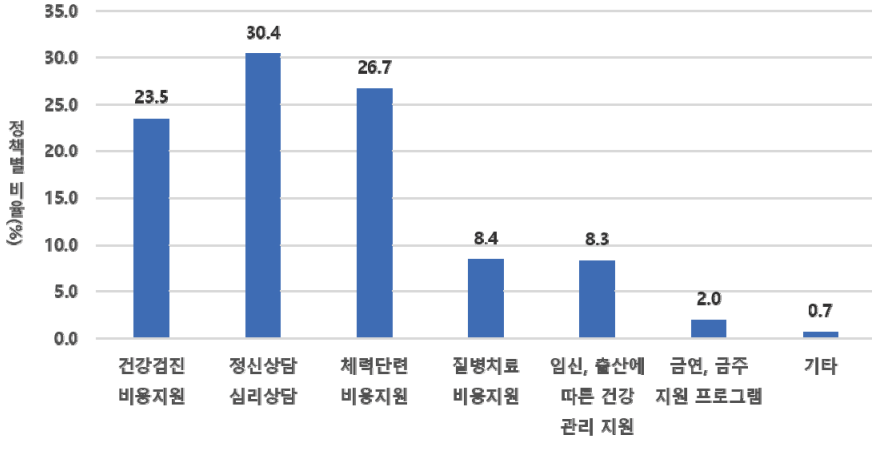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건강을 위한 필요 정책

❍ 청년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신상담·심리상담'이 30.4%로 가장 높아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34.7%)이 남성(25.7%)보다 높고, 15~19세(3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저연령 여성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 수요가 확인됨

- **'정신상담·심리상담'은 성별로는 여성 34.7%, 남성 25.7%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에서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체력단련 비용지원'은 성별로는 남성 30.0%, 여성 23.6%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은 30~34세 17.3%, 35~39세 1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청년 건강정책 수요는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므로, 정신건강 지원을 기본축으로 하되 연령과 생애단계에 따른 맞춤형 건강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4-58] 청년 건강을 위한 필요 정책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39] 청년 건강을 위한 필요 정책

(단위: %)

구 분	계	청년 건강을 위한 필요 정책						
		건강검진 비용지원	정신상담 심리상담	체력단련 비용지원	질병치료 비용지원	임신, 출산에 따른 건강 관리 지원	금연, 금주 지원 프로그램	기타
청년(15~39세)	100.0	23.5	30.4	26.7	8.4	8.3	2.0	0.7
권역별								
조치원읍	100.0	24.2	30.9	26.5	10.4	4.1	3.3	0.6
면지역	100.0	25.0	24.8	31.1	9.2	4.6	4.5	0.8
동지역	100.0	23.3	30.8	26.3	8.1	9.1	1.6	0.8
성별								
남자	100.0	24.9	25.7	30.0	8.4	7.4	2.4	1.2
여자	100.0	22.2	34.7	23.6	8.4	9.1	1.6	0.3
연령								
15~19세	100.0	19.3	35.5	29.7	10.8	1.1	3.1	0.6
20~24세	100.0	31.1	30.3	24.5	8.0	2.0	3.3	0.9
25~29세	100.0	19.7	32.1	33.9	6.5	6.3	0.5	1.0
30~34세	100.0	23.9	24.3	24.8	7.3	17.3	1.6	0.8
35~39세	100.0	24.7	30.7	22.7	8.9	10.6	1.8	0.6
- 19~34세	100.0	24.2	28.2	27.8	7.6	9.7	1.6	0.9
- 19~39세	100.0	24.6	28.9	26.0	8.1	9.9	1.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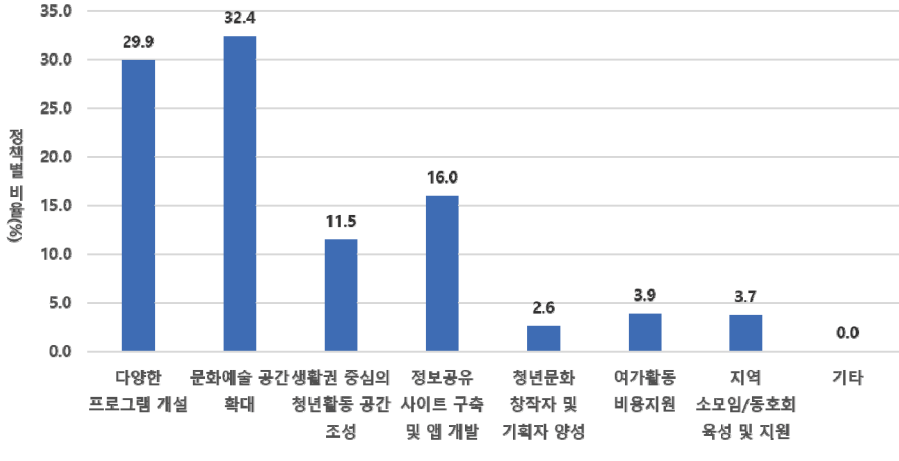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

❍ 청년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문화예술 공간 확대'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29.9%,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및 앱 개발' 16.0%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공간 확대'는 성별로는 여성 35.1%, 남성 29.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 38.8%, 35~39세 40.3%로 높게 나타남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은 권역별로는 조치원읍 46.9%, 면지역 43.0%, 동지역 26.6%로 나타남
-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및 앱 개발' 항목은 성별로는 여성 19.5%, 남성 12.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34세, 35~39세 모두 20.3%로 나타남

❍ (시사점) 청년 문화·여가 정책은 생활권과 연령에 따라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동 지역은 문화예술 공간 확충, 읍·면 지역은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그림 4-59] 청년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40] 청년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

(단위: %)

구 분	계	청년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문화예술 공간 확대	생활권 중심의 청년활동 공간 조성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및 앱 개발	청년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여가활동 비용지원	지역 소모임/동호회 육성 및 지원	기타
청년(15~39세)	100.0	29.9	32.4	11.5	16.0	2.6	3.9	3.7	0.0
권역별									
조치원읍	100.0	46.9	16.2	14.9	9.3	3.1	5.2	4.3	0.2
면지역	100.0	43.0	20.4	7.8	14.7	5.0	5.9	3.2	0.0
동지역	100.0	26.6	35.5	11.4	17.0	2.3	3.6	3.6	0.0
성별									
남자	100.0	34.8	29.6	12.5	12.3	3.5	4.4	2.9	0.0
여자	100.0	25.4	35.1	10.4	19.5	1.7	3.4	4.4	0.0
연령									
15~19세	100.0	31.5	26.9	20.1	7.6	3.7	7.0	3.2	0.0
20~24세	100.0	32.5	25.3	18.8	13.1	3.6	3.4	3.0	0.1
25~29세	100.0	33.4	24.4	13.4	16.1	2.3	5.1	5.3	0.0
30~34세	100.0	25.7	38.8	4.1	20.3	2.6	4.2	4.4	0.0
35~39세	100.0	28.8	40.3	5.9	20.3	1.2	0.9	2.7	0.0
- 19~34세	100.0	29.5	31.0	11.0	16.7	3.2	4.4	4.2	0.0
- 19~39세	100.0	29.0	34.3	9.2	18.0	2.6	3.2	3.7	0.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미취업 기간: 미취업 기간 동안 주로 한 활동**

○ 미취업 기간 동안 주로 한 활동으로는 '가사,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여행, 독서 또는 집에서 그냥 시간 보냄' 18.5%,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 다님' 14.3% 순으로 나타남

- '여행, 독서 또는 집에서 그냥 시간 보냄'은 18.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15~19세(56.8%), 20~24세(38.6%) 등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 연령대의 미취업이 구직 준비보다 유예 상태**에 가까움을 시사함
-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 다님'은 25~29세(35.8%), 30~34세(20.1%)에서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구직 준비는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집중됨
- 면지역은 '구직활동(37.8%)'이 타 권역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읍·면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을 시사함

○ (시사점) 미취업 청년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구직활동, 시험준비, 직업역량 개발, 돌봄·가사, 비구직·유예 등 상태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취업 지원보다 미취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돌봄·가사형에는 경력복귀와 유연근무, 구직활동형에는 일자리 매칭, 시험준비형에는 진로전환 지원, 비구직·유예형에는 진로탐색과 사회참여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4-41] 미취업 기간_미취업 기간 동안 주로 한 활동

(단위: %)

구 분	계 (전직 있는 미취업자)	미취업 기간 동안 주로 한 활동						
		구직활동	직업교육 (훈련받음)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 도서관 다님	여행, 독서 또는 집에서 그냥 시간 보냄	가사,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가족의 일 도와줌	기타
청년(15~39세)	100.0	11.1	2.8	14.3	18.5	38.3	0.0	15.0
권역별								
조치원읍	100.0	20.8	5.6	8.4	12.4	21.9	0.0	31.0
면지역	100.0	37.8	0.0	18.8	12.5	11.5	0.0	19.4
동지역	100.0	7.1	2.5	15.1	20.2	43.6	0.0	11.4
성별								
남자	100.0	18.8	0.5	25.6	28.2	0.0	0.0	26.8
여자	100.0	7.2	4.0	8.5	13.5	57.9	0.0	8.9
연령								
15~19세	100.0	0.0	0.0	0.0	56.8	0.0	0.0	43.2
20~24세	100.0	3.1	2.4	4.4	38.6	0.7	0.0	50.8
25~29세	100.0	11.9	0.0	35.8	25.8	17.4	0.0	9.1
30~34세	100.0	17.1	0.0	20.1	6.8	49.6	0.0	6.5
35~39세	100.0	12.9	7.2	4.0	4.5	71.5	0.0	0.0
- 19~34세	100.0	9.8	1.0	19.3	24.5	23.4	0.0	22.0
- 19~39세	100.0	11.0	3.2	13.4	17.0	41.0	0.0	14.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취업'이 88.0%로 압도적으로 높아 대부분의 **미취업 청년이 창업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희망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35~39세(21.5%), 30~34세(18.9%), 25~29세(16.3%) 순으로 나타남. 이는 **경력과 경험이 축적될수록 창업 의향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해석됨
- 면지역은 창업 희망(3.9%)이 조치원읍(12.3%), 동지역(12.5%)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표 4-42]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구 분	계 (일자리 희망자)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취업	창업
청년(15~39세)	100.0	88.0	12.0
권역별			
조치원읍	100.0	87.7	12.3
면지역	100.0	96.1	3.9
동지역	100.0	87.5	12.5
성별			
남자	100.0	89.6	10.4
여자	100.0	86.6	13.4
연령			
15~19세	100.0	94.0	6.0
20~24세	100.0	90.3	9.7
25~29세	100.0	83.7	16.3
30~34세	100.0	81.1	18.9
35~39세	100.0	78.5	21.5
- 19~34세	100.0	86.9	13.1
- 19~39세	100.0	85.0	15.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희망하는 직장(일) 유형

○ 청년이 희망하는 직장 유형은 대기업(28.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5.9%) 〉 공기업(21.3%) 〉 중소기업(10.5%) 〉 개인사업체(7.6%)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표 4-43] 희망하는 직장(일) 유형

(단위: %)

구 분	취업 희망 비율	계 (취업 희망자)	희망하는 직장(일) 유형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	비영리 기관·단체	대기업	중소 기업	개인 사업체
청년(15~39세)	88.0	100.0	25.9	21.3	6.6	28.1	10.5	7.6
권역별								
조치원읍	87.7	100.0	21.4	16.0	6.5	31.5	19.0	5.5
면지역	96.1	100.0	26.3	15.3	0.7	30.2	22.3	5.2
동지역	87.5	100.0	26.5	22.6	7.1	27.4	8.3	8.1
성별								
남자	89.6	100.0	24.1	21.7	2.7	36.1	10.7	4.7
여자	86.6	100.0	27.5	21.0	10.3	20.6	10.3	10.3
연령								
15~19세	94.0	100.0	26.0	17.0	5.4	36.9	8.7	6.0
20~24세	90.3	100.0	25.0	25.3	8.1	32.5	6.8	2.3
25~29세	83.7	100.0	26.1	25.2	7.9	23.3	12.3	5.2
30~34세	81.1	100.0	21.8	24.0	5.4	19.1	19.4	10.4
35~39세	78.5	100.0	30.4	21.1	7.2	4.4	13.6	23.3
- 19~34세	86.9	100.0	25.1	25.1	7.3	26.0	10.9	5.5
- 19~39세	85.0	100.0	26.1	24.0	7.3	21.7	11.4	9.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대기업은 남성(36.1%)이 여성(20.6%)보다 높았으며, 15~19세(36.9%), 20~24세(32.5%) 등 저연령층에서 선호가 높고, 35~39세에서는 4.4%로 크게 낮아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5~39세에서 30.4%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은 20~24세(25.3%), 25~29세(2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은 30~34세에서 19.4%, 개인사업체는 35~39세에서 23.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 직장 유형이 보다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 생활권별로는 면 지역에서 취업 희망 비율이 96.1%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선호도 22.3%로 조치원읍(19.0%), 동 지역(8.3%)보다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청년의 직장 선호는 연령과 생활권에 따라 차별화되어, 저연령층은 대기업·공기업 등 선호가 강함. 반면, 30대 이후에는 공공부문·중소기업·개인사업체 등으로 선택지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정책도 연령별 노동시장 진입 단계와 생활권별 기업 구조를 고려한 차별화된 취업·창업 연계가 필요함

□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중소기업 취업 의향으로는 '있다'는 응답이 52.0%로 과반을 차지하나, '없다'는 응답도 48.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양분**되어 있음

- 권역별로는 조치원읍(68.5%), 면 지역(59.7%)이 동 지역(49.0%)보다 높게 나타나, 읍·면 지역 청년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더 개방적임을 시사함

- 성별로는 남성(56.2%)이 여성(48.2%)보다 높게 나타남

[표 4-44]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

구 분	계 (일자리 희망자)	중소기업 취업 의향	
		있다	없다
청년(15~39세)	100.0	52.0	48.0
권역별			
조치원읍	100.0	68.5	31.5
면지역	100.0	59.7	40.3
동지역	100.0	49.0	51.0
성별			
남자	100.0	56.2	43.8
여자	100.0	48.2	51.8
연령			
15~19세	100.0	50.5	49.5
20~24세	100.0	56.3	43.7
25~29세	100.0	48.2	51.8
30~34세	100.0	56.3	43.7
35~39세	100.0	49.3	50.7
- 19~34세	100.0	52.8	47.2
- 19~39세	100.0	52.5	47.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

❍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으로는 '세종시 외'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내' 32.6%, '내·외 상관없음' 22.3%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24세 54.7%, 15~19세 52.7%가 세종시 외 일자리를 더 선호했고, 30~34세 53.7%, 35~39세 60.5%는 세종시 내 일자리를 더 선호함
- 성별로는 여성(38.8%)이 남성(25.7%)보다 세종시 내 일자리 희망 비율이 높으며, 남성(47.5%)은 세종시 외 희망이 여성(42.9%)보다 높게 나타남
- 조치원읍은 세종시 외 희망(51.6%)이 타 권역보다 높아 **읍 지역 청년의 외부 일자리 이탈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시사함

[표 4-45]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

(단위: %)

구 분	계 (일자리 희망자)	희망 일자리 지역		
		세종시 내	세종시 외	내·외 상관없음
청년(15~39세)	100.0	32.6	45.1	22.3
권역별				
조치원읍	100.0	28.1	51.6	20.2
면지역	100.0	32.6	42.0	25.5
동지역	100.0	33.2	44.4	22.4
성별				
남자	100.0	25.7	47.5	26.8
여자	100.0	38.8	42.9	18.3
연령				
15~19세	100.0	21.7	52.7	25.6
20~24세	100.0	24.4	54.7	20.9
25~29세	100.0	30.8	45.3	23.9
30~34세	100.0	53.7	24.3	22.0
35~39세	100.0	60.5	25.2	14.3
- 19~34세	100.0	32.7	45.5	21.8
- 19~39세	100.0	38.9	41.0	20.1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세종시 외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

❍ 세종시 외 희망 일자리 지역으로는 '서울'이 49.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경기' 27.1%, '대전' 14.3%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은 연령별로는 15~19세 64.2%로 가장 높았으며, 35~39세 25.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전'은 연령별로는 35~39세 37.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인천·경기'는 조치원읍에서 46.0%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충남'은 면지역이 11.8%로 타 권역 대비 높아 인근 충남으로의 이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표 4-46] 세종시 외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

(단위: %)

구 분	계 (세종시 외 일자리 희망자)	세종시 외 일자리 희망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기타
청년(15~39세)	100.0	49.1	27.1	14.3	4.0	1.3	4.2
권역별							
조치원읍	100.0	37.3	46.0	5.2	3.5	4.8	3.1
면지역	100.0	33.4	30.7	10.8	11.8	3.6	9.6
동지역	100.0	52.1	23.7	16.0	3.6	0.5	4.1
성별							
남자	100.0	51.0	30.5	9.8	5.0	1.3	2.5
여자	100.0	47.2	23.7	18.7	3.0	1.3	6.0
연령							
15~19세	100.0	64.2	26.1	4.3	2.1	0.7	2.6
20~24세	100.0	42.5	33.9	15.3	7.1	0.4	0.8
25~29세	100.0	36.7	19.0	24.2	0.9	3.4	15.8
30~34세	100.0	31.8	30.0	25.9	8.0	2.3	1.9
35~39세	100.0	25.6	22.7	37.6	6.7	2.9	4.5
- 19~34세	100.0	41.4	28.9	17.8	4.6	1.6	5.7
- 19~39세	100.0	39.5	28.6	20.3	4.5	1.6	5.6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지원 사업 인지도

❍ 청년 지원 사업 인지도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아 **세종시 청년지원사업의 홍보·전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19세(93.5%)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소폭 상승하나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모르는 수준임
- 성별로는 남성(80.6%)이 여성(74.7%)보다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권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동지역(78.1%)이 조치원읍(74.3%), 면지역(76.2%)보다 인지도가 소폭 낮게 나타남

[표 4-47] 청년 지원 사업 인지도

(단위: %)

구 분	계	청년 지원 사업 인지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름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청년(15~39세)	100.0	22.5	1.1	21.3	77.5	52.5	25.1
권역별							
조치원읍	100.0	25.7	1.3	24.4	74.3	53.6	20.7
면지역	100.0	23.8	1.8	22.0	76.2	52.5	23.7
동지역	100.0	21.9	1.0	20.9	78.1	52.3	25.7
성별							
남자	100.0	19.4	1.6	17.8	80.6	52.0	28.6
여자	100.0	25.3	0.7	24.6	74.7	53.0	21.7
연령							
15~19세	100.0	6.5	0.0	6.5	93.5	53.9	39.6
20~24세	100.0	25.1	1.4	23.7	74.9	50.4	24.5
25~29세	100.0	30.2	2.3	27.8	69.8	50.2	19.6
30~34세	100.0	27.2	1.6	25.6	72.8	54.5	18.3
35~39세	100.0	24.3	0.6	23.6	75.7	52.2	23.6
- 19~34세	100.0	26.4	1.7	24.7	73.6	53.2	20.5
- 19~39세	100.0	25.6	1.3	24.3	74.4	52.9	21.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희망 지원 사업 분야

❍ 가장 우선으로 희망하는 청년 지원 사업 분야로는 '취업' 지원이 36.8%로 가장 높아 일자리 관련 지원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세(47.7%), 면지역(42.2%)에서 높게 나타남

- '주거' 지원은 26.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25~29세(34.7%), 30~34세(34.6%) 등 **독립·결혼 시기 연령대에서 수요가 집중**됨
- '문화·예술' 지원은 9.6%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15~19세(17.4%)에서 두드러지게 높아 **저연령층의 문화 향유 지원 수요**를 반영함
- '자산형성' 지원은 9.1%로 나타났으며, 20~24세(12.3%), 30~34세(1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 진입 초기와 가정 형성 시기에 자산 축적 지원 수요가 높음을 시사함

❍ 전반적으로 취업·주거 지원이 청년지원사업의 핵심 수요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 취업(저연령)→주거(중간연령)→복지·건강(고연령) 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남

[표 4-48] 청년 희망 지원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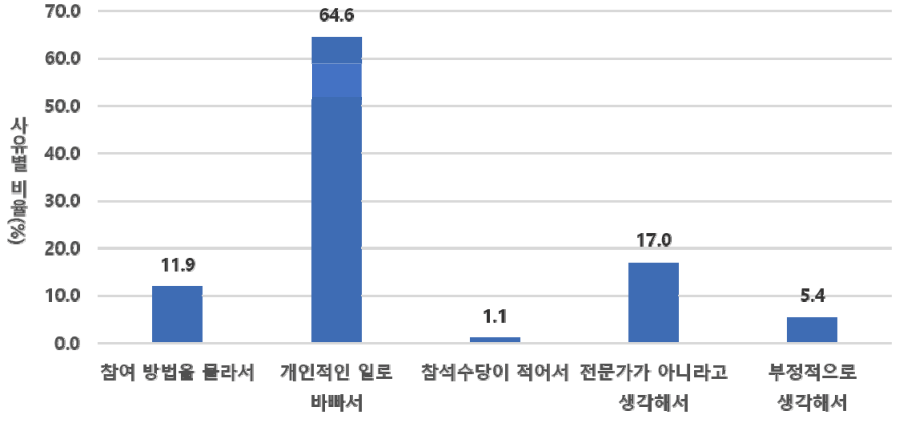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계	희망 청년 지원 사업 분야							
		취업	창업	주거	복지·건강	교육	문화·예술	참여·권리	자산형성
청년(15~39세)	100.0	36.8	5.0	26.0	8.1	4.9	9.6	0.5	9.1
권역별									
조치원읍	100.0	34.1	5.2	31.7	8.6	2.4	6.9	0.4	10.7
면지역	100.0	42.2	6.5	28.5	6.4	2.0	5.7	0.6	8.1
동지역	100.0	36.6	4.8	25.1	8.2	5.5	10.3	0.5	9.0
성별									
남자	100.0	37.5	5.6	27.6	5.9	4.5	9.1	0.8	9.0
여자	100.0	36.1	4.3	24.5	10.2	5.3	10.2	0.2	9.2
연령									
15~19세	100.0	41.4	4.1	15.4	7.2	10.0	17.4	1.1	3.5
20~24세	100.0	47.7	6.8	15.5	5.9	3.6	7.2	0.8	12.3
25~29세	100.0	33.2	6.3	34.7	5.9	1.3	7.8	0.1	10.6
30~34세	100.0	28.7	4.5	34.6	10.4	1.6	7.7	0.0	12.5
35~39세	100.0	36.4	4.1	27.0	9.3	6.9	7.8	0.6	7.7
- 19~34세	100.0	35.6	5.7	29.2	7.6	2.1	8.1	0.3	11.5
- 19~39세	100.0	35.9	5.2	28.2	8.2	3.8	8.1	0.4	10.2

□ 위원회 참여 의향 및 사유

❍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참여 의향으로는 '없다'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의 위원회 등 **공식적 사회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가 64.6%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17.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는 **시간 부족과 함께 청년 스스로 정책 참여 주체로서의 자신감이 부족함을** 시사함
-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여성(19.3%)이 남성(14.6%)보다 높고, 20~24세(19.4%), 25~29세(2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면지역은 '참여 방법을 몰라서'(18.8%)가 타 권역 대비 높아 읍·면 지역의 참여 정보 접근성 부족이 추가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60] 위원회 참여 의향 없는 사유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4-49] 위원회 참여 의향 및 사유

(단위: %)

구 분	계	위원회 참여의향 없다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위원회 참여의향 있다
			소계	참여 방법을 몰라서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참석수당이 적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청년(15~39세)	100.0	92.7	100.0	11.9	64.6	1.1	17.0	5.4	7.3
권역별									
조치원읍	100.0	90.6	100.0	13.0	63.7	0.3	15.8	7.1	9.4
면지역	100.0	95.0	100.0	18.8	62.3	0.5	12.3	6.1	5.0
동지역	100.0	92.7	100.0	11.1	65.0	1.2	17.6	5.1	7.3
성별									
남자	100.0	91.7	100.0	12.1	65.1	1.3	14.6	7.0	8.3
여자	100.0	93.6	100.0	11.8	64.2	0.9	19.3	3.8	6.4
연령									
15~19세	100.0	92.1	100.0	16.5	69.1	1.4	10.1	2.9	7.9
20~24세	100.0	95.2	100.0	15.2	56.6	1.0	19.4	7.7	4.8
25~29세	100.0	92.6	100.0	12.0	62.1	1.6	20.4	4.0	7.4
30~34세	100.0	91.9	100.0	10.0	63.3	1.3	17.6	7.8	8.1
35~39세	100.0	92.5	100.0	8.0	68.6	0.3	18.5	4.6	7.5
- 19~34세	100.0	92.8	100.0	12.2	61.4	1.2	18.6	6.6	7.2
- 19~39세	100.0	92.7	100.0	10.6	63.9	0.9	18.6	6.0	7.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5장

1절 | 연구결과 SWOT 분석
2절 |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SEJONG RESEARCH INSTITUTE

5장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1절 연구결과 SWOT 분석

1. 내부요인

□ 강점(Strengths)

○ **(시정 5기의 높은 인구·청년·자족경제 정책의지)** 시정 5기는 인구 확대와 자족경제 기반 강화를 주요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유입·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창업·참여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하는 등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청년 정주기반 완성, 산업맞춤형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 농촌전환마을, 청년청 설립 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직접적인 정책목표로 하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젊고 양호한 인구구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연령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부양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 비중도 높아 향후 생산연령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인구학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25~39세 여성, 신혼부부 등 주요 인구집단에서 여전히 일정한 순유입 유지

○ **(행정수도·공공기관·공동캠퍼스 등 차별화된 도시기능)** 다른 지역이 쉽게 갖기 어려운 행정·교육·공공부문 기반 보유

- 또한, 계획도시로서 도시·교통·스마트 인프라의 높은 활용 가능성이 있음

○ **(데이터 기반 정책역량 확보)**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읍·면·동별 인구이동과 청년층의 이동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수립 여건이 강화됨

□ 약점(Weaknesses)

○ **(행복도시 개발·주택공급에 의존한 인구성장 구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정체·감소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기존의 인구성장을 견인했던 청년·가족인구의 유입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청년 순이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입·전출 규모가 근접
- 15~49세 및 25~39세 여성의 순유입도 최근 축소

○ **(읍·면과 동 지역 간 인구·생활여건 격차)** 동 지역의 인구성장과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시 전체 인구지표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역 내부의 인구구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동 지역의 청년 순유입과 읍·면 지역 청년·청년여성 감소가 동시에 나타남
- 읍·면의 소멸위험 심화

○ **(자족적 산업·민간 일자리 기반의 상대적 부족)** 세종시는 공공부문 중심의 도시성장 구조로 인해 인구규모에 비해 민간 산업·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직업이 전입·전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30대의 유입과 장기정착을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업유치·창업 등 자족적 민간 일자리 기반의 확충이 요구됨
-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수요조사에서도 공공부문에 편중된 일자리 구조와 배우자 구직의 어려움이 가족동반 이주와 장기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제시됨(양원탁·이원도, 2026: 88, 96)

○ **(청년·주거·산업·출산 등 인구관련 정책의 분절적 추진)** 청년·일자리·주거·산업·출산·돌봄 등 인구와 밀접한 정책이 여러 부서와 사업으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인구유입에서 정착·가족형성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 중심의 정책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직업·가족·주택이 주요 인구이동 사유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분야별 정책을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계·조정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청년지원사업 미인지율이 77.5%로 조사됨. 정책 공급과 체감 사이의 격차 드러남

2. 외부요인

□ 기회(Opportunities)

○ **(국가균형성장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본격화와 행정수도 완성 논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은 세종시의 국가적 기능과 충청권 내 중심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인구·기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요인임

- 특히 국회세종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분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예상 이전 인원은 정원 기준 4,543명(현원 5,671명, 유관기관·단체 제외), 국회 출장인원은 연간 약35.8만 명으로 추정됨(국회사무처, 2022; 양원탁·이원도, 2026: 17~18 재인용)

○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은 국가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추가 유입 가능성을 확대하며, 세종시의 행정·정책 기능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인구유입 기반으로 활용 가능함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추가 이전 확정(2026년 9월)

○ **(국가·초광역 재원 확대)** 포괄보조 및 초광역 재원의 확대는 세종시의 제한된 자체재원을 보완하고, 청년 일자리·주거·생활SOC 등 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기회로 작용함

○ **(공동캠퍼스·대학가형 복합공간 등 청년 유입거점 확대)** 공동캠퍼스의 단계적 확대와 집현동 대학가형 복합공간 조성계획은 대학생·청년·전문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교육 목적의 체류인구를 장기 정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시정 5기 출범에 따른 기존 정책체계 재설계의 정책적 기회)** 시정 5기가 인구 확대와 자족경제 기반 강화, 청년 정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기존 청년·일자리·주거·산업·출산·돌봄 정책을 '인구 유입과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특히 새로운 공약과 시정과제의 구체화 과정은 개별사업 중심의 인구정책을 도시개발·산업·주거·교통과 연계하는 구조적 정책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위협(Threats)**

○ **(청년 수도권 집중 및 저출생 지속)** 수도권의 일자리·교육·문화기능 집중과 전국적인 혼인·출산 지연은 세종시 청년의 유출과 자연증가 둔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협요인임

- 특히 저연령 청년의 수도권 선호와 교육 목적 유출 지속

○ **(인접 도시·전국 단위 인구·기능 유치경쟁 심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본격화에 따라 전국 및 충청권 내 기관·기업·인재 유치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권 내 행정·경제구조 변화도 세종시의 인구흡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생적 인구성장 모델의 한계)** 기존 혁신도시 및 세종시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국가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화될 수 있어, 추가적인 기관 유치만으로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강원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중 가족동반(26.5%)과 미혼·독신(29.4%)을 합한 실제 이주·정착 비율이 55.9%(2017년 기준) 수준으로, 기관 이전이 곧바로 종사자·가족의 정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줌(양원탁·이원도, 2026: 103)

○ **(재정 및 정책 지속가능성의 제약)** 세종시 자체 재정여건의 제약과 국가·초광역 재원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3. SWOT분석 결과를 고려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

□ SO 전략: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확충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지속가능한 인구정착 기반으로 연결

- 향후 국가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종사자 전입 효과로 보는 데서 벗어나, 배우자 일자리·자녀교육·주거·돌봄 등을 연계한 가족단위 정착 정책으로 전환
- 기관 이전 이후에도 장기거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정착 및 재전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 행정수도 기능 확대가 단순한 공공부문 인구유입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서비스·전문서비스·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 공동캠퍼스와 지역대학을 청년 유입거점에서 정착거점으로 전환

- 공동캠퍼스·지역대학의 교육기능을 지역 일자리와 연결하여 교육 → 일경험 → 취업 → 주거 →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 구축
- 지역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한 일경험 및 취업경로를 확대하고, 대학원·재교육·직업교육 등 후속 교육기회를 지역 내에서 확충
- 교육 목적 청년 유입이 재학기간의 일시적 체류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 정착으로 연결되도록 관리

❍ 국가균형성장과 충청권 초광역 정책을 새로운 인구·산업 성장기회로 활용

- 5극3특 및 충청권 초광역협력을 활용하여 세종 단독의 일자리·교육시장 한계를 대전·청주·오송 등 광역권 차원에서 보완
- 충청권 성장산업과 세종의 행정·연구·교육기능을 연계하여 청년·전문인력 유치기반 강화
- 산업·일자리·주거·교통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행복도시 개발 이후의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마련

□ **ST 전략: 젊은 인구구조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한 재유출 방지와 정착경쟁력 강화**

❍ 20대의 교육·직업 목적 역외유출에 선제 대응

- 20대의 높은 이동성과 교육·직업 목적 전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첫 일자리, 직무경험, 후속교육 기회를 확충
- 수도권 등 역외 전출 청년의 이동사유와 복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유출 대응정책의 근거로 활용

❍ 30대의 정착을 장기적인 인구경쟁력으로 전환

- 순유입을 견인하고 있는 30대가 주거·가족형성·자녀양육을 거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 지원 강화
- 취업·주거·결혼·출산·돌봄을 각각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연속적인 정착과정으로 연계

❍ 일자리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정주경쟁력 강화

- 문화·여가·교통·교육·돌봄 등 생활서비스의 질을 인구정착의 핵심요인으로 관리
- 행정수도, 젊은 도시, 교육·공공서비스 등 세종의 비교우위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과 결합

❍ 전입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정착 중심의 성과관리로 전환

- 단순 인구증가나 전입자 수보다 전입 이후 1년·3년·5년 정착 여부와 재전출을 중심으로 정책성과 관리
- 연령·가구유형·이동사유별 정착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대상을 정교화

□ **WO 전략: 국가균형성장과 시정 5기 정책전환을 활용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

❍ 행복도시 의존형 성장에서 자생적 산업·일자리 기반으로 전환

- 행정기관 이전과 주택공급에 의존해 온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기업·교육·연구기능을 연계한 자족적 일자리 기반 확충

- 5극3특, 초광역협력, 국가산업정책 등을 활용하여 세종의 자체재원과 시장규모 한계를 보완
- 특히 읍·면의 신규 산업·주거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인구수용 기반 마련

○ 분산된 인구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년·일자리·주거·산업·출산·돌봄 등으로 분산된 정책을 '인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계
- 시정 5기 정책재편 과정에서 부서별 사업을 재분류하고 정책 간 중복·공백을 조정
- 사업별 성과보다 인구유입·정착·재유출 등 종합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

○ 생애과정을 기준으로 정책 간 단절 해소

- 청년기부터 취업·주거·가족형성·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연계체계 구축
- 정책대상을 행정상 사업분류가 아니라 시민의 연령·고용상태·가구형성 단계 등에 따라 재구성

○ 정책공급에서 정책도달·정착효과 중심으로 전환

- 사업 수와 참여자 수보다 정책인지도·이용률·취업 후 지역잔존·재전출 감소 등 실제 정착효과를 관리
- 국가·초광역 재원을 단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의 인구정착 수요와 직접 연계되는 사업에 우선 활용

□ WT 전략: 생활권별 인구위험에 대응한 공간차등형·선제적 인구관리

○ 읍·면·동을 서로 다른 인구정책 대상지역으로 관리

- 읍·면과 동 지역은 인구구조와 이동양상이 상이하므로 세종시 평균에 근거한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권별 정책목표를 차별화
-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을, 동 지역은 유입인구의 장기정착과 재유출 방지를 핵심목표로 설정

○ 읍·면지역의 인구감소를 개발·산업·생활여건의 복합문제로 접근

- 청년층·청년여성의 감소를 핵심 위험신호로 관리하되, 단순 지원사업보다 일자리·주거·교통·문화·돌봄 등 정착여건을 통합적으로 개선
- 산업·주거·교육기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인구유입·정착 기반 마련

❍ 동 지역은 신규 유입보다 재유출 방지에 정책 초점 전환

- 동 지역의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규 전입자 수보다 장기정착과 재전출 감소를 정책목표로 설정
- 교육·직업 목적 역외유출에 대응하여 후속교육·일자리·생활서비스를 강화

❍ 생활권별 인구위험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관리체계 구축

- 읍·면·동별 전입·전출, 연령·성별 순이동, 이동사유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특정 지역이나 연령집단의 급격한 순유출이 나타날 경우 관련 부서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Cross-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외부환경 / 내부환경	외부기회 (Opportunities)	외부위협 (Threats)
	• 국가균형성장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 국가·초광역 재원 확대 • 공동캠퍼스·대학가형 복합공간 등 청년 유입거점 확대 • 시정 5기 출범 – 기존 정책체계 재설계의 정책적 기회	• 청년 수도권 집중 및 저출생 지속 • 인접 도시·전국 단위 인구·기능 유치경쟁 심화 • 외생적 인구성장 모델의 한계 • 재정 및 정책 지속가능성의 제약

내부강점 (Strength)
• 시정 5기의 높은 인구·청년·자족경제 정책의지
•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젊고 양호한 인구구조
• 행정수도·공공기관·공동캠퍼스 등 차별화된 도시기능
• 데이터 기반 정책역량 확보
	지속성장(SO전략)
	•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확충**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지속가능한 인구정착 기반으로 연결
	  • 공동캠퍼스와 지역대학을 청년 유입거점에서 정착거점으로 전환
	  • 국가균형성장과 충청권 초광역 정책을 새로운 인구·산업 성장기회로 활용
		우회전략(ST전략)
		• **젊은 인구구조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한 재유출 방지와 정착경쟁력 강화**
		  • 20대의 교육·직업 목적 역외유출에 선제 대응
		  • 30대의 정착을 장기적인 인구경쟁력으로 전환
		  • 일자리 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정주경쟁력 강화
		  • 전입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정착 중심의 성과관리로 전환

내부약점 (Weakness)
• 행복도시 개발·주택공급에 의존한 인구성장 구조
• 읍·면과 동 지역 간 인구·생활여건 격차
• 자족적 산업·민간 일자리 기반의 상대적 부족
• 청년·주거·산업·출산 등 인구관련 정책의 분절적 추진
	역량강화(WO전략)
	• **국가균형성장과 시정 5기 정책전환을 활용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
	  • 행복도시 의존형 성장에서 자생적 산업·일자리 기반 전환
	  • 분산된 인구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생애과정을 기준으로 정책 간 단절 해소
	  • 정책공급에서 정책도달·정책효과 중심으로 전환
		방어전략(WT전략)
		• **생활권별 인구위험에 대응한 공간차등형·선제적 인구관리**
		  • 읍·면·동을 서로 다른 인구정책 대상지역으로 관리
		  • 읍·면지역의 인구감소를 개발·산업·생활여건의 복합문제로 접근
		  • 동 지역은 신규 유입보다 재유출 방지에 정책 초점 전환
		  • 생활권별 인구위험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관리체계 구축

[그림 5-1] SWOT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

2절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1. 기본방향

❍ 세종시는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복도시 건설,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을 바탕으로 빠른 인구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동 지역의 순유입 규모 역시 축소되는 등 기존 인구성장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인구이동 분석 결과, 직업·가족·주택 등이 전입과 전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과 생활권에 따라서도 이동의 방향과 원인이 상이하게 나타남

- 30대가 세종시 순유입을 견인하는 한편, 20대의 교육·직업 목적 이동과 읍·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 서로 다른 정책과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세종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증가나 개별 지원사업 확대에서 벗어나,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주거·생활·공간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주거·산업·출산·돌봄 등으로 분산된 정책을 생애과정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연계하고, 인구변화를 도시·산업·교통·교육 등 시정 전반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됨

[표 5-1] 핵심 전략방향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요약

SWOT 전략	핵심 전략방향	제2절 핵심 정책과제
SO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①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 ③ 생애이행형 정착/ ⑥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대응
ST	젊은 인구구조 유지와 재유출 방지	② 정착 중심 성과관리 / ③ 생애이행형 정착
WO	성장구조·일자리·정책분절이라는 취약성 보완	①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 ⑤ 범부서 추진체계
WT	생활권별 인구감소 위험의 선제적 관리	④ 공간차등형 정책 / ⑤ 범부서 추진체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인구정책의 전환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다음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바임

- (전환 방향) ① 인구 유입 중심 → 정착 중심, ② 개별 지원사업 중심 → 산업·공간구조 개선 중심, ③ 시 전체 평균 중심 → 생애·생활권 맞춤형 정책, ④ 인구 담당부서 중심 → 시정 전반의 인구대응체계

2. 핵심 정책과제

1)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 정책 필요성

○ 세종시의 기존 인구성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복도시 개발, 공동주택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왔음. 그러나 행복도시 개발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동 지역의 순유입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 향후에는 세종시 스스로 산업·일자리·주거·생활기반을 만들어 인구를 유입·정착시키는 자생적 성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단순한 지원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주거·교통·생활SOC를 결합한 공간 단위의 접근이 요구됨

□ 세부 정책과제

○ ① 도시개발 실행체계 강화 및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 검토

-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교통서비스 기능과 도시개발 기능의 전문성 및 사업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교통과 도시개발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검토
- 가칭 '세종도시공사'를 단순 택지개발기관이 아니라 산업·주거·도시재생·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도시개발 전문 실행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 특히, 읍·면지역에서 토지 확보·개발, 산업·주거 복합개발, 도시재생, 생활SOC 조성 등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역량 확보

-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읍·면지역의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하는 지역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
- 이 과제의 핵심 논리는 “개발기능이 없어서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 이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구수용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시개발 실행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있음

❍ ② 읍·면 전략개발을 통한 새로운 인구수용 공간 조성

- 읍·면을 단순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세종시의 향후 산업·주거·정주공간 확장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의
- 산업단지, 주거단지, 교통, 생활SOC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일자리+주거+교통+생활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형 지역개발 추진
- 북부 읍·면 등 지역별 산업·교통·교육·토지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성장거점 발굴
- 신규 개발사업의 성과를 토지분양이나 시설조성뿐 아니라 실제 인구유입 및 정착효과를 기준으로 평가

❍ ③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가족 단위 정착패키지 구축

- 향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종사자 전입 효과가 아니라 가족단위 장기정착의 기회로 활용
- 배우자 일자리, 자녀교육, 주거, 돌봄, 생활정보 등을 연계한 정착지원 체계 마련
-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전입 이후 재전출 여부를 관리하여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이 장기거주로 연결되도록 지원
- 공공부문 확대를 관련 전문서비스업과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여 자족적 고용기반 확충
- 본 과제는 정착패키지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2차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세부 적용방안은 ‘6) 과제’에서 구체화함

2) 정착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목표·성과관리체계 구축

□ **정책방향**

○ 향후에는 '몇 명이 들어왔는가'보다 '누가 들어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를 인구정책의 핵심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는 전입과 전출이 모두 활발한 도시이므로 주민등록인구 증감만으로는 실제 정착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직업·가족·주택이 주요 이동사유로 나타나는 만큼 전입 촉진과 함께 재전출 방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함

□ **세부 정책과제**

○ ① 전입자 1·3·5년 정착률 관리체계 구축

- 전입자의 1년·3년·5년 후 지역 잔존 여부를 분석하여 '정착률'을 핵심 인구지표로 관리
- 연령, 성별, 가구유형, 전입사유, 이전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착률을 세분화
- 특히 20·30대, 신혼·자녀동반가구, 수도권 전입자 등 주요 정책대상의 장기정착 여부를 집중 관리

○ ② 재전출 원인 상시 모니터링

- 전출자의 직업·교육·주택·가족 등 이동사유와 전출지역을 정기적으로 분석
- 수도권 재유출, 청년층 교육·직업 목적 전출 등 주요 위험집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 단순한 전출 규모뿐 아니라 특정 연령·가구 집단의 재전출이 확대되는지를 조기에 파악

○ ③ 인구정책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 강화

- 사업 수, 참여자 수, 예산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잔존, 취업, 주거안정, 재전출 감소 등 정착 효과를 성과지표에 반영
- 정착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연계하고 효과가 낮은 단발성 사업은 조정
- 인구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성과평가에 '정착기여도'를 단계적으로 반영

3)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 **정책방향**

❍ 청년정책은 취업이나 주거 등 개별 지원을 넘어 교육 → 취업 → 주거독립 → 가족형성 → 출산·돌봄 → 장기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이행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연구에서 30대가 세종시 순유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정책과 가족·저출생정책 간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세부 정책과제**

❍ ① 생애단계별 '세종형 청년정착 패키지' 구축

- 20대 초반: 교육·진로·직무경험
- 20대 후반: 취업·주거독립·자산형성
- 30대: 주거안정·결혼·가족형성·돌봄을 중심으로 정책수요 차별화
- 개별 사업을 새롭게 늘리기보다 기존 일자리·주거·가족·돌봄 정책을 생애단계별로 묶어 제공

❍ ② 공동캠퍼스·지역대학을 '교육거점'에서 '정착거점'으로 전환

- 공동캠퍼스 및 지역대학 학생이 교육 이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 지역기업·공공기관 일경험 → 취업 → 주거 → 정착 경로' 구축
- 지역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채용연계 프로그램 강화
- 교육 목적 전출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원·재교육·전문직업교육 등 후속 교육기회를 지역 내에서 확대

❍ ③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통합전달체계 강화

-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가족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청년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재분류
- 시정 5기 공약인 청년청 등 전담조직을 활용할 경우, 신규 사업 직접 수행보다 기획·조정·성과관리·통합안내 기능을 핵심 역할로 설정

- 청년지원시설, 대학, 기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정책 전달거점으로 연계하여 정책 미인지 문제를 개선

4)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 추진

□ **정책방향**

○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읍·면·동은 인구구조뿐 아니라 전입·전출 규모와 이동사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따라서 하나의 세종시 인구정책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생활권별 인구문제와 기능을 고려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Place-based Popul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과제**

○ ① 생활권별 인구정책 목표 차별화

- 동 지역: 신규 유입보다 기존 유입인구의 장기정착과 재전출 방지
- 조치원읍: 대학·청년·도시재생을 연계한 도시활력 회복
- 북부 읍·면: 산업·일자리·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인구유입 기반 구축
- 행복도시 인접 면지역: 동 지역의 교통·생활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이를 통해 '세종시 인구 몇 명'이라는 단일 목표에서 벗어나 **생활권별로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읍·면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

- 읍·면지역의 인구감소를 복지나 귀농귀촌 지원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산업·주거·교통·문화·돌봄 등을 결합**하여 대응
- 청년층과 청년여성 인구의 감소를 주요 위험신호로 관리하되, 특정 집단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해당 집단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여건 개선에 초점
- 대학·교육시설, 산업단지, 역세권, 기존 중심지 등 지역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인구활력사업 추진

○ ③ ‘세종형 인구이동 조기경보체계’ 구축

- 읍·면·동별 전입·전출, 연령·성별 순이동, 수도권 이동, 직업·교육·주택 등 이동사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특정 지역 또는 연령집단에서 순유출이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급증할 경우 위험신호로 관리
- 위험 발생 시 인구·청년부서만이 아니라 일자리·주택·교통·교육 등 관련 부서가 원인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 마련
- 이 과제는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읍·면·동별 인구이동 분석체계를 향후 시정의 상시 관리도구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음

5)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 **정책방향**

○ 인구변화는 인구담당부서의 사업보다 산업단지 입지, 기업유치, 주택공급, 교통망, 대학·교육시설, 생활SOC 등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인구정책을 하나의 개별 정책분야로 보기보다 시정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위 판단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과제**

○ ① 주요 시정사업에 대한 ‘인구영향 검토’ 도입

-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단지, 주택공급, 교통망, 대학·공공시설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인구효과를 사전에 검토
- 단순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성적 판단에서 벗어나 어떤 연령·가구집단이 유입되는지, 어느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정착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초기에는 새로운 법정평가제도를 만드는 방식보다 주요 정책보고서와 사업계획에 ‘인구영향 검토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도입

○ ② 범부서 인구정책 조정체계 구축

- 인구·청년·산업·주택·도시개발·교통·교육·돌봄 부서가 공통의 인구목표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마련
- 인구감소나 특정 연령층 유출 등 주요 현안 발생 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원인과 대응방안을 검토
- 개별 부서가 수행하는 인구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중복·공백을 조정

❍ ③ 인구데이터를 시정 의사결정과 성과관리에 활용

- 주민등록인구 규모뿐 아니라 연령·성별·가구유형·생활권·이동사유 등을 포함한 인구이동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분석
- 주요 공약 및 도시개발·산업·주택정책의 성과를 인구변화와 연계하여 점검
- 매년 주요 인구변화와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연도 정책·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6)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는 인구유입 시나리오형 정책과제

□ 정책 필요성

❍ 세종시 출범 이후 초기 인구성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과 행복도시 주택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음

❍ 최근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존 행복도시 개발에 의존한 인구성장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세종시 인구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환경 변화**임

❍ 정부는 2026년 9월 3일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향이 제시됨.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2026년 4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임

❍ 특히 현재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

가족부를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정부방침은 기존 '이전 제외' 체계를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의미를 가짐

- 다만 현 시점에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제외 규정 자체가 이미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보고서에서는 '이전 제외기관 해제'보다 '이전 제외 규정 개정 추진' 또는 '기존 이전 제외 원칙의 전환'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함
-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약4,500명 규모의 국회 및 관련 종사자의 상주 이주가 예상되나, 현행 행복도시 지원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국회 및 대통령 소속기관 종사자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취득세 감면 등 기존 이전 종사자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양원탁·이원도, 2026: iii, 102, 188)

❍ 이에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단순한 일회성 인구증가 요인으로 간주하기보다, 이전 시기와 기관별 규모·직군·가족동반 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구축하고 실제 전입을 장기정착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이는 SO 전략인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확충'을 현실화하는 대표적 현안과제이면서, 핵심과제 ②의 정착성과 관리, ③의 생애이행형 정착정책, ⑤의 인구영향 검토체계를 실제 정책현안에 적용하는 과제라는 의미를 가짐

□ 세부 정책과제

❍ ① 이전 단계별 인구유입 시나리오 구축 및 반기별 갱신

-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기관별 이전 시점과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단일한 예상 인구증가치를 제시하기보다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시나리오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이전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
  - 중기 이전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공표에 따른 별도 청사 확보 이후 이전이 예상되는 기관

  - 장기 확대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향후 추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는 인구유입

-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므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가 중추기능 확충을 개별 사건으로 관리하지 않고 2027~2033년을 하나의 행정수도 완성 과정으로 설정한 중장기 인구유입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 확대군 시나리오에는 국회사무처(2022)가 추정한 국회세종의사당 예상 이전 인원(정원 4,543명)을 기초값으로 활용하되, 국회의원·보좌진 등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근무 비중이 높은 직군은 가족동반율과 세종 전입률을 별도로 설정하여 과대추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인구추계 역시 기관 종사자 수만 합산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 직접 유입인구: 이전기관 종사자
  - 동반 유입인구: 배우자·자녀 등 가구원
  - 파생 유입인구: 기관 이전에 따라 증가하는 관련 서비스·전문직·민간부문 종사자
- 이에 기관별 현원, 실제 세종근무 대상인원, 가족동반율, 세종 전입률, 수도권 통근·단신부임 비율 등을 적용하여 저위·중위·고위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정부의 이전계획과 청사계획이 확정될 때마다 반기별로 갱신할 필요가 있음

❍ ② 기관별 인력 특성과 가족동반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착지원

- 2차 이전의 정책목표는 기관 종사자의 근무지 이전 자체가 아니라 종사자와 가족의 실제 세종 거주 및 장기정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등 법무·수사 관련 기관은 법무행정·수사·교정·출입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무형태와 가족동반 여건을 사전 조사하고, 배우자 고용·자녀교육·주거·통근수요 등을 반영한 정착지원을 설계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돌봄·청소년 등 정책기능과 관련하여 이전 종사자 가족의 돌봄·교육·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생애이행형 정착정책과 연계

- 기관별로 획일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보다 이전 종사자 및 가구 정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정책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구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전 종사자 수요조사(2026년4월, 21명)에 따르면 국회 등 이전 예정 종사자는 교통·접근성(23.3점)과 주거·주택(17.2점)의 결핍 우려가 가장 크고 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가장 중요하고(4.7점) 시급한(4.5점) 과제로 꼽은 반면, 세종시 기이전 종사자는 일자리·소득(중요도 19.6점)과 보육(중요도·시급성 각 4.1점)을 중시하여, 이주 전 진입 단계와 이주 후 정착 단계에서 정책수요가 뚜렷이 다르게 나타남(양원탁·이원도, 2026: 86, 89~90)
- 다만 해당 조사는 표본이 21명으로 제한적이므로, 세종시는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가구 단위 정착수요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시나리오의 가족동반율·전입률 가정과 정착지원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③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종사자 정주지원 제도와의 연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은 국회 등 이전 종사자 정주지원 과제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국회·대통령 소속기관 한정, 무주택세대주 대상, 업무개시일부터5년 일몰), 양도소득세·취득세 특례 확대, 주거 금융지원, 국가상징구역 교통체계 개선, 이전 종사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거버넌스 등을 제안함(양원탁·이원도, 2026:187~188)
- 이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특별공급·세제 특례는 국회·중앙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과제로 관리하고, 시 권한에 속하는 주거 금융지원, 대중교통(DRT 등) 확대, ‘(가칭)국회 등 이전종사자 정주환경 특별위원회’ 운영 등은 본 연구의 가족단위 정착패키지(1)-③)와 통합하여 설계
- 중앙정부는 주거·광역교통 등 대규모 재원과 제도개선을, 세종시는 교육·돌봄·의료·문화 등 생활밀착형 정주서비스를, 이전기관은 종사자 수요 반영과 유연근무 등 기관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협약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 단계별 시기는 시정 5기 임기(2026.7.~2030.6.)와 행정수도 완성 일정(중앙행정기관 우선 이전 2027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하반기)을 기준으로 설정함

- 단기(2026~2027, 정책기반 구축기) 시정 5기 초기 정책체계 재설계와 중앙행정기관 우선 이전에 대응
- 중기(2028~2030, 제도화·확산기) 시정 5기 임기 내 주요 과제의 제도화와 성과 가시화
- 장기(2031~2033 이후, 구조전환·정착기)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자생적 인구성장 구조 정착

[표 5-2] 세종시 인구정책 핵심 정책과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2026~2027)	중기(2028~2030)	장기(2031~2033 이후)
①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 검토	도시교통공사 기능진단, 교통·개발 기능 분리 필요성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설립 추진(조례·출자 등) 및 읍·면 시범 개발사업 착수	개발이익의 읍·면 재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읍·면 전략개발	북부 읍·면 등 후보지 발굴 및 패키지형 개발 기본구상	일자리+주거+교통+생활SOC 결합형 시범개발 추진	생활권별 성장거점 완성, 인구유입·정착효과 평가
	가족단위 정착패키지	우선 이전기관 대상 패키지 기본 틀 설계	이전기관 확대 적용 및 민간 전문서비스 연계	국가 중추기능 이전 전반으로 확대 운영
② 정착 중심 성과관리	전입자1·3·5년 정착률 관리	정착률 지표 정의 및 기준선(baseline) 산출	연령·가구유형·전입사유별 정착률 정례 분석·공표	정착률을 시정 핵심 인구지표로 제도화
	재전출 원인 모니터링	전출사유·전출지역 분석체계 설계	주요 위험집단(수도권 재유출, 청년 교육·직업 전출) 상시 관리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설계 환류 정착
	성과지표–예산 연계	주요 사업에 '정착기여도' 항목 시범 적용	인구정책 관련 사업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	정착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 정착
③ 생애 이행형 정착정책	세종형 청년정착 패키지	기존 일자리·주거·가족·돌봄 사업의 생애단계별 재분류	생애단계별 패키지 통합 제공	성과평가 기반 패키지 재설계
	공동캠퍼스·지역대학 정착거점화	지역기업·공공기관 연계 일경험·인턴십 시범	교육→일경험→취업→주거 경로 체계화, 후속교육 확충	집현동 대학가형 복합공간 등과 연계한 정착거점 완성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통합전달	청년청 기능 설계(기획·조정·성과관리 중심), 전달거점 연계	청년청 등 전담조직 운영, 통합안내체계 가동	청년정책 통합전달체계 정착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2026~2027)	중기(2028~2030)	장기(2031~2033 이후)
④ 공간 차등형 인구정책	생활권별 목표 차별화	동·조치원읍·북부 읍·면·행복도시 인접 면지역별 목표 설정	생활권별 목표를 부서 계획·예산에 반영	생활권별 성과평가 및 목표 재설정
	읍·면 인구활력 프로젝트	시범지역 선정 및 지역자원 기반 사업 설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확산	읍·면 인구활력 회복의 구조적 기반 확보
	세종형 인구이동 조기경보체계	본 연구의 읍·면·동 분석체계를 상시 관리도구로 전환, 위험신호 기준 설정	위험 발생 시 부서 공동대응 절차 운영	예측 기능을 포함한 체계 고도화
⑤ 범부서 인구대응 체계	인구영향 검토 도입	주요 정책보고서·사업계획에 검토항목 시범 포함	적용대상 확대 및 검토지침 마련	조례 등 제도화 여부 검토
	범부서 인구정책 조정체계	관련 부서 협의체 구성, 사업 중복·공백1차 점검	정례 점검 및 공동 인구목표 운영	시정 전반의 인구대응체계로 정착
	인구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차 인구변화 진단 정례화	진단 결과의 차년도 정책·예산 환류	공약·도시개발·산업정책 성과의 인구변화 연계 점검 정착
⑥ 중앙행정 기관2차 이전 대응	단계별 인구유입 시나리오	저·중·고위 시나리오 최초 산출, 반기별 갱신체계 구축	중기 추가 공공기관 이전군 청사계획 반영 갱신	국회세종의사당(정원 4,543명) 등 2027~2033 행정수도 완성 과정 전체의 시나리오 운영
	기관별 맞춤형 정착지원	이전 전 종사자·가구 정착 수요조사,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대상 지원 설계	이전 종사자 재전출 관리 및 지원 확대	추가 이전기관으로 적용 확대
	국회·대통령 소속기관 이전 종사자 정주지원 연계	특별공급·세제 특례 제도개선 건의, (가칭)이전종사자 정주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주거 금융지원·대중교통 확대 등 시권한 사업 시행, 역할분담 협약	의사당 개원(2033) 이후 종사자·가구 정착률 관리 및 성과 확산

결론

6장

1절 | 연구결과 요약
2절 | 정책 제언

6장 | 결론

1절 연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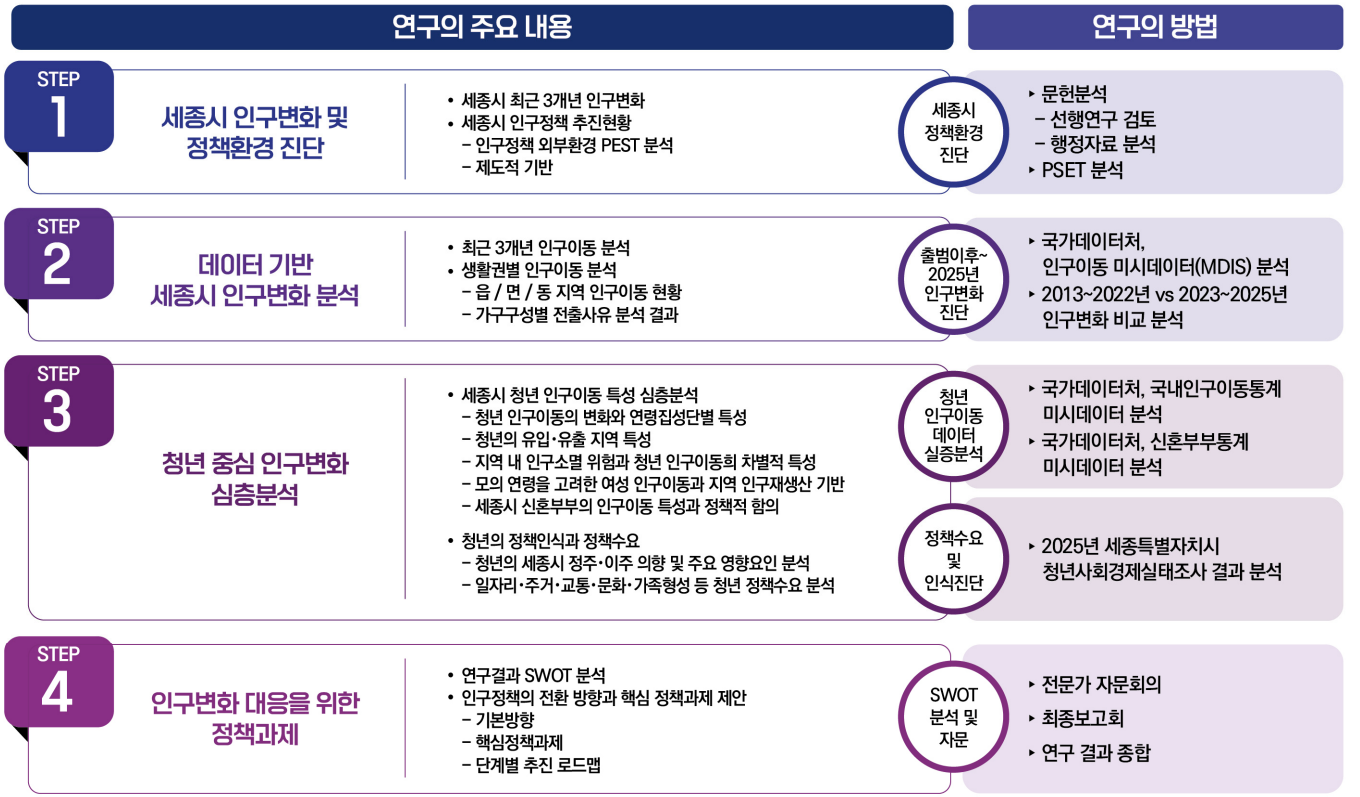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세종시 인구정책환경을 진단하고, 2023~2025년 최근 3개년의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특성을 읍·면·동 및 생활권 단위까지 정밀 분석하여 시정 5기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공표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지역별·연령별·이동사유별 특성을 파악함
-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동지역, 이동사유, 정주 의향과 정책 수요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자리·주거·교통·문화·가족형성 관련 수요를 검토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종시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과 시정 5기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함

2) 연구의 주요 내용별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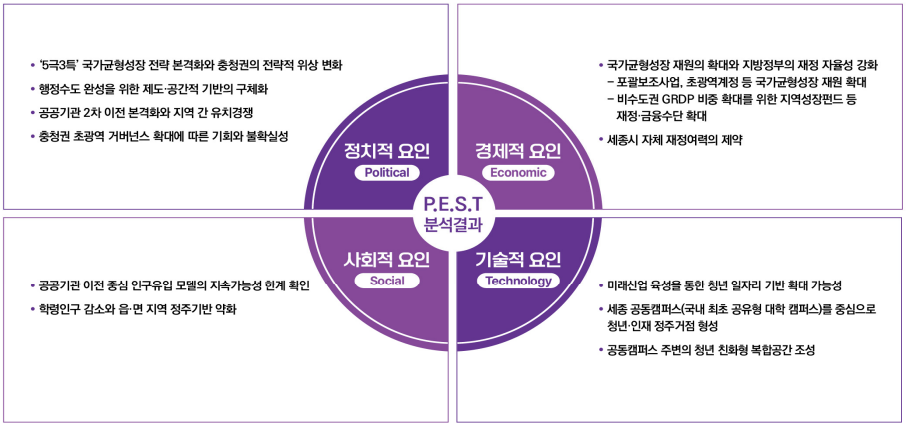


[그림 6-1] 연구의 주요 내용과 과정

2. 주요 내용별 시사점

1) 세종시 인구변화 및 정책환경 진단

□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그림 6-2] 세종시 인구정책 외부환경 PEST 분석 결과

□ 인구 관련 시정 5기 공약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시정 5기의 정책목표 재설정은 단순한 인구 규모 증가보다 정착과 유출 방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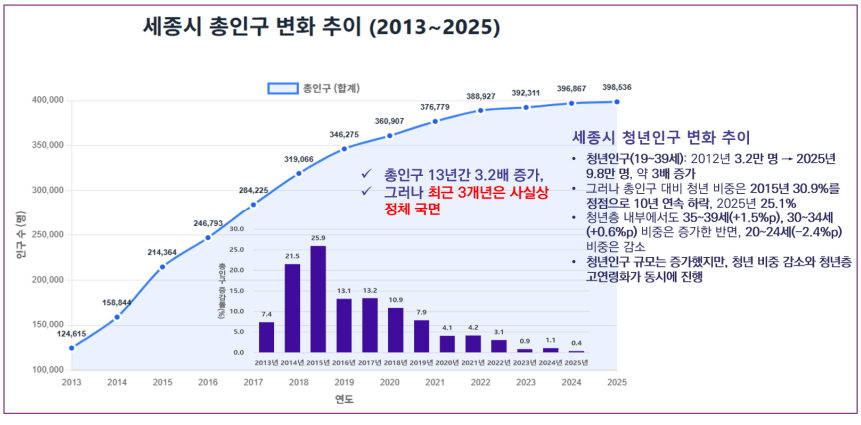
- (정주인구 관련 공약)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주거·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세종시 인구정책의 핵심 타겟이 청년층 정착에 있음을 보여줌
- (생활인구 관련 공약)은 문화·관광·축제 인프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대보다는 방문·체류형 활동인구 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됨
- (자연적 증감 관련 공약) 보육·돌봄·고령복지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나, 출산 자체를 직접 장려하는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어, 출산 유인보다는 양육 부담 완화와 고령화 대응에 정책 비중이 더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읍면 지역 관련 공약) 공통 유형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이 정주인구뿐 아니라 자연적 증감(보육·돌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일 정책 축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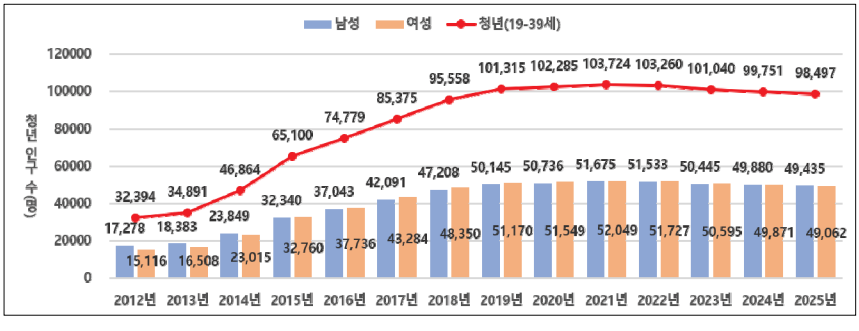
❍ 다만 다음 세 가지가 향후 과제로 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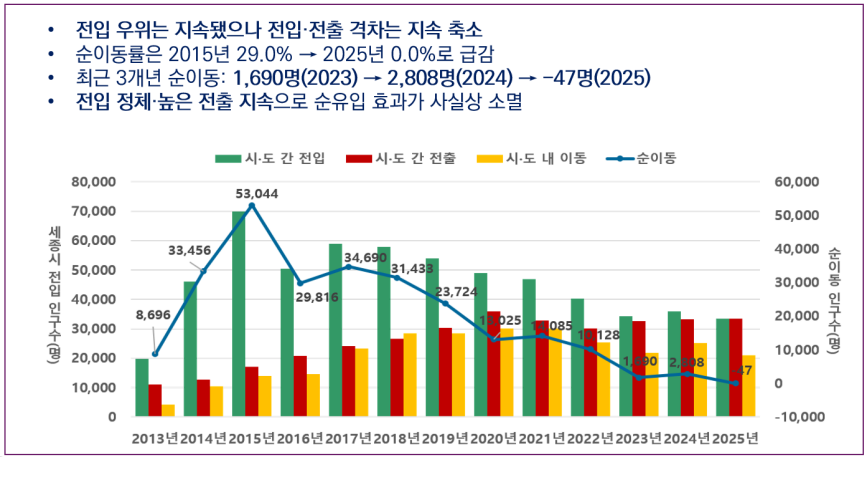
- (재정) 청년 정주정책의 상당수가 비예산 또는 소액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목표(청년주택 1,000호, 일자리 5,000개 등)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계획 정합성)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시정 5기 공약 간 사업 중복·재원 배분의 정합성 확보가 요구됨
- (추진체계) 다수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할 청년청(공약116)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정립이 관건이며, 이는 5장 정책과제 도출 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2) 데이터 기반 세종시 인구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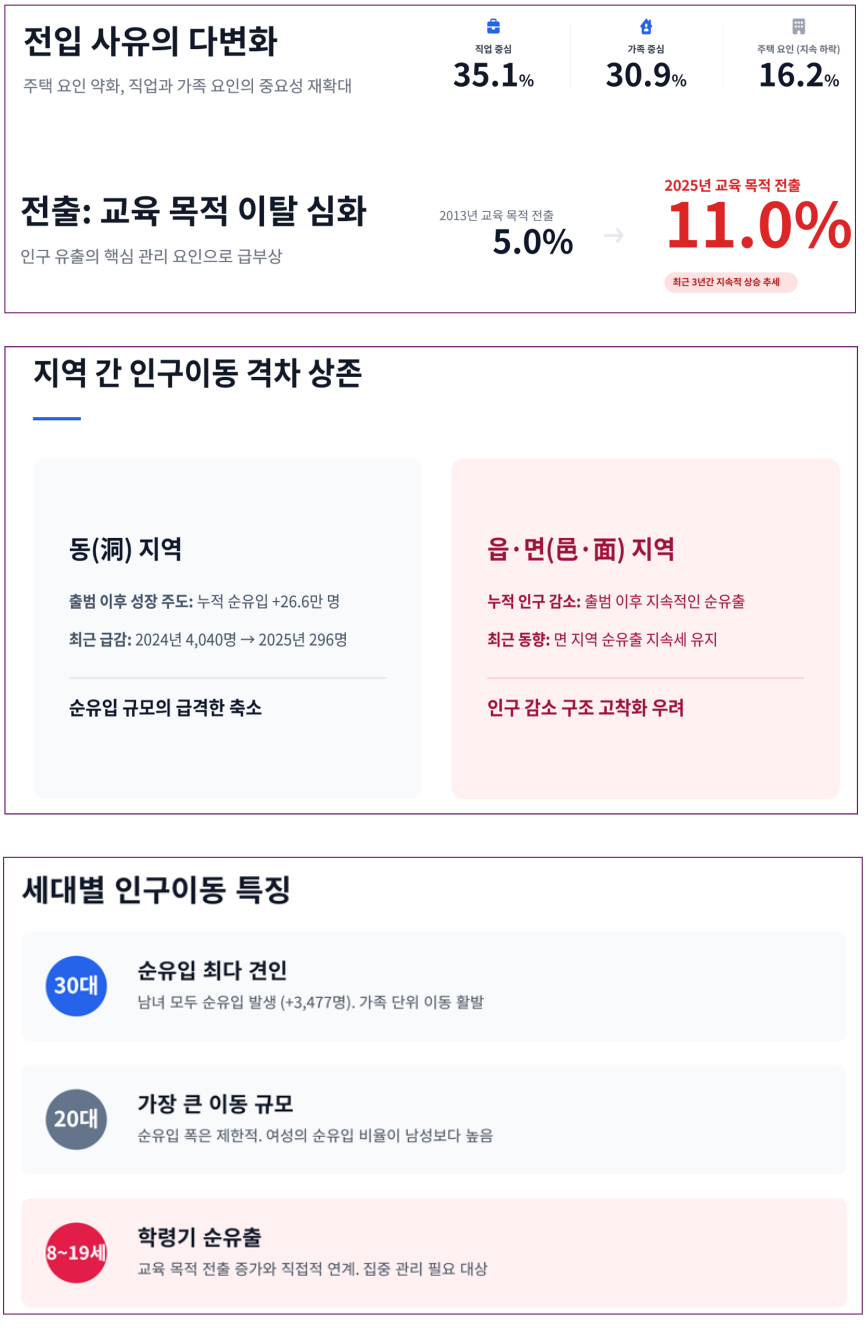


세종시 청년 인구 변화 추이(2012년~2025년)





[그림 6-3]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①



[그림 6-4]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②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6-5]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요약 ③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 **대규모 인구유입 중심의 성장에서 유입과 유출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

❍ 세종시는 출범 이후 신도시 개발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을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입과 전출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순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세종시 전체 인구증가를 견인해 온 동 지역의 순이동이 2023년 +3,921명, 2024년 +4,040명에서 2025년 +296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기존의 대규모 인구유입에 기반한 성장구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외부 인구의 추가적인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왜 세종을 떠나는지를 파악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30대가 여전히 인구증가를 견인하지만, 핵심 유입 연령층의 정착 여부가 중요**

❍ 최근 3년간 연령별 인구이동에서는 30대가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하며 세종시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연령층으로 나타남

- 30대는 시·도 간 전입 22.9%, 전출 20.5%로 전입 비중이 전출보다 높았으며, 최근 3년 누적 순이동도 +3,477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40대와 50대는 전출이 전입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50대는 최근 3년 -634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 따라서 세종시 인구정책은 단순한 연령별 인구 규모보다 어떤 연령층이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어떤 연령층에서 유출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0대의 유입 이후 장기적인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

□ **직업 중심의 인구이동 구조에서 가족·교육 등 생애주기 요인의 중요성이 확대**

❍ 직업은 여전히 세종시 전입·전출의 가장 중요한 사유이나,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가족·교육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이동요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전출 사유 중 교육 비중은 2013년 5.0%에서 2025년 11.0%로 증가하여, 교육이 세종시 인구유출에서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
- 가족 역시 최근 전입·전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인구이동이 취업이나 주택 등 단일 요인보다 가족형성·자녀교육·주거선택 등이 결합된 생애주기적 의사결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일자리나 주택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일자리–주거–교육–가족생활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정주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0대+자녀' 중심 가족단위 유입구조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성장의 중요한 특징은 30대 부모세대와 미취학·학령기 자녀가 함께 유입되는 가족단위 이동이었음

- 특히 동 지역에서 2013~2025년 누적 순이동은 30대 +73,271명, 미취학 +37,120명, 학령기 +33,559명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유입이 신도시 인구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최근 3년에는 전 연령대의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동 지역 학령기 인구가 -417명으로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동시에 교육을 사유로 한 전출도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남

○ 이는 세종시의 기존 인구성장 기반이었던 젊은 가족의 유입과 정착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 학령기 자녀가구의 이동과 교육 사유 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가구구성에 따라 전출 사유가 달라지는 만큼 가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유출 대응 필요

○ 가구구성별 분석 결과,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전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남

- 2025년 세종시 전체 기준 1인가구는 직업(36.2%)과 가족(29.3%)이 주요 전출 사유인 반면, 다인가구는 주택(31.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동 지역 1인가구에서는 교육 사유가 15.0%로 읍 지역 10.0%, 면 지역 4.5%보다 높아 동일한 1인가구라도 거주 생활권에 따라 이동요인이 다르게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인구유출 대응은 연령뿐 아니라 가구구성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여 전출 위험집단과 전출요인을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읍·면·동의 인구이동 방향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생활권별 대응 필요**

○ 2013~2025년 누적 순이동은 동 지역 +265,534명, 읍 지역 -3,506명, 면 지역 -5,480명으로 나타나, **세종시 전체의 인구성장이 사실상 동 지역의 순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순유출이 지속됨**

○ 이는 세종시 전체의 인구증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인구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 지역의 성장과 읍·면 지역의 인구유출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생활권별 인구정책이 필요함

□ **(동 지역) 인구유입 중심 생활권에서 '정착 유지와 전출 관리'가 중요한 생활권으로 변화**

○ 동 지역은 출범 이후 세종시 인구성장을 사실상 주도해 왔으며,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미취학·학령기 자녀가 함께 유입되는 가족단위 인구유입 구조가 두드러짐

- 그러나 동 지역 순이동은 2025년 +296명까지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학령기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기존의 높은 순유입 구조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
- 가구구성별로도 1인가구에서는 교육, 다인가구에서는 주택이 중요한 전출 사유로 나타나 가구 특성에 따른 전출요인의 차이가 확인됨

○ 따라서 동 지역은 추가적인 인구유입 자체보다 30대와 자녀가구의 장기정착, 교육 관련 전출 관리, 다인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등 기존 유입인구의 정착 유지에 정책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읍 지역) 교육을 통한 유입 가능성과 가족·주택에 의한 유출이 공존하는 생활권**

○ 읍 지역은 2013~2025년 누적 -3,506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순전입 사유에서 교육 비중이 2013년 4.8%에서 2025년 26.8%로 크게 증가하여 다른 생활권과 차별적인 변화가 나타남

- 반면 순전출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인가구에서는 주택(34.9%)이 가장 큰 전출 사유로 나타나 주거여건이 인구유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읍 지역은 단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육이라는 새로운 인구유입 요인을 지역의 정주기능과 연결하는 동시에, 가족·주택 요인에 따른 유출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면 지역) 장기적인 순유출과 성별·연령별 선택적 유출에 대응한 정주기반 강화 필요

- 면 지역은 2013~2025년 누적 -5,480명으로 읍 지역보다 순유출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연도에서 전출이 전입을 상회하는 구조적인 인구유출 생활권의 특성이 나타남
- 특히 장기 누계에서 여성 순유출(-4,216명)이 남성(-1,264명)보다 크게 나타나, 단순한 전체 인구감소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선택적 인구유출이 확인됨
- 가구구성별로는 1인가구의 전출이 직업·가족에 집중된 반면, 다인가구는 가족·직업·주택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생활·고용·주거여건이 복합적으로 인구유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면 지역은 특정 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인구유입보다 일자리와 주거,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정주기반 전반을 개선하고 여성·청년 등 주요 유출집단의 이동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중요함

□ '세종시 평균'이 아닌 생활권·연령·가구를 결합한 인구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제3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동 지역은 '유입 이후 정착', 읍 지역은 '교육을 활용한 유입과 가족·주택 유출 관리', 면 지역은 '구조적 순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기반 강화'가 각각 핵심적인 과제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세종시 인구정책은 전체 인구의 증감이나 합계출산율과 같은 총량지표 중심에서 나아가, **'어느 생활권에서-어떤 연령·가구가-어떠한 이유로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데이터 기반의 생활권별 인구정책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6-6] 세종시 가구구성별 전출 특성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3) 청년 중심 인구변화 심층분석

□ **청년인구 정책의 중심을 '유입 확대'에서 '정착과 유출 관리'로 전환할 필요**

❍ 세종시 청년은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이동이 2022년 +4,412명에서 2025년 +1,025명으로 축소되는 등 출범 초기의 대규모 유입 효과가 크게 약화됨

-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과를 단순 전입 규모보다 정착률·잔존율·재전출 규모 등 지속적 정착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9~29세는 시·도 간 광역 이동, 30~39세는 세종시 내부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 연령대별 이동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됨

- 따라서 20대에는 대학·취업 등 생애이행 단계의 지역정착 지원, 30대에는 주거·가족생활을 고려한 정착 및 주거순환 지원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청년 유출의 핵심 변화로 부상한 '교육 이동'에 대한 별도의 대응 필요**

❍ 최근 세종시 청년 전출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교육 목적 이동의 빠른 증가임

- 청년의 교육 사유 전출은 2013년 322명에서 2025년 2,471명으로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육 사유 전출자 중 청년 비중도 같은 기간 34.5%에서 52.4%로 확대됨

- 최근 3년에도 교육 사유 청년 순이동은 지속적인 순유출을 보여, 교육이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
- 특히 읍·면에서는 교육을 통한 청년 유입이 확대되는 동시에 20대를 중심으로 교육 사유 전출도 크게 나타나고, 동 지역 20대에서도 교육이 주요 전출요인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이 청년을 유입시키는 요인이자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 목적 이동을 단순히 대학 진학 문제로 보기보다 대학·대학원 진학, 직업교육, 자격취득, 재교육 등 청년의 생애이행 과정 전반에서 세종이 어느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대학 재학·졸업 이후 지역 기업·공공기관과의 취업연계, 대학원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청년 재교육·전직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교육을 위해 유입된 청년이 이후 지역의 일자리와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이동권역의 광역화에 대응하여 '충청권 중심' 청년정책의 공간범위를 확대할 필요

○ 세종시 청년의 유입·유출권역은 출범 초기 세종 내부와 대전·충청권 중심에서 최근 수도권과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읍·면 지역에서는 전입·전출 모두 세종 내부와 충청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그 외 지역'의 순위가 상승하여 청년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화됨
- 세종시 전체 청년 이동에서도 대전으로부터의 유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충청권 이외 지역과의 양방향 이동 중요성이 높아짐
- 특히 2025년 서울과의 청년 이동은 전입 2,513명보다 전출 2,936명이 많아, 서울과의 관계에서는 청년 순유출이 나타나는 구조가 확인됨

○ 이에 따라 세종시 청년정책은 대전·충청권과의 인구교류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 단위에서 세종을 선택하는 청년의 특성과 세종을 떠나는 청년의 이동경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도권 전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주거·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이동요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청년 유출의 목적지별 원인에 기반한 정착정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읍·면 지역은 '청년유출'과 '지역소멸 위험'을 결합한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접근할 필요**

○ 세종시 전체 인구는 성장해 왔으나, 읍·면 10개 지역은 모두 소멸위험 범주에 포함되고 위험·심각 지역이 전체 면적의 70.1%를 차지하는 등 동 지역과의 공간적 격차가 뚜렷함

○ 이에 따라 청년정책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상이한 인구이동 구조를 반영한 생활권별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읍·면 청년 전입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역 대학·교육기관을 청년 유입거점으로 활용하되, 교육-현장실습·인턴-지역 취업-주거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착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출은 20대 남성의 직업 이동, 30대의 주택 이동, 20대의 교육·수도권 이동 등으로 차별화되어 있어, 읍·면 청년정책도 생애단계와 이동 사유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읍·면 청년여성의 감소를 지역소멸 위험 관리의 핵심지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읍·면, 특히 면 지역에서는 청년여성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두드러져 지역소멸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남

○ 읍·면 청년여성 정착정책은 '일자리 부족'이나 '주택 부족'의 단일 원인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자리-주거-가족생활-교육-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정주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읍·면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이 세종 내부·충청권 중심에서 경기·서울 등 수도권 및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근거리 생활권의 문제를 넘어 광역적 선택경쟁에서 읍·면 지역의 정주 매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동 지역은 '청년 유입지역'에서 '유입 이후 정착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필요**

○ 동 지역 20대는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유입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동 지역 역시 더 이상 안정적인 청년 유입지역으로만 볼 수 없음

○ 동 지역 20대의 이동사유에서는 직업·가족이 주요 전입요인인 반면 교육은 가장 두드러진 순유출 요인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전입에서 가족 사유 비중이 확대되고, 전출에서는 교육 사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생활단계에 따라 유입요인과 유출요인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지역에서도 지역 내 대학·대학원·직업교육·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여 20대의 교육·경력개발 수요를 지역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연령집단의 순유입 약화는 향후 세종시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 선행 신호로 관리할 필요**

○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어 향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이를 곧바로 출산율 변화의 원인이나 직접적인 선행지표로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혼인·출생 및 가족단위 인구구조와 밀접한 연령층의 유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구학적 신호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의 '순유입'보다 지역 내 가족형성과 정착의 지속성을 관리할 필요**

○ 세종시 신혼부부는 30대 초반, 고학력, 맞벌이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여 세종시의 청년·가족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유자녀 신혼부부의 맞벌이 지속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세종시의 강점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돌봄·근로시간·직장문화 등 일·생활 균형을 뒷받침하는 정책기반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순유입은 유지되고 있으나, 계속거주 신혼부부와 자녀·가족 규모 자체는 감소하고 있어 외부 신혼부부 유입만으로 지역의 가족 인구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나타남

○ 특히 무자녀 신혼부부의 순유입이 일정 규모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단순한 '출산 잠재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향후 가족계획과 관계없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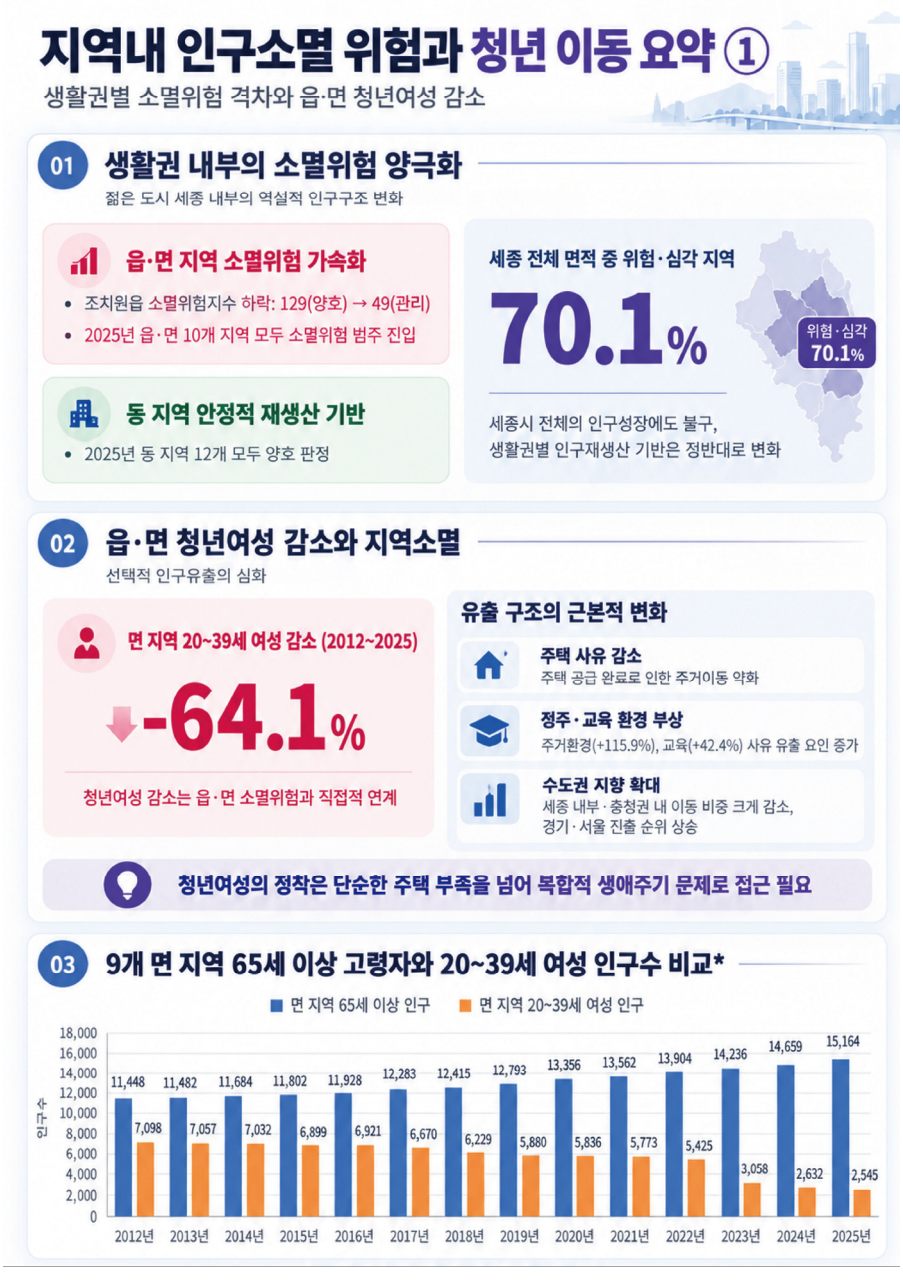
[그림 6-7] 청년 인구이동 변화와 연령집단·지역별 특성 요약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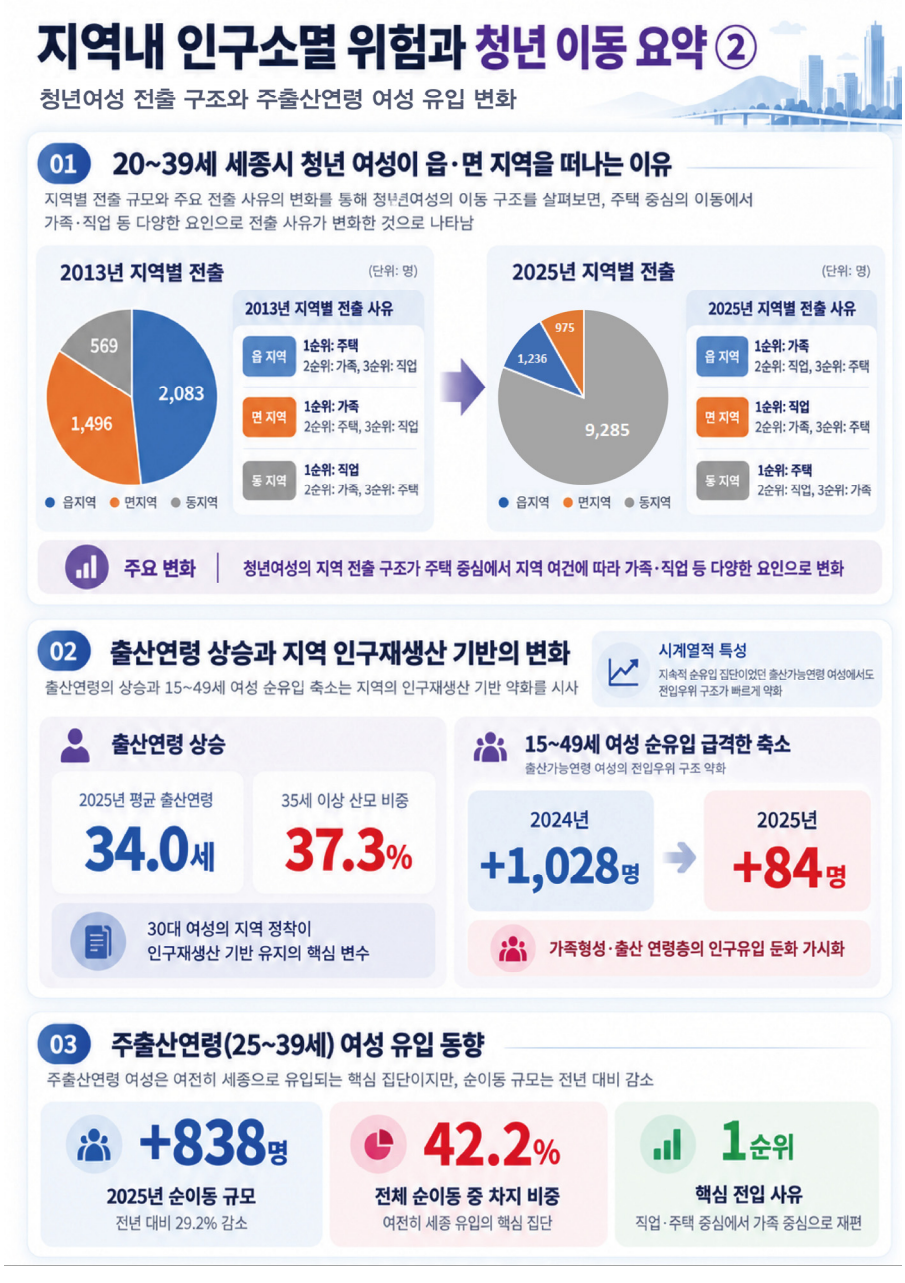
[그림 6-8] 청년 인구이동 사유 변화 요약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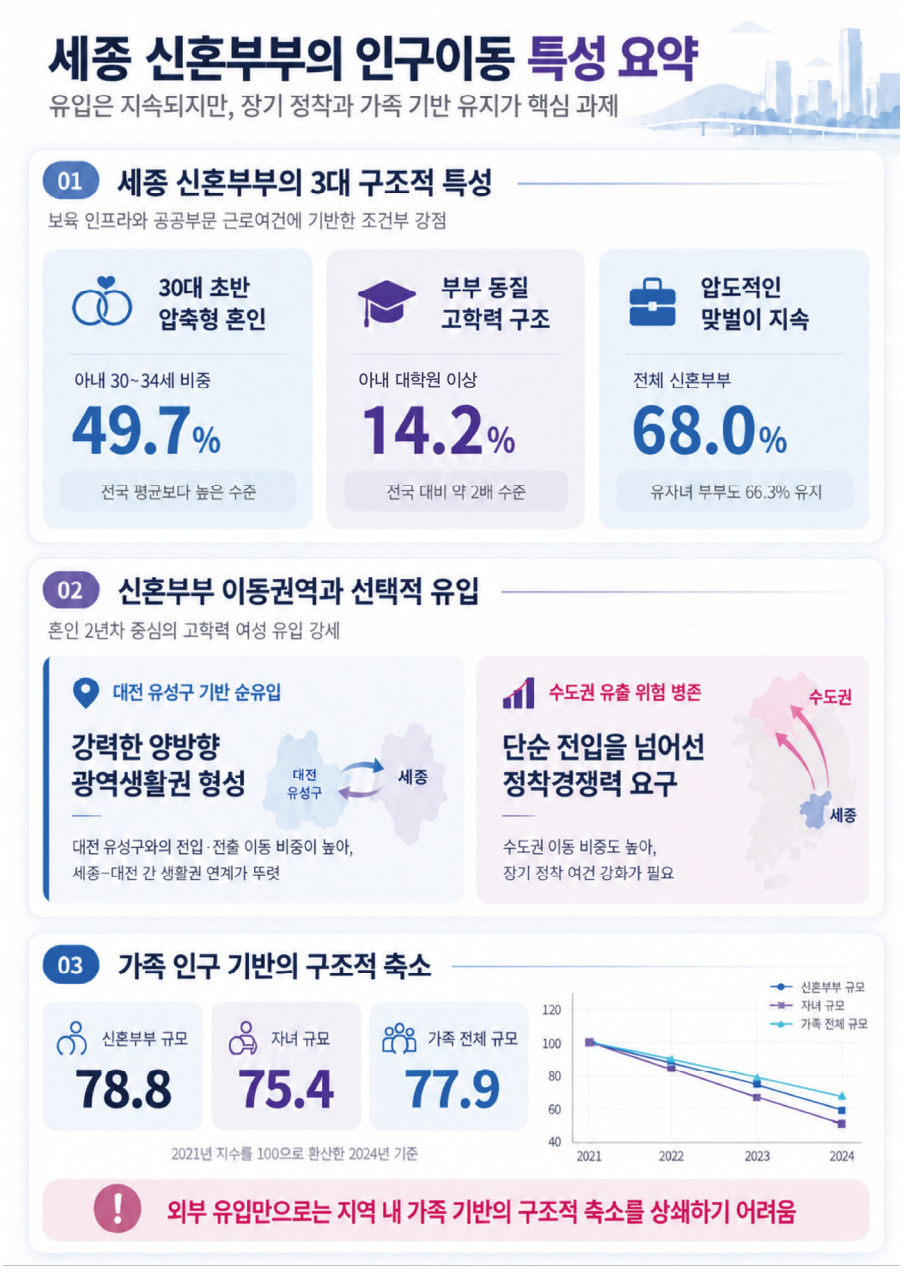
[그림 6-9] 지역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이동 요약 ①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6-10] 지역내 인구소멸 위험과 청년 이동 요약 ②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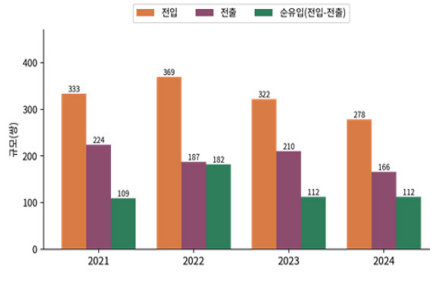


[그림 6-11] 신혼부부 인구이동 특성 요약 ①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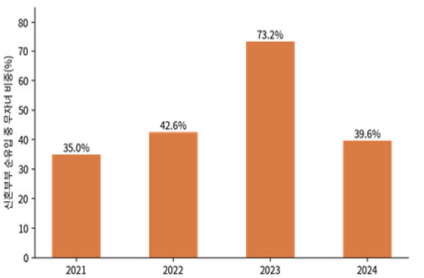
▶ 무자녀 신혼부부(쌍) 순이동 규모: 잠재적 출산 영향 변수

- 무자녀 신혼부부는 현재는 세종시의 자연증가(출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나, 향후 출산을 통해 세종시의 자연증가에도 추가로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 인구집단
- 무자녀 부부 순유입은 109→182→112→112쌍(4개년 누적 515쌍)으로, 전체 신혼부부·자녀의 순유입에 비해 등락의 폭이 작고 매년 100쌍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전체 신혼부부 순유입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0%→42.6%→73.2%→39.6%로 나타나, 매년 1/3 이상을 무자녀 부부가 차지
- 특히 2023년에는 전체 순유입(153쌍)의 3/4에 육박하는 112쌍이 무자녀 부부로, 유입 규모의 위축 속에서도 세종시가 흡수한 인구의 '규모에 대한 영향'(향후 출산 가능성)은 유지되었을 가능성
- 세종 계속거주 부부 중 무자녀 비중도 30.3%→33.3%로 완만히 상승함. 정착 부부 내에서도 첫 자녀 출산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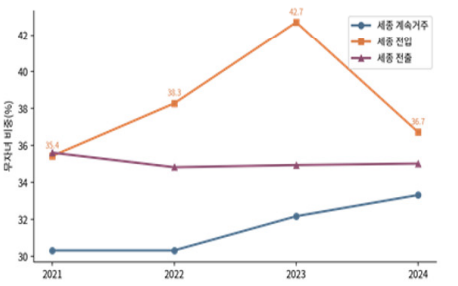
세종시 무자녀 신혼부부 이동 규모 추이, 2021~2024년 신혼부부 순유입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신혼부부 순유입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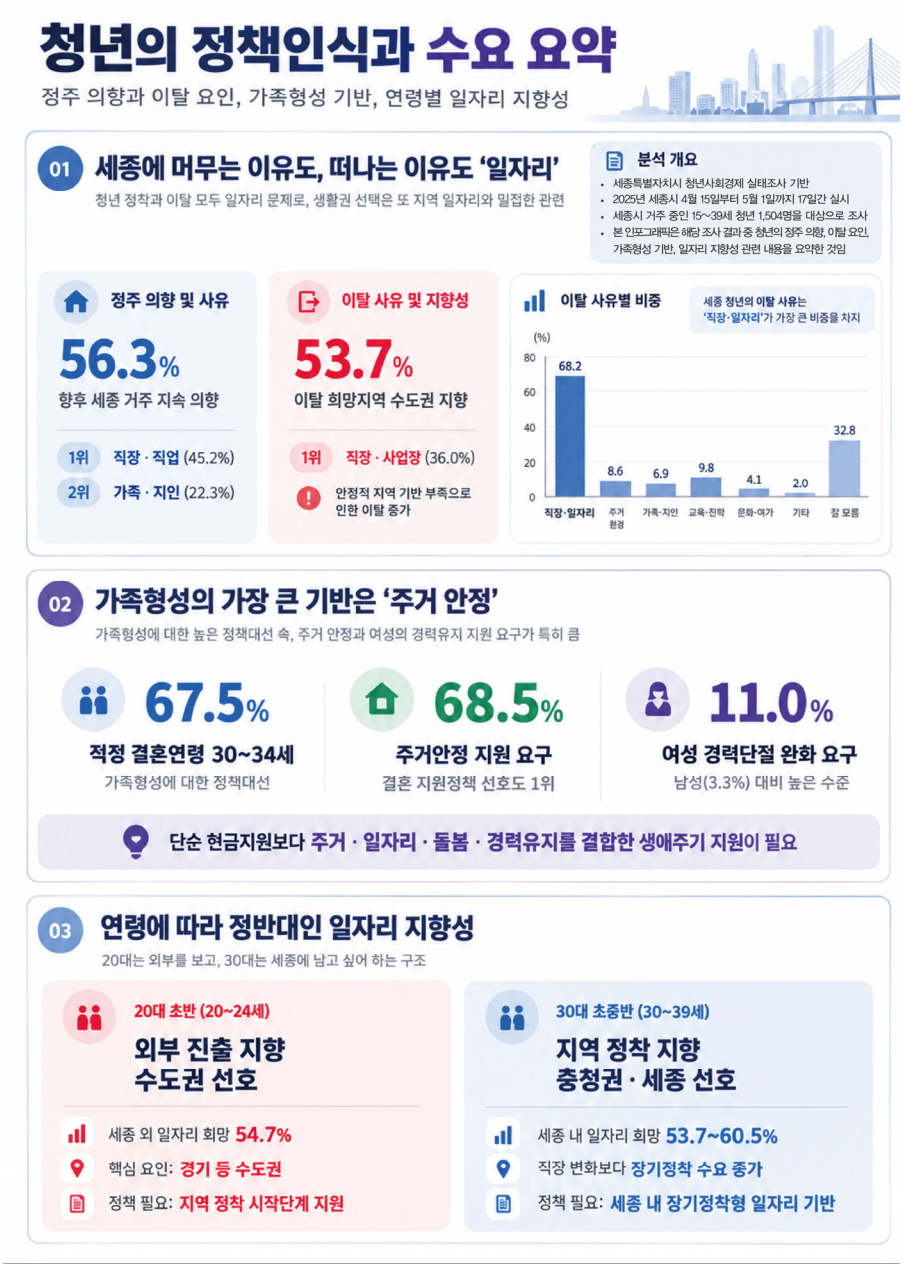
이동유형별 무자녀 비중 추이, 2021~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2024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를 재구성

[그림 6-12] 신혼부부 인구이동 특성 요약 ②

주: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함

4) 청년의 정책 인식과 정책수요



[그림 6-13] 청년의 정책인식과 수요 요약

2절 정책 제언

1.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Cross-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외부환경 / 내부환경	외부기회 (Opportunities)	외부위협 (Threats)
	• 국가균형성장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 국가·초광역 재원 확대 • 공동캠퍼스·대학가형 복합공간 등 청년 유입거점 확대 • 시정 5기 출범 – 기존 정책체계 재설계의 정책적 기회	• 청년 수도권 집중 및 저출생 지속 • 인접 도시·전국 단위 인구·기능 유치경쟁 심화 • 외생적 인구성장 모델의 한계 • 재정 및 정책 지속가능성의 제약

내부강점 (Strength)
• 시정 5기의 높은 인구·청년·자족경제 정책의지
•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젊고 양호한 인구구조
• 행정수도·공공기관·공동캠퍼스 등 차별화된 도시기능
• 데이터 기반 정책역량 확보
	지속성장(SO전략)
	•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확충**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지속가능한 인구정착 기반으로 연결
	  • 공동캠퍼스와 지역대학을 청년 유입거점에서 정착거점으로 전환
	  • 국가균형성장과 충청권 초광역 정책을 새로운 인구·산업 성장기회로 활용
		우회전략(ST전략)
		• **젊은 인구구조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한 재유출 방지와 정착경쟁력 강화**
		  • 20대의 교육·직업 목적 역외유출에 선제 대응
		  • 30대의 정착을 장기적인 인구경쟁력으로 전환
		  • 일자리 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정주경쟁력 강화
		  • 전입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정착 중심의 성과관리로 전환

내부약점 (Weakness)
• 행복도시 개발·주택공급에 의존한 인구성장 구조
• 읍·면과 동 지역 간 인구·생활여건 격차
• 자족적 산업·민간 일자리 기반의 상대적 부족
• 청년·주거·산업·출산 등 인구관련 정책의 분절적 추진
	역량강화(WO전략)
	• **국가균형성장과 시정 5기 정책전환을 활용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
	  • 행복도시 의존형 성장에서 자생적 산업·일자리 기반 전환
	  • 분산된 인구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생애과정을 기준으로 정책 간 단절 해소
	  • 정책공급에서 정책도달·정책효과 중심으로 전환
		방어전략(WT전략)
		• **생활권별 인구위험에 대응한 공간차등형·선제적 인구관리**
		  • 읍·면·동을 서로 다른 인구정책 대상지역으로 관리
		  • 읍·면지역의 인구감소를 개발·산업·생활여건의 복합문제로 접근
		  • 동 지역은 신규 유입보다 재유출 방지에 정책 초점 전환
		  • 생활권별 인구위험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관리체계 구축

[그림 6-14] SWOT분석 결과

1)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총괄표

[표 6-1] 핵심 전략방향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요약

SWOT 전략		핵심 정책과제
SO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①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③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⑥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대응
ST	젊은 인구구조 유지와 재유출 방지	② 정착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목표·성과관리체계 구축 ③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WO	성장구조·일자리·정책분절이라는 취약성 보완	①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⑤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WT	생활권별 인구감소 위험의 선제적 관리	④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 추진 ⑤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2) ① 인구·산업·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 정책 필요성

❍ 세종시의 기존 인구성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복도시 개발, 공동주택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왔음. 그러나 행복도시 개발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동 지역의 순유입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 향후에는 세종시 스스로 산업·일자리·주거·생활기반을 만들어 인구를 유입·정착시키는 자생적 성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단순한 지원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주거·교통·생활SOC를 결합한 공간 단위의 접근이 요구됨

□ 세부 정책과제

❍ ❶ 도시개발 실행체계 강화 및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 검토

-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교통서비스 기능과 도시개발 기능의 전문성 및 사업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교통과 도시개발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검토
- 가칭 '세종도시공사'를 단순 택지개발기관이 아니라 산업·주거·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도시개발 전문 실행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 특히, 읍·면지역에서 토지 확보·개발, 산업·주거 복합개발, 도시재생, 생활SOC 조성 등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역량 확보
-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읍·면지역의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하는 지역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
- 이 과제의 핵심 논리는 “개발기능이 없어서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 이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구수용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시개발 실행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있음

❍ ❷ 읍·면 전략개발을 통한 새로운 인구수용 공간 조성

- 읍·면을 단순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세종시의 향후 산업·주거·정주공간 확장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의
- 산업단지, 주거단지, 교통, 생활SOC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일자리+주거+교통+생활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형 지역개발 추진
- 북부 읍·면 등 지역별 산업·교통·교육·토지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성장거점 발굴
- 신규 개발사업의 성과를 토지분양이나 시설조성뿐 아니라 실제 인구유입 및 정착효과를 기준으로 평가

❍ ❸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가족 단위 정착패키지 구축

- 향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종사자 전입 효과가 아니라 가족단위 장기정착의 기회로 활용
- 배우자 일자리, 자녀교육, 주거, 돌봄, 생활정보 등을 연계한 정착지원체계 마련
-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전입 이후 재전출 여부를 관리하여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이 장기거주로 연결되도록 지원
- 공공부문 확대를 관련 전문서비스업과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여 자족적 고용기반 확충

- 본 과제는 정착패키지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2차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세부 적용방안은 '6) 과제'에서 구체화함

3) ② 정착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목표·성과관리체계 구축

□ **정책방향**

○ 향후에는 '몇 명이 들어왔는가'보다 '누가 들어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를 인구정책의 핵심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는 전입과 전출이 모두 활발한 도시이므로 주민등록인구 증감만으로는 실제 정착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직업·가족·주택이 주요 이동사유로 나타나는 만큼 전입 촉진과 함께 재전출 방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함

□ **세부 정책과제**

○ ❶ 전입자 1·3·5년 정착률 관리체계 구축

- 전입자의 1년·3년·5년 후 지역 잔존 여부를 분석하여 '정착률'을 핵심 인구지표로 관리
- 연령, 성별, 가구유형, 전입사유, 이전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착률을 세분화
- 특히 20·30대, 신혼·자녀동반가구, 수도권 전입자 등 주요 정책대상의 장기정착 여부를 집중 관리

○ ❷ 재전출 원인 상시 모니터링

- 전출자의 직업·교육·주택·가족 등 이동사유와 전출지역을 정기적으로 분석
- 수도권 재유출, 청년층 교육·직업 목적 전출 등 주요 위험집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 단순한 전출 규모뿐 아니라 특정 연령·가구 집단의 재전출이 확대되는지를 조기에 파악

○ ❸ 인구정책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 강화

- 사업 수, 참여자 수, 예산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잔존, 취업, 주거안정, 재전출 감소 등 정착 효과를 성과지표에 반영
- 정착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연계하고 효과가 낮은 단발성 사업은 조정
- 인구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성과평가에 '정착기여도'를 단계적으로 반영

4) ③ 청년의 지역정착과 가족형성을 연결하는 생애이행형 정책 강화

□ **정책방향**

○ 청년정책은 취업이나 주거 등 개별 지원을 넘어 교육 → 취업 → 주거독립 → 가족형성 → 출산·돌봄 → 장기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이행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연구에서 30대가 세종시 순유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정책과 가족·저출생정책 간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세부 정책과제**

○ ❶ 생애단계별 '세종형 청년정착 패키지' 구축

- 20대 초반: 교육·진로·직무경험
- 20대 후반: 취업·주거독립·자산형성
- 30대: 주거안정·결혼·가족형성·돌봄을 중심으로 정책수요 차별화
- 개별 사업을 새롭게 늘리기보다 기존 일자리·주거·가족·돌봄 정책을 생애단계별로 묶어 제공

○ **❷ 공동캠퍼스·지역대학을 '교육거점'에서 '정착거점'으로 전환**

- 공동캠퍼스 및 지역대학 학생이 교육 이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 지역기업·공공기관 일경험 → 취업 → 주거 → 정착 경로' 구축
- 지역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채용연계 프로그램 강화
- 교육 목적 전출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원·재교육·전문직업교육 등 후속 교육기회를 지역 내에서 확대

○ ❸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통합전달체계 강화

-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가족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청년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재분류
- 시정 5기 공약인 청년청 등 전담조직을 활용할 경우, 신규 사업 직접 수행보다 기획·조정·성과관리·통합안내 기능을 핵심 역할로 설정
- 청년지원시설, 대학, 기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정책 전달거점으로 연계하여 정책 미인지 문제를 개선

5) ④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 추진

□ **정책방향**

○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읍·면·동은 인구구조뿐 아니라 전입·전출 규모와 이동사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따라서 하나의 세종시 인구정책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생활권별 인구문제와 기능을 고려한 공간차등형 인구정책(Place-based Popul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과제**

○ ❶ 생활권별 인구정책 목표 차별화

- 동 지역: 신규 유입보다 기존 유입인구의 장기정착과 재전출 방지
- 조치원읍: 대학·청년·도시재생을 연계한 도시활력 회복
- 북부 읍·면: 산업·일자리·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인구유입 기반 구축
- 행복도시 인접 면지역: 동 지역의 교통·생활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이를 통해 '세종시 인구 몇 명'이라는 단일 목표에서 벗어나 **생활권별로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❷ 읍·면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

- 읍·면지역의 인구감소를 복지나 귀농귀촌 지원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산업·주거·교통·문화·돌봄 등을 결합**하여 대응

- 청년층과 청년여성 인구의 감소를 주요 위험신호로 관리하되, 특정 집단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해당 집단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여건 개선에 초점
- 대학·교육시설, 산업단지, 역세권, 기존 중심지 등 지역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인구활력사업 추진

○ ❸ '세종형 인구이동 조기경보체계' 구축

- 읍·면·동별 전입·전출, 연령·성별 순이동, 수도권 이동, 직업·교육·주택 등 이동사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특정 지역 또는 연령집단에서 순유출이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급증할 경우 위험신호로 관리
- 위험 발생 시 인구·청년부서만이 아니라 일자리·주택·교통·교육 등 관련 부서가 원인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 마련
- 이 과제는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읍·면·동별 인구이동 분석체계를 향후 시정의 상시 관리도구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음

6) ⑤ 인구영향을 고려한 범부서 정책추진·의사결정체계 구축

□ **정책방향**

○ 인구변화는 인구담당부서의 사업보다 산업단지 입지, 기업유치, 주택공급, 교통망, 대학·교육시설, 생활SOC 등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인구정책을 하나의 개별 정책분야로 보기보다 시정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위 판단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과제**

○ ❶ 주요 시정사업에 대한 '인구영향 검토' 도입

-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단지, 주택공급, 교통망, 대학·공공시설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인구효과를 사전에 검토
- 단순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성적 판단에서 벗어나 어떤 연령·가구

집단이 유입되는지, 어느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정착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초기에는 새로운 법정평가제도를 만드는 방식보다 주요 정책보고서와 사업계획에 '인구영향 검토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도입

❍ ❷ 범부서 인구정책 조정체계 구축

- 인구·청년·산업·주택·도시개발·교통·교육·돌봄 부서가 공통의 인구목표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마련
- 인구감소나 특정 연령층 유출 등 주요 현안 발생 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원인과 대응방안을 검토
- 개별 부서가 수행하는 인구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중복·공백을 조정

❍ ❸ 인구데이터를 시정 의사결정과 성과관리에 활용

- 주민등록인구 규모뿐 아니라 연령·성별·가구유형·생활권·이동사유 등을 포함한 인구이동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분석
- 주요 공약 및 도시개발·산업·주택정책의 성과를 인구변화와 연계하여 점검
- 매년 주요 인구변화와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연도 정책·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7)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는 인구유입 시나리오형 정책과제

□ 정책 필요성

❍ 세종시 출범 이후 초기 인구성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과 행복도시 주택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나, 최근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전기관 유치와 대규모 주택공급에 의존한 기존 인구성장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6년 10월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것은 세종시의 인구유입과 정주수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환경 변화임

-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27개 기관(2,995명)은

임차청사를 활용하여 조기 이전하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임

-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임
- 법무부(795명)와 성평등가족부(312명)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결정할 예정임
-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경찰청·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행정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세종 집적이 확대될 전망임

❍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중앙행정기관 이전 제외 원칙을 재검토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는 이전계획 변경·고시,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이전 종사자 이주지원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실제 이전 규모와 시기에는 법률 개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
- 정부가 발표한 9,929명은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실제 세종시 전입인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인구증가 규모로 직접 환산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2029년 준공 목표),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준공 목표) 건립과 연계되어 2027~2033년 세종시의 인구이동 및 정주수요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회사무처(2022)가 추정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예상 인원은 4,543명 수준이나, 실제 상주 근무인원과 가족동반 전입 규모는 근무형태 및 정주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국회 및 대통령 소속기관 종사자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주거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

지대가 지적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과 정착지원 연계가 필요함(양원탁·이원도, 2026: iii, 102, 188)

❍ 이에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일회성 인구유입 요인으로 간주하기보다, 기관별 이전 일정과 종사자 특성, 가족동반 가능성 및 실제 전입·정착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인구유입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주거·교통·교육·돌봄 등 정주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SO 전략인 '행정수도·균형성장 기회를 활용한 자생적 인구성장 기반 확충'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현안과제로, 핵심과제 ② 정착성과 관리, ③ 생애이행형 정착정책, ⑤ 인구영향 검토체계를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실제 정책환경 변화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음

□ **세부 정책과제**

❍ ❶ 중앙행정기관 이전 단계별 인구유입 시나리오 구축 및 정례적 갱신

- 정부가 발표한 44개 기관, 9,929명의 이전계획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기관별 이전 시점·방식·인력 규모와 실제 세종 거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 인구유입 시나리오를 구축
- 단기 이전군(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한 27개 기관(2,995명)의 이전에 따른 초기 인구유입 및 주거·통근수요 변화 분석. 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2개 기관(1,107명)은 이전 시점의 불확실성을 별도로 반영
- 중기 이전군(2028~2031년): 청사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17개 기관(6,934명)의 이전 일정과 주거·생활서비스 수요 분석
- 장기 확대군(2029~2033년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을 연계한 중장기 인구유입 전망
- 특히 2027~2033년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가 중추기능 확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주민등록 전입과 가족동반 정착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
- 기관별 인구유입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정

  - 직접 유입인구: 이전기관 종사자 중 기존 세종 거주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종으로 전입하는 인구
  - 동반 유입인구: 이전 종사자와 함께 세종으로 전입하는 배우자·자녀 등 가구원
  - 파생 유입인구: 기관 이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관련 서비스업·전문직·민간부문 종사자 및 동반가구원
- 기관별 정원과 실제 이전 대상 현원, 기존 세종 거주 비율, 수도권 통근·단신부임 비율, 가족동반율, 세종 전입률 등을 적용하여 저위·중위·고위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기관 이전계획 및 청사 확보 일정에 따라 반기별로 갱신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예상 인원(4,543명) 역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국회의원·보좌진 등 서울·세종 간 이동근무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상주율과 가족동반율을 별도로 적용하여 과대추계를 방지
- 시나리오별 인구유입 규모를 생활권별 주택공급, 교육·보육시설, 의료·교통 서비스 수요와 연계하여 선제적인 도시계획 및 정주정책 수립에 활용

○ ❷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정착지원

-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인구정책적 목표를 근무지 이전에 따른 단기 체류 확대가 아니라, 종사자와 가족의 실제 세종 전입 및 장기정착 촉진으로 설정
- 이전기관별 직군과 근무형태, 가족구성 및 생애주기에 따라 정주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와 맞춤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
- 법무·수사·경찰 관련 기관: 교대근무·현장업무·보안업무 등 근무 특성과 가족동반 여건을 고려한 주거·통근·자녀교육 지원
- 외교·안보 관련 기관: 해외순환근무와 직무 특성에 따른 가족동반 가능성 및 배우자 취업·교육·생활서비스 수요 검토
- 금융·정책위원회 및 자문기관: 수도권 업무 연계와 출장·협업 특성을 고려한 교통 접근성 및 업무·생활 편의 지원

- 특히 이주 전후 정책수요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착지원정책을 단계별로 차별화
  - 이전 준비단계: 주거정보 제공, 자녀 전·입학 상담, 배우자 일자리 연계, 주택·교통수요 파악
  - 초기 정착단계: 임차주택 및 주거금융 정보 연계, 대중교통·통근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 장기 정착단계: 자녀교육·배우자 경제활동·의료·문화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한 가족단위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전 종사자 대상 조사(2026년 4월, 21명)에서는 이전 예정 종사자가 교통·접근성과 주거·주택을 주요 결핍 우려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기이전 종사자는 일자리·소득과 보육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등 이전 단계별 정책수요에 차이가 나타남(양원탁·이원도, 2026: 86, 89~90)
- 다만 해당 조사는 표본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세종시는 이전 대상 기관별 종사자와 가구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정착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가족동반율·전입률 추정 및 정착지원정책 설계에 반영
- 기존 이전기관 종사자의 실제 전입·통근·가족동반 경험을 함께 분석하여 신규 이전기관의 정착수요 예측에 활용하고, 가족단위 정착패키지와 연계

❍ ❸ 중앙정부 이전 종사자 지원대책과 연계한 정주지원 및 제도개선

- 정부는 2026년 10월 13일 발표에서 이전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인 교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이에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이전·초기 이주지원대책과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실제 세종 거주와 가족동반 정착을 촉진하는 보완적 정책체계를 구축
- 중앙정부: 청사 확보, 이주비 지원, 주택·광역교통 관련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 세종시: 교육·돌봄·의료·문화·생활교통 등 지역 정주서비스 확충 및 정착 지원 정보 통합 제공
-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수요조사 참여,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이전 일정 및 정착지원 정보 공유
-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와 지원제도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과제로 관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이 제안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양도소득세·취득세 특례 확대, 주거금융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 소관 사항은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로 추진(양원탁·이원도, 2026: 187~188)
- 세종시 차원에서는 이전 종사자의 실제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정보 제공, 대중교통·수요응답형 교통(DRT) 개선, 교육·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우선 추진
- 아울러 세종시·행정안전부·행복청·이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기관별 이전 일정, 정착수요, 지원제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공동 관리
-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정책수요가 정주환경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자 참여 및 정기적인 정책 의견수렴 체계를 운영

❍ ❹ 이전에 따른 실제 인구유입·정착성과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인구정책 효과를 이전 종사자 정원이나 청사 입주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실제 주민등록 전입과 가족동반 여부, 장기 거주 등 정착성과를 중심으로 관리
- 기관별 이전 일정과 연계하여 다음의 핵심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
  - 인구유입 성과: 이전기관 종사자 전입자 수, 기존 세종 거주자 비율, 가족동반 전입률
  - 정착 성과: 이전 후 1년·3년 거주 유지율, 단신부임 및 수도권 통근 비율, 가족의 후속 전입률

  - 정주여건 변화: 주거비 부담, 자녀교육·돌봄 이용, 배우자 경제활동, 교통 접근성 및 생활서비스 만족도
  - 기관별 이전 전후 인구이동 자료와 정착수요조사를 연계하여 실제 전입률과 시나리오 추정치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인구유입 전망 및 정책지원 수준을 주기적으로 보정

- 특히 이전기관 입지와 생활권별 주거·교육·교통 수요의 공간적 차이를 분석하여, 신규 유입인구가 특정 생활권에 집중될 경우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선제적 확충에 활용
-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의 인구유입·정착성과를 세종시 인구정책 성과관리 및 핵심과제 ⑤ 인구영향 검토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기관 이전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

[표 6-2] 세종시 인구정책 핵심 정책과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2026~2027)	중기(2028~2030)	장기(2031~2033 이후)
①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 검토	도시교통공사 기능진단, 교통·개발 기능 분리 필요성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설립 추진(조례·출자 등) 및 읍·면 시범 개발사업 착수	개발이익의 읍·면 재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읍·면 전략개발	북부 읍·면 등 후보지 발굴 및 패키지형 개발 기본구상	일자리+주거+교통+생활SOC 결합형 시범개발 추진	생활권별 성장거점 완성, 인구유입·정착효과 평가
	가족단위 정착패키지	우선 이전기관 대상 패키지 기본 틀 설계	이전기관 확대 적용 및 민간 전문서비스 연계	국가 중추기능 이전 전반으로 확대 운영
② 정착 중심 성과관리	전입자1·3·5년 정착률 관리	정착률 지표 정의 및 기준선(baseline) 산출	연령·가구유형·전입사유별 정착률 정례 분석·공표	정착률을 시정 핵심 인구지표로 제도화
	재전출 원인 모니터링	전출사유·전출지역 분석체계 설계	주요 위험집단(수도권 재유출, 청년 교육·직업 전출) 상시 관리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설계 환류 정착
	성과지표–예산 연계	주요 사업에 '정착기여도' 항목 시범 적용	인구정책 관련 사업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	정착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 정착
③ 생애 이행형 정착정책	세종형 청년정착 패키지	기존 일자리·주거·가족·돌봄 사업의 생애단계별 재분류	생애단계별 패키지 통합 제공	성과평가 기반 패키지 재설계
	공동캠퍼스·지역대학 정착거점화	지역기업·공공기관 연계 일경험·인턴십 시범	교육→일경험→취업→주거 경로 체계화, 후속교육 확충	집현동 대학가형 복합공간 등과 연계한 정착거점 완성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통합전달	청년청 기능 설계(기획·조정·성과관리 중심), 전달거점 연계	청년청 등 전담조직 운영, 통합안내체계 가동	청년정책 통합전달체계 정착
④ 공간 차등형 인구정책	생활권별 목표 차별화	동·조치원읍·북부 읍·면·행복도시 인접 면지역별 목표 설정	생활권별 목표를 부서 계획·예산에 반영	생활권별 성과평가 및 목표 재설정

핵심과제	세부과제	단기(2026~2027)	중기(2028~2030)	장기(2031~2033 이후)
④ 공간 차등형 인구정책	읍·면 인구활력 프로젝트	시범지역 선정 및 지역자원 기반 사업 설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확산	읍·면 인구활력 회복의 구조적 기반 확보
	세종형 인구이동 조기경보체계	본 연구의 읍·면·동 분석체계를 상시 관리도구로 전환, 위험신호 기준 설정	위험 발생 시 부서 공동대응 절차 운영	예측 기능을 포함한 체계 고도화
⑤ 범부서 인구대응 체계	인구영향 검토 도입	주요 정책보고서·사업계획에 검토항목 시범 포함	적용대상 확대 및 검토지침 마련	조례 등 제도화 여부 검토
	범부서 인구정책 조정체계	관련 부서 협의체 구성, 사업 중복·공백1차 점검	정례 점검 및 공동 인구목표 운영	시정 전반의 인구대응체계로 정착
	인구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차 인구변화 진단 정례화	진단 결과의 차년도 정책·예산 환류	공약·도시개발·산업정책 성과의 인구변화 연계 점검 정착
⑥ 중앙 행정기관 2차 이전 대응	단계별 인구유입 시나리오	2027년 이전 대상 27개 기관(2,995명) 중심 저·중·고위 시나리오 산출 및 반기별 갱신체계 구축	청사 신축 후 이전 대상 17개 기관(6,934명)의 단계별 이전계획 반영 및 시나리오 갱신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연계한 중장기 시나리오 운영
	기관별 맞춤형 정착지원	우선 이전기관 종사자·가구 정착수요조사 및 이전 준비·초기 정착지원체계 구축	이전기관 확대에 따른 가족단위 정착지원 시행 및 기관별 수요 반영	추가 이전기관으로 지원 확대 및 정착성과 기반 지원체계 개선
	국회·대통령 소속기관 이전 종사자 정주지원 연계	특별공급·세제 특례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정주지원 협의체 구성 검토	주거·교통·교육·돌봄 지원 연계 및 종사자 사전 정착수요조사	의사당 등 실제 업무개시와 연계한 종사자·가구 정착지원 및 성과관리
	실제 인구유입·정착성과 모니터링	전입률·가족동반율·거주 유지율 등 지표 설계 및 기준선 구축	기관별 실제 전입·재전출·가족동반 정착성과 정례 분석	장기 정착성과 평가 및 인구유입 시나리오·정주정책 환류

2. 정책 제언

□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종합 정책 제언 개요[13)]

○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세종시 인구변화 진단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기존 정책과제를 보완하고 향후 세종시 인구정책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양적 인구성장에서 인구구조의 균형과 정주 지속성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복도시 개발, 신규 주택공급을 기반으로 빠른 인구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고 청년층의 이동성이 확대되는 등 기존 성장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인구정책은 단순한 총인구 증가보다 인구구조의 균형, 정주 지속성, 시민 삶의 질,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
-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되, 실제 인구정책의 성과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율뿐 아니라 연령구조, 계속거주의향, 정주만족도, 재전출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주택공급 역시 단순한 인구유입 수단이라기보다 도시의 자족성과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도시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이에 세종시 인구정책은 중장기적으로 ① 인구구조의 균형 유지, ② 정주

13) 최종연구보고회(2026년 10월 8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

지속성과 삶의 질 제고,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핵심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둘째, 신규 인구유입과 함께 기존 주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장기정착 기반 강화**

○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 유입된 청년·가족세대가 중장년기에 진입하고 자녀도 성장하면서 새로운 정주수요와 이동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는 정책과 함께, 이미 유입된 주민이 생애주기의 변화에도 세종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함

- 청년기에는 교육·일자리·초기주거, 가족형성기에는 주거안정·돌봄·일·생활 균형, 중장년기에는 자녀교육·경력발전·주거 선택권 등 생애단계별 주요 이탈요인을 점검
- 특히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과 교육수요 변화가 가구 단위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의 협력을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구조 역시 다양한 가구형태와 생애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공급량 중심에서 거주 안정성과 주거 선택권 중심으로 접근

□ **셋째, 객관적 정주여건과 함께 지역에 대한 정주의향·관계형성까지 정책범위 확대**

○ 일자리·주거·교육·교통·문화 등 객관적인 정주여건은 지역정착의 중요한 조건이나, 이러한 여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장기적인 정주의향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님

- 특히 청년층의 경우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할과 가능성을 경험하는 과정이 지역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은 '정주여건 개선 → 정착'이라는 단선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관계 형성 → 참여 경험 → 정주의향 →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고려한 설계가 요구됨

- 지역대학, 청년활동 공간, 지역 커뮤니티,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청년을 연결하여 지역에서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행정 역시 모든 사업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정책성과도 인구유입이나 사업참여 실적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 변화를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함

- 지역활동 참여, 관계망 형성, 지역사회 소속감, 계속거주의향 등 정착으로 이어지는 질적 변화를 보완적 성과지표로 활용
- 특히 청년정책은 단순한 거주기간 연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

□ 넷째, '젊은 도시' 이후의 고령화 1인가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 세종시는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이나, 향후 출범 초기 유입인구의 연령 상승과 저출생 지속에 따라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청년·신혼·출산 중심의 기존 정책과 함께 중장년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돌봄·교통·의료·생활서비스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 1인가구는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따라 형성 원인과 정책수요가 상이하므로 주거·안전·돌봄·사회적 관계망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세분화된 접근 필요
- 읍·면과 동지역의 고령화 및 가구구조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생활권별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요 별도 관리 필요

○ 인구정책의 대상도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외국인·이주배경 인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취업·정주·가족생활·교육·사회통합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할 시기임
- 통근·통학·업무·교육 등으로 세종을 이용하는 생활인구 역시 도시서비스 수요와 지역활력의 관점에서 검토할 대상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만큼, 1인가구·외국인·이주배경인구 및 생활인구에 대한 심층분석은 후속연구에서 다뤄져야 함

□ **다섯째,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을 현황 진단에서 정책효과 검증 단계로 발전**

❍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인구이동 미시자료 활용과 데이터 협업을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인구정책 진단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읍·면·동별 전입·전출, 연령·성별·이동사유를 일정 주기로 분석하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사회조사 등과 연계하여 실제 이동행태와 정주의향을 함께 분석
- 청년인구 감소와 순이동은 서로 다른 현상일 수 있으므로 연령집단의 진입·이탈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실제 지역 간 이동을 구분하여 정책대상과 개입시점을 설정할 필요
- 향후에는 일자리·교육·주거·교통 등 주요 정책요인이 실제 인구이동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주요 개발사업 및 인구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정책평가 연구를 확대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대규모 정책변화 역시 예상 유입인구 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입·가족동반·정착·재전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 **(활용)** 본 연구성과와 인구데이터를 기획·산업·도시·주택·교육·교통 등 관계부서(시의회 포함)와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과의 정책협의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시정 의사결정과 정책평가, 국가·지역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2025),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국토교통부(2025.12.12.), 〈2026년 업무계획〉.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5.9.30.),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6.5.7.),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25),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6.1.12.),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26), 〈시정 5기 공약과제 실천계획서(안)〉.
한국고용정보원(2025),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0.13.),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6.7.2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6.7.6.), 〈집현동 캠퍼스공원구역 특화계획 관련 자료〉.

민보경(2026),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6-08호.
양원탁·이원도(2026),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정주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2026-22.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성은 외(2019),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외(2023),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대전세종연구원.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대전일보, "대전일보, ''젊은도시' 세종시도 읍면지역 학교 소멸 '경고등'", 2026년 1월 13일자.
대전일보, "대학생 모이는 '세종 대학가' 만든다‥집현동 특화계획 시동", 2026년 7월 6일자.
머니투데이, “법무부·성평등부 내년부터 세종 이전…발전사 합치고, LH 쪼갠다”, 2026년 9월 3일자.
세종의소리, “결국 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 온다”, 2026년 9월 3일자.
충청리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내년 세종시 이전”, 2026년 9월 4일자.

세종시 인구변화 진단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 충청지방데이터청과의 데이터 협업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5, 6층
Tel. 044-550-3500 Fax. 044-866-8552
www.sri.re.kr

비매품/무료
93350
9 791124 215258
ISBN 979-11-24215-25-8